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5 (한국아동패널 II)

조미라·최효미·이지윤·김혜진·강민권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5 (한국아동패널 II)

저 자

조미라, 최효미, 이지윤, 김혜진, 강민권

연구진

연구책임자 조미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효미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지윤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김혜진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강민권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연구보고 2025-23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5
(한국아동패널 II)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인 황옥경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육아정책연구소
전화 02) 398-7700
팩스 02) 398-7798
홈페이지 <http://www.kicce.re.kr>
인쇄처 ㈜에이치에이엔컴퍼니 02)2269-9917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9-11-6865-137-1 [93330]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Ⅱ)」는 우리나라 최초로 신생아 시기부터 아동을 추적하는 장기 종단연구로, 2008년생을 대상으로 2008년에 1차 조사를 시작하여 아동이 성인이 되는 2027년 20차까지 계획되어 있는 연구입니다. 한국아동패널은 아동뿐만 아니라 주양육자, 아동의 부모 각각, 영유아기 육아지원기관의 교사, 아동기 학교의 담임교사를 조사대상으로 함으로써, 아동과 아동을 둘러싼 환경, 즉 아동의 부모와 가족, 영유아기의 돌봄 및 보육, 아동기의 학교와 사교육, 지역사회와 정책 부문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연구입니다.

2025년 현재 패널 아동은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들어와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제18차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사 수행과 더불어 2023년에는 패널 아동의 중학교 3학년 시기에 해당하는 제16차 조사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였고, 2024년에 조사된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의 제17차 조사 자료에 대해 연구진이 기초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표본이탈 패턴을 분석하고, 영역별 주요 변인의 추이를 검토하였습니다. 매해 학술대회를 개최해 온 한국아동패널 사업은 2025년에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학문 교류의 장을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동의 고등학교 3학년과 성인기 진입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2026년과 2027년 조사를 대비하는 준비의 해로 삼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성실하게 조사에 참여해 주신 패널 가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해 의미 있는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종단 데이터 축적 연구의 가치를 높여 주시는 이용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나날이 어려워지는 조사환경 속에서도 한국아동패널 사업을 위해 애써 주시는 전국의 조사원들과, 아동의 성장·발달과 함께 변화를 고민해 온 연구진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연구진의 의견으로 육아정책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2025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 옥 경

요약	1
I. 서론: 사업 및 연구개요	23
1. 필요성 및 목적	25
2. 주요내용	26
3. 주요방법	28
II. 18차년도(2025년) 사업보고	33
1. 18차년도 조사과정	35
2. 18차년도 조사내용	47
3. 패널유지 방안	60
4.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63
III. 17차년도(2024년) 데이터 기초분석	73
1. 17차년도 조사개요	75
2. 아동 특성	77
3. 부모 및 가구 특성	165
4. 학교 및 사교육 특성	197
5.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228
6. 소결	243
IV. 1~17차년도 종단자료 분석	251
1. 1~17차 표본이탈 패턴분석	253
2. 1~17차 주요 변인 추이분석	271

V. 결론: 분석의 시사점 및 조사를 위한 제언	301
1.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시사점	303
2. 향후 조사를 위한 제언	306
참고문헌	333
Abstract	342
부록	345
부록 1. 18차년도(2025년 조사) IRB 승인통지서	347
부록 2. 17차년도(2024년 조사) 아동 질문지	348
부록 3. 17차년도(2024년 조사) 아동 질문지_심층조사	378
부록 4. 17차년도(2024년 조사) 보호자용 설문지	382
부록 5. 17차년도(2024년 조사) 어머니 질문지	410
부록 6. 17차년도(2024년 조사) 아버지 질문지	420
부록 7. 17차년도(2024년 조사) 학교(담임교사) 질문지	430
부록 8. 17차년도(2024년 조사) 유예 및 회고조사 질문지	435



표 목차

〈표 Ⅰ-2-1〉 한국아동패널 연도별 조사 실시 개요	27
〈표 Ⅰ-3-1〉 2025년도 한국아동패널 조사대상별 조사방법 및 주요 조사내용 ..	29
〈표 Ⅰ-3-2〉 자문회의 및 간담회 실시 내용	30
〈표 Ⅰ-3-3〉 데이터설명회 및 학술대회 개요	31
〈표 Ⅱ-1-1〉 18차년도 설문지별 조사의 구성	36
〈표 Ⅱ-1-2〉 2025년 18차년도 조사원 집체교육 일정	39
〈표 Ⅱ-1-3〉 2025년 18차년도 조사의 유효표본	39
〈표 Ⅱ-1-4〉 참여정도에 따른 패널가구의 유형 구분	40
〈표 Ⅱ-1-5〉 2025년 18차년도 조사진행 과정: 월별 패널가구 접속 등 주요 일정	41
〈표 Ⅱ-1-6〉 조사대상별 조사방법	42
〈표 Ⅱ-1-7〉 2025년 조사대상별 조사참여율	44
〈표 Ⅱ-1-8〉 2025년 조사유형별 조사참여율	44
〈표 Ⅱ-1-9〉 2008~2025년 지역별 조사 참여가구수	45
〈표 Ⅱ-1-7〉 18차년도 지역별 조사원 간담회 일정	46
〈표 Ⅱ-1-8〉 18차년도 지역별 조사원 간담회 내용	46
〈표 Ⅱ-2-1〉 16~18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일상생활 영역	48
〈표 Ⅱ-2-2〉 16~18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신체 및 건강 특성 영역	49
〈표 Ⅱ-2-3〉 16~18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인지 및 언어 발달 영역	51
〈표 Ⅱ-2-4〉 16~18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사회 및 정서 발달 영역	53
〈표 Ⅱ-2-5〉 16~18차년도 부모 특성 조사변인	55
〈표 Ⅱ-2-6〉 16~18차년도 가구 특성 조사변인	56
〈표 Ⅱ-2-7〉 16~18차년도 학교 및 사교육 특성 조사변인	58
〈표 Ⅱ-2-8〉 16~18차년도 지역 및 정책 특성 조사변인	60
〈표 Ⅱ-3-1〉 패널가구 문자, SNS 채널 관리	63
〈표 Ⅱ-3-2〉 패널가구 문자 및 SNS 채널 관리 일정	63
〈표 Ⅱ-4-1〉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수	64
〈표 Ⅱ-4-2〉 연도별 분석방식에 따른 논문수: 2011~2024년	65
〈표 Ⅱ-4-3〉 연도별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차수: 2011~2024년	65

〈표 II-4- 4〉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변수: 2023, 2024년 발간 논문 기준	66
〈표 II-4- 5〉 데이터설명회 및 학술대회 개요	68
〈표 II-4- 6〉 제16회 한국아동패널 및 제3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공동학술대회 추진 주요 일정	69
〈표 II-4- 7〉 제16회 한국아동패널 및 제3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공동 학술대회 일정	70
〈표 II-4- 8〉 제16회 한국아동패널 및 제3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공동 학술대회 발표 논문 목록	71
〈표 III-1- 1〉 17차년도 조사대상자별 조사 참여자수 및 비율	75
〈표 III-1- 2〉 17차년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6
〈표 III-2- 1〉 17차년도 아동 특성 변인	77
〈표 III-2- 2〉 최근 7일간 아동의 식생활 진단_식품	80
〈표 III-2- 3〉 최근 7일간 아동의 식생활 진단_음료	81
〈표 III-2- 4〉 아동의 식생활 진단_기타	83
〈표 III-2- 5〉 가족과의 식사 횟수(일주일 평균)	83
〈표 III-2- 6〉 아동의 기상 및 취침시간	85
〈표 III-2- 7〉 아동의 수면 시간	86
〈표 III-2- 8〉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공·사교육 기관 이용	87
〈표 III-2- 9〉 아동의 책 읽기 시간	88
〈표 III-2-10〉 아동의 숙제 및 학습, 인터넷 수업 등 통신교육 시간	89
〈표 III-2-11〉 아동의 방과후 친구들과 공부하는 시간	90
〈표 III-2-12〉 아동의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 시청, 게임 시간	91
〈표 III-2-13〉 아동의 스마트폰, 2G폰(피쳐폰), 태블릿 등의 기기 소지	92
〈표 III-2-14〉 아동의 스마트폰, PC(인터넷) 이용 여부/이용시간	93
〈표 III-2-15〉 아동의 스마트폰, PC(인터넷) 용도별 이용 정도	94
〈표 III-2-16〉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부모응답	95
〈표 III-2-17〉 아동의 스마트폰(스마트기기) 과의존 척도: 아동응답	96
〈표 III-2-18〉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스포츠, 집 밖 레저활동 및 취미생활	98
〈표 III-2-19〉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사교활동 대면 및 비대면 교체	100
〈표 III-2-20〉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종교활동, 반려(애완)동물 돌보기	101
〈표 III-2-21〉 아동의 한 번에 30분 이상 실내외에서 신체활동 일수(지난 7일간)	102
〈표 III-2-22〉 취미(악기, 운동 포함) 유무 및 주로 하는 취미의 종류: 1순위	103

〈표 Ⅲ-2-23〉 주로 하는 취미의 종류: 1+2순위	103
〈표 Ⅲ-2-24〉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기본생활 시간, 가사 돕기 시간	104
〈표 Ⅲ-2-25〉 아동의 가사 참여 정도	105
〈표 Ⅲ-2-26〉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장보기 및 쇼핑, 친인척 방문	106
〈표 Ⅲ-2-27〉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당일여행 및 나들이, 국내여행, 해외여행 및 연수	107
〈표 Ⅲ-2-28〉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문화체험/예술감상/견학, 종교활동 ..	109
〈표 Ⅲ-2-29〉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110
〈표 Ⅲ-2-30〉 아동의 신체치수: 신장, 허리둘레, 체중, BMI	111
〈표 Ⅲ-2-31〉 아동의 특성별 신체치수	111
〈표 Ⅲ-2-32〉 신체적 자아상	112
〈표 Ⅲ-2-33〉 아동이 인식한 아동의 체형	113
〈표 Ⅲ-2-34〉 체중조절 경험	114
〈표 Ⅲ-2-35〉 체중조절 방법(중복응답)	115
〈표 Ⅲ-2-36〉 아동의 시력 교정도구 착용 시기	115
〈표 Ⅲ-2-37〉 남학생의 2차 성징(몽정) 발현 여부 및 처음 나타난 시기	116
〈표 Ⅲ-2-38〉 여학생의 2차 성징(초경) 발현 여부 및 처음 나타난 시기	116
〈표 Ⅲ-2-39〉 보호자가 인식한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117
〈표 Ⅲ-2-40〉 아동의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 결과	118
〈표 Ⅲ-2-41〉 아동의 치료 및 입원 여부	118
〈표 Ⅲ-2-42〉 아동의 장애 여부	119
〈표 Ⅲ-2-43〉 아동의 만성질환별 진단 및 치료 여부	120
〈표 Ⅲ-2-44〉 아동의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121
〈표 Ⅲ-2-45〉 아동의 학업성취도: 부모응답(1)	121
〈표 Ⅲ-2-46〉 아동의 학업성취도: 부모응답(2)	122
〈표 Ⅲ-2-47〉 아동의 주관적 학업성취도(반 기준): 아동 인식	123
〈표 Ⅲ-2-48〉 아동의 주관적 학업성취도(반 기준): 보호자 인식	124
〈표 Ⅲ-2-49〉 학업 스트레스	125
〈표 Ⅲ-2-50〉 자기조절학습	126
〈표 Ⅲ-2-51〉 아동의 자아존중감	127
〈표 Ⅲ-2-52〉 아동의 GRIT(끈기)	127
〈표 Ⅲ-2-53〉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128
〈표 Ⅲ-2-54〉 아동의 우울	129

〈표 Ⅲ-2-55〉 아동의 학교적응(중·고등학교)	130
〈표 Ⅲ-2-56〉 아동의 학교적응(중·고등학교): 학교공부 및 학교친구	131
〈표 Ⅲ-2-57〉 아동의 학교적응(중·고등학교): 학교교사 및 학교생활	132
〈표 Ⅲ-2-58〉 아동의 이성친구 유무	133
〈표 Ⅲ-2-59〉 아동의 또래애착	134
〈표 Ⅲ-2-60〉 폭력 피해 경험: 전체	135
〈표 Ⅲ-2-61〉 폭력 피해 경험: 한 개 항목 이상에서의 경험 여부	136
〈표 Ⅲ-2-62〉 폭력 가해 경험: 전체	137
〈표 Ⅲ-2-63〉 폭력 가해 경험: 한 개 항목 이상에서의 경험 여부	138
〈표 Ⅲ-2-64〉 아동의 음주경험 여부 및 첫 경험 시기	139
〈표 Ⅲ-2-65〉 아동의 음주 빈도	140
〈표 Ⅲ-2-66〉 아동의 음주 장소(중복응답)	140
〈표 Ⅲ-2-67〉 아동의 주류 구입 경험	141
〈표 Ⅲ-2-68〉 아동의 흡연경험 여부 및 첫 경험 시기	142
〈표 Ⅲ-2-69〉 아동의 흡연일수	142
〈표 Ⅲ-2-70〉 아동의 담배 입수 경로	143
〈표 Ⅲ-2-71〉 아동의 담배 구입 경험	144
〈표 Ⅲ-2-72〉 아동의 고등학교 진학 후 계획	145
〈표 Ⅲ-2-73〉 아동의 대학교 진학 희망 이유	146
〈표 Ⅲ-2-74〉 아동의 희망하는 대학 전공계열	147
〈표 Ⅲ-2-75〉 아동의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	148
〈표 Ⅲ-2-76〉 아동의 진로성숙도: 전체	148
〈표 Ⅲ-2-77〉 아동의 진로성숙도: 세부 문항별	150
〈표 Ⅲ-2-78〉 아동의 진로진학 활동	151
〈표 Ⅲ-2-79〉 아동의 결혼 의사/자녀양육 의사	152
〈표 Ⅲ-2-80〉 아동의 결혼가치관 및 자녀가치관	153
〈표 Ⅲ-2-81〉 아동의 가족기능 인식	154
〈표 Ⅲ-2-82〉 가족 내 성역할 인식	155
〈표 Ⅲ-2-83〉 아동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156
〈표 Ⅲ-2-84〉 아동에 대한 용돈 지급 여부 및 지급 시 액수	157
〈표 Ⅲ-2-85〉 아동의 용돈 사용처	158
〈표 Ⅲ-2-86〉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159
〈표 Ⅲ-2-87〉 아동의 공동체 의식: 전체	159

〈표 Ⅲ-2-88〉 아동의 공동체 의식: 세부 문항별	160
〈표 Ⅲ-2-89〉 국민정체성	162
〈표 Ⅲ-2-90〉 다문화 거부·회피정서	163
〈표 Ⅲ-2-91〉 세계시민행동 의지	164
〈표 Ⅲ-2-92〉 외국이주민에 대한 지각된 위협 인식	165
〈표 Ⅲ-3- 1〉 17차년도 부모 및 가구 특성 변인	166
〈표 Ⅲ-3- 2〉 부모 연령	167
〈표 Ⅲ-3- 3〉 아동과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이유	167
〈표 Ⅲ-3- 4〉 부모의 결혼상태 및 기간	168
〈표 Ⅲ-3- 5〉 부모의 부부 갈등	168
〈표 Ⅲ-3- 6〉 부모의 자아존중감	170
〈표 Ⅲ-3- 7〉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171
〈표 Ⅲ-3-8〉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172
〈표 Ⅲ-3-9〉 부모의 삶의 만족도	173
〈표 Ⅲ-3-10〉 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173
〈표 Ⅲ-3-11〉 부모의 장애 유무	174
〈표 Ⅲ-3-12〉 부의 한 번에 30분 이상 실내외에서 신체활동 일수(지난 7일간)	175
〈표 Ⅲ-3-13〉 모의 한 번에 30분 이상 실내외에서 신체활동 일수(지난 7일간)	176
〈표 Ⅲ-3-14〉 부모의 음주 실태	177
〈표 Ⅲ-3-15〉 부모의 흡연 실태	177
〈표 Ⅲ-3-16〉 부의 스마트폰(스마트기기) 과의존 척도: 아버지 응답	178
〈표 Ⅲ-3-17〉 모의 스마트폰(스마트기기) 과의존 척도: 어머니 응답	179
〈표 Ⅲ-3-18〉 부모 취·학업 상태	179
〈표 Ⅲ-3-19〉 모의 취·학업 상태	180
〈표 Ⅲ-3-20〉 부의 취·학업 상태	181
〈표 Ⅲ-3-21〉 부모의 재직 상태 및 종사상 지위	182
〈표 Ⅲ-3-22〉 취업부모 근무일 및 시간	183
〈표 Ⅲ-3-23〉 취업부모 일자리 전반적 만족도	184
〈표 Ⅲ-3-24〉 부모의 성취압력	185
〈표 Ⅲ-3-25〉 부모애착: 어머니	185
〈표 Ⅲ-3-26〉 부모애착: 아버지	186
〈표 Ⅲ-3-27〉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187
〈표 Ⅲ-3-28〉 아동학대: 신체적 학대 경험	188

〈표 III-3-29〉 아동학대: 언어적 학대 경험	189
〈표 III-3-30〉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경험	190
〈표 III-3-31〉 부모 감독: 보호자 응답	191
〈표 III-3-32〉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1)	192
〈표 III-3-33〉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2)	193
〈표 III-3-34〉 부모-자녀 의사소통	194
〈표 III-3-35〉 가구 구성 및 가구원수	195
〈표 III-3-36〉 아동의 단독 방 및 반려동물 여부	195
〈표 III-3-37〉 월평균 가구소득 및 어머니/아버지 근로소득	195
〈표 III-3-38〉 월평균 지출	196
〈표 III-3-39〉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196
〈표 III-4- 1〉 17차년도 학교·사교육 특성 조사변인	197
〈표 III-4- 2〉 학교 재학 여부	195
〈표 III-4- 3〉 고등학교 미진학 사유	198
〈표 III-4- 4〉 대체이용기관	199
〈표 III-4- 5〉 전학 여부	199
〈표 III-4- 6〉 학교 유형	200
〈표 III-4- 7〉 남녀공학 여부	201
〈표 III-4- 8〉 학교 풍토: 교사 풍토	202
〈표 III-4- 9〉 학교 풍토: 학생 풍토	203
〈표 III-4-10〉 학교 풍토: 학부모 풍토	204
〈표 III-4-11〉 학생비행	205
〈표 III-4-12〉 전체 학급수 및 해당 학급 학생수	206
〈표 III-4-13〉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	206
〈표 III-4-14〉 교사 담당과목	207
〈표 III-4-15〉 교사 성별 및 경력	207
〈표 III-4-16〉 교사 업무 스트레스	208
〈표 III-4-17〉 교사효능감	209
〈표 III-4-18〉 교사-아동 인식(1)	210
〈표 III-4-19〉 교사-아동 인식(2)	210
〈표 III-4-20〉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횟수	211
〈표 III-4-21〉 학교 서비스 만족도(1)	212
〈표 III-4-22〉 학교 서비스 만족도(2)	213

〈표 Ⅲ-4-23〉 학교 수업 이외 교육 및 사교육, EBS 여부	214
〈표 Ⅲ-4-24〉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중복응답)	215
〈표 Ⅲ-4-25〉 과목별 EBS 시청시간(1)	216
〈표 Ⅲ-4-26〉 과목별 EBS 시청시간(2)	217
〈표 Ⅲ-4-27〉 학교 외 교육서비스 주당 평균 이용시간	218
〈표 Ⅲ-4-28〉 학교 외 교육서비스 만족도	218
〈표 Ⅲ-4-29〉 학교 외 교육서비스 월평균 이용 비용	219
〈표 Ⅲ-4-30〉 학교 외 교육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 정도	220
〈표 Ⅲ-4-31〉 사교육 이용 이유: 1순위	221
〈표 Ⅲ-4-32〉 사교육 이용 이유: 1+2순위	222
〈표 Ⅲ-4-33〉 사교육 교재 월평균 비용	222
〈표 Ⅲ-4-34〉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개수	223
〈표 Ⅲ-4-35〉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부담 정도	224
〈표 Ⅲ-4-36〉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부담 이유(1순위)	225
〈표 Ⅲ-4-37〉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부담 이유(1+2순위)	226
〈표 Ⅲ-4-38〉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효과 인식	227
〈표 Ⅲ-4-39〉 아동이 인식한 EBS 효과 인식	228
〈표 Ⅲ-5- 1〉 17차년도 지역규모 및 정책 특성 조사변인	229
〈표 Ⅲ-5- 2〉 출생 후 총 이사 횟수	229
〈표 Ⅲ-5- 3〉 최근 이사 사유	230
〈표 Ⅲ-5- 4〉 지역규모	230
〈표 Ⅲ-5- 5〉 6개 권역 구분	231
〈표 Ⅲ-5- 6〉 교육·의료·복지시설 접근 편의성	231
〈표 Ⅲ-5- 7〉 여가공간·체육·문화시설 접근 편의성	233
〈표 Ⅲ-5- 8〉 교육·의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234
〈표 Ⅲ-5- 9〉 여가공간·체육·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234
〈표 Ⅲ-5-10〉 양육환경 안전성	235
〈표 Ⅲ-5-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237
〈표 Ⅲ-5-12〉 취약계층 지원 사업 수급 경험	238
〈표 Ⅲ-5-13〉 사교육 경감대책 효과성 인식(1)	238
〈표 Ⅲ-5-14〉 사교육 경감대책 효과성 인식(2)	239
〈표 Ⅲ-5-15〉 사교육 경감대책 효과성 인식(3)	240
〈표 Ⅲ-5-16〉 사교육 경감대책 효과성 인식(4)	240

〈표 Ⅲ-5-17〉 사교육 경감대책 효과성 인식(5)	241
〈표 Ⅲ-5-18〉 사교육 경감대책 효과성 인식(6)	242
〈표 Ⅲ-5-19〉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	243
〈표 Ⅳ-1- 1〉 가구 특성 및 아동 특성 변수 정의	256
〈표 Ⅳ-1- 2〉 조사차수별 응답 현황	257
〈표 Ⅳ-1- 3〉 유사 패널조사의 표본유지율	258
〈표 Ⅳ-1- 4〉 표본이탈 유형 집단별 응답횟수	262
〈표 Ⅳ-1- 5〉 표본이탈 유형 집단별 평균 응답횟수	263
〈표 Ⅳ-1- 6〉 표본이탈 유형별 가구 특성	264
〈표 Ⅳ-1- 7〉 표본이탈 유형별 아동 특성	264
〈표 Ⅳ-1- 8〉 표본이탈 유형별 부모 특성	265
〈표 Ⅳ-1- 9〉 표본의 응답횟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OLS)	265
〈표 Ⅳ-1-10〉 표본이탈 유형에 영향을 미친 요인(다항로짓 분석)	267
〈표 Ⅳ-1-11〉 표본이탈 유형별 가구 특성	269
〈표 Ⅳ-2- 1〉 추이분석에 활용된 영역별 변인	271
〈표 Ⅳ-2- 2〉 일일 생활시간- 평일(8차~17차)	273
〈표 Ⅳ-2- 3〉 일일 생활시간- 주말(8차~17차)	273
〈표 Ⅳ-2- 4〉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9차~17차)	275
〈표 Ⅳ-2- 5〉 아동의 인터넷 중독(10차~17차)	276
〈표 Ⅳ-2- 6〉 학업 스트레스(11차~17차)	278
〈표 Ⅳ-2- 7〉 성별, 지역규모별 학업 스트레스(11차~17차)	279
〈표 Ⅳ-2- 8〉 학교 수업 이외 교육 및 사교육 이용 여부(8차~17차)	281
〈표 Ⅳ-2- 9〉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이용아동(8차~17차)	282
〈표 Ⅳ-2-10〉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월평균 비용-이용아동(8차~17차)	283
〈표 Ⅳ-2-11〉 진로성숙도(13차~17차)	286
〈표 Ⅳ-2-12〉 부모 성취압력(11차~17차)	286
〈표 Ⅳ-2-13〉 아동의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8차~17차)	287
〈표 Ⅳ-2-14〉 부모의 취/학업 상태(1차~17차)	289
〈표 Ⅳ-2-15〉 부모의 종사상 지위(1차~17차)	290
〈표 Ⅳ-2-16〉 부모의 결혼만족도(1차~16차)	292
〈표 Ⅳ-2-17〉 부모의 삶의 만족도(8차~17차)	294
〈표 Ⅳ-2-18〉 아동의 신장(1차~17차)	295
〈표 Ⅳ-2-19〉 아동의 체중(1차~17차)	296

〈표 IV-2-20〉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12차~17차)	298
〈표 V-2- 1〉 국내 청소년-성인 전환기를 포함한 주요 조사연구	310
〈표 V-2- 2〉 국외 청소년-성인 전환기를 포함한 주요 조사연구	319
〈표 V-2- 3〉 국외 청소년-성인 전환기를 포함한 주요 조사연구의 행정 데이터 연계	326



그림 목차

[그림 II-1-1] 18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사업 조사과정	35
[그림 III-1-2] 2008~2025년 조사참여율	43
[그림 II-3-1] 패널아동 대상 온라인 이벤트 행사 포스터 및 대표작	61
[그림 II-3-2] 패널아동 대상 온라인 이벤트 학술대회 전시	62
[그림 II-4-1] 한국아동패널,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데이터설명회 영상자료	68
[그림 II-4-2] 패널 공동학술대회 논문공모 및 개최 포스터	70
[그림 II-4-3] 패널 공동학술대회 개최 모습	71
[그림 III-2-1] 부모가 응답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아동이 자가응답한 스마트폰 중독 비교	97
[그림 IV-1-1] 전체 표본 사건계열 그래프	260
[그림 IV-1-2] 표본이탈 유형 집단별 사건계열 그래프	260
[그림 IV-2-1] 일일 생활시간 - 평일/주말(8차~17차)	274
[그림 IV-2-2] 미디어 이용시간(9차~17차)	276
[그림 IV-2-3] 인터넷 중독 분류(10차~17차)	277
[그림 IV-2-4] 학업 스트레스(11차~17차)	278
[그림 IV-2-5] 아동성별 및 지역규모별 학업 스트레스(11차~17차)	279
[그림 IV-2-6] 학교 수업 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 및 월평균 비용- 이용아동(8차~17차)	284
[그림 IV-2-7] 진로성숙도(13차~17차)	285
[그림 IV-2-8] 부모 성취압력(11차~17차)	287
[그림 IV-2-9] 아동의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8차~17차)	288
[그림 IV-2-10] 부모의 취업상태(1차~17차)	289
[그림 IV-2-11]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1차~17차)	291
[그림 IV-2-12]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1차~17차)	292
[그림 IV-2-13] 부모의 결혼만족도(1차~16차)	293
[그림 IV-2-14] 부모의 삶의 만족도(8차~17차)	294
[그림 IV-2-15] 아동의 신장(1차~17차)	295
[그림 IV-2-16] 아동의 체중(1차~17차)	297
[그림 IV-2-17]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12차~17차)	298

1. 서론: 사업 및 연구개요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 II)」는 한국 최초의 신생아 시기부터의 장기 종단연구로, 2008년생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조사를 시작해 아동이 성인이 되는 2027년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됨.
- 아동 본인 외에도 아동의 부모와 가족, 돌봄 및 보육(영유아기), 학교·사교육(아동기), 지역사회와 정책 부문까지 포괄하는 연구로서, 아동, 주양육자, 아동의 부모, 육아지원기관의 교사(영유아기), 학교의 담임교사(아동기)를 조사대상으로 함.
- 2025년 17세가 되어 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들어선 패널아동을 대상으로 18차년도 조사가 수행됨.
- 2023년 패널아동의 중학교 3학년 시기 조사된 16차 조사자료를 일반에 공개하였고 2024년 조사된 고등학교 1학년 시기 17차 조사자료로 연구진의 기초분석을 수행함.
- 2025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 관리하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공동으로 데이터설명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아동의 고3, 성인기 진입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2026년과 2027년의 조사를 대비하는 해로 삼고 준비함.

나. 연구 내용

- 한국아동패널 18차년도 조사 실시
 - 2025년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진입하는 패널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과 주양육자, 부모 각각, 아동의 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함.
- 2024년 17차 본조사 자료와 5차 심층조사 자료로 기초분석 수행
 - 아동, 부모, 가족, 학교, 지역사회, 정책 영역에 걸쳐 횡단면 기초분석을 실시. 이때 5차 심층조사로 수행된 가족 및 다문화 인식 조사자료를 포함해 분석함.

- 한국아동패널의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표본이탈 패턴 분석과 주요 변인의 추이 분석 수행
 - 1~17차 조사의 참여/이탈의 패턴을 파악하고 관련 특성을 분석
 - 아동의 일상생활, 학업, 정서, 부모님, 신체발달의 영역별 주요 변인들을 선정해 추이를 분석
- 데이터설명회 및 학술대회 개최
 - 2025년의 학술대회와 데이터설명회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공동으로 개최
 - 2024년 제15회 학술대회의 논문 공모에 신청한 자에게 15차년도 조사 데이터를 우선 제공하였으며 이후 검증작업을 거쳐 일반에 공개
- 1~16차의 자료 관리 및 사용자 편의작업 수행
 - 1~16차 데이터, 설문지, 도구프로파일 및 변인지도를 업데이트하고 관리
 - 2025년에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료 관리 및 제공에 있어 질적 향상을 꾀함.

다. 주요 방법

- 문헌연구, 조사수행,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기초 및 추이분석, 자료 관리 및 데이터설명회, 학술대회 개최의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함.
 - 문헌연구: 18차 조사지 검토 및 결론의 제언 도출 시 활용. 이탈패턴 분석 시 참고
 - 패널조사 수행: 1,468가구를 유효표본으로 설정하여 아동, 아동의 주양육자, 부모 각각, 아동의 학교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2025년 18차년도 조사수행
 - 자문회의 및 간담회 개최: 19, 20차 조사 준비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조사업체 관리자 및 조사원 대상의 간담회 실시하여 개선 방안 논의
 - 횡단면 기초분석 및 종단자료 분석: 17차 자료로 횡단면 기초분석을 실시하고 종단자료를 활용해 표본이탈 패턴 분석 및 영역별 주요 변인의 추이분석 수행
 - 자료 관리: 축적된 데이터, 질문지, 코드북, 사용자 지침서, 변인지도 및 도구 프로파일의 업데이트 및 관리.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종단연구의 데이

터와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에 참여

- 데이터설명회/학술대회 개최: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공동주최

2. 18차년도(2025년) 조사 사업보고

가. 18차년도 조사과정

□ 18차 조사의 유효표본은 전체 표본 2,150가구 중 1,468가구로 설정함.

전체표본 (a)	제외 가구			17차년도 유효표본 a-(b+c+d)
	5년 연속(19~23년) 미참여 (b)	강력거절 등 (c)	아동사망으로 조사불가 ¹⁾ (d)	
2,150	645	34	3	1,468

주: 1) 아동사망으로 인한 조사불가 사유는 2021~2023년 확인된 수치로, 사망으로 인한 조사불가 사례는 '연속 미참여자수'에 더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 정규패널 외 유예패널과 복원패널을 두어 접촉지속과 조사참여 제고를 꾀함.

구분	대상 및 조사내용
정규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유효표본 중 일반조사에 응한 패널가구 → 과정에 따른 일반조사 실시
유예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유효표본 중 유예조사에 응한 가구(일반조사 거절 가구) → 패널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문항으로 구성된 조사(유예조사) 실시하고 일반조사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 ◦ 유예조사: 가구원 변동, 이사계획, 조사참여 중단 이유 등으로 구성
복원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미참여하거나 강력 거절 등으로 유효표본에서 제외된 가구 중 2025년 조사참여 가구 → 일반조사 외 필수 과거 정보 등 추가조사(복원패널 조사) 실시 및 사례 지급 ※ 2024년도 유효패널이었으나 2025년도 유효표본에서 제외된 가구를 '우선 복원패널' 대상으로 설정하고 특별 관리 및 접촉하여 조사 독려 ◦ 복원패널 조사: 조사참여 중단 이유, 패널아동의 학교 재학 정보 등 회고조사로 구성

□ 18차 조사는 조사준비, 조사진행, 조사종료의 과정으로 구분되며 아래와 같이 진행됨.

조사준비 (1~6월)	조사진행 (7~12월)	조사종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업체 선정 ▶ 설문지 작성 ▶ IRB 심의 ▶ 조사프로그램 구축 ▶ 조사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패널 설정 및 접촉 ▶ 조사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안내문, 우편질문지 발송 - 가구 방문조사 - 담임교사 접촉 및 온라인조사 ▶ 조사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 간담회 ▶ 조사자료 수합 ▶ 자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클리닝 - 가중치 개발

□ 18차 조사에 참여 완료한 가구는 총 1,230가구(아동 1,212명)이며 이는 2025년 설정한 유효표본 1,468가구의 83.8%, 2024년에 조사완료한 1,287가구의 95.6% 전체 표본 2,150가구의 57.2%임.

□ 조사대상 및 유형별 18차 조사 참여 수는 아래와 같음.

대상별	주양육자	아동	모	부	교사
조사참여자수	1,230	1,212	1,168	1,077	351
조사참여율 (주양육자 대비)	(100.0)	(98.5)	(95.0)	(87.6)	(28.5)

유형별	정규패널	유예패널	복원패널	전체
조사참여가구수	1,228	-	2	1,230

나. 18차년도 조사내용

□ 18차 조사의 조사내용과 방법을 조사대상에 따른 설문지별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음.

구분	조사체계	조사내용	조사방법
아동용 설문지	1) 일상생활과 경험	-식생활 및 가족과의 식사 횟수 -스마트폰 소유 여부, 미디어, 스마트폰 과의존 -수면 시간, 생활 시간, 학교 재학 여부 -취미/신체활동, 가사 참여, 용돈	TAPI (대면 면접) (대면 면접 어려울 시 온라인 조사)
	2) 인지 발달 및 학습	-집행기능 -학업성취도(주관적 인식)/스트레스, 자기조절학습	
	3) 사회 및 정서 발달	-자아존중감, 자율성, 전반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우울 -또래애착, 이성관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폭력 피해/가해	

구분	조사체계	조사내용	조사방법
	4) 미래/진로	-진로 계획, 대학 진학 계획 이유, 대학 진학 시 희망 전공 계열, 고등 이후 취업 계획 이유, 진로의식, 진로성숙도, 진로진학 활동, 희망직업 -결혼 및 자녀관(가치관) -진학/취업 준비 위해 다니는 기관 -대학 학교, 계열, 학과 -대학 학제, 소재지, 전형, 수시/정시 -주된 일자리(직종), 주당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시간	
	5) 부모	-부모의 성취압력 및 부모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 -아동학대	
	6) 신체 및 건강 특성	-체중/키/허리둘레, 신체계측방법, 2차 성징 -신체적 자아상, 체형 인식, 체중조절 경험 -음주, 흡연 -장애 판정 및 정도, 만성질환, 입원 치료 여부 등	
보호자용 설문지	1) 가구 및 가구원	-가구구성원, 동거 여부, 비동거 사유 -이사, 개별 방 여부, 반려동물 -부모의 결혼상태, 최종학력, 장애 유무 및 정도 -가구소득, 지출, 사회경제적 지위	TAPI (대면 면접)
	2) 아동	-주관적 건강상태(보호자 인식), 치료, 장애, 질환 등 -시력 보정도구 착용, 식사 및 참여활동, 미디어 중독 -부모 감독,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	
	3) 아동의 학교	-학교 재학 및 대체이용기관, 학교 유형, 전학 여부, 학교 참여 및 서비스 만족도, 남녀공학 여부 -아동의 학업성취도(보호자/주관적 인식) -부모의 진로·진학 관심도, 진로 희망, 미재학 중 활동	
	4) 아동의 사교육	-교육서비스 이용경험/이유, 부담 정도, 영유아기/초등시기 사교육 효과	
	5) 지역사회 및 정책	-환경안전, 편의성, 만족도 -국민기초생활 및 지원 사업 수급 경험 -사교육 경감대책,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 사교육 권유 정도	
부모 설문지	1) 평소 느낌과 생각	-행복감, 만족도, 스트레스, 우울, 결혼만족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양육 스트레스	지필식 기입 (우편 전달, 방문 수거)
	2) 일상생활과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흡연, 신체활동 -스마트폰 과의존	
	3) 취업 및 직업	-취업상태 및 특성, 일자리 만족도 -근무일수/시간/출퇴근/근로(사업) 소득	
교사용 설문지	1) 학교	-학교 특성 및 학교 풍토, 학생비행, 학교 환경	CAWI (Web 조사)
	2) 교사	-교사 특성, 업무 스트레스/교사효능감	
	3) 아동	-교사-아동 인식, -아동 체력평가 결과(PAPS)	

다. 패널유지 방안

- 패널아동 대상으로 아동패널 4행시, 한줄소감, 패널아동 대상 상호격려 메시지 전하기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
 - 문자서비스와 SNS로 접속할 수 있는 URL과 QR코드를 제시하고 2025년 7월 내 시행. 대표작 학술대회 시 전시
 - 한줄소감 100건, 아동패널 4행시 짓기 140건의 총 240건 접수됨. 185명의 패널아동 참여
- 문자, SNS를 통한 안내 및 채널 관리 사업 진행

구분	내용
조사 공지	- 18차년도 조사진행 내용 공지
퀴즈	- 아동패널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아동패널 관련 퀴즈 또는 사회,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상식 문제 - 연 6회, 회당 50명 모바일상품권 증정 - 정답을 맞출 때까지 반복가능, 중복당첨 최소화를 위한 리스트 관리
열공퀴즈	- 패널아동 학교 시험기간 내 관련 내용 문제 출제 - 연 4회, 회당 50명 모바일상품권 증정 - 정답을 맞출 때까지 반복 가능, 중복당첨 최소화를 위한 리스트 관리
레터링/생일축하	- 새학기, 명절, 연말 등 기념메시지 전달 - 아동생일 당일 축하메시지 및 상품권 전달

라.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1) 자료 활용 현황

- 2024년 기준으로 제1~14차 데이터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학위논문, 학술대회, 학술논문 등은 총 1,605편으로, 그 중 학술논문이 1,149편, 학술대회 288편, 학위논문 144편 순으로 많이 활용됨.
- 2024년도에는 학위논문 131편, 학위논문 29편, 학술대회 27편이 발간됨. 학위논문의 경우 2010년 데이터 공개 이후 2024년 가장 많은 활용건수 보임.

2) 데이터설명회 및 학술대회

□ 데이터 사용자의 접근 편리성과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데이터설명회와 제 16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함. 이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공동주최함.

구분	내용										
데이터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5. 6. 유튜브 채널 및 각 홈페이지에 업로드 ○ 내용: 1. 패널데이터 소개 2. 특별강연: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생활시간조사 데이터 활용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잠재성장모형 및 성장혼합모형 ○ 장소 및 진행방식: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사전 녹화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공동주최 										
학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시 중구 소재) ○ 주제: 아동의 삶과 정책: 패널 데이터 기반 연구의 확장 ○ 내용: 1. 주제발표: 일본 유아교육 패널연구 소개 및 육아정책연구소의 정책 연구 2. 학술세션: 한국아동패널/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활용 연구논문 발표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수상 포함)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공동주최 										
주요 일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고 및 연구계획서 공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5. 3. 20. (목)</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데이터설명회 영상 공개</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5. 6. 20. (금)</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구계획서 마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5. 4. 21. (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일고 마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5. 7. 14. (월)</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학술대회 개최</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5. 8. 29. (금)</td> </tr> </tbody> </table>	공고 및 연구계획서 공모	2025. 3. 20. (목)	데이터설명회 영상 공개	2025. 6. 20. (금)	연구계획서 마감	2025. 4. 21. (월)	일고 마감	2025. 7. 14. (월)	학술대회 개최	2025. 8. 29. (금)
공고 및 연구계획서 공모	2025. 3. 20. (목)										
데이터설명회 영상 공개	2025. 6. 20. (금)										
연구계획서 마감	2025. 4. 21. (월)										
일고 마감	2025. 7. 14. (월)										
학술대회 개최	2025. 8. 29. (금)										

3. 17차년도(2027년) 데이터 기초분석

가. 17차년도 조사참여율

□ 2024년 17차년도 조사에 참여 완료한 가구는 총 1,287가구이며 이는 2024년 설정한 유효표본 1,471가구의 87.5%임. 주양육자 조사 1,287명, 아동 조사에 1,277명(주양육자 조사의 99.2%), 어머니 조사 1,228명(주양육자 조사의 95.4%), 아버지 조사 1,132명(주양육자 조사의 88.0%), 교사 조사는 279명(주양육자 조사의 21.7%)이 참여함.

나. 아동 특성

□ 일상생활 특성

- 식생활 관련, 인스턴트 식품 및 패스트푸드는 주 1~2회 섭취가 45.73%로 가장 많았으며, 단백질, 채소, 지방이 많은 단백질, 인스턴트 식품 등에서 유의한 성별 차이가 나타남.
- 평균 수면 시간은 주중 평균 6.66시간, 주말 평균 8.48시간으로 청소년 권장 수면 시간(8~10시간)보다 적게 나타남. 취침시각의 경우 여학생, 고소득층 아동의 경우 늦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주중 평균 8.04시간, 주말 평균 5.40시간, 학교 외 교육 시간(학원, 과외 등)은 주중 평균 2.52시간, 주말 평균 3.51시간임. 주중 학교 시간은 읍면지역 아동이, 학교 외 교육 시간은 대도시지역 아동이 길게 나타남.
- 미디어 사용 관련, 조사대상 아동의 97.65%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38.37%가 태블릿 등 기타 스마트기기를 소지함. 스마트폰 및 PC의 일일 평균 이용 시간은 6.02시간임. 남학생, 저소득층의 이용시간이 길게 나타남. 이용내용은 엔터테인먼트(동영상, 웹툰 등) 감상(평균 1.50시간), 학습(1.47시간), SNS 이용(1.41시간), 게임(1.09시간), 정보 검색(0.52시간) 순으로 나타남.
- 부모가 평가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과 아동이 직접 평가한 스마트폰(스마트기기) 과의존 수준을 비교한 결과, 아동 자가 응답 결과(고위험군 1.18%)는 보호자 응답 결과(고위험군 36.67%)와 매우 큰 차이를 보임.
- 신체활동 관련, 아동의 30분 이상 실내외 신체활동 일수(지난 7일간)는 활동 없음의 응답이 24.82%임. 여학생, 도시지역 아동의 신체활동이 저조하게 나타남.
- 여행 관련, 1박 이상의 국내여행 참여율 76.15%, 해외여행 및 연수는 20.44%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참여 비율이 높았음.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극명하게 나타남.

□ 신체 및 건강 특성

- 남학생은 평균 신장 174.14cm, 체중 69.16kg, 여학생은 평균 신장 162.56cm, 체중 55.52kg임.

- 신체적 자아상에 대해(5개 질문, 4점 척도) 분석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2.64점으로 보통 수준임. 신장 만족을 제외한 4개 문항 모두에서 남학생의 만족도가 여학생보다 높음.
- 체중조절 경험 조사결과 여학생은 50.88%가 감량 노력 경험이 있는 반면, 남학생은 25.99%임. 남학생은 증량 노력 경험(21.41%)이 여학생(2.25%)보다 높음.
- 주관적 건강상태(보호자 인식, 5점 척도)는 3.94점으로 '건강한 편'이라고 인식함. 남학생, 읍면지역 아동일수록 높았음.
- 만성질환 관련, 만성 비염(14.06%), 아토피 피부염(3.89%), 식품 알레르기(2.33%) 순으로 나타남.

□ 학습 관련 특성

- 아동이 인식하는 주관적 학업성취도(5점 척도)는 보통이 49.24%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2.98점으로 산출. 여학생, 고소득가구(770만원 초과) 아동의 점수가 높게 나타남. 보호자가 인식하는 아동의 학업성취도(5점 척도)는 평균 3.02점이며, 아동과 동일하게 여학생, 770만원 초과 가구일수록 높게 나타남.
- 학업 스트레스(5점 척도)는 평균 2.93점이며 여학생, 770만원 초과 가구 아동이 370만원 이하 가구 아동보다 전체 학업 스트레스 점수가 높음. 대입/취업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도시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아동 점수가 높음.

□ 사회 및 정서 발달 특성

- 자아존중감(4점 척도)은 평균 3.13점이며 GRIT(끈기, 5점 척도)의 경우 평균 2.96점임.
- 전반적 행복감(4점 척도)은 평균 2.79점으로 남학생이 더 높음.
- 우울(4점 척도)은 평균 1.52점으로 우울 정도가 다소 낮았음(2점: 가끔 있었다(1~2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남.
- 또래 애착(4점 척도)의 점수는 의사소통(3.15점), 신뢰(3.13점), 소외(1.87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370만원 이하 아동의 경우 소외 부분에서 유의하게 높았음.
- 폭력 피해를 1개 항목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아동은 12.5%로 남학생(15.75%)이 여학생(8.99%)에 비중이 높음.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88%로 남학생(21.56%)이 여학생(7.87%)보다 높았음.

- 음주 관련, 술을 마신 적이 있다는 응답은 19.26%로 첫 음주 평균 연령은 14.40세임. 음주 경험이 있는 아동 중 한 달에 1회 미만 마신다는 응답이 54.88%이고 술을 마신 장소는 '집 또는 친구 집'이 86.88%로 가장 높음.
- 흡연 관련,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52%로 첫 흡연 평균 연령은 14.38세임. 담배 입수 경로 조사결과 '편의점, 가게 등에서 직접 사서 피움'이 38.10%로 가장 높음.

□ 미래 인식

- 고등학교 졸업 후 계획 조사결과 대학 진학 계획(76.90%)이 가장 높고, 취업 예정(7.75%) 순임. 370만원 이하 아동의 취업하겠다는 응답(16.41%)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음.
- 대학 진학 희망 이유로는 '더 나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36.56%)가 가장 높음. 희망 전공 계열은 공학계열(20.06%), 예체능계열(17.41%), 사회계열(14.26%) 순임.
- 진로 성숙도(4점 척도)의 평균 점수는 3.03점으로 여학생, 읍면지역 아동이 높음(점수가 높을수록 성숙도가 낮음).
- 진로진학 활동 경험 및 도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기타'를 제외하고 '사교육 종사자와의 상담'(3.89점)이 가장 높고, '진로 관련 검사 실시'(3.30점)가 가장 낮음.

□ 결혼 및 다문화 인식(심층조사)

- 결혼 의향이 '있다' 59.67%,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 47.61%로 나타남. 남학생, 읍면지역 아동이 자녀 양육 의향이 높게 나타남.
- 결혼가치관 및 자녀가치관(4점 척도) 조사결과,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것도 괜찮다'(3.14점)가 가장 높고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2.28점)가 가장 낮았음.
- 가족 기능 인식(4점 척도) 조사결과, '결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2.71점)이 가장 높음.
-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시기는 대학교 졸업까지(48.86%)가 가장 많음.
- 다문화 인식 중 국민 정체성(6점 척도) 인식 조사결과,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의 어려움'에 대해 남학생(2.56점)이 여학생(2.32점)보

다 유의하게 높게 인식함.

- 다문화 거부/회피 정서 (6점 척도)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사는 지역에 가야 한다면, 두려운 생각이 클 것이다'(2.23점)의 점수가 높게 나타남.

다. 부모 및 가구 특성

□ 가구 특성

- '부모+자녀' 구성이 82.44%로 가장 많으며, 가구 내 자녀수는 2명이 60.37%로 가장 많음. 총 가구원수는 평균 4.34명, 월평균 가구소득은 723.24만원임.

□ 부모 특성

- 부부 갈등(5점 척도, 높을수록 갈등 높음)의 경우 어머니 평균 2.09점, 아버지 평균 1.98점으로 어머니의 갈등 수준이 높음. 모의 학력수준이 낮고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갈등 수준이 높게 나타남.
- 자아존중감(5점 척도)은 어머니 평균 3.81점, 아버지 평균 3.85점으로 아버지가 다소 높음. 부모 모두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
- 주관적 행복감(7점 척도)은 어머니 평균 5.22점, 아버지 평균 5.34점으로 아버지가 다소 높음. 부모 모두 학력 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경향을 보임.
- 일상적 스트레스(4점 척도)는 어머니 평균 2.95점, 아버지 평균 2.92점으로 어머니가 조금 높음.
- 삶의 만족도(5점 척도)는 어머니 평균 3.64점, 아버지 평균 3.76점으로 아버지가 다소 높음. 부모 모두 학력 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
- 음주 횟수의 경우 아버지는 월 2~4회(34.45%), 주 2~3회(24.29%)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나, 어머니보다 월등히 빈번함. 어머니는 월 1회 이하(34.20%)가 가장 높음.
- 취업상태를 분석한 결과, 어머니 71.01%, 아버지 95.41%가 취업 중임. 아버지 주 평균 근무일 5.31일, 주 평균 근로시간 45.23시간, 어머니의 주 평균 근무일 5.14일, 주 평균 근로시간 38.55시간임.

□ 부모의 양육 특성

- 부모의 성취압력(아동 인식, 5점 척도)의 경우 평균 2.37점으로 보통 이하 수준임. 남학생, 대도시 거주 아동이 성취압력을 높게 느낌.
- 부모애착(아동 인식, 5점 척도)의 경우 어머니 애착은 의사소통 평균 3.86점, 신뢰감 평균 4.02점, 소외감 평균 3.27점이며, 아버지 애착은 의사소통 평균 3.55점, 신뢰감 평균 3.85점, 소외감 평균 3.18점으로 어머니보다 모든 영역에서 낮은 수준임.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버지애 대한 의사소통 점수가 높음.
- 양육 스트레스(부모 인식, 5점 척도)의 경우 어머니 평균 2.40점, 아버지 평균 2.30점으로 어머니가 다소 높음. 자녀가 남아인 경우와 대도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남.
- 아동이 인식하는 아동 학대 경험은 신체적 학대의 경우 전혀 없음 97.57%로 대부분을 차지하나 언어적 학대는 전혀 없음 85.90%로, 신체적 학대보다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보호자 응답, 5점 척도)의 경우 높은 관심 영역은 성적 관리(3.48점), 진로진학 정보 수집(3.44점)인 것으로 나타남.
- 부모-자녀 의사소통(5점 척도)의 경우 아동 응답 평균 3.87점, 아버지 평균 3.74점, 어머니 평균 3.72점으로 모두 '대체로 그렇다' 수준을 보임.

라. 학교 및 사교육 특성

□ 학교 및 교사 특성

- 고등학교 재학 비율은 98.29%임. 일반고등학교 77.31%, 직업 특성화고등학교 11.1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3.16% 비중을 보임.
- 미진학의 경우 사유는 '학교 부적응'(36.36%)이 가장 높았고, '취업/대학 진학에 더 유리하여'(18.18%), '해외 출국'(13.64%) 순임.
- 학교 풍토 (교사 인식, 4점 척도) 중 교사 풍토의 경우 '열심히 가르치려는 의지'(3.62점)가 가장 높고 일반고 교사가 특성화고 교사보다 의지가 높은 경향을 보임.
- 학생 풍토는 '선생님에 대한 예의 바른 태도'(3.39점)가 가장 높고 학교 유형별로 일반고가 특성화고보다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게 높음.

- 학부모 풍토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학부모의 지원'(3.09점)이 가장 높고 학교 유형별로 일반고가 특성화고보다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게 높음.
-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5점 척도) 조사결과, 행정 업무 스트레스(3.18점)가 가장 높음. 특성화고 교사가 일반고 교사보다 생활지도 및 행정 업무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음.
- 보호자가 인식하는 학교 서비스 만족도(5점 척도) 분석결과 안전관리 교육(3.72점), 진로 탐색 및 진로 지도(3.70점) 순으로 나타남. 읍면지역 거주 집단일수록 '기초 능력 향상', '자녀 수준에 맞는 교육', '학교 급식', '진로 탐색 및 진로 지도', '인성 지도' 만족도가 높음. 특성화고 재학 집단일수록 '진로 탐색 및 진로 지도' 만족도가 높음.

□ 사교육 특성

- 학교 수업 외 교육 이용률 분석결과 80.96%가 이용함. EBS의 경우 39.47%가 이용함.
- 학교 수업 외 교육 서비스 이용의 주요 과목은 수학(852명), 영어(805명), 국어(482명) 순임. 국어, 영어, 수학 등 대부분 과목에서 학원 이용이 과반수 이상이며 사회 과목은 인터넷/화상 강의(71.20%) 이용률이 높음. EBS 시청 시간의 경우 수학(2.02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남.
- 학교 외 교육 서비스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학원(10.76시간)이 가장 길고, 인터넷/화상 강의(6.59시간), 가정 내 개인/그룹 지도 과외(5.37시간) 순임.
- 학교 외 교육 서비스 만족도(보호자 응답, 5점 척도)의 경우 '대체로 만족한다'(53.39%)가 가장 높았으며, 평균 3.52점임.
- 학교 외 교육 서비스 월평균 이용 비용 조사결과, 학원(69.66만원)이 가장 높고, 가정 내 개인/그룹 지도 과외(57.12만원) 순임. 이용 비용 부담 정도 (보호자 인식, 5점 척도)는 '부담되는 편이다'(41.89%)가 가장 높았으며, 평균 3.28점임.
-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개수 및 부담 정도를 분석한 결과, 개수에 대해 75.38%가 '적당하다'라고 인식함.
-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효과 분석결과, 64.07%가 '그렇다', 17.58%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함. 평균 3.98점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음.

- 아동이 인식한 EBS 교육방송 강의 도움 정도는 46.63%가 '그렇다', 41.07%가 '보통이다'로 응답함. 평균 3.59점으로 읍면지역에서 높게 나타남.

마.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 지역사회 특성

- 출생 후 총 이사 횟수는 평균 1.33회이며, 최초 조사 때부터 동일한 곳에 거주하는 경우(0회)가 34.89%로 가장 많음. 최근 이사 사유로는 '주거환경(주택, 교통)'이 38.69%로 가장 높고, '교육 환경'(19.05%) 순임.
- 교육·의료·공공복지시설 접근 편의성, 이용 만족도 분석결과, 도시지역 가구가 읍면지역보다 높았으며, 여가공간·체육·문화시설의 이용 만족도의 경우 문화시설에서 지역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 양육 환경 안전성(5점 척도)에 대한 분석결과, 유해 시설(유해가, 윤락가 등)로부터의 안정성(3.93점)이 가장 높으나, 취객 및 싸움으로부터의 안정성(1.87점)은 낮았음. '이웃 간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분위기'와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동네 주민의 행동 바로잡아주기'에 대한 동의는 읍면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더 높음.

□ 정책 특성

- 국가지원 사업 수급경험 조사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0.78%, 차상위계층 2.18%로 나타났음. 이외 교육비 지원 사업(13.05%), 교육급여(11.97%), 아동발달지원계좌(10.10%),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9.32%)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보호자 대상으로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5점 척도)을 조사한 결과, 공정한 수능 평가 평균 2.66점, 사교육 담합/부조리 근절 평균 2.52점, 대입 수시 공정성 및 공교육 입시 컨설팅 강화 평균 2.69점, 중고등학교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평균 2.76점, 초등 단계 국가 책임 교육/돌봄 강화(늘봄학교 등) 평균 3.10점, 유아 공교육 강화(유보통합 등) 평균 2.99점으로 나타남.
-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5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34.81%)이 가장 높았고, '동의'(32.17%)이었으며, 평균 점수는 3.16점으로 나타남.

4. 1~17차년도 종단자료 분석

가. 1~17차 표본이탈 패턴분석

1) 분석 개요

□ 분석의 필요성

- 패널자료의 표본이탈은 자료의 질과 직결되기에 이탈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제시함으로써, 유저들이 표본이탈에 따른 오차를 감안한 연구를 수행,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함.

□ 분석자료 및 방법

- 분석자료: 1~17차년도 아동패널 자료
- 분석변수: 가구 특성 변수(가구원수, 가구소득, 거주지역, 주택소유 여부 등)와 아동 특성 변수(성별, 출생순위), 부모 특성 변수(모 연령, 모 학력, 모 취업 여부, 혼인상태)를 활용
- 분석방법: 표본이탈 패턴 유형화를 위해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4개 집단으로 설정함. 응답횟수 영향 요인은 OLS 분석, 집단 유형 결정 요인은 다항로짓 분석 실시

2) 분석결과

□ 표본 응답 현황

- 원표본은 2,150가구로 2차년도에 표본이탈이 크게 발생한 후 4차년도 조사 이후 표본이 안정화됨.
- 학교급이 변동한 14차년도(중1 진학) 조사에서 전년 대비 51가구가 감소하며 이탈률이 소폭 증가했으나, 17차년도(고1 진학)에는 16차년도 대비 1가구만 감소하여 최근에는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 한국아동패널은 2차년도 이탈이 급격했으나 이후 안정화되어, 8차년도 표본 유지율(74.3%)은 한국교육고용패널(71.2%)보다 소폭 높은 수준을 유지
- 아동패널은 원표본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에 표본이탈이 전체 응답 표본 특성 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

□ 표본이탈 유형 분석

- 군집분석(k-means) 결과, 아동패널 표본의 응답패턴은 4가지 유형으로 분류
- 집단 1(초기 이탈 유형): 패널조사 초기에 응답했으나 이후 거의 응답하지 않음. 481가구(22.4%), 평균 응답횟수는 2.98회임.
- 집단 2(지속 응답 유형): 17년 동안 거의 모든 차수에 응답한 가구들로, 아동패널 데이터의 높은 안정성을 보여줌. 1,260가구(58.6%), 평균 응답횟수 16.63회.
- 집단 3(후기 이탈 유형): 초기에는 지속 응답했으나 비교적 최근에 표본이탈이 발생하여 복귀가 이뤄지지 않은 유형. 320가구(14.9%)로 평균 응답횟수는 9.90회임.
- 집단 4(이탈 후 복귀 유형): 초기 조사 단계에서 미응답했으나 이후 복귀에 성공해 지속적으로 응답 표본이 유지되고 있는 유형. 89가구(4.1%). 평균 응답횟수는 12.54회로 집단 3보다 많음. 중간에 이탈했다더라도 꾸준히 복귀하여 응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표본이탈 유형별 가구 및 아동 특성

- 집단 1(초기 이탈 유형)은 대도시 거주자 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고, 집단 2(지속 응답 유형)의 소득분위가 상대적으로 높음. 집단 3(후기 이탈 유형)은 자가 주택 소유 비중이 약간 높음. 남아 비중이나 출생순위는 집단별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별이나 출생순위가 표본이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아 보임.

□ 표본이탈 결정 요인

- 응답횟수를 종속변수로 한 OLS 결과,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읍면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차년도 조사 당시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취업모인 경우, 기혼 유배우자인 경우에 응답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표본이탈 유형집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로짓 결과(기준집단: 집단 4 이탈 후 복귀 유형),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읍면지역 거주자인 경우, 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취업모에 비해 미취업모인 경우 집단 1(초기 이탈 유형)에 속할 가능성 높음.
- 모 학력 수준이 고졸 이하 대비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집단 2(지속 응답 유형)에 속할 가능성 높음.

- 모 학력이 고졸 이하 대비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미취업모인 경우, 기혼 유 배우자가 아닌 경우 집단 3(후기 이탈 유형)에 속할 가능성 높음.

□ 응답 표본의 특징

- 1차년도와 17차년도 자료 비교 결과, 평균 가구원수는 1차년도 3.86명에서 17차년도 4.34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원표본 아동의 동생 출산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1차년도 대비 17차년도에 가구소득이 크게 증가했으며, 17차년도에는 1000만원 이상 응답이 7.1%에 달해 고소득 가구의 표본이탈은 문제가 되지 않음이 확인됨.
- 17년 동안 읍면지역 거주자가 크게 감소하고(20.3% → 5.4%) 중소도시 거주자가 크게 증가함(39.6% → 55.2%). 이는 읍면지역 거주자의 표본이탈 보다는, 아동패널 가구들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이동한 결과로 분석됨.
- 모 취업자는 1차년도 28.4%에서 17차년도 69.9%까지 증가했는데, 이는 자녀 연령 증가에 따른 모의 재취업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나. 1~17차 주요 변인 추이분석

1) 분석 개요

□ 1~17차 자료를 활용해 영역별 주요 변인을 선정하여 추이를 분석함. 분석에 쓰인 영역별 변인과 활용 차수는 아래와 같음,

구분(영역)	변수	활용 차수
일상생활	- 생활시간(평일, 주말)	8차(2015년)~17차(2024년)
	- 미디어 이용시간	9차(2016년)~17차(2024년)
	- 미디어 기기 중독	10차(2017년)~17차(2024년)
학업	- 학업 스트레스	11차(2018년)~17차(2024년)
	- 학원 등 학교 외 교육서비스 이용 (이용 여부, 시간, 비용)	8차(2015년)~17차(2024년)
	- 진로성숙도	13차(2020년)~17차(2024년)
	- 성취압력	11차(2018년)~17차(2004년)
정서	- 자아존중감	8차(2015년)~17차(2024년)
	- 전반적 행복감	8차(2015년)~17차(2024년)

구분(영역)	변수	활용 차수
부모님	- 부모의 취·학업상태	1차(2008년)~17차(2024년)
	- 부모의 결혼만족도	11차(2008년)~16차(2023년)
	- 부모의 삶의 만족도	8차(2015년)~17차(2024년)
신체 발달	- 신장, 체중	1차(2008년)~17차(2024년)
	- 신체적 자아상	12차(2019년)~17차(2024년)

2) 분석결과

□ 일상생활

- 생활시간 분석결과 초등 중학년(5학년까지) 9시간 이상이던 수면 시간이 중등 시기를 거쳐 고등 1학년 시기에는 6시간대로 크게 감소
- 학습 시간은 초등 시기 8시간대에서 고등 1학년에는 11시간 넘게 증가. 연령 증가에 따라 약 3시간 분량의 수면 시간이 학습 시간으로 대체된 것으로 해석됨.
- 책 읽기 시간과 놀이 활동 시간이 연령에 따라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초등 1학년 시기 8시간이 넘었던 주말 놀이 활동 시간은 고등 1학년 때 5.54시간으로 줄어든 반면, 주말 학습 시간은 고등 1학년 때 4.34시간으로 증가
-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초등 2~3학년 시기 약 1시간에서 점차 증가하여, 중등 시기부터 5~6시간으로 크게 증가
- 인터넷 중독 위험군(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및 고위험 사용자군)의 비율은 중등 2학년 시기에 44.9%로 가장 높고 고등 시기에는 30%대로 감소

□ 학업

-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는 연령 증가에 따라 높아짐. 중학교 시기가 되면서 숙제/시험 스트레스가 다른 스트레스보다 높게 나타났음.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는 대입/취업 스트레스와 숙제/시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수준(3점 이상)임. 스트레스 수준은 여학생, 읍면지역 아동이 높음.
- 학교 외 교육(사교육) 이용률은 중학교 3학년부턴 감소하지만, 학원 이용시간과 비용은 고등 시기까지 증가. 초등 1학년부턴 중1까지 90% 이상이 사교육

을 이용하다가 중3부터 낮아져 고등 1학년 때에는 80.96%까지 낮아짐.

- 사교육 이용 유형 중 학원 이용시간이 압도적으로 길며, 중등 3학년 때 주 11.51시간으로 가장 길었음.
- 학교 외 교육(사교육) 월평균 비용 역시 가파르게 상승해 고등 1학년 시기에는 학원 비용이 72.85만원임.
- 아동의 진로 성숙도는 중등 시기까지 낮아지다가 고등 1학년 시기에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됨. 진로성숙도 점수는 중등 시기까지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점수가 높을수록 성숙도 낮음), 고등 1학년 시기에는 점수가 낮아져 진로에 대한 확신과 주도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됨.

□ 정서

-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행복감은 초등 고학년 시기부터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고등 1학년 시기까지 계속됨.
- 고등 1학년 시기에는 행복감이 2.79점(4점 척도)까지 낮아져 아동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수준으로 나타났음.

□ 부모님

- 부모의 취업상태의 경우 부는 아동 연령 0세부터 고등 1학년까지 90% 이상이 취/학업 중이었음. 모의 경우 아동이 0~2세일 때 30%대였다가 증가하여 고등 1학년 때는 73.9%로 나타났음.
-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아동 연령 6세 이전까지는 낮아지다 이후 높아지는 패턴을 보임. 모가 부보다 결혼만족도가 줄곧 낮음.
-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이며, 부와 모의 차이는 거의 없음.

□ 신체 발달

- 아동의 신장은 12세경까지 남녀가 비슷했으나, 이후부터 남학생의 신장이 크게 증가함. 고등 1학년 남학생 신장은 170cm 이상, 여학생은 162cm임.
- 체중 역시 10세 때까지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이후 남학생의 증가세가 커져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남학생은 60kg 후반대, 여학생은 50kg 중반대임.
- 신체적 자아상은 연령 증가에 따라 긍정성이 낮아지며, 여학생의 긍정성이 남학생보다 더 낮고 성별 격차가 커지는 경향을 보임.

5. 결론: 분석의 시사점 및 조사를 위한 제언

가.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시사점

- 17차년도(2024년) 데이터 기초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 미디어 중독 인식 격차 해소 및 고위험군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강화
 - 저소득층의 진로 탐색 및 학업 지원 체계 강화
 - 변화하는 가족가치관 반영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확대
- 1~17차 주요 변인 추이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 청소년 수면시간 부족 해소를 위한 학교운영 및 학업부하 조정
 - 고등학생 대상 진로/입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지원
 - 아동연령 증가에 따른 미디어중독 위험 관리 및 예방
- 1~17차 표본이탈 패턴분석의 시사점
 - 장기 패널자료의 내재적 특성 변화를 활용한 후속 연구 제안
 - 가구 구조 변화 등 취약 시점에서의 표본 추적 시의 유의점
 - 초기 이탈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패널 관리 전략 및 데이터 활용 주의
 - 최근 횡단면 자료 사용 시 지역규모 및 소득 대표성 왜곡 고려

나. 향후 조사를 위한 제언

- 조사대상 축소 등 변화 고려
 - 2026년 아동이 고3 시기인 19차 조사 시에는 아동과 주양육자 조사만 실시하고, 2027년 아동이 성인이 되는 20차 조사 시에는 아동 조사만 실시하는 것으로 제안
- 목적별 유연한 조사설계 검토: 유지조사 후 청년기 확장 본조사로 연계 고려
 - 2027년 사업 종료 후 최소한의 문항으로 구성된 유지조사를 하다가 이후 생애주기상 유의미한 시점에 확장된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을 제안

□ 고3, 성인전환기 패널유지를 위한 전략

- 입시와 취업 등으로 부담이 큰 시기일 것이므로 참여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사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전략 필요
- 이탈 방지를 위한 조사 보수 증액 등 고려 가능함. 성인기 조사 시 군입대 고려한 전략도 필요

□ 진학정보 확보를 위한 현실적 방안 및 향후 행정자료 연계의 전망

- 진로 및 학업성취의 결과로 나타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와 대학 진학 정보는 생애경로를 추적하는 데 중요한 변인이나 평가원 정보 연계의 어려움, 패널가구 응답 부담 등으로 조사 시의 신중한 접근 필요함.
- 외국 사례 참고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아동패널과 육아정책연구소의 다른 패널인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사업 시 행정자료 연계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 있음.

I

서론: 사업 및 연구개요

01 필요성 및 목적

02 주요내용

03 주요방법

I. 서론: 사업 및 연구개요

1. 필요성 및 목적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한국아동패널 II)」(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은 한국 아동의 성장·발달 과정을 출생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함으로써, 시기별 아동의 성장·발달상의 특성과 가구와 양육 환경, 보육·교육기관의 기능과 효과, 지역사회와 국가 정책의 영향에 관한 자료를 국가 수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Bronfenbrenner(1979, 1989)의 생태학이론 및 Elder(1985, 1998)의 생애이론에 근거해 아동 당사자를 둘러싼 아동 성장·발달에 영향을 주는 가족, 돌봄 및 보육 환경, 학교 및 사교육, 그리고 지역사회와 정책영역을 포괄하는 조사를 수행하며, 구체적으로 아동, 주양육자, 아동의 부모 각각 그리고 영유아 교육·보육기관의 교사(영유아기), 학교의 담임교사(아동기)를 조사대상으로 삼는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2006년 패널연구를 위한 모형을 준비, 개발하였고 2007년 예비조사를 거쳐 2008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1차년도 조사가 실시되어 패널아동이 19세가 되는 2027년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2025년은 패널아동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들어서는 해로, 제18차 조사를 수행하였다. 17년간 아동패널조사는 패널조사로서 일관된 조사를 고수함과 동시에 아동의 성장발달에 맞춰 조사내용을 변경해 왔다. 2025년에는 아동이 중·고등학교 시기에 들어서며 새롭게 고안한 조사의 내용을 유지하되, 조기진학과 취업 등 다양한 진로를 고려해 설문지를 대폭 수정 보완하였다. 이렇게 수정 보완된 설문지는 차기 조사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2025년은 아동의 입시와 진학, 취업 등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2026년, 2027년을 대비하는 해로 삼고, 전환기 조사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연구진의 조사와 논의를 거쳐 이를 정리하여 결론 장에 담았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2008년도 조사된 1차 조사 데이터부터 2022년 조사된 15차 조사 데이터가 일반에 공개되어 있었으며, 2025년 12월에는 2023년 아동이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조사된 16차 조사자료를 공개하였다. 또한 작년 2024년 수집을 마친 고등학교 1학년 시기 17차 조사자료를 선(先) 이용한 연구진의 기초분석이 수행되었다. 그 외에도 그간 축적된 1~17차년도 of 종단자료를 이용해 아동패널 조사의 표본이탈 패턴을 분석하고, 영역별 주요 변인의 추이분석을 진행하였다.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2010년 제1회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매해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논문을 발표, 공유하는 학술의 장을 열어 왔다. 2025년에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집하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해 운영의 효율성과 의미 제고를 꾀하고자 했다. 내용면에서도 2008년생을 대상으로 조사되는 한국아동패널 자료와 2022년생을 대상으로 조사되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동시에 공유됨으로써 아동과 제반 환경, 정책 변화 등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리라 본다.

2. 주요내용

2025년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는 아래와 같이 수행되었다.

첫째, 한국아동패널 18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2025년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진입한 패널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과 주양육자, 부모 각각, 아동의 학교 담임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둘째, 2024년에 수행된 한국아동패널 17차 본조사 자료와 5차 심층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기초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아동, 부모, 가족, 학교, 지역사회, 정책 영역의 주요 변인을 중심으로 횡단면 기초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심층조사로 수행된 가족 및 다문화 인식 조사자료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그간 축적된 한국아동패널의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표본이탈 패턴 분석과 주요 변인의 추이분석을 수행하였다. 2008년생 아동이 출생한 2008년부터 아동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2024년까지 수행된 1~17차 조사의 참여/이탈의 패턴을 파악하고 관련 특성을 분석하며, 아동의 일상생활, 학업, 정서, 부모님, 신체 발달과 관련된 주요 변인들을 선정해 장기간의 추이를 분석하였다.

넷째, 데이터설명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학술대회를 통해 2023년에 수행된 16차 조사데이터를 학술대회의 참가자에게 우선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술대회 이후 검증 작업을 거쳐 일반에 공개하였다. 또한 학술대회에 앞서 데이터설명회를 개최하여 자료의 확산과 접근성을 높이려고 했다. 특히 2025년의 학술대회와 데이터설명회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다섯째, 1~16차 자료를 관리하고 사용자 편의작업을 수행하였다. 즉 1~16차의 자료, 설문지, 도구프로파일, 변인지도, 사용자 지침서를 최신화하고 점검·관리하였다. 특히 2025년에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에 참여하여 자료 관리 및 제공에 있어 질적 향상을 꾀하였다.

〈표 I-2-1〉 한국아동패널 연도별 조사 실시 개요

구분 시기	일반조사						심층 조사	학술 대회	
	만0~2세	만3~6세	만7~9세 (초등1~3)	만11~12세 (초등4~6)	만13~15세 (중 1~3)	만16~18세 (고 1~3)			만19세 (대학교 1)
	영아기	유아기	아동초기	아동후기	청소년초기	청소년후기			성년기
2008년	1차								
2009년	2차						1차		
2010년	3차						부가조사*	1회	
2011년		4차						2회	
2012년		5차						3회	
2013년		6차					2차	4회	
2014년		7차						5회	
2015년			8차					6회	
2016년			9차				3차	7회	
2017년			10차					8회	
2018년				11차				9회	
2019년				12차				10회	
2020년				13차			4차	11회	
2021년					14차			12회	
2022년					15차			13회	
2023년					16차			14회	
2024년						17차	5차	15회	
2025년						18차		16회**	
2026년						19차		-	
2027년							20차	6차	

주: 한국아동패널의 조사는 '일반조사'와 '심층조사'로 구분됨. '일반조사'는 한국아동패널의 기본조사로서 매년 실시함. '심층조사'는 2~4년에 한 번씩 시행되며, 조사내용 및 검사방법 등에서 일반조사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것들을 실시함.

* 한국아동패널의 표본과 별도로 2010년 출생한 신생아 가구 1,000사례를 추출하여 부가조사를 진행함.

** 16회 학술대회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공동으로 개최함.

3. 주요방법

가. 문헌연구

문헌연구를 통해 18차 조사내용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들어선 패널아동에게 수행하기에 적합한지 살펴보고, 성인기 진입, 고3 입시기의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함으로써 19, 20차 조사를 대비하고자 했다. 또한 기존에 수행된 아동패널 및 타패널자료를 고찰해 표본이탈 패턴 분석 시 참고하였다.

나. 18차 패널조사 수행

2025년 한국아동패널 사업은 주요하게 18차년도 패널조사를 수행하였다. 한국 아동패널 사업은 2008년 제1차 본조사에 참여한 2,078가구를 원표본으로 삼고 2, 3차 조사 시 예비표본 내의 72가구를 추가표집 하여 총 2,150가구를 전체표본으로 정해 조사해 왔다. 2025년 제18차 조사 시에는 전체표본 2,150가구 가운데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속적으로 조사에 불참한 645가구, 연락 두절 또는 강력 거부로 조사가 어려운 34가구, 그리고 아동 사망 등으로 조사대상이 될 수 없는 3가구를 제외한 1,468가구를 유효패널로 보고 이들을 우선적으로 접촉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2025년 18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패널가구의 아동, 아동의 주양육자, 아동의 부모 각각, 아동이 소속된 학교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대상별 조사방법과 주요 조사내용을 정리해보면 <표 I -3-1>와 같다. 아동과 주양육자의 경우 대면 면접 조사, 부모의 경우 지필식 조사, 담임교사의 경우 온라인 조사로 이루어지며, 조사내용은 영역별로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구 특성, 학교 및 사교육(아동기) 특성, 지역 특성 및 정책 특성의 7개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각 영역 내 조사변인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조사대상이 달리 배치된다.

이상의 내용을 비롯해 조사의 절차와 패널유지 방안 등 조사수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II장의 조사과정에서 논하였다.

〈표 I-3-1〉 2025년도 한국아동패널 조사대상별 조사방법 및 주요 조사내용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도구)	주요 조사내용	비고 (설문지)
아동	대면 면접 조사 (TAPI) (대면 면접 어려울 시 온라인 조사)	- 아동 특성: 식생활, 미디어, 생활시간, 실내외 활동, 가사 참여, 경제활동, 신체특성(2차 성징, 신체적 자아상, 체중 조절), 음주흡연, 학업 스트레스, 주관적 학업성취도, 자기 조절학습, 자아 및 정서 발달, 사회성 발달, 미래/진로, 결혼/자녀(가치)관 - 부모 특성: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애착, 아동학대 - 학교·사교육 특성: 진로 및 진학/취업, 사교육 이용특성, 사교육 인식, EBS 이용	아동용 설문지
	측정	- 신체 측정: 신장, 체중	
주양육자	대면 면접 조사 (TAPI)	- 아동 특성: 인구학적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질환 및 치료, 미디어 사용, 학업성취도 - 부모 특성: 혼인상태, 부모 감독, 부모의 학업/교육 지원 - 가구 특성: 인구학적 특성, 물리적 특성, 경제적 특성(소득, 지출 등), 가정환경 특성 등 - 학교·사교육 특성: 학교 이용, 사교육 특성, 학교 참여 및 만족도 - 지역 특성: 일반적 특성, 지역거주이유, 양육환경 등 - 정책 특성: 사교육 경감대책, 사교육 권유정도,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	보호자용 설문지
어머니	지필식 조사 (우편발송)	- 부모 특성: 개인 및 부부 특성, 신체 및 건강 특성, 일상생활 특성(음주, 흡연), 양육 스트레스, 직업 특성 등	어머니 설문지
아버지		- 부모 특성: 개인 및 부부 특성, 신체 및 건강 특성, 일상생활 특성(음주, 흡연), 양육 스트레스, 직업 특성 등	아버지 설문지
담임교사	온라인 조사 (CAWI)	- 아동 특성: 학업 수행 능력, 교사의 아동 인식 - 학교 특성: 물리적 특성, 교사 특성, 학급 운영, 가정 협력 등	교사용 설문지

자료: 조미라 외(2024).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4(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p. 23-24. 〈표 I-3-1〉 재구성

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실시

2025년 고등학교 2학년에 진학한 패널아동과 가구의 조사참여율을 높이고, 향후 고등학교 3학년 및 성인기 초기(2026년 19차, 2027년 20차) 조사를 준비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4월에는 고3 및 성인기 조사 준비와 관련하여 청소년 패널 전문가 및 관계 연구자들과의 대면회의를 통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5월에는 조사설계 및 패널 유지 방안 논의를 위해 조사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서면자문을 실시해 18차 조사의 진학 관련 세부 문항과 고교 정책 관련 문항 구성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18차 조사 마무리 단계인 11월에는 조사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조사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표 I-3-2〉 자문회의 및 간담회 실시 내용

안건	개최일	자문자/참여자
고3, 성인기 조사 준비 사항 논의	• 4.23 대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성인 전환기 조사 포함하는 패널 사업 담당 연구자 3인 -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교육고용패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청년패널조사 (한국고용정보원)
패널유지 방안 논의	• 5.22 대면회의	• 조사업체 담당자
진학 및 고교 정책 관련 세부 문항 구성	• 5.19~22 서면	• 현직 고등학교 교사
조사 개선방안 논의- 조사원 간담회	• 조사 후 1회(11월)	• 한국아동패널 조사원

라. 17차 자료 기초분석 및 종단자료 분석

패널아동이 고등학교 1학년 시기인 2024년에 조사된 17차 본조사와 5차 심층 조사 자료를 활용해 ‘아동’, ‘부모 및 가구’, ‘학교 및 사교육’, ‘지역사회 및 정책’으로 구분하여 기초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축적된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1~17차 아동패널 표본이탈 패턴 분석과 주요 변인에 대한 추이분석을 수행하였다. 표본이탈 패턴 분석의 경우 주요하게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으로 표본이탈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사건계열분석 그래프를 제시, 해석하였으며 다항로지트 분석을 통해 유형별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마. 자료 제공/관리 및 사용자 편의 작업

2023년에 조사된 16차 조사자료(데이터, 설문지, 코드북, 변수지도, 도구프로파일)는 2025년 학술대회 참여 연구자들에게 우선 제공되고 이후 검토와 보완작업을 거쳐 2025년 말 일반 공개되었다. 또한 사용자 지침서를 최신화하며 기공개되어 있는 한국아동패널 1~15차의 데이터, 설문지, 코드북, 변수지도, 도구프로파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의 경우 공공데이터 포털에서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올해의 경우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 중인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종단연구의 데이터와 함께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에도 참여하여 새로운 방식의 데이터 개방을 시도하였다. 이 사업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총무정보팀과의 협업을 통해 수행하였다¹⁾.

바. 데이터설명회 및 학술대회 개최

2025년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설명회와 학술대회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공동주최하여 행사 운영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애초기부터 시작하는 영·유아 패널 조사 사업으로서의 의미를 제고하고자 했다.

데이터설명회는 사전 영상 제작하여 2024년 6월 초 육아정책연구소 유튜브 채널 및 각 패널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사용자들이 필요 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학술대회는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서울시 중구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동의 삶과 정책: 패널 데이터 기반 연구의 확장’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주제발표 소개 및 육아정책연구소 정책 연구 세션을 비롯해 공모를 통해 한국아동패널/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이상의 데이터설명회 및 학술대회의 주요내용과 일정은 아래의 <표 I-3-3>와 같다.

<표 I-3-3> 데이터설명회 및 학술대회 개요

구분	내용
데이터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5. 6. 유튜브 채널 및 각 홈페이지에 업로드 ○ 내용: 1. 패널 데이터 소개 <li style="padding-left: 20px;">2. 특별강연: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생활시간조사 데이터 활용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잠재성장모형 및 성장혼합모형 ○ 장소 및 진행방식: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사전 녹화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공동주최

1) 본 내용은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2025년도 보고서에도 수록됨.

구분	내용	
학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5년 8월 29일 금요일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시 중구 소재) ○ 주제: 아동의 삶과 정책: 패널 데이터 기반 연구의 확장 ○ 내용: 1. 주제발표: 일본 유아교육 패널연구 소개 및 육아정책연구소 정책 연구 세션 2. 학술세션: 한국아동패널/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활용 연구논문 발표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수상 포함) ○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공동주최 	
주요 일정	공고 및 연구계획서 공모	2025. 3. 20. (목)
	데이터설명회 영상 공개	2025. 6. 20. (금)
	연구계획서 마감	2025. 4. 21. (월)
	원고 마감	2025. 7. 14. (월)
	학술대회 개최	2025. 8. 29. (금)

II

18차년도(2025년) 사업보고

- 01 18차년도 조사과정
- 02 18차년도 조사내용
- 03 패널유지 방안
- 04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II. 18차년도(2025년) 사업보고

1. 18차년도 조사과정

2025년도에 진행되는 18차년도의 조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조사준비의 단계로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해 조사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조사업체 선정 후 이전 해에 진행된 조사지의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보완하여 조사내용을 확정하였다. 이후에는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 절차를 밟았다. 다음으로 조사업체를 통하여 조사원을 선발하고 교육하며 TAPI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하는 과정을 거쳤다.

조사진행의 단계에서는 패널가구 방문을 통해 아동 및 주양육자(보호자) 조사를 실시하고 가구 방문 전 우편발송을 통해 미리 작성을 요청한 부모 각각에 대한 조사지를 수령하였다. 또한 가구 방문 시 대면한 부모와 아동의 동의 및 지원을 통해 교사 대상의 온라인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II-1-1] 18차년도 한국아동패널 사업 조사과정

조사준비 (1~6월)	조사진행 (7~12월)	조사종료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업체 선정 ▶ 설문지 작성 ▶ IRB 심의 ▶ 조사프로그램 구축 ▶ 조사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패널 설정 및 접촉 ▶ 조사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안내문, 우편질문지 발송 - 가구 방문조사 - 담임교사 접촉 및 온라인조사 ▶ 조사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 간담회 ▶ 조사자료 수합 ▶ 자료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클리닝 - 가중치 개발

조사종료 후에는 취합한 조사자료를 클리닝하고 보완하며 중단 및 횡단 가중치 개발 작업을 하였다. 또한 조사원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조사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때 고2 시점의 조사에 대한 패널아동 및 가구 반응을 공유하고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성인기 진입 시기(2026년 19차, 2027년 20차 조사)의 적절한

조사방법 및 일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하 본문에서는 조사준비, 조사진행, 조사종료로 구분하고 각 과정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가. 조사준비

1) 설문지 작성

2025년도 18차년도 조사의 설문지는 패널아동의 고등학교 2학년 진입에 따른 발달적 특성과 사회적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특히 2025년에는 패널아동이 성인기를 앞둔 시점에서 진학, 취업, 휴학, 구직 등 다양한 진로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문항의 타당성과 응답의 용이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진의 검토와 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문항을 정제하였으며, 이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연령에 적합하면서도 기존 설문과의 연속성과 비교 가능성이 유지되도록 구성하였다.

설문지는 기존 연도의 조사체계를 유지하여 패널아동, 보호자(주양육자), 부모, 아동 학교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제작된다. 아동용 설문지는 일상생활과 경험, 인지 발달 및 학습, 사회 및 정서 발달, 미래/진로, 부모, 신체 및 건강 특성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호자용 설문지는 가구대표자 혹은 주양육자가 작성하는 설문지로 가구 및 가구원, 아동, 아동의 학교, 아동의 사교육, 지역사회 및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 설문지는 부모 각각 작성하는 것으로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평소 느낌과 생각, 일상생활과 건강, 취업 및 직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의 학교 담임교사 대상의 교사용 설문지는 학교, 교사, 아동 관련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조사영역,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 서술하였다.

〈표 II-1-1〉 18차년도 설문지별 조사의 구성

구분	조사체계	조사내용	조사방법
아동용 설문지	1) 일상생활과 경험	-식생활 및 가족과의 식사 횟수 -스마트폰 소유 여부, 미디어, 스마트폰 과의존 -수면 시간, 생활 시간, 학교 재학 여부 -취미/신체활동, 가사 참여, 용돈	TAPI (대면 면접) (대면 면접 어려울 시

구분	조사체계	조사내용	조사방법
	2) 인지 발달 및 학습	-집행기능 -학습성취도(주관적 인식)/스트레스, 자기조절학습	온라인 조사)
	3) 사회 및 정서 발달	-자아존중감, 자율성, 전반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우울 -또래애착, 이성관계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폭력 피해/가해	
	4) 미래/진로	-진로 계획, 대학 진학 계획 이유, 대학 진학 시 희망 전공 계열, 고등 이후 취업 계획 이유, 진로의식, 진로성숙도, 진로진학 활동, 희망직업 -결혼 및 자녀관(가치관) -진학/취업 준비 위해 다니는 기관 -대학 학교, 계열, 학과 -대학 학제, 소재지, 전형, 수시/정시 -주된 일자리(직종), 주당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시간	
	5) 부모	-부모의 성취압력 및 부모애착 -부모자녀 의사소통 -아동학대	
	6) 신체 및 건강 특성	-체중/키/허리둘레, 신체계측방법, 2차 성징 -신체적 자아상, 체형 인식, 체중조절 경험 -음주, 흡연 -장애 판정 및 정도, 만성질환, 입원 치료 여부 등	
	보호자용 설문지	1) 가구 및 가구원	
2) 아동		-주관적 건강상태(보호자 인식), 치료, 장애, 질환 등 -시력 보정도구 착용, 식사 및 참여활동, 미디어 중독 -부모 감독,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	
3) 아동의 학교		-학교 재학 및 대체이용기관, 학교 유형, 전학 여부, 학교 참여 및 서비스 만족도, 남녀공학 여부 -아동의 학업성취도(보호자/주관적 인식) -부모의 진로·진학 관심도, 진로 희망(보호자), 미재학 중 활동	
4) 아동의 사교육		-교육서비스 이용 경험/이유, 부담 정도, 영유아기/초등시기 사교육 효과	
5) 지역사회 및 정책		-양육환경 안전, 편의성, 만족도 -국민기초생활 및 지원 사업 수급 경험 -사교육 경감대책,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 사교육 권유 정도	
부모 설문지	1) 평소 느낌과 생각	-행복감,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우울, 결혼만족도 -부모-자녀 의사소통, 양육 스트레스	지필식 기입 (우편 전달, 방문 수거)
	2) 일상생활과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흡연, 신체활동	

구분	조사체계	조사내용	조사방법
교사용 설문지	3) 취업 및 직업	-스마트폰 과의존 -취업상태 및 특성, 일자리 만족도 -근무일수/시간/출퇴근/근로(사업) 소득	CAWI (Web 조사)
	1) 학교	-학교 특성 및 학교 풍토, 학생비행, 학교 환경	
	2) 교사	-교사 특성, 업무 스트레스/교사효능감	
	3) 아동	-교사-아동 인식, -아동 체력평가 결과(PAPS)	

2)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

본 조사의 윤리적 타당성과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계획에 대한 육아정책연구소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았다. 2025년 6월 16일에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수정을 거쳐 최종승인을 받았다(연구승인번호: KICCEIRB-2025-제03호).

3) 조사원 관리 및 교육

아동패널 사업의 조사원은 패널가구 관리와 컨택, 라포(rapport) 유지를 위해 가구별 담당조사원의 교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투입된다. 관련하여 2024년도에는 조사실적과 관리 정도에 따라 일부 조사원을 교체, 신규 투입한 바 있기에 2025년도에는 2024년도의 조사원 전원이 교체 없이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아동패널 사업은 조사원 관리의 일환으로 현장 조사에 앞서 조사원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한다. 교육은 2025년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권역별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총 55명의 조사원이 참여하였다. 교육에서는 설문지 구조 및 문항 해설, 조사대상자의 연령 및 특성에 따른 응답 유도 방식, 태블릿 조사 시스템 사용법, 개인정보보호 및 조사윤리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하였다. 교육은 강의뿐 아니라 실제 조사지 기반으로 한 모의 조사실습 등을 통해 조사원의 이해도 제고를 꾀하고자 하였다. 교육 종료 후에는 조사원에게 조사 관련 매뉴얼을 배포하고, 조사기간 중 현장 모니터링과 실시간 질의응답 체계를 운영하여 조사 품질을 지속 관리하였다.

〈표 II-1-2〉 2025년 18차년도 조사원 집체교육 일정

교육일시	교육장소	담당지역	참여 조사원 및 SV
7.1.(화)	서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20
7.2.(수)	광주	광주, 전남, 전북	7
7.3.(목)	대전	대전, 충남, 충북	9
7.7.(월)	대구	대구, 경북	10
7.8.(화)	부산	부산, 울산, 경남	9
계			55

주: SV=supervisor

나. 조사진행

1) 유효패널 설정 및 접촉

한국아동패널의 모집단은 2008년 4~7월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이며, 2006년 기준 연간 분만건수 500건 이상인 전국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표집되었다. 예비표본 2,562가구 중 2008년 제1차 조사에 참여한 2,078가구를 원표본으로 설정하고, 이후 2차·3차 조사에서 72가구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2,150가구의 전체 표본을 구성하였다.

2025년에 수행되는 제18차 조사에서는 전체표본 2,150가구 중 2020~2024년의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조사에 불참한 645가구와 강력거절가구 34가구, 아동 사망 등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3가구를 제외한 총 1,468가구를 유효패널로 설정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 접촉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II-1-3〉 2025년 18차년도 조사의 유효표본

단위: 가구

전체표본 (a)	제외 가구			17차년도 유효표본 a-(b+c+d)
	5년 연속(19~23년) 미참여 (b)	강력거절 등 (c)	아동사망으로 조사불가 ¹⁾ (d)	
2,150	645	34	3	1,468

주: 1) 아동사망으로 인한 조사불가 사유는 2021~2023년 확인된 수치로, 사망으로 인한 조사불가 사례는 '연속 미참여자수'에 더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

2025년 조사에서도 패널가구의 참여 수준에 따라 일반적인 '정규패널' 외에 '유예패널'과 '복원패널'을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조사참여율을 높이고 패널 유지에

힘쓰고자 하였다. 본조사를 거절한 가구는 ‘유예패널’로 분류하여, 가구원 변동, 이사계획, 조사참여 중단 사유 등을 포함한 최소 문항의 유예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 또한 유효표본에서 제외된 가구에 대해서도 1회 이상 접촉을 시도하여 재참여를 독려하고, 이에 응답한 가구는 ‘복원패널’로 지정하여 미참여 사유 등을 포함한 회고조사를 실시해 추가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이때 2024년도 유효패널이었으나 2025년도 유효표본에서 제외된 가구를 ‘우선 복원 패널’ 대상으로 설정하고 특별 관리 및 접촉하였다²⁾.

2024년도 17차에서는 복원패널로 19가구가 참여하여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표 II-1-4〉 참여정도에 따른 패널가구의 유형 구분

구분	대상 및 조사내용
정규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유효표본 중 일반조사에 응한 패널가구 → 과정에 따른 일반조사 실시
유예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유효표본 중 유예조사에 응한 가구(일반조사 거절 가구) → 패널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문항으로 구성된 조사(유예조사) 실시하고 일반조사 복귀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 ◦ 유예조사: 가구원 변동, 이사계획, 조사참여 중단 이유 등으로 구성
복원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미참여하거나 강력 거절 등으로 유효표본에서 제외된 가구 중 2025년 조사참여 가구 → 일반조사 외 필수 과거 정보 등 추가조사(복원패널 조사) 실시 및 사례 지급 ※ 2024년도 유효패널이었으나 2025년도 유효표본에서 제외된 가구를 ‘우선 복원 패널’ 대상으로 설정하고 특별 관리 및 접촉하여 조사 독려 ◦ 복원패널 조사: 조사참여 중단 이유, 패널아동의 학교 재학 정보 등 회고조사로 구성

자료: 조미라 외(2024).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 2024(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35. 〈표 II-1-4〉 발췌하고, 조사연도만 현행화함.

2) 조사진행

2025년도 18차년도 조사는 4~5월에 패널가구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전화번호, 주소 등 조사에 필요한 기초정보를 확인한 후에는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여 18차 조사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였으며, 안내문 발송과 함께 가구별로 배치된 담당 조사원이 전화로 연락해 조사일정을 재차 안내하고 가구별 방문일

2) 유예조사와 회고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의 설문지를 참고할 수 있음.

시를 정하였다.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부, 모 각각 응답할 종이설문지를 우편발송하고 가구별로 조사원과 약속한 일시에 방문 면접하여 보호자 조사, 아동 조사를 수행하였다. 면접 조사 시 교사 조사에 대한 가구의 승인을 얻어 교사 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조사가 수행되었다.

〈표 II-1-5〉 2025년 18차년도 조사진행 과정: 월별 패널가구 접촉 등 주요 일정

일정	연락 내용	세부 내용
4~5월	사전 정보 확인 조사	- 전화번호, 주소 등 기초정보 확인 조사진행
6월	조사참여 동의 및 조사 안내	- 조사 안내문 발송 및 참여 독려
	사전 컨택 전화	- 담당 조사원 전화 연락 및 조사일정 안내
7월	조사 안내문 및 종이질문지 발송	- 조사참여 안내문 및 부모 대상 종이질문지 우편발송
7~11월	방문 면접 조사 실시	- 조사원과 보호자의 시간 약속 후 기간 안에 조사완료 - 교사 온라인 조사 실시

자료: 조미라 외(2024).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4(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35. 〈표 II-1-5〉 발췌 (당해연도 동일내용임).

한국아동패널 조사는 아동, 주양육자(보호자), 부모 각각, 아동 학교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러한 조사대상별 조사방법은 이하와 같다.

아동 조사와 주양육자 조사는 조사원의 가구 방문을 통한 면접 조사로 실시되었다. 미리 가구와 협의된 시간에 담당 조사원이 가구를 방문하여 컴퓨터 프로그램화된 태블릿 PC용 설문(TAPI, Tablet Aided Personal Interviewing)으로 조사를 수행한다. 아동, 주양육자 조사는 한 명씩 순차적으로 조사원이 면접식으로 질문하고 대상자가 응답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문항의 경우 대상자가 직접 문항을 파악하고 응답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조사원의 설명과 지시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순서는 가구 사정과 희망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동시에 수행하지는 않는다. 한국아동패널은 2024년 조사부터 아동 조사의 경우에 대인면접이 어려울 시 온라인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아동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진료, 진학 등으로 가정 밖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대면이 어렵거나 꺼리는 아동들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된 방안이다. 2025년 아동 조사는 약 40분, 주양육자 조사는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부모 조사는 부, 모가 각각 종이설문지에 직접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즉, 조사가구 방문조사 이전에 각 가구로 우편 송부하여 미리 응답하도록 한 뒤, 조사원이 가구 방문 시 수거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부모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내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동 학교의 담임교사 조사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는 온라인 조사(Computer Aided Web Interview, CAWI)로 실시하였다. 상세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방문 면접 조사 시 주양육자, 아동 조사를 실시하면서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주양육자(부모)의 동의를 구한다. 이때 동의한 경우에 한해 가구 조사 방문 시 담임교사에게 전달할 우편봉투를 준비하여 아동을 통해 선생님께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한다. 아동에게 전달한 봉투에는 협조 공문,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편지, 조사참여 안내문을 동봉하여 봉투 수령을 통해 응답자인 아동의 담임교사가 자발적으로 온라인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 부모가 교사 조사에 동의하였으나, 교사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교사에 대해서는 보호자 조사 완료일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 가구 조사에서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학교에 조사안내 우편물(아동에게 전달요청한 봉투와 동일내용) 발송하였으며, 2~3일 후 학교 대표번호로 연락해(학년 담임교사의 성명을 통해 연락함) 조사안내 우편물 수령을 확인하고 조사 참여의사를 물어 온라인 조사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담임교사 조사는 약 10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1-6〉 조사대상별 조사방법

구분	조사대상	조사방법	조사진행 시간
아동 조사	패널아동 전체	컴퓨터 프로그램화된 태블릿 PC용 설문(TAPI)을 이용한 대인면접 대인면접 어려울 시 온라인 조사	약 40분
주양육자 조사	패널아동의 주양육자	컴퓨터 프로그램화된 태블릿 PC용 설문(TAPI)을 이용한 대인면접	약 30분
어머니/아버지 조사	패널아동의 어머니와 아버지	지필식 조사(우편 발송)	어머니 15분 아버지 15분
담임교사 조사	패널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	온라인 조사(CAWI)	약 1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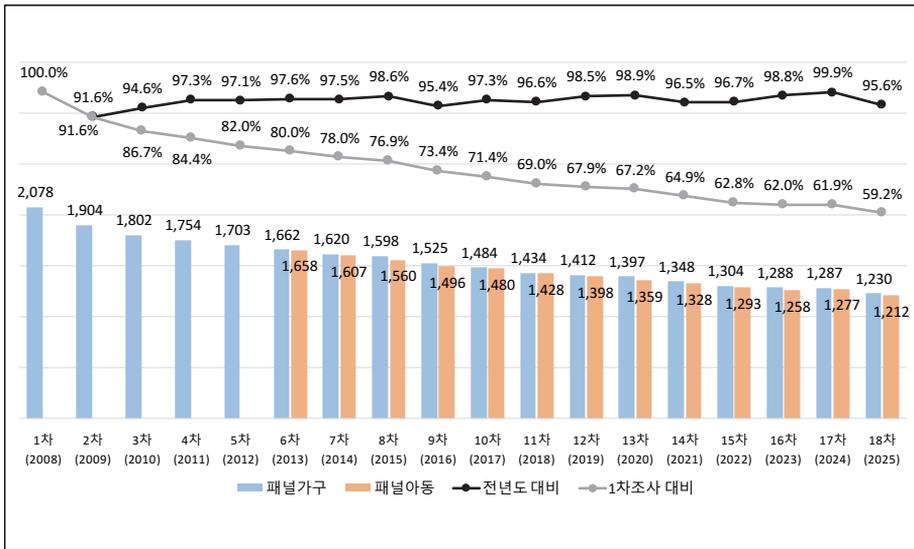
자료: 조미라 외(2024).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4(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36. 〈표 II-1-6〉 발췌 (당해연도 동일내용임).

다. 조사종료

1) 조사참여율 및 표본유지율

2025년 조사의 참여율과 표본유지율을 제시하면 아래 [그림 II-1-2]와 같다. 2025년 18차년도 조사에 참여 완료한 가구는 총 1,230가구(아동 1,212명)이며 이는 2025년 설정한 유효표본 1,468가구의 83.8%이다. 이는 2024년에 조사완료한 1,287가구의 95.6%이며 전체 표본 2,150가구의 57.2%이고, 1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2,078가구의 59.2%이다.

[그림 III-1-2] 2008~2025년 조사참여율



주: 전년도 대비 조사참여율 및 전체 패널 대비 조사참여율 수치는 패널가구수(주양육자 응답)를 기준으로 계산함.
 자료: 조미라 외(2024). 한국아동 성장발달 총단연구 2024(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37 그림에서 2025년 18차년도 수치를 추가함.

2025년 18차년도 조사참여 결과를 조사대상별로 살펴보면 주양육자 조사에는 1,230명이 참여하였으며, 아동 조사에는 1,212명(주양육자 조사의 98.5%)이 참여하였고, 부모 조사에는 각각 어머니 1,168명(주양육자 조사의 95.0%), 아버지 1,077명(주양육자 조사의 87.6%)이 참여하였다. 교사 조사에는 351명(주양육자 조사의 28.5%)이 참여하였다. 아동의 경우 대인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타지역

기숙사 거주 등으로 대인면접에 어려움이 큰 경우 온라인 조사를 권하였다. 그 결과 패널아동 101명은 온라인으로 조사에 참여하였다.

〈표 II-1-7〉 2025년 조사대상별 조사참여율

단위: 명, %

구분	주양육자	아동			모	부	교사
		대인면접 + 온라인	대인면접 (TAPI)	온라인			
조사방법	대인면접 (TAPI)					지필식 기입 (우편전달, 방문수거)	온라인 조사
조사참여자수	1,230	1,212	1,111	101	1,168	1,077	351
조사참여율 (주양육자 대비)	(100.0)	(98.5)	(90.3)	(8.2)	(95.0)	(87.6)	(28.5)

주: 조사참여율은 주양육자 대비 비율임.

2025년 18차년도 조사결과를 조사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일반조사에 참여한 정규패널이 99.8%였으며, 일반조사를 거절한 가구로서 패널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문항으로 구성된 유예조사에 응한 가구, 즉 유예패널은 0가구였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미참여하거나 강력 거절 등으로 유효표본에서 제외된 가구 중 2025년 조사에 참여한 복원패널 가구는 2가구였다. 복원패널 가구 중 2025년에는 2024년도 유효패널이었으나 2025년도 유효표본에서 제외된 23가구를 ‘우선 복원 패널’로 설정하고 특별히 관리 접촉하여 조사 독려하였으나 복원된 가구는 없었다.

〈표 II-1-8〉 2025년 조사유형별 조사참여율

단위: 명

정규패널	유예패널	복원패널	전체
1,228	-	2	1,230

주: 정규패널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행된 조사에 참여한 경우를 의미하며 주양육자(가구) 응답 기준으로 산출함.

2025년 지역별 조사 참여가구수는 아래와 같다. 서울 지역 참여가구는 150가구(아동 136명)였으며,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390가구(아동 383명)가 참여하였고 대전·충청·강원지역에서는 174가구(아동 177명)가 참여하였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130가구(아동 131명),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224가구(아동 221명)가 참여하였다. 광주·전라·제주 지역에서는 162가구(아동 164명)가 참여하였다.

〈표 II-1-9〉 2008-2025년 지역별 조사 참여가구수

단위: 가구수(아동수)

패널 현황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계
전체 패널	335	683	281	248	371	232	2,150
1차(2008년)	328	662	272	242	348	226	2,078
2차(2009년)	280	604	275	221	315	209	1,904
3차(2010년)	260	580	251	209	308	194	1,802
4차(2011년)	246	562	243	211	299	193	1,754
5차(2012년)	231	553	234	199	291	195	1,703
6차(2013년)	226(224)	532(531)	223(222)	196(196)	287(287)	198(198)	1,662(1,658)
7차(2014년)	223(221)	508(502)	227(224)	188(188)	281(279)	193(193)	1,620(1,607)
8차(2015년)	209(192)	512(492)	226(226)	179(178)	283(283)	189(189)	1,598(1,560)
9차(2016년)	182(177)	481(265)	222(220)	178(176)	277(274)	185(184)	1,525(1,496)
10차(2017년)	175(174)	480(475)	212(212)	170(172)	261(262)	186(185)	1,484(1,480)
11차(2018년)	166(164)	454(450)	211(211)	163(163)	253(253)	187(187)	1,434(1,428)
12차(2019년)	169(163)	438(431)	208(207)	159(158)	251(251)	187(188)	1,412(1,398)
13차(2020년)	172(158)	443(418)	197(199)	157(157)	247(246)	181(181)	1,397(1,359)
14차(2021년)	166(158)	434(425)	184(183)	147(147)	236(234)	181(181)	1,348(1,328)
15차(2022년)	167(162)	403(399)	184(183)	140(140)	231(229)	179(180)	1,304(1,293)
16차(2023년)	166(157)	404(383)	178(179)	137(137)	229(227)	174(175)	1,288(1,258)
17차(2024년)	159(153)	413(407)	184(185)	134(137)	227(224)	170(171)	1,287(1,277)
18차(2025년)	150(136)	390(383)	174(177)	130(131)	224(221)	162(164)	1,230(1,212)

주: 패널가구수(주양육자 응답)를 기준으로 계산함. 괄호 안은 아동 응답수임.
 자료: 조미라 외(2024).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4(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39. 표에서 18차년도(2025년) 수치를 추가한 자료임.

2) 조사원 간담회 개최

2025년 18차년도 조사에 투입될 지역별 조사원과 담당 실사담당자(수퍼바이저)를 대상을 총 5회의 조사원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조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 11월 말 경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연구진과 조사업체 본사 연구진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지역을 순회하며, 각 지역별 실사담당자와 조사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진행현황과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조사원들은 패널아동이 점차 성장함에 따라, 학업을 이유로 또는 아동 스스로 참여 거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호자까지도 조사를 거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였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장기간 조사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되어 조사참여를 거절하는 가구는 매년 존재하고, 고3 시기를 앞두고 진로를 확실히 정한 아동이나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들은 큰 어려움 없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분위기이나 중간 성적 이상의 아동의 경우에는 학업 스트레스가 높아 조사참여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17차 조사에 비해 18차 조사에서는 아동의 온라인 조사 활용률이 높아졌으며, 보호자 조사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길 원하는 의견도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오면서, 가구 방문에 대한 높은 거부감이 지속되어, 외부 카페 등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다과비가 추가 지출됨에 따라, 다과비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내년 고3 조사에서는 수능 전/후 등 조사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거론되었고, 조사참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량도 가능한 최소화되기를 요청하였다. 이 밖에도 TAPI 내 종단값 처리, 민감문항, 답례비, 장기 미참여자 대처방법 등 19차년도 조사를 위한 여러 개선 방안도 논의되었다.

〈표 II-1-7〉 18차년도 지역별 조사원 간담회 일정

일시	장소	대상자	
		지역	조사원 및 SV
2026. 11. 24.	서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24
2026. 11. 25.	부산	부산, 울산, 경남	11
2026. 11. 26.	대구	대구, 경북	10
2026. 11. 27.	광주	광주, 전남, 전북	8
2026. 11. 28.	대전	대전, 충남, 충북	11

주: SV=supervisor

〈표 II-1-8〉 18차년도 지역별 조사원 간담회 내용

구분	내용
25년 진행현황	- 진행률 공유 - 잔여 할당 확인 및 진행 독려 - 패널 이벤트(한줄평 쓰기, 4행시 짓기)
패널 컨택	- 컨택 관련 애로사항 - 보호자-아동 동시 진행 여부 및 정도 - 아동 온라인 조사 활용도
조사진행	- 이혼, 성적 등 예민할 수 있는 문항들 - 담임교사 조사 협조도(인센티브) - 유예조사/회고조사 - TAPI 사용 불편사항
기타	- 본 조사 경험 - 애로사항 - 개선 희망 건의사항 - 내년(고3) 상황 예상

2. 18차년도 조사내용

가. 조사내용 개괄

2025년 18차년도 조사는 2008년생 패닐아동들이 17세가 되는 해로 성인기를 앞두고 다양한 진로상태에 놓일 수 있는 상태임을 고려해 조사에 반영하고자 했다. 즉, 조기 진학, 취업 등이 가능한 연령이므로 진학 및 취업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항을 대거 도입하여 18차 조사뿐 아니라 19차, 아동이 성인이 되는 20차 조사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 외에도 아동의 진로의식, 보호자 대상의 부모의 진로·진학 관심도, 부모의 희망 진로 등 진로 관련한 문항들을 보완 하거나 신규로 도입하였으며, 아동의 주중/주말의 일과활동 시간에서도 일하는 시간을 추가하고 취·창업 외에도 아르바이트를 고려한 일자리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도 새로 도입하였다.

더불어, 시의성을 고려하여 조사내용을 보강하였다. 즉, 한국사회 저출생, 가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2024년 심층조사에 포함되었던 결혼 및 자녀가치관 문항을 올해부터 본 조사에 포함시키고, 자녀교육과 주거지 선택 이슈를 고려해 이사 사유 문항, 지역 거주 문항을 투입, 보완하였다. 또한 정책 특성 문항으로서 보호자의 사교육 권유에 대한 의견을 추가하고, 최근의 고교 내신 체제 전환 등 최근의 교육 이슈들을 반영하였다.

한편, 아동의 대입을 앞둔 패닐가구의 부담, 장기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피로를 덜고자 일부 긴 문항들을 폐지하는 등 변화를 꾀하였다. 대표적으로, 학교적응, 집행기능 등 30~40여 개의 다수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된 척도 문항들을 교차 조사하고, 격년 조사이나 보호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120문항씩 조사해왔던 문제행동(부모용 아동·청소년행동평가 CBCL, 교사용 아동·청소년행동평가 TRF) 조사를 폐지하여 응답피로도 및 교사 조사 요청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나. 주제별 조사내용

이하에서는 18차 조사에 대해 아동 특성, 부모 특성, 가구 특성, 학교 및 사교육 특성,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특성별 세부 변인에 대해

최근 3년간의 조사 여부를 표로 정리하고, 관련하여 2025년 18차 조사 시의 변화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1) 아동 특성

가) 일상생활 영역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성별, 월령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인구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식생활, 수면, 미디어, 실내/외 활동, 취미에 대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일상생활 영역의 많은 문항은 이미 중등 시기를 거쳐 오며 청소년기에 적합한 문항으로 변경·수정되어 안정적으로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18차년도 조사에서도 큰 변경 없이 유지하여 조사하였다. 단,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혹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취·창업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중/주말의 일과활동 목록 중 일하는 시간에 대한 항목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표 II-2-1〉 16~18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일상생활 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6차 (중3)	17차 (고1)	18차 (고2)
인구학적 특성		성별, 출생월(월령), 출생순위*	○	○	○
일상생활	식생활	식생활 진단_식품	●	●	●
		식생활 진단_음료	●	●	●
		식생활 진단_기타	●	●	●
		가족과의 식사 횟수	○	○	○
	수면	(주중, 주말) 기상 및 취침시각, 수면 시간	●	●	●
	미디어	휴대폰(스마트폰) 소유, 미디어 이용시간 총합	●	●	●
		미디어 이용시간 항목별 세부 시간(시간으로 응답)	●	●	●
		미디어기기 중독(부모진단)	○	○	○
		스마트폰 중독(자가진단)	●	삭제	삭제
		스마트폰 과의존(자가진단)	-	●	●
	실내/외 활동	(주중, 주말) 일과활동 시간	●	●	●
		실내외 신체활동	●	●	●
		활동별 참여 빈도	○	○	○
		독서량	●	삭제	삭제
		취미(악기연주, 스포츠경험) 여부	삭제	삭제	삭제
가사 참여 여부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6차 (중3)	17차 (고1)	18차 (고2)
	취미	취미 여부 및 종류	⊙	⊙	⊙
	경제 활동	용돈 지급 여부, 지급액	⊙	⊙	⊙
		용돈 사용처	⊙	⊙	⊙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아동응답)
 *: TAPI 면담 시 종단값 구현

나) 신체 및 건강 특성 영역

패널아동의 신체 및 건강 특성에 대해서는 체중/신장, 2차 성징 등 기본적인 신체 특성과 음주·흡연, 그리고 특정 질환 및 치료에 대한 내용으로 조사가 구성되어 있다. 신체 및 건강 특성 영역은 18차년도 조사에서도 변화 없이 17차년도 조사문항을 그대로 유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문항에는 변화가 없고, 아동 설문 응답 부담과 조사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TAPI 시스템 차원에서 한 가지 변화를 주었다. 2차 성징 시작 시기 문항에서 지금까지는 이전년도 입력값이 있는 경우 종단값이 구현되어 응답값을 확인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는데, 18차년도부터 해당 문항에 종단값이 있는 경우는 문항 자체가 보이지 않는 형식으로 변경하였다.

〈표 II-2-2〉 16~18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신체 및 건강 특성 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6차 (중3)	17차 (고1)	18차 (고2)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	체중/신장/허리둘레	⊙	⊙	⊙
		신체계측방법	⊙	⊙	⊙
		주관적 건강상태_보호자 인식	○	○	○
		시력보정도구 착용 여부, 시기	○	○	○
		체력검사 결과(PAPS)	■	■	■
		2차 성징이 나타난 시작시기	⊙	⊙	⊙
		신체적 자아상	⊙	⊙	⊙
		체형에 대한 인식 및 체중조절 경험	⊙	⊙	⊙
	체중조절 방법	⊙	⊙	⊙	
	음주 흡연	음주경험 여부, 시작 시기, 횟수	⊙	⊙	⊙
		음주장소	⊙	⊙	⊙
		주류 구입 경험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6차 (중3)	17차 (고1)	18차 (고2)
		흡연경험 여부, 시작 시기, 횟수	●	●	●
		담배 흡수경로	●	●	●
		담배 구입 경험	●	●	●
	질환 및 치료	장애 유형별 판정 여부 및 정도	○	○	○
		만성 질환,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시기, 상담 또는 병원 치료 여부	○	○	○
		응급실/입원 치료 여부 및 이유	○	○	○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다) 인지 발달 및 학습

인지 발달 및 학습 영역에서는 집행기능 등 인지 발달영역의 척도 문항과 학업 성취도, 학업 스트레스, 자기조절능력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학업성취도 조사는 16차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기준 아동의 과목별 성적표에 기재된 결과를 아동설문에서 조사하였으나, 17차년도부터는 보호자용 설문에서만 조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때 보호자용 설문으로 이동하게 된 아동의 성적표에 기재된 결과를 기초로 한 학업성취도 문항은 고등학교 성적 산정 방식을 반영하여,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은 9등급제,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과목은 A, B, C 등급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조미라 외, 2024: 46). 또한, 학업성취도 조사로 17차년도에 해당 학기의 전반적인 성적이 ‘반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5점 척도)을 추가하였다. 이 문항은 18차년도에도 유지하였다. 이외에도 18차년도에는 ‘전국에서’ 자신의 성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문항을 추가로 도입하였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와 자기조절학습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18차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아동용 설문에서 조사하였다.

집행기능은 격년 조사문항으로 15차년도에 조사가 실시되었으므로, 17차년도 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나, 17차년도는 학교급이 변경되는 시기(고1)이므로 집행기능보다 학교적응 문항의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³⁾ 17차년도에 집행기능을 조사

3) ‘학교적응’은 사회 및 정서 발달 영역으로 분류되는 변인임. 이를 인지 발달 및 학습 영역에 포함된 ‘집행기능’과 견주어 교차 조사하도록 결정한 까닭은 변인의 내용적 속성 때문이 아니라, 두 변인이 공통적으로 문항수가 많아 아동의 응답 부담이 우려되었기 때문이었음. ‘집행기능’은 40문항, ‘학교적응’은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하는 대신 학교적응 문항을 연속하여 조사한 바 있다. 아동들이 고2에 접어드는 시기인 18차년도 조사에서는 학교적응 문항을 삭제하고 집행기능 문항을 다시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표 II-2-3〉 16~18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인지 및 언어 발달 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6차 (중3)	17차 (고1)	18차 (고2)
인지 발달 및 학습	인지 발달	집행기능	-	-	●
	학습 관련	학업 스트레스	●	●	●
		학업성취도	●○	○	○
		학업성취도(반 기준)_주관적인식	-	●○	●○
		학업성취도(전국 기준)_주관적인식	-	-	●○
		자기조절학습	●	●	●

주: 1)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아동응답)
 2) 밑줄 친 조사변인은 18차년도 신규 문항

라) 사회 및 정서 발달 영역

18차년도 조사의 사회 및 정서 발달 영역에서는 자아 발달과 관련해 자아존중감 및 자율성의 문항이 포함되며, 정서 발달과 관련해서는 전반적 행복감, 삶의 만족도, 우울 관련 문항이 포함된다. 사회성 발달과 관련해서 또래애착 등의 척도문항들과 집단괴롭힘과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 등이 포함된다. 미래/진로 관련하여 미래희망직업과 진로성숙도, 진로진학활동 등이 포함되며, 경제·사회와 관련된 변인으로는 결혼, 자녀에 대한 인식이 포함된다.

우선 자아 및 정서 발달과 관련된 조사문항을 살펴보면, 자아존중감과 우울은 매년 조사에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자율성은 격년 조사문항으로 16차년도 조사 이후 18차년도 조사에 포함하였다. 반면, 17년차에 조사한 격년 조사문항인 끈기는 18차년도에는 조사하지 않았다. 한편, 자아탄력성 문항 또한 격년 조사문항으로 18차년도 조사 포함되어야 하나, 응답 부담 경감을 위하여 18년도 조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반대로 삶의 만족도 문항은 16차년도부터 조사하지 않은 문항이었으나, 고등학교 시기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18차년도 조사문항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단, 18차년도에 조사되는 삶의 만족도는 이전과 달리 부, 모 조사와 동일하게 5점 척도로 삶의 만족 정도를 묻는 단일문항



으로 새롭게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18차에 조사되는 ‘삶의 만족도(고등 이후)’의 변수명으로 명명하여 이전 시기의 삶의 만족도 변인과 구분하기로 하였다.

문제행동은 격년으로, 보호자를 대상으로 ‘부모용 아동·청소년행동평가 CBCL (Child Behavior Checklist for Ages 6-18)’을 실시하고 아동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교사용 아동·청소년행동평가 TRF(Teacher’s Report Form)’를 실시해 왔다(조미라 외, 2023: 48). 16차년도에 조사되었으므로 올해 18차 조사에서 수행되어야 하나 보호자와 교사 대상 조사 모두 총 120문항(3점 리커트 척도)으로 설문부담이 크고, 특히 패널가구의 동의 하에 진행되는 아동의 담임교사 조사(학교 조사)의 경우 아동의 대입 등을 앞둔 패널가구에서 교사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아 동의받기가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18차부터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사회성 발달과 관련하여 또래애착과 폭력피해 및 폭력가해 문항은 매년 반복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와 이성관계도 동일하게 매년 조사가 이뤄지는 문항이다. 18차년도 조사에서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서 발달과 관련된 척도 문항으로 문항수가 많은 집행기능이 추가됨에 따라 학교적응 문항을 삭제하였다. 공감과 비속어 사용은 17차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조사문항에서 제외되었다.

미래/진로 관련해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미래희망직업, 진로성숙도, 진로진학 활동 문항은 유지하되, 진로의식 문항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새로이 추가된 진로의식 문항은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⁴⁾(아동용 기본형 만12세~17세) C14번 문항의 1~11번을 발췌한 것으로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생각(1~4번)’, ‘진로에 대한 생각(5~11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부터 시행된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진로성숙도 문항은 아동종합실태조사(아동용 기본형 만12세~17세) C14번 문항의 12~18번과 일치한다. 이용자들은 이전부터 시행된 ‘진로성숙도’ 문항과 신규문항인 진로의식 내의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생각’, ‘진로에 대한 생각’을 연계 또는 통합하여 활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2024년 아동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던 17차에 신규로 투입되었던 진학계

4) 이상정·이주연·전진아·김수진·임성은·신영규·류정희·하태정·권영지·김시아·김지현·유민상(2023).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획 문항은 2024년도에는 사회 및 정서 발달 영역의 미래/진로 내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5년도에는 학교 및 사교육 특성으로 이동해 진로·진학/취업 영역으로 확장하여 조사하기로 하였다.

경제·사회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물어왔던 결혼을 할 것인지, 자녀를 가질 것인지 묻는 결혼관/자녀관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경제·사회 관련 변수로서, 2024년도에는 5차 심층조사의 일환으로 '후기 청소년의 가족과 다문화 인식'을 주제로 해 관련된 여러 변인이 포함되어 조사된 바 있다. 심층조사는 단회 조사되는 것이 원칙이나 한국사회 저출생 등 시의성을 고려하여 남녀 간의 동거, 비혼, 혼외출산, 무자녀부부, 이혼에 대한 생각을 물었던 '결혼가치관/자녀가치관'⁵⁾ 문항은 2025년부터 본조사로 흡수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기로 하였다.

〈표 II-2-4〉 16~18차년도 아동 특성 조사변인: 사회 및 정서 발달 영역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6차 (중3)	17차 (고1)	18차 (고2)
사회 및 정서 발달	자아 발달	자아존중감	○	○	○
		자아탄력성(격년)	○	-	삭제
		GRIT(끈기)(격년)	-	○	-
		자율성(격년)	○	-	○
		사이버 비행인식	○	삭제	삭제
	정서 발달	전반적 행복감	○	○	○
		삶의 만족도(고등 이후)	-	-	○
		과목 선호도	○	삭제	삭제
		우울	○	○	○
	사회성 발달	문제행동	○■	-	-
		학교적응(중·고등학교)	○	○	-
		또래애착	○	○	○
		공감	○	삭제	삭제
		폭력 피해(온/오프)	○	○	○
		폭력 가해(온/오프)	○	○	○
		비속어 사용	○	삭제	삭제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_아동	○	○	○
	이성관계	○	○	○	
	미래/진로	미래희망직업	○	○	○

5) 2024년 심층조사에서는 '결혼관/가치관(심층)'으로 변수명(소분류)을 부여했었으나(조미라 외, 2024: 48, 50), 2025년부터 본조사로 흡수됨에 따라 기존 '결혼관/자녀관' 변수와 구분하기 위해 '결혼가치관/자녀가치관'으로 변수명(소분류)을 변경하였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6차 (중3)	17차 (고1)	18차 (고2)
		진로의식	-	-	⊙
		진로성숙도	⊙	⊙	⊙
		진로진학 활동	⊙	⊙	⊙
	경제·사회 관련	결혼관/자녀관	⊙	⊙	⊙
		결혼가치관/자녀가치관	-	⊙	⊙
		가족의 범위(심층)	-	⊙	-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기대(심층)	-	⊙	-
		가족 내 성역할 인식(심층)	-	⊙	-
		국민정체성(심층)	-	⊙	-
		다문화 거부·회피 정서(심층)	-	⊙	-
		세계시민행동 의지(심층)	-	⊙	-
		외국이주민에 대한 지각된 위협 인식(심층)	-	⊙	-
		공동체 의식(격년)	-	⊙	-

주: 1)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2) 밑줄 친 조사변인은 18차년도 신규 문항

2) 부모 특성

부모 특성은 인구학적 및 일상적 부분인 개인 및 부부 특성, 신체 및 질환/장애 등으로 구성된 부모 신체 및 건강 특성, 부모의 취업상태 등의 직업 특성, 마지막으로 패널아동의 양육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된 양육 특성,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된다.

개인 특성에 포함되는 우울 척도의 경우 2023년 외부 연구자의 척도 최신화의 요구 등으로 산후우울 중심으로 이뤄진 우울 척도 문항을 Kroenke 외(2001)의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PHQ-9)로 대체한 바 있다. 2024년 17차년도 조사에서 설문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격년문항으로 전환하면서 조사되지 않았으며 2025년 18차년도에는 2023년에 변경된 척도로 조사하였다. 자아존중감은 격년문항으로 올해는 조사하지 않는다. 또한, 우울 및 자아존중감 척도와 동일하게 결혼만족도 및 부부 갈등의 경우도 격년문항으로, 올해는 부부 갈등 문항이 아닌 결혼만족도 문항이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2025년 18차년도 조사의 부모 특성 부문에서는 패널데이터의 연속성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하여, 큰 변동 없이 전년도 조사내용을 그대로 이어가고자 하였다.

〈표 II-2-5〉 16~18차년도 부모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6차 (중3)	17차 (고1)	18차 (고2)
개인 및 부부 특성	인구학적 특성	연령, 최종학력	○	○	○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이유	○	○	○
	심리적 특성	우울(후기)(격년)	●	-	●
		자아존중감(격년)	-	●	-
		주관적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	●	●
		일-가정 양립 시 이점과 갈등	●	삭제	삭제
	부부 특성	결혼상태, 결혼상태 유지 기간	○	○	○
		결혼만족도(격년)	●	-	●
		부부 갈등(격년)	-	●	-
	일상생활 특성	스마트폰 중독(부모)	●	-	-
스마트폰 과의존(자가진단)		-	◎	◎	
부모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	●	●
	질환/장애	장애 유무 및 정도	○	○	○
	음주 및 흡연	음주 여부, 횟수, 양, 과음 횟수	●	●	●
		흡연 여부, 하루 흡연량	●	●	●
운동	실내외 신체활동	●	●	●	
직업 특성	일반적 특성	취/학업 상태	●	●	●
	취업 특성	재직 상태, 직장 변동 여부, 지위, 직업분류	●	●	●
		총상상 지위	●	●	●
		근무일수, 근무시간, 양복 출퇴근 시간	●	●	●
		주당 근로시간	●	●	●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	●	●		
양육 특성	양육 실제	양육방식(성취압력)	◎	◎	◎
		부모애착(IPPA)	◎	◎	◎
		아동학대	◎	◎	◎
		부모 감독(후기)	◎○	○	○
		합리적 설명	◎	삭제	삭제
		양육 스트레스	●	●	●
		부모-자녀 의사소통	◎●	◎●	◎●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	○	○	○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 ◎:아동응답)



3) 가구 특성

가구 특성 조사변인은 크게 인구학적 특성, 물리적 특성, 경제적 특성 세 가지로 나뉜다. 인구학적 특성은 패널아동과 부모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이유, 가구원 수 등이 포함된 가구 구성 특성 및 패널아동의 형제자매 성별, 다동이 여부 등으로 구성된 구성원 특성으로 이뤄진다. 물리적 특성으로는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이 포함되어 있으며, 경제적 특성은 가구소득, 취업 모/부 근로소득, 주관적 경제적 지위, 가계 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구 특성의 경우도 부모 특성과 마찬가지로 패널데이터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조사문항 그대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표 II-2-6〉 16~18차년도 가구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6차 (중3)	17차 (고1)	18차 (고2)
인구 학적 특성	가구 구성	패널아동-부모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	○	○
		가구 구성 형태, 가구원수	○	○	○
	구성원 특성	형제자매 성별, 생년월일	○	○	○
		패널아동 다동이 여부	○	○	○
물리적 특성	주거환경	○○(이) 개별 방 여부	○	○	○
	생활환경	애완동물(반려동물) 여부	○	○	○
경제적 특성	소득	가구소득	○	○	○
		취업 모/부 근로소득	●	●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	○	○
	지출	가구에 대한 소비성, 비소비성 지출	○	○	○

주: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어머니/아버지응답)

4) 학교 및 사교육 특성

학교 및 사교육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는 아동의 고등학교 재학 여부, 대체 이용 기관, 미진학 이유, 전학 여부 등 학교 특성과 이용 특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또한, 아동들이 고2에 접어드는 시기인 18차 조사에서는 학교를 그만둔 시기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아동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이때 학교 재학 여부 문항은 17차 조사에서는 고등학교 재학 여부에 대해서만 파악하도록 물었으나, 18차 조사가 시행되는 2025년은 2008년생 아동들이 17세가 되어, 일부는 (조기) 대학진학, 취업

등 다양한 상태에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선택지를 다양화하였다. 즉 ‘학교다님’의 경우 중, 고, 대학교 재학으로 구분하고, ‘학교 다니지 않음’은 진학준비, 취업 준비, 일하고 있음, 쉬고 있음, 기타의 상태로 구분하였으며, 이 문항은 이어지는 진로·진학/취업 분야의 관련 문항들과 연동되도록 설계하였다.

학교 특성에 있어서의 학교 풍토와 학생 비행, 그리고 학교의 물리적 특성과 담임교사가 인식하는 업무 스트레스, 교사효능감, 교사의 기본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교사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학급 운영과 관련해 17차년도에 신규 도입된 교사-아동 인식도 그대로 포함하였다.

가정 협력에 관한 문항으로는 부모의 진로·진학 관심도, 보호자의 희망 진로를 18차년도에 신규 포함하였다. 진로·진학 관심도 문항은 성적, 진로계획, 정보탐색, 진로에 대한 대화, 진로 컨설팅 참여에 대한 5개 하위 영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 문항으로 연구진이 개발하였다. 보호자의 희망 진로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에 대해 대학 진학, 취/창업 등 보호자의 희망을 묻는 문항으로 설계하였다. 이때 진학에 응답하는 경우 하위문항으로 대학 진학 시 보호자가 원하는 전공 계열에 대해서 묻도록 하였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차 조사는 아동이 진학 및 취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진로가 생길 수 있는 시기(고2)이므로 진학 및 취업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항들을 주요하게 포함시켰다. 이 문항들은 고2 시기인 2025년부터 아동이 성인이 되는 2027년 조사 완료 시까지 유용하게 조사·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에 진학한 아동을 대상으로는 대학 계열, 학과, 대학 학제, 소재지, 전형 등에 대한 조사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취업한 아동들을 대상으로는 주된 일자리, 주당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소득 등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였다.

사교육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교육 이용 종류 및 기관, 시간, 비용, 비용 부담 정도, 만족도, 교육서비스 이용 이유 등에 관하여 보호자 조사로 포함하였고 EBS 이용 여부, 이용시간 등 EBS 관련 문항 역시 지속적으로 아동 설문에 포함하였다. 다만 사교육에 대한 교육서비스 이용 이유에 대해서는 선택지에 취·창업 준비(직업 훈련 등)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고2 시기가 된 아동의 성장 발달단계를 반영하고자 했다.

〈표 II-2-7〉 16~18차년도 학교 및 사교육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6차 (중3)	17차 (고1)	18차 (고2)	
학교	이용 특성	학교 재학 여부	○○●	○○●	○○●	
		대체 이용기관	○	○	○	
		학교 그만둔 시기	-	-	●	
		미진학 이유(미재학 이유)	○	○	●	
		전학 여부	○	○	○	
	학교 특성	학교 유형_중학교	○■	삭제	삭제	
		학교 유형_고등학교	-	○	○	
		남녀공학 여부	■	○	○	
		시범학교 유형	■	삭제	삭제	
		학교 서비스 만족도	○	○	○	
		학교 풍토_교사, 학생, 학부모	■	■	■	
	물리적 특성	학생비행	■	■	■	
		학급수, 학급 학생수	■	■	■	
	교사 특성	학교 환경	■	■	■	
		성별, 연령, 최종학력, 교사 경력, 근무시간	■	■(수정)	■	
		교사 담당과목	■	■	■	
		업무 스트레스	■	■	■	
	학급 운영	교사효능감_중고등	■	■	■	
		교사-아동 관계	■	삭제	삭제	
	가정 협력	교사-아동 인식	-	■	■	
		부모의 행사 참여 여부(부모)	○	○	○	
		부모의 학교 행사 참여 정도	■	삭제	삭제	
		부모의 학교생활 관심 정도	■	삭제	삭제	
		부모의 학교상담 참여 정도	■	삭제	삭제	
		교교 진학유형	○○	삭제	삭제	
		부모의 진로·진학 관심도	-	-	○	
	진로·진 학/취업	진로	진로 희망 보호자	-	-	○
			진학계획_고등학교 졸업 이후	-	●	●
			대학 진학 계획 이유	-	●	●
			대학 진학 시 희망 전공계열	-	●	●○
진학		취업 계획 이유	-	●	●○	
		진학/취업 준비 위해 다니는 기관	-	-	●	
		대학 학교, 계열, 학과	-	-	●	
취업		대학 학제, 소재지, 전형, 수시/정시	-	-	●	
		주된 일자리	-	-	●	
		주된 일자리 직종	-	-	●	
		주당 근로시간	-	-	●	
월평균 근로소득		-	-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6차 (중3)	17차 (고1)	18차 (고2)
사교육 특성	이용 특성	이용 종류 및 기관, 시간, 비용, 비용 부담 정도, 만족도	○	○	○
		교육서비스 교재비	○	○	
		교육서비스 이용 이유	○	○	○
	사교육 인식	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사교육 부담, 사교육 개수 적당, 부담 정도 및 부담이유)	●	●	●
		아동이 인식하는 사교육(사교육 효과 인식)	●	●	●
	EBS	EBS 이용 여부, 시간, 도움 정도	-	●	●

주: 1) 약호설명(○:보호자응답, ●:아동응답, ■:교사응답)
 2) 밑줄 친 조사변인은 18차년도 신규문항

5) 지역 및 정책 특성

지역 및 정책 특성 영역에서는 지난 조사 후 이사 횟수, 이사 사유, 거주 이유 등 가구 특성에 대한 기본사항, 양육 환경,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인식과 수급 경험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지역 특성과 관련해서는 이사 횟수, 이사 사유 등 가구 특성에 대한 기본사항과 지역시설 편의성 및 이용 만족도와 양육 환경 안정성 등 양육 환경에 대한 문항을 기존과 동일하게 조사하되, 시의성을 반영해 일부 문항을 보완하였다. 즉, 이사 사유 문항의 경우, 선택지 중 ‘자녀교육 환경(학교, 학원 등)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를 ‘학교 때문에’, ‘학원 등 사설 교육시설 접근성이 좋아서’로 분리하고, 보호자 대상으로 지역 거주 이유 문항을 추가 조사하여 아동 성장과 발달과 지역 선택, 근래 한국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과 주거지 선택의 연관성 파악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고자 했다.

정책 특성과 관련해서도 최근의 정책 동향을 반영해 유지, 보완, 신규문항 추가를 결정하였다. 즉,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여부는 그대로 조사하되, 취약계층 지원 사업 수급 경험 문항에 대해서는 하위문항으로서 긴급복지 교육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보완하였다. 사교육 경감 대책 문항은 2024년 17차년도 조사 시 신규 실시된 문항으로, 여전히 유효한 대책인 것으로 확인되어 18차에도 포함하였다.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 문항의 경우, 2024년 17차에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대한 의견만 물었으나 2025년 18차년도 조사에서는 ‘고교 대신 체제 5등급제 전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추가하여 확대 조사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영유아, 아동기의 사교육 과열에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세태를 반영해, 정책 특성의 일환으로서 양육 경험을 고려할 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사교육을 권유하는 정도에 대한 의견을 보호자 대상으로 새로이 묻기로 하였다.

〈표 II-2-8〉 16~18차년도 지역 및 정책 특성 조사변인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6차 (중3)	17차 (고1)	18차 (고2)
지역 특성	가구특성		지난 조사 후 이사 횟수	○	○	○
			이사 사유	○	○	○
			거주이유	-	-	○
			지역규모, 6개 권역 구분, 17개 시/도 구분, 시/군/구	○	○	○
	양육 환경	교육·복지·의료 문화·여가	지역시설 편의성 및 이용 만족도	○	○	○
	사회 안전	양육환경 안전성	○	○	○	
정책 특성	정책지원 수급 경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구분	○	○	○
			취약계층 지원 사업 수급 경험	○	○	○
	정책인식 및 의견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의견	○	삭제	삭제
			한국사회 교육에 대한 인식	○	삭제	삭제
			사교육 경감대책	-	○	○
			사교육 권유 정도	-	-	○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	-	○	○	

주: 1) 약호설명(○:보호자응답)
2) 밑줄 친 조사변인은 18차년도 신규 문항

3. 패널유지 방안

가. 패널아동 온라인 이벤트 개최

2025년에는 패널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패널 4행시, 한줄소감, 패널아동들 대상 상호격려 메시지 전하기 행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패널유지 방안의 일환으로 2023년, 2024년 두 차례 진로진학설명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에는 패널아동 대상 정책공모전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패널아동들은 학업 및 진로 준비에 부담이 큰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있어 이러한 참여형 행사에 대한 호응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이벤트를 개최하였다.

온라인 이벤트는 패널 친구들이나 육아정책연구소에 하고 싶은 말을 한줄 소감으로 전하거나 ‘아동패널’로 4행시 짓기로 시행하였다. 문자서비스와 SNS로 접속할 수 있는 URL과 QR코드를 제시하고 2025년 7월 7일부터 7월 27일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참여한 아동들 모두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증정하였다. 한줄 소감에는 100건, 아동패널 4행시 짓기에는 140건으로 총 240건이 접수되었으며 두 가지 행사에 모두 참여한 아동들도 있어 전체 참여 아동 수는 185명이었다. 일부 대표작들은 2025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함께 실시한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 때 전시하여 공유하였다.

[그림 II-3-1] 패널아동 대상 온라인 이벤트 행사 포스터 및 대표작

행사 포스터

한국아동패널 이벤트

2025. 7. 7.(월) ~ 7. 27.(일)

Event 01. 한줄평 쓰기

1. 2008년부터 아동패널을 함께 하고 있는 패널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2. 아동패널을 운영하고 있는 육아정책연구소에 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세요!

Event 02. 4행시 짓기

“아동패널”로 멋진 4행시를 만들어 주세요!

【 각 이벤트마다 100명씩 선정하여 총 200명에게 】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보내드립니다!

참여방법

1. URL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벤트페이지 접속
<https://m.site.naver.com/1M81W>
2. 원하는 이벤트 참여(원하는 이벤트 1개만 or 2개 모두 참여 가능)
* 한줄평 이벤트는 패널친구와 육아정책연구소에 모두 한줄평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3.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제공 동의 후 제출
* 이벤트는 패널 아동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패널 아동이 아니면 당첨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_ 핫라인 010-9772-2133

한줄 소감 대표작

“2008년부터 같이 참여해 온 우리 정말 멋지지 않아? 매년 조사받으면서 조금씩 자라는 우리 모습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힘내자!”

“이런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제가 그 주인공으로 여전히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동패널 4행시 대표작	
아: 아동패널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네요 동: 동그랄기만 했던 제 얼굴에 수염이 났어요 패: 패널 친구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널: 널리널리 아동패널 홍보할게	아: 아장아장 걷던 내가 동: 동글동글 자라며 패: 패널조사에 담긴 나의 변화는 널: 널리 퍼질 통계가 되었다

[그림 II-3-2] 패널아동 대상 온라인 이벤트 학술대회 전시



주: 제16회 한국아동패널 및 제3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공동학술대회(2025.8.29.(금) 대한상공회의소 개최) 전시 사진임.

나. 패널가구 문자 및 SNS 채널 관리

패널유지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진행해 왔던 문자와 SNS를 통한 공지 및 서비스 제공, 연말 경품행사, 조사 5종(아동, 가구, 부/모, 교사) 모두 완료 시 추가 사례 제공 등을 유지하였다.

특히 문자와 SNS를 통한 관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조사의 시작, 진행, 종료 등의 공지사항을 문자서비스와 SNS로 전달하고 설과 추석 명절과 아동 생일에 축하 및 기념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시험기간에는 고등 2학년 과정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쉬운 문제로 퀴즈를 내었고(시험기간 열공퀴

즈), 이외 연 6회 아동패널 관련 또는 사회,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상식 문제로 퀴즈를 내어 당첨자에게 모바일 쿠폰 등을 제공하는 행사를 열었다.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해 정보를 제공하는 간단한 카드뉴스도 1회 제공하였다. 이상에서 설명한 패널 가구 문자 및 SNS의 내용과 2025년 관리 일정을 표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II-3-1〉 패널가구 문자, SNS 채널 관리

구분	내용
조사 공지	- 18차년도 조사진행 내용 공지
퀴즈	- 아동패널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아동패널 관련 퀴즈 또는 사회, 역사, 문화 등 다양한 상식 문제 - 연 6회, 회당 50명 모바일상품권 증정 - 정답을 맞힐 때까지 반복가능, 중복당첨 최소화를 위한 리스트 관리
열공퀴즈	- 패널아동 학교 시험기간 내 관련 내용 문제 출제 - 연 4회, 회당 50명 모바일상품권 증정 - 정답을 맞출 때까지 반복 가능, 중복당첨 최소화를 위한 리스트 관리
레터링 /생일축하	- 새학기, 명절, 연말 등 기념메시지 전달 - 아동생일 당일 축하메시지 및 상품권 전달

〈표 II-3-2〉 패널가구 문자 및 SNS 채널 관리 일정

월	구분				
	조사 공지	퀴즈	열공퀴즈	레터링	생일축하
1월					
2월				10일(설)	
3월					아동생일 당일
4월			30일(1학기 중간)		
5월		14일			
6월	23일(조사예정)		9일(1학기 기말)		
7월		14일, 28일			
8월	18일(조사 중)	11일			
9월			8일(2학기 중간)	17일(추석)	
10월	27일(조사 중)	13일			
11월		10일			
12월	(조사종료)		15일(2학기 기말)	30일(연말)	

4.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가. 자료 활용 현황

2010년 제1차 한국아동패널 데이터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이후 15년 동안

다방면으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가 활용되어 왔으며, 매년 한국아동패널에서는 패널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국내·외 연구보고서, 세미나, 학술논문 등의 현황을 조사해 왔다. 올해는 2024년 기준으로 제1~14차 데이터까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간된 형태 및 현황 조사와 함께, 각 발간된 논문에서 분석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의 일반적인 현황(활용한 데이터 차수 및 횡·종단연구 여부, 분석 방법, 변인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관련해 한국아동패널에서는 데이터 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논문 발간 후 패널연구진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추가로 전체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2024년을 기준으로 2024년 한 해 동일 발간 논문 중 한국아동패널 유저가이드에 명시된 약어 및 주제어인 ‘PSKC’, ‘한국아동패널(조사)’ 등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 발간물을 수집 및 분류하였다. 2024년까지의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발간물 현황을 살펴보면, 학위논문, 학술대회, 학술논문 등은 총 1,605편이며, 그중 학술논문이 1,149편, 학술대회 288편, 학위논문 144편 순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2024년도에는 학위논문 131편, 학위논문 29편, 학술대회 27편이 발간되었으며, 특히 학위논문의 경우 2010년 데이터 공개 이후 2024년 가장 많은 활용건수를 보였다.

〈표 II-4-1〉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수

단위: 편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전체	39	53	40	52	77	87	131	83	93	69	172	157	175	190	187	1,605
연구보고서	3	3	2	1	2	2	2	1	-	-	-	-	-	-	-	16
세미나 등	-	2	2	1	1	1	-	1	-	-	-	-	-	-	-	8
학위논문	-	2	2	5	8	9	12	4	1	16	18	19	6	13	29	144
학술대회	36	29	9	18	22	3	12	18	16	11	29	19	23	16	27	288
학술논문	-	17	25	27	44	72	105	59	76	42	125	119	146	161	131	1,149

주: 1) 데이터 활용사실을 보고하거나 포털에서 검색된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일부 누락된 논문이 있을 수 있음.

2) 2025년 3월 기준으로 재보완하였으므로, 이전 연구보고서의 논문수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동안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간된 논문수는 〈표 II-4-2〉와 같이 총 1,149편이었으며, 횡단연구 712편, 종단연구 437편으로 확인되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발간된 논문 총 131편 중 횡단연구는 79편, 종단연구는 52편이었다.

전체적으로 횡단자료를 활용한 논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종단연구도 꾸준히 발간되고 있다.

〈표 II-4-2〉 연도별 분석방식에 따른 논문수: 2011-2024년

단위: 편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전체	17	25	27	44	72	105	59	76	42	125	119	146	161	131	1,149
횡단	17	24	23	36	48	61	40	44	17	69	69	75	110	79	712
종단	0	1	4	8	24	44	19	32	25	56	50	71	51	52	437

주: 1) 원문 공개된 논문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발간 논문수와는 상이할 수 있음.
 2) 각 연도에 국내 외 학술지에 발간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다음은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한 발간 논문을 데이터 활용 연도 및 차수별로 분류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누적 현황을 살펴보면, 제7차 데이터가 316회로 가장 많은 누적 활용도를 보였고 5차와 8차가 각각 222회, 219회였다. 2024년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공개된 데이터인 제14차 데이터를 중심으로 횡단연구 활용이 가장 많았고 11~13차 데이터를 중심으로 종단연구가 진행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II-4-3〉 연도별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차수: 2011-2024년

단위: 회, 편

년도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논문수
2011	횡단	16	1	-	-	-	-	-	-	-	-	-	-	-	-	17
	종단	-	-	-	-	-	-	-	-	-	-	-	-	-	-	-
2012	횡단	17	7	-	-	-	-	-	-	-	-	-	-	-	-	24
	종단	1	1	-	-	-	-	-	-	-	-	-	-	-	-	1
2013	횡단	3	9	11	-	-	-	-	-	-	-	-	-	-	-	23
	종단	4	4	3	-	-	-	-	-	-	-	-	-	-	-	4
2014	횡단	2	6	9	19	-	-	-	-	-	-	-	-	-	-	36
	종단	7	8	6	3	-	-	-	-	-	-	-	-	-	-	8
2015	횡단	1	3	7	15	22	-	-	-	-	-	-	-	-	-	48
	종단	12	17	21	17	9	-	-	-	-	-	-	-	-	-	24
2016	횡단	-	2	1	6	29	22	1	-	-	-	-	-	-	-	61
	종단	24	27	31	31	22	10	-	-	-	-	-	-	-	-	44
2017	횡단	-	-	2	-	7	14	16	1	-	-	-	-	-	-	40
	종단	9	8	10	12	16	14	9	-	-	-	-	-	-	-	19
2018	횡단	-	-	1	1	2	4	23	13	-	-	-	-	-	-	44
	종단	11	11	9	9	16	19	21	13	-	-	-	-	-	-	32
2019	횡단	-	-	-	-	1	-	10	3	1	2	-	-	-	-	17
	종단	5	2	4	3	11	15	20	16	4	2	-	-	-	-	25
2020	횡단	-	-	1	1	4	1	27	19	2	15	-	-	-	-	69
	종단	9	10	11	14	23	21	31	36	20	19	1	-	-	-	56

년도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논문수
2021	횡단	-	1	-	-	2	1	22	8	4	12	19	-	-	-	69
	종단	7	6	6	9	17	22	32	33	19	21	9	-	-	-	50
2022	횡단	1	-	1	1	2	-	16	6	2	7	25	17	-	-	75
	종단	7	7	9	11	16	22	33	32	30	31	24	11	-	-	71
2023	횡단	-	-	5	-	-	2	18	3	1	6	11	23	43	-	110
	종단	5	4	5	9	15	12	15	21	22	19	28	20	14	-	51
2024	횡단	-	-	-	1	1	2	7	3	-	3	7	9	18	28	79
	종단	3	3	4	4	7	11	15	12	13	14	20	23	22	11	52
합계		144	137	157	166	222	192	316	219	118	151	144	103	97	39	-

주: 1) 원문 공개된 논문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발간 논문수와는 상이할 수 있음.
 2) 각 년도에 국내외 학술지에 발간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분석함.
 3) 중단연구의 경우 중복 기입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2023, 2024년 발간 논문의 분석 변수들을 살펴 보면(〈표 II-4-4〉 참조), 2024년 기준 아동 특성 369회, 부모 특성 95회, 가구 특성 4회, 그리고 학교 특성은 4회 활용되었다. 전체적으로 2023년에 비해 2024년 발간 논문의 수가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변인 수도 줄어들었지만, 아동 특성 중 특히 인지·언어·학습 변인이 57회로 전년도(51회) 보다 많은 활용도를 보였다.

〈표 II-4-4〉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활용 논문 변수: 2023, 2024년 발간 논문 기준

단위: 회

구분	계	아동 특성							부모 특성						
		인구학적 특성 ¹⁾	일상생활 ²⁾	신체 건강 ³⁾	인지 언어 학습 ⁴⁾	자아 정서 발달 ⁵⁾	사회성 발달 ⁶⁾	계	인구학적 특성 ⁷⁾	신체 건강 ⁸⁾	심리 특성 ⁹⁾	부부 특성 ¹⁰⁾	양육 특성 ¹¹⁾	직업 특성 ¹²⁾	계
2024	469	131	40	5	57	71	65	369	3	1	22	6	61	2	95
2023	1,205	157	70	15	51	101	109	503	317	8	58	31	86	38	538
구분	가구 특성				(영유아기) 돌봄/교육 특성			(학령기) 학교/사교육 특성			지역사회 특성				
	인구학적 특성 ¹³⁾	물리적/경제적 특성 ¹⁴⁾	가정 환경 ¹⁵⁾	계	보육교육 기관 ¹⁶⁾	기타 ¹⁷⁾	계	돌봄 서비스 ¹⁸⁾	학교 특성 ¹⁹⁾	계	일반적 특성 ²⁰⁾	양육 환경 ²¹⁾	계		
2024	1	1	2	4	1	-	1	-	4	4	-	-	0		
2023	10	59	6	75	32	10	42	-	46	46	38	9	47		

주: 각 영역별 해당 변수는 다음과 같음.

- 1) 인구학적 특성: 성별, 월령, 연령, 출생순위
- 2) 일상생활: 수면 시간, 놀이 시간/영역, 식습관, 미디어 이용시간, 미디어 중독, 실내/외 활동 등
- 3) 신체건강: 건강상태, 체질량지수 등
- 4) 인지언어학습: 언어 발달(수용어휘력, 표현어휘력), 의사소통, 집행기능곤란, 대요인지능, 학습준비도, 학습태도, 학습능력, 학습스트레스 등
- 5) 자아정서 발달: 기질,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그릿, 행복감 등
- 6) 사회성 발달: 또래와의 상호작용, 문제행동, 사회적 유능감, 학교적응 등

- 7) 인구학적 특성: 학력, 연령
- 8) 신체건강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음주
- 9) 심리적 특성: 행복감, 자아존중감, 우울, 일-가정(육아)양립 등
- 10) 부부 특성: 부부 갈등, 결혼만족도
- 11) 양육 특성: 양육행동, 부모-자녀상호작용, 양육 스트레스, 성취압력, 사회적 지지 등
- 12) 직업 특성: 취업 여부, 취업 특성 등
- 13) 인구학적 특성: 가구형태, 자녀수
- 14) 물리적/경제적 특성: 가구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아동 용돈 등
- 15) 가정환경 특성: 가족상호작용, 가족기능, 가정환경 등
- 16) 보육교육기관: 교사-유아상호작용, 교사효능감, 교실환경 등
- 17) 기타: 영아기 보육(양육) 유형, 기관 외 특별활동 등
- 18) 돌봄서비스: 방과후 이용 서비스 등
- 19) 학교 특성: 학부모의 학교 참여, 교사-아동관계, 교사 특성, 창의적 학교 환경 등
- 20) 일반적 특성: 거주지역(지역규모)
- 21) 양육환경 특성: 지역사회 안전성, 시설접근성, 기관이용 만족도

나. 데이터설명회 및 학술대회

1) 데이터 설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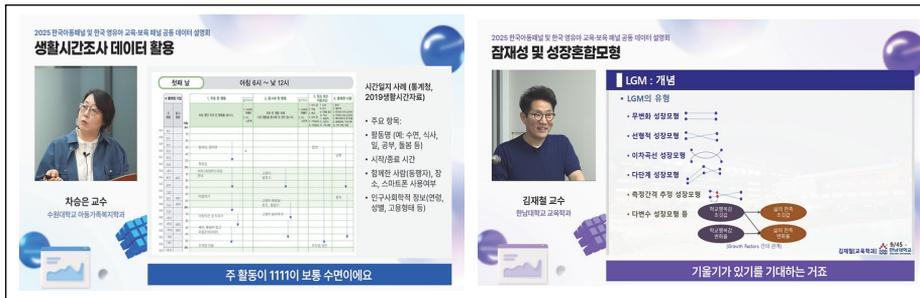
데이터 사용자의 접근 편리성과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해 2024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한국아동패널 및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공동을 데이터설명회를 생중계로 개최한 바 있으며, 2025년에도 한국아동패널 및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공동으로 제2회 데이터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제2회 데이터설명회는 사전에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녹화하여 육아정책연구소 유튜브 채널 및 각 패널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데이터설명회는 크게 1) 패널데이터 소개와 2) 특별강연으로 나뉘어 진행하였다. 패널데이터 소개는 사업개괄, 시기별 조사영역 및 심층조사/수행검사 안내 등 패널데이터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였고, 유저들의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국아동패널 데이터의 특성을 중심으로 변인지도 및 도구프로파일 이용 방법, Q&A 활용 등 한국아동패널 데이터 탐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특별강연은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공개 데이터는 2차 데이터에 수록된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생활시간조사 데이터 활용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었고, 이어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석방법인 잠재성장 및 성장혼합모형을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방법에 대한 개념 및 활용 예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표 II-4-5〉 데이터설명회 및 학술대회 개요

구분	내용
일시	2025. 6. 유튜브 채널 및 각 홈페이지에 업로드
장소 및 진행방식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 사전 녹화
내용	1. 패널데이터 소개 - 1부: 사업개괄, 시기별 조사영역 및 심층조사/수행검사 안내 - 2부: 데이터 탐색 및 FAQ를 중심으로 2. 특별강연 - 1부: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생활시간조사 데이터 활용 (차승은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교수) - 2부: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잠재성장모형 및 성장혼합모형 (김재철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그림 II-4-1〉 한국아동패널,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데이터설명회 영상자료



2) 학술대회

제16회 한국아동패널 학술대회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공동으로 「아동의 삶과 정책: 패널 데이터 기반 연구의 확장」을 주제로 하여 2025년 8월 29일 (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제16회 학술대회에서 한국아동패널 데이터는 중학교 3학년 시기의 데이터인 제16차 데이터가 처음 공개 및 제공되며, 제16차 데이터까지 활용한 연구논문을 모집 공고하였다. 공모 결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데이터를 활용한 계획서를 포함하여 총 52편(일반부분 27편, 학생부분 25편)이 접수되었다. 논문 공모와 관련된 주요 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다.

〈표 II-4-6〉 제16회 한국아동패널 및 제3회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공동학술대회 추진 주요 일정

내용	일정
연구계획서 공모 시작	2025. 3. 20.(목)
연구계획서 공모 마감	2025. 4. 21.(월)
연구계획서 공모 심사결과 발표	2025. 4. 25.(금)
최종 원고 마감	2025. 7. 14.(월)
최종 원고 심사결과 발표	2025. 7. 30.(수)
학술대회 개최	2025. 8. 29.(금)

제16회 학술대회는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과 처음으로 공동 주최하는 학술대회인 만큼 첫 번째 주제발표로 한국아동패널 및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데이터 비교 분석을 통해 2008년생 아동과 2022년생 아동의 삶과 정책 환경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주제발표로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유아교육에 관한 대규모 종단조사연구사업’과 관련된 발표가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 이은 정책 연구 세션에서는 한국아동패널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삶과 정책을 연구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물이 공유되었다. 논문 발표 세션에서는 영아 영유아기와 아동기, 청소년기에 걸친 다양한 시기와 주제의 연구로 6개 세션에서 16개 연구가 발표되었다.

대학원생 논문 공모전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2025년 학술대회에서는 우수상 2개팀, 장려상 1팀에 대한 수상이 진행되었다. 이외 한국아동패널 아동 대상으로 실시된 온라인 이벤트(패널 친구들/육아정책연구소에 하고 싶은 한줄 메시지, 아동패널 4행시)에 대한 대표작 전시도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19개 학회(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정책학회, 한국건강심리학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한국교육심리학회, 한국교육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 한국발달지원학회, 한국보육지원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한국육아지원학회, 한국인간발달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국청소년학회)가 협력 학회로 참여하였다.

[그림 II-4-3] 패널 공동학술대회 개최 모습



주: (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아정책연구소 소장 개회사, 축사, 주제발표, 세션 발표 및 토론 모습

<표 II-4-8> 제16회 한국아동패널 및 제3회 한국 영유아 교육 보육 패널 공동 학술대회 발표 논문 목록

구분	내용
세션1. 영아 발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원 정도가 영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양육행동과 가정환경의 매개효과 2.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영아발달에 미치는 영향: 가정환경과 사회적 지원의 이중매개효과 3. 어머니가 지각한 영아기 발달특성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및 사회적 지원과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의 영향력 검증
세션2. 양육 환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 2008년과 2022년 비교를 중심으로 2.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미친 영향: 자녀기질과 어머니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3. 잠재일치모형을 적용한 맞벌이 부부의 성역할 가치감 차이가 양육스트레스, 부부갈등,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경로 비교
세션3. 정서·사회성 발달 궤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우리나라 중학생의 인지적, 정서적, 표현적 공감의 종단적 관계분석 2. 성별에 따른 초기 청소년기 문제행동 발달 궤적 유형 분류 3. 중학생의 공감 변화에 따른 잠재집단 추정과 부모 및 또래 애착과의 관계
세션4. 청소년 발달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소년 초기 집행기능과 관계성의 잠재프로파일 분류, 전이 양상 및 영향 요인 분석

구분	내용
집행기능	2. 청소년의 집행기능이 자기조절학습과 부모의 학업지원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종단연구: 자기회귀교차지원모형 활용
세션5. 교육·보육 환경	1. 유아교사 소진 및 자기효능감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 K-ECEC-P를 통한 1세 반 유아교사 결과를 중심으로 2. 영아의 사교육 참여 실태와 사교육비 예측 요인 분석
세션6.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우수논문	1. 어떻게 미디어는 ‘공갈 젓꼭지’가 되었는가?: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한 영아 미디어 노출 유형 예측 요인 탐색 2. 중학생의 공감 발달궤적에 대한 잠재계층분류와 예측요인 검증: 성장혼합모형의 적용 3. 아버지 양육 참여의 유형 변화: 2008년 한국아동패널과 2022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의 잠재계층 분석

III

17차년도(2024년) 데이터 기초분석

- 01 17차년도 조사개요
- 02 아동 특성
- 03 부모 및 가구 특성
- 04 학교 및 사교육 특성
- 05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 06 소결

Ⅲ. 17차년도(2024년) 데이터 기초분석

1. 17차년도 조사개요

가. 조사 특성

2024년 17차년도 조사에 참여 완료한 가구는 총 1,287가구(주양육자 응답 기준)이다. 조사대상별로는 주양육자 조사 1,287명, 아동 조사에 1,277명(주양육자 조사의 99.2%)이 참여하였으며, 어머니 조사 1,228명(주양육자 조사의 95.4%), 아버지 조사에는 1,132명(주양육자 조사의 88.0%), 교사 조사는 279명(주양육자 조사의 21.7%)이 참여하였다.

〈표 Ⅲ-1-1〉 17차년도 조사대상자별 조사 참여자수 및 비율

단위: 명, (%)

구분	주양육자	아동			모	부	교사
		대인면접 + 온라인	대인면접 (TAPI)	온라인			
조사방법	대인면접 (TAPI)	대인면접 + 온라인	대인면접 (TAPI)	온라인	지필식 기입 (우편전달, 방문수거)		온라인 조사
조사참여자수	1,287	1,277	1,226	51	1,228	1,132	279
조사참여율 (주양육자 대비)	(100.0)	(99.2)	(95.3)	(4.0)	(95.4)	(88.0)	(21.7)

자료: 조미라 외(2024).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4(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p. 33.

나. 조사대상자 특성⁶⁾

2024년 17차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성별은 남학생이 51.28%, 여학생이 48.72%로 남학생 비율이 약간 높았다. 출생순위를 보면 둘째 이상이 53.61%로 가장 많았고, 첫째는 35.66%, 외동아는 10.72%로 나타났다. 부모의 취·학업 상태를 보면 어머니의 경우 취·학업 중이 73.86%, 아버지는 취·학업 중이 98.76%로 조사되었다. 부모의 최종학력은 어머니는 대졸 이상

6) 2024년(17차년도) 일반조사 결과 분석은 횡단 가중치로 보정하지 않은 원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음.

이 44.70%, 전문대 졸이 29.59%, 고졸 이하는 25.71%였고, 아버지는 대졸 이상이 53.68%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대 졸 24.90%, 고졸 이하는 21.42%였다. 부모의 평균 연령은 어머니 47.09세, 아버지 49.63세로 나타났다.

패널가구의 가구 구성 형태를 살펴보면 '부모+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82.44%로 가장 많았고, '조부모+부모+자녀(+친인척, 기타)'가 8.16%, '한부모+자녀'는 6.53%, '조부모+한부모+자녀'는 1.24%, 기타 형태는 1.63%였다. 가구 내 자녀수는 2명이 60.37%로 가장 많았고, 3명 이상이 28.90%, 1명인 경우는 10.72%였다. 가구의 총 자녀수는 평균 2.23명, 총 가구원수는 평균 4.34명이었다. 가구소득 분포를 보면 월 370만원 이하가 11.01%, 370만원 초과~570만원 구간이 30.05%, 570만원 초과~770만원이 26.99%, 770만원 초과가 31.95%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은 723.24만원이었다. 거주지역은 중소도시가 55.24%로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는 39.39%, 읍면지역은 5.36%로 조사되었다.

〈표 III-1-2〉 17차년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아동	구분	어머니	아버지
성별		취·학업 상태		
남	51.28(660)	취·학업 중	73.86(907)	98.76(1,118)
여	48.72(627)	미취업·미학업 중	26.14(321)	1.24(14)
출생순위		최종학력		
첫째	35.66(459)	대졸 이상	44.70(565)	53.68(649)
둘째 이상	53.61(690)	전문대 졸	29.59(374)	24.90(301)
외동아	10.72(138)	고졸 이하	25.71(325)	21.42(259)
계(수)	100.00(1,287)	계(수)	100.00(1,229)	100.00(1,133)
		연령		
		평균(표준편차)	47.09(3.63)	49.63(3.99)
구분	가구	구분	가구	
가구 구성 형태			평균	표준편차
부모+자녀	82.44(1,061)	가구		
조부모+부모+자녀(+친인척+기타)	8.16(105)	총 가구원수(명)	4.34	0.99
한부모+자녀	6.53(84)	총 자녀수(명)	2.23	0.71
조부모+한부모+자녀(+친인척+기타)	1.24(16)	가구소득(만원)	723.24	691.65
기타	1.63(21)			
자녀수				
1명	10.72(138)			
2명	60.37(777)			
3명 이상	28.90(372)			

구분	가구	구분	가구
가구소득		/	
370만원 이하	11.01(133)		
370 초과~570만원	30.05(363)		
570 초과~770만원	26.99(326)		
770만원 초과	31.95(386)		
지역규모			
대도시	39.39(507)		
중소도시	55.24(711)		
읍면	5.36(69)		
계(수)	100.00(1,287)		

2. 아동 특성

이하에서는 2024년 17차 아동패널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아동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동 특성은 인구학적 특성, 일상생활 특성, 신체 및 건강 특성, 언어 및 학습 특성, 사회 및 정서 특성의 세부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세부 특성 영역에 포함된 변인에 대해 성별, 가구소득, 지역규모의 하위집단 분석을 추가하였다. 가구소득의 저소득 구간 설정은 정부에서 공시한 중위소득 60%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단, 인구학적 특성은 위의 조사대상자 특성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였다.

〈표 Ⅲ-2-1〉 17차년도 아동 특성 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연령(월령) • 출생순위
일상생활 특성	식생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활 진단_식품 • 식생활 진단_음료 • 식생활 진단_기타 • 가족과의 식사 횟수
	생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 주말) 기상 및 취침시간, 수면 시간 • (주중, 주말) 일과활동 시간, 활동별 참여 빈도 • 가사 참여
	실내/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 신체활동, 실내 신체활동 • 취미 여부 및 종류
	미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폰(스마트폰) 소유 여부 • 미디어 이용시간, 세부 항목별 시간 • 스마트폰 과의존(아동 진단), 미디어기기 중독(부모 진단)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돈 지급 여부, 지급액, 사용처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_아동 •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 건강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중, 신장, 허리둘레 • 시력 보정도구 착용 여부, 시기 • 주관적 건강상태(보호자 인식) • 2차 성징 • 신체적 자아상 • 체중조절 방법, 체형에 대한 인식 및 체중조절 경험 • 체력검사 결과(PAPS)
	질환 및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유형별 판정 여부 및 정도 • 만성질환(진단 여부, 최초진단일), 만성질환별 병원치료 여부 • 심리사회적 질환(진단 여부, 최초진단일), 심리사회적 질환별 병원치 료(또는 상담) 여부 • 응급실 치료 여부 및 이유, 입원 치료 여부 및 이유
	음주 흡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주경험 여부, 시작 시기, 횟수 • 음주 장소, 주류 구입 경험 • 흡연경험 여부, 시작 시기, 횟수 • 담배 입수경로, 구입 경험
언어 및 학습 특성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 스트레스 • 학업성취도(보호자 응답) • 학업성취도_주관적 인식(보호자, 아동 각각) • 자기조절학습
사회 및 정서 특성	자아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존중감 • GRIT(끈기)
	정서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행복감 • 우울
	사회성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적응_중고등 • 또래애착 • 폭력피해(온/오프) • 폭력가해(온/오프) • 이성관계
	미래/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고등 졸업 시기 이후 진로계획</u> • 대학 진학 계획 이유, 대학 진학 시 전공계열 계획 • <u>고등 졸업 시기 이후 취업 계획 이유</u> • 진로성숙도, 진로진학활동 • 미래희망직업
	사회 관련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관/자녀관 • 공동체 의식 • <u>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u> • <u>가족기능*</u> • <u>부모님의 경제적 지원 기대*</u> • <u>가족 내 성역할 인식*</u> • <u>국민정체성, 다문화 거부·회피 정서, 세계시민행동 의지*</u> • <u>외국이주민에 대한 지각된 위협 인식*</u>

주: 1) 17차 신규 및 변경 문항 밑줄로 표시

2) 17차 심층조사 문항은 *로 표시

가. 일상생활 특성

1) 식생활

가) 식생활 진단

아동의 식생활 진단 관련해서는 식품, 음료, 기타 영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우선, 식품 섭취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단백질 식품(육류, 생선, 달걀, 콩, 두부 등)은 주 3~4회 섭취가 24.20%로 가장 높았으며, 매일 1번 섭취 22.55%, 매일 2번 18.72%, 주 5~6회 17.15%, 주 1~2회 11.75% 순으로 나타났다. 채소는 주 3~4회가 26.08%로 가장 높았으며, 매일 1번 20.60%, 주 1~2회 20.52%, 주 5~6회 13.55% 순이었다. 과일은 주 3~4회 29.44%, 주 1~2회 26.55%, 매일 1번 18.32%, 주 5~6회 14.33%로 조사되었다. 튀김이나 볶음요리의 경우, 주 3~4회 섭취가 36.73%로 가장 높았고, 주 1~2회 30.46%, 주 5~6회 14.57%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이 많은 단백질 식품(삼겹살, 갈비, 장어 등)은 주 1~2회 섭취가 37.90%로 가장 많았고, 주 3~4회 32.11%, 주 5~6회 11.28%, 매일 1번은 8.69%로 나타났다. 트랜스 지방(아이스크림, 케이크, 과자류 등)의 경우 주 3~4회 섭취가 35.00%, 주 1~2회 34.93%로 많았다. 마지막으로, 인스턴트 식품 및 패스트푸드(라면, 피자, 치킨, 편의점 음식 등)는 주 1~2회 섭취가 45.73%로 가장 많았고, 주 3~4회 32.18%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단백질, 채소, 지방이 많은 단백질, 인스턴트 식품 등에서 유의한 성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항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해당 식품을 더 자주 섭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2-2〉 최근 7일간 아동의 식생활 진단_식품

단위: %, (명)

	구분	계(수)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음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매일 1번	매일 2번	매일 3번 이상
단백질	전체	100.00(1,277)	0.16	11.75	24.20	17.15	22.55	18.72	5.48
	아동 성별								
	남	100.00(654)	0.31	9.94	20.18	16.97	22.78	23.24	6.57
	여	100.00(623)	-	13.64	28.41	17.34	22.31	13.96	4.33
	$\chi^2(df)$				32.21(6)***				
채소	전체	100.00(1,277)	2.66	20.52	26.08	13.55	20.60	11.67	4.93
	아동 성별								
	남	100.00(654)	2.91	16.36	24.62	13.15	23.24	13.76	5.96
	여	100.00(623)	2.41	24.88	27.61	13.96	17.82	9.47	3.85
	$\chi^2(df)$			25.31(6)***					
과일	전체	100.00(1,277)	4.39	26.55	29.44	14.33	18.32	4.86	2.11
	아동 성별								
	남	100.00(654)	5.35	27.52	28.44	13.30	18.65	3.98	2.75
	여	100.00(623)	3.37	25.52	30.50	15.41	17.98	5.78	1.44
	$\chi^2(df)$			9.58(6)					
튀김/ 볶음요리	전체	100.00(1,277)	3.05	30.46	36.73	14.57	10.81	3.29	1.10
	아동 성별								
	남	100.00(654)	2.60	27.68	36.85	15.75	11.47	3.98	1.68
	여	100.00(623)	3.53	33.39	36.60	13.32	10.11	2.57	0.48
	$\chi^2(df)$			12.28(6)					
지방이 많은 단백질	전체	100.00(1,277)	5.87	37.90	32.11	11.28	8.69	3.13	1.02
	아동 성별								
	남	100.00(654)	4.28	31.96	32.42	14.83	10.70	4.43	1.38
	여	100.00(623)	7.54	44.14	31.78	7.54	6.58	1.77	0.64
	$\chi^2(df)$			48.53(6)***					
트랜스 지방	전체	100.00(1,277)	5.56	34.93	35.00	11.59	8.85	2.74	1.33
	아동 성별								
	남	100.00(654)	6.88	35.02	33.03	12.84	8.26	2.60	1.38
	여	100.00(623)	4.17	34.83	37.08	10.27	9.47	2.89	1.28
	$\chi^2(df)$			8.17(6)					
인스턴트 식품_ 패스트 푸드	전체	100.00(1,277)	5.87	45.73	32.18	9.32	4.62	1.80	0.47
	아동 성별								
	남	100.00(654)	5.35	41.90	34.40	10.40	4.74	2.29	0.92
	여	100.00(623)	6.42	49.76	29.86	8.19	4.49	1.28	-
	$\chi^2(df)$			16.22(6)*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01$.

이러 음료 섭취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탄산음료(콜라, 사이다 등)의 경우 주 1~2회 섭취가 43.30%로 가장 많았으며, 주 3~4회는 23.88%, 최근 7일 동안 섭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0.75%로 나타났다. 고카페인 에너지음료는 최근 7일간 섭취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9.07%로 가장 높았으며, 주 1~2회는 18.87%, 주 3~4회는 8.30%로 조사되었다. 커피 및 차 등 카페인 함유 음료는 7일간 먹지 않았다는 응답이 58.03%로 가장 많았고, 주 1~2회 섭취는 26.39%로 나타났다. 과일주스의 경우 주 1~2회 섭취가 40.09%로 가장 많았으며, 7일 동안 먹지 않았다는 응답은 36.96%, 주 3~4회 섭취는 15.66%로 조사되었다. 우유 및 유제품의 경우는 주 1~2회 섭취가 30.54%, 주 3~4회 29.99%이었으며 7일간 먹지 않았다는 응답은 14.57%였다. 한편, 물(탄산수 포함)의 경우는 매일 3번 이상 마신다는 응답이 66.48%로 높았다.

성별 비교 결과, 카페인 음료, 물을 제외한 탄산음료, 에너지음료, 과일주스, 우유/유제품 등에서 남녀 간 섭취 빈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해당 음료를 더 자주 섭취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최근 7일간 아동의 식생활 진단_음료

단위: %, (명)

	구분	계(수)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음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매일 1번	매일 2번	매일 3번 이상
탄산음료	전체	100.00(1,277)	20.75	43.30	23.88	6.66	3.92	1.02	0.47
	아동 성별								
	남	100.00(654)	14.83	41.59	27.83	8.87	5.05	1.07	0.76
	여	100.00(623)	26.97	45.10	19.74	4.33	2.73	0.96	0.16
	$\chi^2(df)$				49.03(6)***				
에너지 음료	전체	100.00(1,277)	69.07	18.87	8.30	1.88	1.41	0.23	0.23
	아동 성별								
	남	100.00(654)	64.37	21.25	9.17	2.91	2.14	0.15	-
	여	100.00(623)	74.00	16.37	7.38	0.80	0.64	0.32	0.48
	$\chi^2(df)$				25.66(6)*** ^(a)				
카페인 함유 음료	전체	100.00(1,277)	58.03	26.39	10.02	2.98	1.80	0.47	0.31
	아동 성별								
	남	100.00(654)	56.73	27.52	10.70	2.60	1.83	0.46	0.15
	여	100.00(623)	59.39	25.20	9.31	3.37	1.77	0.48	0.48
	$\chi^2(df)$				3.41(6) ^(a)				

	구분	계(수)	최근 7일 동안 먹지 않음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매일 1번	매일 2번	매일 3번 이상
과일주스	전체	100.00(1,277)	36.96	40.09	15.66	2.90	3.68	0.63	0.08
	아동 성별								
	남	100.00(654)	33.18	42.05	15.60	3.98	4.59	0.61	-
	여	100.00(623)	40.93	38.04	15.73	1.77	2.73	0.64	0.16
	$\chi^2(df)$		15.89(6) ^(a)						
우유/ 유제품	전체	100.00(1,277)	14.57	30.54	29.99	10.96	9.71	2.43	1.80
	아동 성별								
	남	100.00(654)	13.00	25.54	29.97	12.08	13.46	2.91	3.06
	여	100.00(623)	16.21	35.79	30.02	9.79	5.78	1.93	0.48
	$\chi^2(df)$		47.17(6) ^{***}						
물 (탄산수 포함)	전체	100.00(1,277)	0.78	1.49	3.60	3.99	8.61	15.04	66.48
	아동 성별								
	남	100.00(654)	0.92	1.83	3.06	3.36	8.41	13.91	68.50
	여	100.00(623)	0.64	1.12	4.17	4.65	8.83	16.21	64.37
	$\chi^2(df)$		5.83(6)						

주: 1) 아동의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5$, *** $p < .001$.

식생활과 관련된 기타 사항으로는 ‘식사할 때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는다(염분 추가)’, ‘식사하는 매일 세 끼를 규칙적으로 한다(규칙적인 식사)’, ‘모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한다(다양한 식품의 섭취)’에 대해 3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염분 추가 항목의 평균 점수는 2.51점으로 나타났으며, 규칙적인 식사는 2.00점, 다양한 식품 섭취는 1.76점으로 분석되었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세 문항 모두에서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는 일부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긴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III-2-4〉 아동의 식생활 진단_기타

단위: (명), 점

구분	(수)	염분 추가		규칙적인 식사		다양한 식품의 섭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77)	2.51	0.65	2.00	0.82	1.76	0.72
아동 성별							
남	(654)	2.42	0.68	1.89	0.81	1.69	0.71
여	(623)	2.62	0.60	2.12	0.82	1.84	0.72
<i>t</i>		-5.52***		-5.09***		-3.88***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8)	2.50	0.68	2.05	0.77	1.90 ^b	0.76
370 초과~570만원	(359)	2.51	0.65	2.04	0.82	1.82 ^{ab}	0.72
570 초과~770만원	(322)	2.52	0.65	1.95	0.84	1.71 ^a	0.73
770만원 초과	(371)	2.51	0.66	1.99	0.83	1.72 ^{ab}	0.71
<i>F</i>		0.05		0.96		3.19*	
지역규모							
대도시	(492)	2.49	0.65	2.01	0.83	1.74	0.72
중소도시	(699)	2.54	0.64	1.98	0.81	1.79	0.71
읍면	(68)	2.49	0.72	2.19	0.87	1.68	0.78
<i>F</i>		0.86		2.16		1.08	

주: 1) 아동의 응답임.

2) 3점 척도임('1.그런편이다~3.아닌편이다'로 응답되었지만, 해석의 편의를 위해 모두 역코딩을 실시함).

* $p < .05$, *** $p < .001$.

나) 가족식사

주양육자(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이 가족과 함께 식사한 횟수(외식 포함)를 조사한 결과, 주 3~5회 31.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주 8회 이상이 24.94%, 주 1~2회 23.08%, 주 6~7회 17.95%, 거의 안 함 2.64%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분석에서는 성별,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5〉 가족과의 식사 횟수(일주일 평균)

단위: %, (명)

구분	계(수)	거의 안 함	주 1~2회	주 3~5회	주 6~7회	주 8회 이상
전체	100.00(1,287)	2.64	23.08	31.39	17.95	24.94
아동 성별						
남	100.00(660)	2.12	22.12	31.82	18.33	25.61
여	100.00(627)	3.19	24.08	30.94	17.54	24.24
<i>χ²(df)</i>				2.36(4)		

구분	계(수)	거의 안 함	주 1~2회	주 3~5회	주 6~7회	주 8회 이상
가구소득	100.00(1,287)					
370만원 이하	100.00(133)	3.01	17.29	29.32	18.80	31.58
370 초과~570만원	100.00(363)	3.58	21.76	34.71	17.36	22.59
570 초과~770만원	100.00(326)	1.53	24.85	32.52	18.40	22.70
770만원 초과	100.00(386)	2.85	24.61	27.20	18.39	26.94
$\chi^2(df)$				14.12(12)		
지역규모	100.00(1,287)					
대도시	100.00(507)	2.56	23.87	30.57	18.15	24.85
중소도시	100.00(711)	2.81	21.66	32.77	18.14	24.61
읍면	100.00(69)	1.45	31.88	23.19	14.49	28.99
$\chi^2(df)$				6.53(8)		

주: 보호자의 응답임.

2) 일과활동 시간

가) 수면

고등학교 1학년 패널아동의 방학이 아닌 주중 및 주말의 평균 취침시각과 기상 시각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주중 평균 취침시각은 24시 29분, 기상시각은 오전 7시 08분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년도 중학교 3학년 시기 24시 13분보다 취침시각이 16분 늦어진 반면, 기상시각은 전년도 중학교 3학년 시기의 7시 25분보다 17분 빨라졌다(조미라 외, 2024: 75). 한편 주말의 평균 취침시각은 25시 03분, 기상시각은 오전 9시 32분으로, 주중에 비해 각각 약 34분, 약 2시간 24분씩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비교해 보면, 성별,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주중과 주말 모두 여학생의 평균 취침시각이 남학생보다 더 늦고, 주중에는 여학생이 더 이른 시각에 기상하는 반면, 주말에는 여학생이 더 늦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주중과 주말 모두 고소득층 아동일수록 취침시각이 늦은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770만원 초과 가구 아동은 저소득층(370만원 이하) 아동보다 약 30분 이상 늦게 취침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2-6〉 아동의 기상 및 취침시간

단위: (명), 시:분

구분	(수)	주중				주말			
		취침시간		기상시간		취침시간		기상시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277)	24:29	1:12	7:08	0:53	25:03	1:19	9:32	1:29
아동 성별									
남	(654)	24:21	1:12	7:11	0:51	24:57	1:21	9:26	1:29
여	(623)	24:38	1:10	7:04	0:55	25:09	1:17	9:38	1:30
<i>t</i>		-4.33***		2.36*		-2.89**		-2.28*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8)	24:13 ^a	1:04	7:01	0:38	24:50 ^a	1:13	9:24	1:18
370 초과~570만원	(359)	24:24 ^a	1:11	7:06	0:52	24:57 ^{ab}	1:18	9:31	1:32
570 초과~770만원	(322)	24:27 ^{ab}	1:10	7:06	0:51	25:02 ^{ab}	1:21	9:30	1:30
770만원 초과	(371)	24:44 ^b	1:13	7:13	0:55	25:15 ^b	1:20	9:35	1:31
<i>F</i>		8.27***		2.36		4.58**		0.50	
지역규모									
대도시	(492)	24:34	1:13	7:00 ^a	0:57	25:03	1:19	9:25	1:29
중소도시	(699)	24:27	1:10	7:13 ^a	0:49	25:05	1:20	9:36	1:30
읍면	(68)	24:20	1:15	7:08 ^a	0:48	24:47	1:20	9:37	1:28
<i>F</i>		1.97		8.64***		1.56		2.58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이어 아동의 수면 시간을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주중의 평균 수면 시간은 6.66시간, 주말은 8.48시간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중의 수면 시간 권장되는 청소년의 충분한 수면 시간 8~10시간보다⁷⁾ 크게 적게 나타나 우려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주중 수면 시간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적으로 수면 시간이 더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수면 시간의 주중-주말 편차 분석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지역규모별로는 주중과 주말 수면 시간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주말 수면 시간의 경우 대도시지역 아동이 읍면지역 아동보다 수면 시간이 유의하게 짧은 경향을 보였다.

7)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에서 권장하는 청소년의 수면 시간은 8~10시간임(출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m.d.). [신경]청소년의 수면. https://www.pediatrics.or.kr/bbs/index.html?code=disease_info&category=E&gubun=&page=1&number=8879&mode=view&keyfield=&key=, 인출일: 2025.6.10.).

〈표 III-2-7〉 아동의 수면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수)	주중		주말		주중-주말 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77)	6.66	1.37	8.48	1.44	1.83	1.55
아동 성별							
남	(654)	6.85	1.39	8.50	1.44	1.65	1.45
여	(623)	6.46	1.32	8.47	1.44	2.01	1.62
<i>t</i>		5.10***		0.31		-4.22***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8)	6.80	1.15	8.56	1.45	1.77	1.43
370 초과-570만원	(359)	6.69	1.29	8.58	1.36	1.88	1.54
570 초과-770만원	(322)	6.69	1.43	8.46	1.44	1.77	1.55
770만원 초과	(371)	6.49	1.42	8.34	1.47	1.85	1.52
<i>F</i>		2.53		1.97		0.43	
지역규모							
대도시	(492)	6.46 ^a	1.52	8.36 ^a	1.52	1.90	1.66
중소도시	(699)	6.77 ^a	1.24	8.53 ^{ab}	1.35	1.76	1.44
읍면	(68)	6.80 ^a	1.28	8.84 ^b	1.62	2.04	1.70
<i>F</i>		7.97***		4.37*		1.77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나) 공·사교육 기관 이용시간

다음은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교 이외의 기관(학원, 과외 등)에서 교육받는 시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아동의 일과 시간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98.28%, 주말 3.60%로 확인되었으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에 한해 분석하였다.

우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을 살펴보면, 주중에는 평균 8.04시간, 주말에는 평균 5.40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이외의 기관(학원, 과외 등)에서 보내는 시간을 보면, 주중에는 평균 2.52시간, 주말에는 평균 3.51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분석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구소득과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특히 지역규모별로는 주중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의 경우 읍면지역 아동이 도시지역 아동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보내는 교육시간의 경우에는 대도시지역 아동

이 읍면지역 아동에 비해 주중과 주말 모두 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2-8〉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공·사교육 기관 이용

단위: (명), 시간

구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 시간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255)	8.04	1.72	(46)	5.40	2.96	(812)	2.52	1.03	(639)	3.51	1.73
아동 성별												
남	(645)	7.96	1.85	(29)	4.86	3.00	(388)	2.52	1.03	(318)	3.62	1.76
여	(610)	8.11	1.56	(17)	6.32	2.74	(424)	2.51	1.03	(321)	3.40	1.70
<i>t</i>			-1.52			-1.65			0.09			1.66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6)	8.29	1.80	(5)	5.00	2.45	(60)	2.49 ^a	1.22	(48)	3.28 ^a	1.96
370 초과~570만원	(359)	8.03	1.77	(16)	5.47	2.94	(223)	2.38 ^a	0.93	(159)	3.16 ^a	1.65
570 초과~770만원	(315)	7.99	1.68	(8)	4.13	2.85	(218)	2.47 ^a	0.89	(164)	3.60 ^a	1.54
770만원 초과	(361)	8.14	1.68	(14)	6.36	3.27	(252)	2.67 ^a	1.13	(224)	3.75 ^a	1.85
<i>F</i>			1.16			0.99			3.59 [*]			4.01 ^{**}
지역규모												
대도시	(482)	8.17 ^a	2.01	(17)	5.74	3.11	(327)	2.66 ^b	1.06	(289)	3.74 ^b	1.73
중소도시	(689)	7.90 ^a	1.41	(22)	5.55	2.87	(436)	2.44 ^{ab}	0.97	(316)	3.36 ^{ab}	1.73
읍면	(67)	8.71 ^b	1.87	(5)	3.60	2.97	(37)	2.28 ^a	1.32	(25)	2.94 ^a	1.68
<i>F</i>			8.77 ^{***}			1.05			5.42 ^{**}			5.00 ^{**}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98.28%, 주말 3.60%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63.59%, 주말 50.04%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4)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다) 독서, 숙제 및 학습 관련

이번에는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중 책 읽기에 소요한 시간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중 일과 시간에 책 읽기 시간이 포함된 사례는 주중 16.52%, 주말 24.04%로 나타났으며 책 읽기 시간 분석은 해당 응답자에 한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주중의 평균 책 읽기 시간은 0.76시간, 주말에는 1.04시간으로, 두 경우 모두 1시간 내외 수준이었다.

성별과 가구소득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역규모별로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주말 책 읽기 시간의 경우 대도시지역이 중소도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 비해 평균 책 읽기 시간이 다소 짧았다.

〈표 III-2-9〉 아동의 책 읽기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책 읽기 시간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11)	0.76	0.37	(307)	1.04	0.60
아동 성별						
남	(89)	0.77	0.37	(144)	1.05	0.60
여	(122)	0.75	0.37	(163)	1.03	0.60
<i>t</i>		0.38			0.26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22)	0.75	0.30	(34)	0.88	0.37
370 초과~570만원	(69)	0.75	0.30	(100)	1.05	0.57
570 초과~770만원	(47)	0.70	0.37	(70)	0.99	0.53
770만원 초과	(59)	0.73	0.34	(72)	1.10	0.71
<i>F</i>		0.25			1.20	
지역규모						
대도시	(86)	0.69	0.31	(117)	0.92 ^a	0.52
중소도시	(110)	0.78	0.36	(166)	1.09 ^a	0.57
읍면	(10)	0.75	0.26	(19)	1.08 ^a	0.84
<i>F</i>		1.97			3.13*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책 읽기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16.52%, 주말 24.04%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중 혼자서 숙제나 학습을 수행하는 시간(자습)과 인터넷 강의 등 비대면 방식의 교육 시간을 분석하였다. 이때 숙제 및 학습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75.57%, 주말 75.10%, 인터넷 수업 등 통신교육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1.22%, 주말 75.10%로 조사되었으며, 시간 분석은 해당 응답자에 한해서만 실시되었다.

우선 숙제 및 학습 시간을 살펴보면, 주중에는 평균 1.72시간, 주말에는 평균 2.47시간으로 나타나 주말에 자습 시간이 더 긴 경향을 보였다. 집단별 분석결과, 성별, 가구소득, 지역규모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인터넷 수업 등 비대면 교육 시간은 주중 평균 1.20시간, 주말 평균 1.53시간으로 나타

났으며, 이 역시 성별, 가구소득, 지역규모 등 어떠한 집단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III-2-10〉 아동의 숙제 및 학습, 인터넷 수업 등 통신교육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아동의 숙제 및 학습 시간						인터넷 수업 등 비대면교육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965)	1.72	1.13	(959)	2.47	1.59	(271)	1.20	0.64	(303)	1.53	0.86
아동 성별												
남	(461)	1.68	1.15	(458)	2.45	1.63	(124)	1.20	0.58	(144)	1.54	0.82
여	(504)	1.76	1.12	(501)	2.48	1.55	(147)	1.20	0.68	(159)	1.53	0.89
<i>t</i>			-1.05			-0.30			0.00			0.07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85)	1.67	1.09	(82)	2.41	1.66	(32)	1.30	0.80	(28)	1.64	1.10
370 초과~570만원	(267)	1.61	0.98	(272)	2.37	1.55	(72)	1.15	0.51	(90)	1.48	0.76
570 초과~770만원	(241)	1.80	1.23	(241)	2.49	1.65	(73)	1.20	0.67	(69)	1.57	0.97
770만원 초과	(291)	1.78	1.19	(292)	2.54	1.57	(74)	1.24	0.69	(92)	1.52	0.83
<i>F</i>			1.63			0.64			0.44			0.28
지역규모												
대도시	(384)	1.67	1.03	(378)	2.50	1.60	(113)	1.23	0.65	(119)	1.51	0.87
중소도시	(522)	1.77	1.20	(522)	2.45	1.56	(139)	1.19	0.65	(157)	1.56	0.81
읍면	(43)	1.64	1.10	(45)	2.13	1.35	(13)	0.96	0.38	(19)	1.39	1.19
<i>F</i>			0.95			1.11			1.03			0.38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숙제 및 학습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75.57%, 주말 75.10%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인터넷 수업 등 통신교육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1.22%, 주말 23.73%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이번에는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중 방과후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수행평가 준비, 조별과제, 시험공부,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동의 일과 시간에 방과후 친구들과 공부하는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2.32%, 주말 12.61%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주중 평균 시간은 1.07시간, 주말 평균 시간은 1.41시간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2-11〉 아동의 방과후 친구들과 공부하는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방과후 친구들과 공부하는 시간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85)	1.07	0.70	(161)	1.41	0.76
아동 성별						
남	(134)	1.08	0.82	(68)	1.33	0.76
여	(151)	1.06	0.58	(93)	1.46	0.77
<i>t</i>		0.23			-1.08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33)	1.18	1.00	(15)	1.33	0.49
370 초과~570만원	(78)	1.02	0.69	(34)	1.57	0.75
570 초과~770만원	(69)	1.09	0.70	(46)	1.29	0.73
770만원 초과	(84)	1.05	0.60	(52)	1.53	0.88
<i>F</i>		0.46			1.21	
지역규모						
대도시	(104)	1.06	0.60	(55)	1.39	0.80
중소도시	(158)	1.05	0.73	(94)	1.41	0.72
읍면	(21)	1.24	0.96	(9)	1.56	1.01
<i>F</i>		0.66			0.18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방과후 친구들과 공부하는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2.32%, 주말 12.61%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라) 미디어 이용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중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 시청 시간과 컴퓨터, 휴대전화, 콘솔기기 등을 이용한 게임 시간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때 해당 활동이 일과 시간에 포함된 경우는 영상시청의 경우 주중 83.79%, 주말 93.81%이며, 게임의 경우 주중 49.88%, 주말 63.12% 나타났으며, 시간 분석은 해당 응답자에 한해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영상시청 시간은 주중 평균 1.38시간, 주말 평균 2.50시간, 게임 시간은 주중 평균 1.27시간, 주말 평균 2.17시간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말에 시청 및 게임 시간이 모두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집단별 분석결과, 성별 분석에서 게임 시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오래 게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가구소득, 지역규모별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III-2-12〉 아동의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시청, 게임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영상시청 시간						게임 시간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70)	1.38	0.82	(1,198)	2.50	1.42	(637)	1.27	0.83	(806)	2.17	1.41
아동 성별												
남	(545)	1.35	0.77	(608)	2.42	1.32	(432)	1.40	0.91	(539)	2.45	1.47
여	(525)	1.40	0.87	(590)	2.58	1.50	(205)	0.99	0.56	(267)	1.61	1.09
<i>t</i>		-1.08			-1.95			7.02***			9.08***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15)	1.28	0.74	(123)	2.54	1.48	(69)	1.41	0.87	(88)	2.30	1.46
370 초과~570만원	(295)	1.38	0.78	(337)	2.58	1.35	(199)	1.23	0.76	(241)	2.26	1.42
570 초과~770만원	(265)	1.39	0.85	(302)	2.54	1.41	(158)	1.28	0.78	(200)	2.21	1.38
770만원 초과	(315)	1.38	0.82	(348)	2.35	1.47	(162)	1.17	0.72	(215)	2.01	1.27
<i>F</i>		0.57			1.78			1.63			1.66	
지역규모												
대도시	(417)	1.31	0.71	(462)	2.41	1.37	(244)	1.23	0.78	(303)	2.17	1.48
중소도시	(586)	1.41	0.88	(654)	2.57	1.45	(355)	1.31	0.88	(456)	2.15	1.34
읍면	(52)	1.51	0.89	(66)	2.43	1.50	(31)	1.19	0.80	(38)	2.62	1.60
<i>F</i>		2.55			1.71			0.76			1.95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영상시청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83.79%, 주말 93.81%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아동의 일과 시간에 게임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49.88%, 주말 63.12%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 $p < .001$.

아동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2G폰(피쳐폰),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에 대하여 소지한 것 모두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대상 아동의 97.65%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패널아동 대부분이 스마트폰 사용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2G폰이나 피쳐폰을 소지한 아동은 0.55%에 불과하였고, 태블릿 등 기타 스마트기기를 보유한 경우도 38.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제시한 기기가 없다고 응답한 아동은 0.31%로 매우 소수였다.

성별에 따른 비교에서는 태블릿 등의 소지에서 여학생의 보유율이 46.39%로, 남학생에 비해 약 15%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 보유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지역규모별로는 읍면과 중소도시지역이 대도시보다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 보유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13〉 아동의 스마트폰, 2G폰(피쳐폰), 태블릿 등의 기기 소지

단위: (명), %

구분	스마트폰, 2G폰, 태블릿 등 기기 소지				
	(수)	스마트폰	2G폰, 피쳐폰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	없음
전체	(1,277)	97.65	0.55	38.37	0.31
아동 성별					
남	(654)	97.40	0.61	30.73	0.46
여	(623)	97.91	0.48	46.39	0.16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8)	97.66	1.56	27.34	0.78
370초과~570만원	(359)	98.61	0.28	31.48	0.28
570초과~770만원	(322)	96.58	0.62	42.24	0.31
770만원 초과	(371)	97.84	0.54	45.55	0.00
지역규모					
대도시	(492)	97.36	1.22	36.79	0.20
중소도시	(699)	98.00	0.14	39.06	0.43
읍면	(68)	97.06	-	39.71	-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소지한 기기 모두에 응답하도록 함.

아동에게 스마트폰이나 PC(인터넷 포함)를 이용하는지 조사한 결과 99.61%가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스마트폰이나 PC(인터넷 포함)이용자에 한해 스마트폰 및 PC의 1일 평균 이용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6.02시간으로 나타나, 하루 중 상당 시간을 디지털 기기 사용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별 분석결과, 성별과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마트폰 및 PC 1일 평균 이용시간이 더 긴 경향을 보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370만원 이하인 아동은 570만원 초과 가구 아동에 비해 1일 평균 이용시간이 유의하게 더 길게 나타났다. 지역규모 별로는 상대적으로 대도시가 가장 길고 그다음이 읍면지역, 중소도시가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4〉 아동의 스마트폰, PC(인터넷) 이용 여부/이용시간

단위: %, (명), 시간

구분	스마트폰, PC 이용 여부 및 시간					
	이용 여부			이용시간(1일)		
	계(수)	미이용	이용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0.00(1,277)	0.39	99.61	(1,272)	6.02	3.04
아동 성별						
남	100.00(654)	0.46	99.54	(651)	6.20	3.23
여	100.00(623)	0.32	99.68	(621)	5.84	2.82
$\chi^2(df)/t$		0.16(1) ^(a)			2.12*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00.00(128)	-	100.00	(128)	6.72 ^b	3.50
370초과~570만원	100.00(359)	0.56	99.44	(357)	6.05 ^{ab}	2.93
570초과~770만원	100.00(322)	0.31	99.69	(321)	5.75 ^a	2.91
770만원 초과	100.00(371)	0.27	99.73	(370)	5.86 ^a	2.80
$\chi^2(df)/F$		1.00(3) ^(a)			3.62*	
지역규모						
대도시	100.00(492)	0.20	99.80	(491)	6.37 ^a	3.10
중소도시	100.00(699)	0.43	99.57	(696)	5.75 ^a	3.03
읍면	100.00(68)	-	100.00	(68)	6.17 ^a	2.51
$\chi^2(df)/F$		0.69(2) ^(a)			6.25**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스마트폰, PC 이용시간(1일 평균)은 스마트폰, PC를 이용하는 아동 99.61%에 해당하는 수치임.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4)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아동의 스마트폰 및 PC 이용시간을 용도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활동은 엔터테인먼트(동영상, 웹툰 등) 감상으로 평균 1.50시간이며 이어 학습 목적(인터넷 강의, 온라인 수업, 숙제 등) 1.47시간, SNS 이용 1.41시간, 게임 1.09시간, 정보 검색 0.52시간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여학생은 SNS 사용, 정보 검색 시간이 남학생보다 긴 반면 남학생은 게임 이용시간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소득별로는 월평균 소득 370만원 이하 저소득가구 아동은 570만원 초과 가구 아동들보다 게임 시간이 유의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SNS 사용에서 차이를 보여 대도시, 읍면지역이 중소도시에 비해 긴 경향을 보였다.

〈표 III-2-15〉 아동의 스마트폰, PC(인터넷) 용도별 이용 정도

단위: (명), 시간

구분	(수)	학습		정보 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		SNS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277)	1.47	1.82	0.52	0.57	1.09	1.27	1.50	1.21	1.41	1.27
아동 성별											
남	(654)	1.40	1.95	0.46	0.56	1.62	1.37	1.50	1.31	1.19	1.17
여	(623)	1.54	1.67	0.58	0.59	0.54	0.86	1.50	1.10	1.65	1.33
<i>t</i>		-1.39		-3.69***		16.89***		-0.04		-6.63***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8)	1.57	2.09	0.48	0.60	1.39 ^b	1.36	1.66	1.26	1.62	1.64
370 초과~570만원	(359)	1.37	1.64	0.50	0.55	1.18 ^{ab}	1.35	1.51	1.26	1.45	1.29
570 초과~770만원	(322)	1.45	1.95	0.50	0.53	1.01 ^a	1.16	1.38	1.03	1.40	1.15
770만원 초과	(371)	1.52	1.71	0.55	0.60	0.92 ^a	1.06	1.55	1.29	1.30	1.14
<i>F</i>		0.57		0.75		6.24***		2.13		2.24	
지역규모											
대도시	(492)	1.57	1.76	0.55	0.58	1.15	1.30	1.59	1.20	1.51 ^a	1.32
중소도시	(699)	1.41	1.87	0.49	0.55	1.04	1.26	1.45	1.16	1.33 ^a	1.23
읍면	(68)	1.35	1.79	0.60	0.66	1.24	1.22	1.48	1.71	1.51 ^a	1.13
<i>F</i>		1.28		1.96		1.45		2.03		3.01*	

주: 1) 아동의 응답임.

2) 항목별 구체적인 의미

- 학습: 인터넷 강의 온라인 수업, 학교/학원 숙제 등
- 정보 검색: 맛집, 쇼핑, 뉴스 검색 등
- 엔터테인먼트: 동영상 감상, 웹툰 감상 등(단, 게임과 SNS 제외)
- SNS: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아동의 미디어기기(스마트폰 포함) 중독 수준에 대한 조사는 아동패널에서 보호자(주양육자) 응답과 아동 자기응답 두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보호자(주양육자) 조사는 10개 문항의 4점 척도, 아동 자기응답 조사는 15개 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스마트폰을 포함한 미디어기기 전반에 대한 사용 중독, 과의존을 다루고 있다⁸⁾. 이하 본문에서는 해당 문항 응답결과 점수로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우선, 보호자가 응답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점수를 기준으로 사용자군을 세 분류로 나눠 분석한 결과, 일반 사용자군이 54.62%로 가장 높았고 고위험 사용자

8)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에 대한 조사 중 아동 자기응답 조사의 경우, 16차년도 조사까지 문항내용이 '스마트폰' 사용에 한정된 것이었으나 17차년도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해 '미디어기기' 전반을 포괄하는 척도로 변경하여 조사하였음(조미라 외, 2024: 43).

군은 36.67%,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8.70%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자 입장에서 판단한 결과로, 전체 아동의 절반 정도가 중독 위험 범주(잠재적 위험군 포함)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집단별 분석결과, 성별과 지역규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 학생의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에 속하는 비율이 42.58%로, 여학생 30.46%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에서 고위험 및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이 높은 비중을 보여 성별, 지역별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표 III-2-16〉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부모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계(수)	미디어기기 중독 집단 구분			총점(60점 만점)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0(1,287)	54.62	8.70	36.67	26.68	6.99
아동 성별						
남	100.00(660)	49.09	8.33	42.58	27.52	7.20
여	100.00(627)	60.45	9.09	30.46	25.80	6.65
$\chi^2(df)/t$			20.67(2)***		4.46***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00.00(133)	59.40	7.52	33.08	26.36	7.23
370 초과-570만원	100.00(363)	52.34	7.44	40.22	27.08	7.02
570 초과-770만원	100.00(326)	51.23	11.04	37.73	26.77	6.93
770만원 초과	100.00(386)	57.25	8.29	34.46	26.48	7.11
$\chi^2(df)/F$			7.38(6)		0.58	
지역규모						
대도시	100.00(507)	51.48	11.83	36.69	27.16 ^b	6.90
중소도시	100.00(711)	55.56	6.75	37.69	26.53 ^{ab}	7.07
읍면	100.00(69)	68.12	5.80	26.09	24.70 ^a	6.50
$\chi^2(df)/F$			15.14(4)**		4.16*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3) 총점이 높을수록 미디어기기 중독이 심각함을 의미함.

4) 10번, 11번 문항 역코딩함.

5) 점수별 사용자군 구분

- 일반 사용자군: 총점이 27점 이하이고, 요인별 점수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

(1요인: 12점 이하, 3요인: 10점 이하, 4요인: 9점 이하)

-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총점 28~29점이거나, 요인별 점수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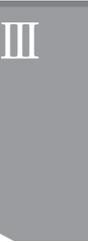
(1요인: 13점 이상, 3요인: 11점 이상, 4요인: 10점 이상)

- 고위험 사용자군: 총점이 30점 이상에 해당하거나, 요인별 점수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

(1요인: 14점 이상, 3요인: 12점 이상, 4요인: 11점 이상)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과 고위험 사용자군에 중복 해당될 경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

* $p < .05$, ** $p < .01$, *** $p < .001$.



아동 자기응답방식의 스마트폰(스마트기기) 과의존 척도 점수를 기준으로 사용자군을 분류한 결과를 보면, 일반 사용자군이 86.30%로 가장 높고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12.52%였으며 고위험 사용자군은 1.18%로 나타났다.

집단별 분석에서는 집단 구분 결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총점에 대해서는 지역규모별 차이를 보였으며, 읍면지역 아동의 점수가 도시지역 아동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17〉 아동의 스마트폰(스마트기기) 과의존 척도: 아동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계(수)	스마트폰 과의존 집단 구분			총점(60점 만점)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0(1,270)	86.30	12.52	1.18	18.27	4.82
아동 성별						
남	100.00(649)	85.52	13.25	1.23	18.12	4.89
여	100.00(621)	87.12	11.76	1.13	18.43	4.74
$\chi^2(df)/t$			0.69(2)			-1.15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00.00(126)	88.89	11.11	-	17.84	5.02
370 초과~570만원	100.00(358)	84.36	14.53	1.12	18.17	5.03
570 초과~770만원	100.00(319)	88.09	10.66	1.25	18.64	4.61
770만원 초과	100.00(371)	84.91	13.21	1.89	18.31	4.84
$\chi^2(df)/F$			5.52(6) ^(a)			0.97
지역규모						
대도시	100.00(488)	85.86	12.50	1.64	18.42 ^b	4.77
중소도시	100.00(696)	85.78	13.22	1.01	18.35 ^b	4.85
읍면	100.00(68)	94.12	5.88	-	16.71 ^a	4.55
$\chi^2(df)/F$			5.00(4)			3.92 [*]

주: 1)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가 있는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3) 총점이 높을수록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 의존도가 심각함을 의미함.

4) 점수별 사용자군 구분

- 일반 사용자군: 총점 10~23점

-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총점 24~28점

- 고위험 사용자군: 총점 29~40점

5)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5$.

[그림 III-2-1]은 부모가 평가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과 아동이 직접 평가한 스마트폰(스마트기기) 과의존 수준을 비교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응답 주체에 따라 중독 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이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이 자가 응답한 결과에서는 일반 사용자군이 86.30%로 매우 높는데, 보호자 응답에서는 일반 사용자군 비중이 54.62%로 아동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반면, 고위험 사용자군은 아동 자기응답에서는 1.18%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보호자 응답 결과에서는 36.6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 스스로 인식하는 중독 수준과 보호자가 관찰한 중독 징후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중독, 과의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보호자와 아동 양측의 평가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주체간 인식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접근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III-2-1] 부모가 응답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과 아동이 자가응답한 스마트폰 중독 비교
단위: %



마) 여가 및 교제

한국아동패널 아동의 일과활동 중 여가 및 교제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스포츠, 집 밖 레저활동 및 취미생활, 사교활동(대면 및 비대면), 종교활동, 애원(반려)동물 돌보기 시간, 그리고 실내외에서 신체활동 정도, 취미(악기, 운동 포함) 활동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다.

첫 번째로 아동의 일과활동 중 스포츠, 집 밖 레저활동 및 취미생활 시간에 대해

조사하였다. 아동의 하루일과에 스포츠, 집 밖 레저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3.73%, 주말 37.74%이며, 하루 평균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패널아동은 주중에 스포츠 및 집 밖 레저활동을 평균 1.13시간 하고, 주말에는 평균 1.59시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간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주중과 주말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스포츠 및 집 밖 레저활동하는 시간이 유의하게 많았다.

두 번째로 아동의 일과활동 중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등 취미생활 시간에 대해 알아본 결과, 패널아동은 주중에 평균 0.93시간, 주말에 평균 1.36시간 취미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 역시 일과에 취미활동 시간이 포함된 사례만 뽑아 분석한 결과이다. 남녀 성별 차이는 주중에만 나타났는데, 주중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등 취미생활에 들이는 시간에 있어 남학생은 1.04시간, 여학생은 0.84시간으로 남학생이 취미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두 가지 항목 모두 가구소득, 거주하는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집단 차이는 없었다.

〈표 III-2-18〉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스포츠, 집 밖 레저활동 및 취미생활

단위: (명), 시간

구분	스포츠 및 집 밖 레저활동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등 취미생활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03)	1.13	0.74	(482)	1.59	0.94	(187)	0.93	0.56	(332)	1.36	0.89
아동 성별												
남	(212)	1.19	0.72	(315)	1.71	0.94	(82)	1.04	0.65	(138)	1.41	0.91
여	(91)	0.98	0.78	(167)	1.36	0.91	(105)	0.84	0.46	(194)	1.33	0.87
<i>t</i>		2.30*			4.07***			2.46*			0.80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32)	1.14	0.64	(55)	1.64	0.97	(22)	1.05	0.84	(41)	1.49	0.91
370 초과-570만원	(90)	1.19	0.86	(153)	1.56	0.91	(51)	1.04	0.59	(92)	1.41	1.00
570 초과-770만원	(76)	1.03	0.73	(120)	1.53	0.94	(42)	0.79	0.42	(84)	1.30	0.74
770만원 초과	(79)	1.18	0.72	(120)	1.67	1.01	(56)	0.88	0.50	(88)	1.32	0.94
<i>F</i>		0.75			0.51			2.03			0.55	

구분	스포츠 및 집 밖 레저활동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동호회 등 취미생활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지역규모												
대도시	(110)	1.14	0.84	(168)	1.60	0.92	(68)	0.96	0.68	(120)	1.37	0.91
중소도시	(164)	1.10	0.69	(275)	1.54	0.94	(106)	0.92	0.50	(189)	1.33	0.84
읍면	(22)	1.30	0.73	(35)	1.91	1.06	(10)	0.85	0.34	(18)	1.53	1.21
F		0.67			2.44			0.18			0.42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스포츠 및 집 밖 레저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3.73%, 주말 37.74%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취미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14.64%, 주말 26.00%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 $p < .05$, *** $p < .001$.

다음으로 아동의 일과활동 중 사교활동 시간을 분석해보았다. 사교활동은 친인척, 친구들과의 만남 등을 의미하는 대면 교제와 SNS 등을 이용한 비대면 교제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이 역시 대면/비대면 교제 모두 일과 시간 중 해당 일과가 포함된 사례만 대상으로 평균 시간을 분석하였고, 아동의 일과 시간에 대면 사교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8.66%, 주말 55.36%이며, 비대면 사교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71.10%, 주말 77.29%이었다.

패널아동의 일과 중 대면 사교활동 시간은 주중 평균 1.17시간, 주말 평균 2.37시간이었으며, 비대면 사교활동 시간은 주중 평균 0.95시간, 주말 평균 1.42시간이었다. 주중, 주말 모두 비대면 사교활동 시간보다는 대면 사교활동 시간이 더 많았다. 주말 대면 사교활동과 주중/주말 사교활동 시간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 유의한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교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학생은 주중 대면 사교활동에 평균 2.57시간을 사용하고, 남학생은 평균 2.17시간을 사용하였다. 주중 SNS 등 비대면 교제에서는 여학생은 평균 1.02시간, 남학생은 평균 0.87시간, 주말 비대면 교제에서는 여학생은 평균 1.56시간, 남학생은 평균 1.26시간 시간을 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교활동 시간에 있어, 남녀 성별 외에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2-19〉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사교활동 대면 및 비대면 교제

단위: (명), 시간

구분	친인척, 친구들과의 만남 등 사교활동(대면)						SNS 등 이용한 교제(비대면)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66)	1.17	0.78	(707)	2.37	1.58	(908)	0.95	0.57	(987)	1.42	0.90
아동 성별												
남	(174)	1.18	0.79	(347)	2.17	1.51	(416)	0.87	0.46	(466)	1.26	0.77
여	(192)	1.16	0.78	(360)	2.57	1.62	(492)	1.02	0.65	(521)	1.56	0.99
<i>t</i>		0.20			-3.32***			-4.17***			-5.22***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32)	1.39	1.31	(71)	2.50	1.77	(99)	0.88	0.46	(100)	1.34	0.76
370 초과~570만원	(110)	1.13	0.60	(191)	2.33	1.61	(242)	0.99	0.59	(278)	1.47	0.99
570 초과~770만원	(96)	1.11	0.73	(194)	2.40	1.47	(232)	0.96	0.57	(254)	1.43	0.91
770만원 초과	(94)	1.23	0.80	(193)	2.44	1.51	(269)	0.96	0.62	(286)	1.40	0.86
<i>F</i>		1.28			0.28			0.80			0.62	
지역규모												
대도시	(133)	1.17	0.75	(260)	2.36	1.58	(353)	0.94	0.53	(378)	1.38	0.83
중소도시	(202)	1.18	0.82	(399)	2.40	1.59	(505)	0.96	0.60	(548)	1.44	0.94
읍면	(27)	1.11	0.73	(39)	2.36	1.47	(39)	1.03	0.73	(50)	1.48	0.98
<i>F</i>		0.10			0.04			0.49			0.73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사교활동(대면)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8.66%, 주말 55.36%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통신기기를 활용한 교제(비대면)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71.10%, 주말 77.29%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4)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패널아동의 일과활동 중 종교활동, 반려(애완)동물 돌보기 시간도 해당 일과가 포함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평균 시간을 산출하였다. 일과에 종교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51%, 주말 10.49%이며, 반려(애완)동물 돌보기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12.69%, 주말 17.70%로 나타났다.

패널아동 중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 주중에는 평균 0.91시간, 주말에는 평균 2.04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통 대부분의 종교활동은 주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중 시간보다 주말 시간이 두 배 이상 많았다. 패널아동이 반려(애완)동물을 돌보는 시간은 주중 평균 0.68시간, 주말 평균 1.02시간으로 나타났다.

패널아동의 일과활동 중 종교활동, 반려(애완)동물 돌보기 시간에 있어서는 남녀 성별,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2-20〉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종교활동, 반려(애완)동물 돌보기

단위: (명), 시간

구분	종교활동						반려(애완)동물 돌보기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2)	0.91	0.30	(134)	2.04	1.37	(162)	0.68	0.33	(226)	1.02	0.69
아동 성별												
남	(14)	0.86	0.23	(70)	2.06	1.26	(66)	0.75	0.42	(100)	1.05	0.79
여	(18)	0.94	0.34	(64)	2.02	1.48	(96)	0.64	0.25	(126)	1.00	0.61
<i>t</i>		-0.82			0.18			1.98			0.54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3)	0.83	0.29	(24)	2.27	1.33	(15)	0.73	0.32	(22)	1.25	0.65
370 초과~570만원	(13)	0.96	0.32	(37)	2.20	1.69	(42)	0.74	0.43	(61)	1.09	0.75
570 초과~770만원	(9)	0.89	0.33	(27)	1.93	1.18	(44)	0.60	0.20	(54)	0.90	0.38
770만원 초과	(5)	0.80	0.27	(31)	1.84	1.12	(42)	0.64	0.30	(66)	0.93	0.76
<i>F</i>		0.38			0.67			1.56			2.05	
지역규모												
대도시	(11)	1.00	0.32	(49)	2.27	1.67	(66)	0.73	0.38	(87)	1.11	0.84
중소도시	(20)	0.85	0.29	(77)	1.93	1.11	(82)	0.63	0.29	(119)	0.93	0.48
읍면	(1)	1.00	-	(7)	1.79	1.63	(9)	0.67	0.25	(15)	0.87	0.61
<i>F</i>		0.96			1.04			1.43			2.29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종교활동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2.51%, 주말 10.49%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애원(반려)동물 돌보기 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주중 12.69%, 주말 17.70%이며, 시간 산출에는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패널아동의 평소 신체활동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한 번에 30분 이상 실내외에서 신체활동한 일수를 조사하였다. 지난 7일 간 단 한 번도 30분 이상 실내외에서 격렬하거나 중증도의 신체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24.82%였으며, 2일 23.10%, 3일 15.97%, 5일 이상 14.72% 순으로 나타났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하루에 30분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일수가 더 많은 경향을 보였고, 여학생의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도 운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31.30%에 달했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일부 나타났는데, 읍면지역의 아동들이 주 2~5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하는 경우가 중소도시, 대도시 아동들에 비해 많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2-21〉 아동의 한 번에 30분 이상 실내외에서 신체활동 일수(지난 7일간)

단위: %, (명)

구분	계(수)	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이상
전체	100.00(1,277)	24.82	14.33	23.10	15.97	7.05	14.72
아동 성별							
남	100.00(654)	18.65	10.86	21.10	18.04	10.40	20.95
여	100.00(623)	31.30	17.98	25.20	13.80	3.53	8.19
$\chi^2(df)$				94.39(5)***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00.00(128)	27.34	9.38	22.66	15.63	10.16	14.84
370 초과-570만원	100.00(359)	22.56	13.93	24.79	18.38	5.85	14.48
570 초과-770만원	100.00(322)	25.78	15.84	22.67	14.29	5.90	15.53
770만원 초과	100.00(371)	26.68	13.75	21.29	16.44	8.09	13.75
$\chi^2(df)$				11.18(15)			
지역규모							
대도시	100.00(492)	23.58	16.46	24.59	13.82	7.11	14.43
중소도시	100.00(699)	25.89	14.02	21.75	17.31	6.44	14.59
읍면	100.00(68)	22.06	2.94	25.00	19.12	14.71	16.18
$\chi^2(df)$				18.38(10)*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신체활동: 탁구, 수영, 배구, 배드민턴, 빠르게 걷기,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체육시간에 실제 운동한 시간, 운동장 놀이터에서 놀기 등 격렬하거나 중증도의 신체활동(등 학교 시 걷는 것은 제외)

* $p < .05$, *** $p < .001$.

다음으로 패널아동의 취미 유무와 주로 하는 취미의 종류를 알아보았다. 여기서 취미란 악기, 운동을 포함하되, 전공/선수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단순히 킬링타임용 행동이 아니라 의미를 갖고 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조사하였다.

취미가 있는 경우는 과반이 다소 넘는 54.11%였고,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학생의 57.03%, 여학생의 51.04%가 취미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즐겨하는 취미생활에 대해 1순위 응답으로 운동/스포츠/댄스가 41.39%, 노래/악기 연주 20.69%, 음악, 영화 등 관람 및 감상 16.50%, 웹툰을 포함한 그림 그리기 8.25%, 기타 7.38%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로는 게임하기, 뜨개질 공예 등 각종 만들기, 글쓰기, 베이킹/제과제빵, 헤어/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뷰티 관련 취미활동 등이 있었다.

〈표 III-2-22〉 취미(악기, 운동 포함) 유무 및 주로 하는 취미의 종류: 1순위

단위: %, (명)

구분	취미		종류							
	계(수)	있음	(수)	노래/ 악기 연주	운동/ 스포츠/ 댄스	그림 그리기 (웹툰 포함)	영상 제작 (유튜브 포함)	독서 (e-book 포함)	관람 및 감상 (음악, 영화 등)	기타
전체	100.00(1,277)	54.11	(691)	20.69	41.39	8.25	1.30	4.49	16.50	7.38
아동 성별										
남	100.00(654)	57.03	(373)	15.55	56.84	4.56	1.34	3.75	11.26	6.70
여	100.00(623)	51.04	(318)	26.73	23.27	12.58	1.26	5.35	22.64	8.18

주: 아동의 응답임.

취미의 종류에 대해 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쳐서 분석한 결과, 음악, 영화 등 관람 및 감상이 56.73%, 운동/스포츠/댄스 54.99%, 노래/악기 연주 40.96%, 웹툰을 포함한 그림 그리기와 독서 각각 14.04%, 기타 13.75%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로는 1순위 응답 경향과 유사하게 게임하기, 뜨개질 공예 등 각종 만들기, 베이킹/제과제빵, 헤어/네일아트, 메이크업 등 뷰티 관련 취미활동 등이 있었다.

〈표 III-2-23〉 주로 하는 취미의 종류: 1+2순위

단위: (명), %

구분	(수)	노래/ 악기 연주	운동/ 스포츠/ 댄스	그림 그리기 (웹툰 포함)	영상 제작 (유튜브 포함)	독서 (e-book 포함)	관람 및 감상 (음악, 영화 등)	기타
전체	(691)	40.96	54.99	14.04	4.20	14.04	56.73	13.75
아동 성별								
남	(373)	33.24	70.78	9.12	4.02	10.99	56.84	13.94
여	(318)	50.00	36.48	19.81	4.40	17.61	56.60	13.52

주: 아동의 응답임.

바) 기본생활 및 가사 돕기

기본생활 및 가사 돕기와 관련한 패널아동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일과활동 중 기본생활과 가사 돕는 데 사용하는 시간, 그리고 가사 참여 정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먼저 패널아동은 일과 중에서 식사,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에 주중 평균 1.33시간, 주말에는 평균 1.61시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녀 성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남학생은 기본생활에 주중 평균 1.27시간, 주말 평균 1.52시

간 사용하는 반면 여학생은 주중 평균 1.40시간, 주말 평균 1.71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남녀 모두 기본생활에 주중보다는 주말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시간 사용이 많았다.

음식 준비, 청소, 정리 등의 가사 돕기에 사용하는 시간은 주중 평균 0.67시간, 주말 평균 0.82시간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이 주말에 가사 돕기 하는 시간은 0.86시간으로 남학생의 0.78시간에 비해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2-24〉 아동의 일과활동 시간: 기본생활 시간, 가사 돕기 시간

단위: (명), 시간

구분	식사,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음식 준비, 청소, 정리 등 가사 돕기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277)	1.33	0.66	(1,277)	1.61	0.77	(376)	0.67	0.27	(640)	0.82	0.43
아동 성별												
남	(654)	1.27	0.62	(654)	1.52	0.71	(173)	0.68	0.29	(287)	0.78	0.34
여	(623)	1.40	0.69	(623)	1.71	0.82	(203)	0.65	0.25	(353)	0.86	0.49
<i>t</i>			-3.62***			-4.45***			1.23			-2.43*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8)	1.30	0.65	(128)	1.55	0.71	(40)	0.69 ^a	0.27	(66)	0.86	0.38
370 초과~570만원	(359)	1.28	0.65	(359)	1.55	0.79	(121)	0.66 ^a	0.28	(200)	0.83	0.41
570 초과~770만원	(322)	1.38	0.67	(322)	1.65	0.74	(88)	0.60 ^a	0.22	(171)	0.77	0.34
770만원 초과	(371)	1.37	0.66	(371)	1.63	0.76	(95)	0.72 ^a	0.31	(154)	0.84	0.56
<i>F</i>			1.78			1.45			2.80*			1.25
지역규모												
대도시	(492)	1.32	0.65	(492)	1.57	0.76	(153)	0.68	0.27	(239)	0.81	0.37
중소도시	(699)	1.34	0.65	(699)	1.64	0.76	(204)	0.65	0.27	(355)	0.82	0.45
읍면	(68)	1.30	0.82	(68)	1.60	0.87	(15)	0.67	0.24	(40)	0.94	0.57
<i>F</i>			0.22			1.15			0.55			1.62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아동의 하루일과 시간에 음식 준비, 청소, 정리 등 가사일 돕기가 포함된 경우는 주중 40.94%, 주말 59.38%이며 시간 산출은 해당 사례만을 분석함.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패널아동이 가사에 참여하는 정도를 4점 척도(1.전혀 하지 않는다~4.항상 한다)로 조사한 결과, 의생활/식생활/주생활/돌봄 4개 영역에서 평균 2.31~2.59점의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며 이는 종종 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가장 높은

점수는 식생활 영역의 2.59점이고, 식생활 영역의 참여는 반찬이나 수저를 식탁에 놓기, 요리 돕기, 간식 만들어 먹거나 밥 챙겨 먹기, 과일 깎기, 식탁 정리, 설거지 등을 활동 참여 정도를 의미한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는 주생활 영역의 2.31점으로, 주생활 영역의 참여는 내방 정리, 청소기 돌리기, 쓰레기 분리수거, 화분에 물주기, 현관의 신발 정리, 간단한 집안 수리(못질하기, 전구 갈기) 등을 의미한다.

가사 참여 정도 중 의생활과 식생활 영역에서는 남녀 성별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참여 수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 영역에서 가구소득에 따른 집단 차이가 있었는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370만원 이하 가구의 아동이 370만원 초과 570만원 이하 가구 및 770만원 초과 가구의 아동보다 돌봄 참여 정도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2-25〉 아동의 가사 참여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수)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돌봄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277)	2.35	0.83	2.59	0.87	2.31	0.80	2.38	0.81
아동 성별									
남	(654)	2.30	0.84	2.53	0.86	2.28	0.80	2.34	0.81
여	(623)	2.41	0.83	2.66	0.87	2.35	0.80	2.42	0.81
<i>t</i>		-2.32*		-2.72**		-1.52		-1.68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8)	2.34	0.88	2.59	0.87	2.34	0.80	2.59 ^b	0.90
370 초과~570만원	(359)	2.30	0.81	2.58	0.89	2.29	0.81	2.35 ^a	0.81
570 초과~770만원	(322)	2.41	0.83	2.60	0.85	2.37	0.80	2.44 ^{ab}	0.80
770만원 초과	(371)	2.34	0.85	2.56	0.88	2.26	0.80	2.26 ^a	0.80
<i>F</i>		1.02		0.15		1.12		6.25***	
지역규모									
대도시	(492)	2.36	0.79	2.55	0.84	2.31	0.79	2.40	0.82
중소도시	(699)	2.34	0.86	2.61	0.89	2.32	0.82	2.36	0.81
읍면	(68)	2.40	0.93	2.62	0.91	2.26	0.78	2.40	0.88
<i>F</i>		0.17		0.60		0.15		0.28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하지 않는다~4.항상 한다).

3) 각 하위영역별 해당 가사임

- 의생활: 벗은 옷을 옷걸이에 걸기, 빨래감 모으기, 세탁기 돌리기, 빨래 널거나 개기,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기 등

- 식생활: 반찬이나 수저를 식탁에 놓기, 요리 돕기, 간식 만들어 먹거나 밥 챙겨 먹기, 과일 깎기, 식탁 정리, 설거지 등

- 주생활: 내방 정리, 청소기 돌리기, 쓰레기 분리수거, 화분에 물주기, 현관의 신발 정리, 간단한 집안 수리(못질하기, 전구 갈기) 등

- 돌봄: 부모님 심부름, 동생 돌보기, 가족이 아플 때 돕기, 우편물 챙기기, 집안행사(명절, 생일 등) 준비 등

* $p < .05$, ** $p < .01$, *** $p < .001$.

3) 외출/활동 참여 빈도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중 먼저 장보기 및 쇼핑, 친인척 방문에 대해 분석한 결과이다. 조사대상 패널아동 중 장보기 및 쇼핑에 참여한 사례가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참여 횟수를 산출하였다.

패널아동 중 장보기 및 쇼핑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68.14%였으며, 연간 참여 횟수는 평균 20.13회로 분석되었다. 남학생은 62.58% 참여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그보다 많은 74.00%가 장보기 및 쇼핑에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장보기 및 쇼핑 연간 참여 횟수에서도 남녀 성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학생은 연간 평균 22.92회, 남학생은 17.00회로 조사되어, 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친인척 방문에 대한 활동 참여 빈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대상의 92.70%가 참여한다고 응답하였고, 그들의 연간 참여 횟수는 평균 8.30회로 조사되었다. 가구소득에 따른 집단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친인척 방문 참여 여부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I-2-26〉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장보기 및 쇼핑, 친인척 방문

단위: %, (명), 회

구분	계(수)	장보기 및 쇼핑				친인척 방문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287)	68.14	31.86	20.13	26.73	92.70	7.30	8.30	10.32
아동 성별									
남	(660)	62.58	37.42	17.00	23.15	91.67	8.33	8.28	10.27
여	(627)	74.00	26.00	22.92	29.29	93.78	6.22	8.31	10.37
$\chi^2(df)/t$		19.34(1)***		-3.34***		2.12(1)		-0.05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33)	60.15	39.85	24.29	31.59	85.71	14.29	10.61 ^b	14.39
370 초과~570만원	(363)	69.70	30.30	20.94	25.99	93.11	6.89	7.34 ^a	9.57
570 초과~770만원	(326)	73.01	26.99	18.51	23.78	94.48	5.52	8.60 ^{ab}	9.55
770만원 초과	(386)	66.06	33.94	18.42	24.37	94.04	5.96	8.14 ^{ab}	10.16
$\chi^2(df)/F$		8.64(3)*		1.45		12.53(3)**		2.97*	
지역규모									
대도시	(507)	70.41	29.59	19.12	28.32	93.89	6.11	8.95	10.90
중소도시	(711)	66.10	33.90	20.36	25.73	91.56	8.44	7.86	10.04
읍면	(69)	72.46	27.54	25.26	23.93	95.65	4.35	7.85	8.42
$\chi^2(df)/F$		3.16(2)		1.19		3.30(2)		1.61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한 달은 12개월, 일주일은 48주를 기준으로 연간 참여횟수를 환산함.

3) 연간 참여횟수 평균/표준편차는 참여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는 당일여행 및 나들이, 국내여행, 해외여행 및 연수에 대한 활동 참여 빈도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앞서 살펴본 장보기 및 쇼핑 활동과 마찬가지로 해당 사례가 있는 경우만 평균 참여 횟수를 산출하였다.

조사대상 패널아동 중 당일여행 및 나들이에 참여한 경우는 85.86%이며, 이들의 연간 참여 횟수는 평균 8.02회로 조사되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참여 여부 비율이 높았고, 연간 참여 횟수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소득에 따른 참여 여부 비율에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참여 여부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1박 이상의 국내여행에 대한 조사결과, 조사대상 패널아동 중 1박 이상의 국내 여행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76.15%이며, 연간 참여 횟수는 평균 2.66회였다. 여학생의 참여 여부 비율은 80.06%로 남학생의 참여 비율 72.42%보다 높았다. 당일여행 및 나들이 활동과 유사하게 가구소득에 따른 참여 여부 비율에 차이가 있었으며,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1박 이상의 국내여행 참여 여부 비율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해외여행 및 연수의 경우는 조사대상의 20.44%의 아동들이 참여한다고 응답했고, 연간 참여 횟수는 평균 1.18회로 1년에 약 1회 정도 해외여행 등을 다녀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조사결과로 동일하게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해외여행 및 연수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고, 가장 극명한 집단 차이를 나타냈다.

〈표 III-2-27〉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당일여행 및 나들이, 국내여행, 해외여행 및 연수

단위: %, (명), 회

구분	(수)	당일여행 및 나들이				1박 이상의 국내여행				해외여행 및 연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287)	85.86	14.14	8.02	10.42	76.15	23.85	2.66	4.19	20.44	79.56	1.18	0.44
아동 성별													
남	(660)	83.03	16.97	7.39	9.78	72.42	27.58	2.56	3.61	19.39	80.61	1.17	0.44
여	(627)	88.84	11.16	8.64	11.00	80.06	19.94	2.75	4.67	21.53	78.47	1.19	0.45
$\chi^2(df)/t$		8.93(1)**		-1.99*		10.33(1)**		-0.68		0.90(1)		-0.38	
가구소득													

구분	(수)	당일여행 및 나들이				1박 이상의 국내여행				해외여행 및 연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370만원 이하	(133)	72.93	27.07	8.02	10.41	60.90	39.10	2.83	5.85	7.52	92.48	1.40 ^a	0.52
370 초과~570만원	(363)	86.23	13.77	8.12	10.34	73.55	26.45	2.58	4.27	11.85	88.15	1.09 ^a	0.29
570 초과~770만원	(326)	87.42	12.58	8.25	10.64	78.83	21.17	2.59	4.04	20.86	79.14	1.10 ^a	0.35
770만원 초과	(386)	88.86	11.14	7.59	10.57	81.61	18.39	2.59	2.83	32.12	67.88	1.25 ^a	0.52
$\chi^2(df)/F$		21.95(3) ^{***}		0.24		26.00(3) ^{***}		0.09		62.93(3) ^{***}		3.05 [*]	
지역규모													
대도시	(507)	85.21	14.79	7.49	9.70	74.16	25.84	2.78	4.72	22.68	77.32	1.19	0.44
중소도시	(711)	86.22	13.78	8.51	11.12	78.20	21.80	2.59	3.92	19.27	80.73	1.18	0.46
읍면	(69)	86.96	13.04	6.82	7.62	69.57	30.43	2.52	2.39	15.94	84.06	1.09	0.30
$\chi^2(df)/F$		0.32(2)		1.64		4.40(2)		0.26		3.03(2)		0.26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한 달은 12개월, 일주일은 48주를 기준으로 연간 참여횟수를 환산함.

3) 연간 참여횟수 평균/표준편차는 참여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4)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문화체험, 예술감상, 견학 활동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의 절반이 조금 넘는 58.97%가 참여한다고 응답하고, 이들의 연간 참여 횟수는 평균 5.85회였다. 아동 특성별로 집단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지역규모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거주하고 있는 지역규모가 큰 집단일수록 문화체험, 예술감상, 견학 활동에 참여한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종교활동은 전체의 19.89%가 참여하고, 연간 참여 횟수는 평균 47.90회였다. 여학생의 연간 참여 횟수는 55.02회로 남학생의 41.81회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표 III-2-28〉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문화체험/예술감상/견학, 종교활동

단위: %, (명), 회

구분	계(수)	문화체험/예술감상/견학				종교활동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0.00(1,287)	58.97	41.03	5.85	9.15	19.89	80.11	47.90	47.24
아동 성별									
남	100.00(660)	56.67	43.33	6.02	10.21	20.91	79.09	41.81	33.08
여	100.00(627)	61.40	38.60	5.68	7.99	18.82	81.18	55.02	59.05
	$\chi^2(df)/t$	2.98(1)		0.51		0.88(1)		-2.16*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00.00(133)	51.88	48.12	4.42	3.86	26.32	73.68	61.83	45.15
370 초과~570만원	100.00(363)	57.02	42.98	6.50	11.59	20.66	79.34	54.04	56.51
570 초과~770만원	100.00(326)	61.35	38.65	5.23	7.19	16.56	83.44	38.24	33.99
770만원 초과	100.00(386)	60.62	39.38	5.75	7.15	19.95	80.05	44.16	48.45
	$\chi^2(df)/F$	4.50(3)		1.34		5.83(3)		2.27	
지역규모									
대도시	100.00(507)	65.48	34.52	6.14	9.44	20.32	79.68	42.18	48.92
중소도시	100.00(711)	54.99	45.01	5.64	9.07	19.83	80.17	50.92	45.34
읍면	100.00(69)	52.17	47.83	5.42	7.19	17.39	82.61	61.42	52.39
	$\chi^2(df)/F$	14.85(2)**		0.31		0.33(2)		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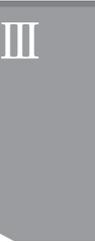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한 달은 12개월, 일주일은 48주를 기준으로 연간 참여횟수를 환산함.

3) 연간 참여횟수 평균/표준편차는 참여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 $p < .05$, ** $p < .01$.

패널아동의 봉사활동과 동아리활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참여 여부 및 연간 참여 횟수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패널아동의 21.99%가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연간 참여 횟수는 평균 18.52회였다. 동아리활동의 경우 전체의 30.38%가 참여하였고, 참여하고 있는 사례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연간 참여 횟수는 평균 44.60회로 분석되었다. 여학생의 동아리활동 참여 여부는 33.97%로 남학생의 26.97%보다 확연히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표 III-2-29〉 아동의 활동별 참여 빈도: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단위: %, (명), 회

구분	계(수)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 여부		연간 참여횟수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참여함	참여 안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0.00(1,287)	21.99	78.01	18.52	34.36	30.38	69.62	44.60	40.24
아동 성별									
남	100.00(660)	21.21	78.79	19.64	34.27	26.97	73.03	46.62	44.27
여	100.00(627)	22.81	77.19	17.42	34.52	33.97	66.03	42.91	36.56
	$\chi^2(df)/t$	0.48(1)		0.54		7.45(1)**		0.91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00.00(133)	30.83	69.17	23.32	46.21	25.56	74.44	54.24	53.96
370 초과~570만원	100.00(363)	17.36	82.64	17.68	37.36	28.10	71.90	39.78	29.16
570 초과~770만원	100.00(326)	23.62	76.38	19.19	34.73	34.05	65.95	46.04	43.21
770만원 초과	100.00(386)	22.28	77.72	16.58	25.56	33.94	66.06	45.61	42.28
	$\chi^2(df)/F$	11.07(3)*		0.37		6.16(3)		1.18	
지역규모									
대도시	100.00(507)	23.08	76.92	19.59	39.31	31.16	68.84	40.82	40.32
중소도시	100.00(711)	20.82	79.18	17.26	29.13	29.54	70.46	46.20	39.17
읍면	100.00(69)	26.09	73.91	21.89	40.77	33.33	66.67	56.04	47.59
	$\chi^2(df)/F$	1.60(2)		0.24		0.67(2)		1.80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한 달은 12개월, 일주일은 48주를 기준으로 연간 참여횟수를 환산함.

3) 연간 참여횟수 평균/표준편차는 참여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산출함.

* $p < .05$, ** $p < .01$.

나. 신체 및 건강 특성

1) 신체 특성 및 주관적 건강상태

한국아동패널 조사에서는 매년 조사마다 패널아동들의 신장, 허리둘레, 체중을 직접 계측하여 BMI까지 산출함으로써 패널아동들의 신체적 성장과 발달 추이를 확인하고 있다.

2024년 고등학교 1학년 시기를 맞이한 패널아동의 신장은 평균 168.46cm, 허리둘레는 75.24cm, 체중은 평균 62.59kg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계측수치를 바탕으로 BMI를 산출한 결과, 21.95kg/m²로 정상 범주⁹⁾ 내에 속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9)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 기준의 경우 크게 저체중(BMI 18.5kg/m²미만), 정상체중(18.5~25.0 kg/m²미만), 비만(25.0kg/m²이상)로 나뉘진다(국민건강보험공단, 2024).

〈표 III-2-30〉 아동의 신체치수: 신장, 허리둘레, 체중, BMI

단위: cm, kg, kg/m², (명)

구분	최소	최대	중위수	평균	표준편차	(수)
신장	150.00	192.00	168.00	168.46	7.95	(1,169)
허리둘레	55.00	125.00	73.20	75.24	10.67	(653)
체중	38.00	140.00	60.00	62.59	13.57	(1,152)
BMI	14.47	42.27	21.30	21.95	3.78	(1,106)

다음은 아동 특성별 신체치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신장, 허리둘레, 체중 및 BMI 수치 모두 아동 성별에 따른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남학생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평균 174.14cm, 69.16kg이고, 여학생의 경우는 평균 162.56cm, 55.52kg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31〉 아동의 특성별 신체치수

단위: (명). cm, kg, kg/m²

구분	(수)	신장		(수)	허리둘레		(수)	체중		(수)	BMI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169)	168.46	7.95	(653)	75.24	10.67	(1,152)	62.59	13.57	(1,106)	21.95	3.78
아동 성별												
남	(596)	174.14	5.87	(330)	79.46	10.98	(597)	69.16	13.75	(573)	22.79	4.13
여	(573)	162.56	4.98	(323)	70.92	8.40	(555)	55.52	9.08	(533)	21.06	3.13
<i>t</i>		36.38***			11.18***			20.01***			7.88***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0)	168.04	7.81	(68)	74.54	10.36	(117)	62.87	14.27	(114)	22.16	4.19
370 초과-570만원	(317)	168.26	7.65	(183)	75.60	11.10	(322)	62.52	15.04	(299)	21.96	4.17
570 초과-770만원	(292)	168.72	8.15	(164)	75.83	11.11	(290)	62.98	13.24	(277)	22.05	3.80
770만원 초과	(352)	168.75	7.92	(191)	73.88	9.71	(343)	61.85	11.94	(338)	21.59	3.20
<i>F</i>		0.42			1.28			0.41			1.09	
지역규모												
대도시	(461)	168.52	7.93	(293)	73.58 ^a	9.64	(449)	62.30	13.26	(435)	21.87	3.76
중소도시	(633)	168.41	8.00	(331)	76.88 ^a	11.39	(625)	62.71	13.96	(600)	21.96	3.83
읍면	(61)	168.47	7.31	(27)	72.99 ^a	9.32	(65)	63.82	11.53	(59)	22.65	3.48
<i>F</i>		0.03			8.21***			0.40			1.09	

주: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다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01$.

신체적 자아상은 외모 만족, 체중 만족, 거울 속 모습 만족, 외모 교체 불필요 의사, 신장 만족에 대한 총 5개 질문으로,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로 조사한다. 5개 질문에 대해 2.46점에서 2.83점 수준으로 응답하였

고, 전체 평균 점수는 2.64점으로 이는 '종종 그렇다'의 중간 정도 수준을 의미한다.

5개 문항 중 외모에 대한 만족도 정도가 평균 2.83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본인 외모에 만족하는 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외모 교체 불필요 의사에 대한 응답값은 평균 2.46점으로 5개 질문 중 가장 낮았는데, 이는 가능하다면 외모를 교체하고 싶은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외모에 큰 불만은 없지만, 가능하다면 외모를 바꾸고 싶은 마음도 있는 청소년기 외모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는 결과이다.

신체적 자아상은 뚜렷한 남녀 성별 차이를 보였는데, 신장 만족을 제외한 4개 문항 모두에서 남학생의 만족도가 여학생보다 높았다. 신장 만족도 문항에서만 유일하게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2-32〉 신체적 자아상

단위: (명), 점

구분	(수)	전체		외모 만족		체중 만족		거울 속 모습 만족		외모 교체 불필요 의사		신장 만족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277)	2.64	0.52	2.83	0.67	2.51	0.86	2.80	0.68	2.46	0.83	2.60	0.87
아동 성별													
남	(654)	2.73	0.50	2.92	0.64	2.68	0.84	2.90	0.65	2.63	0.82	2.52	0.90
여	(623)	2.54	0.52	2.73	0.69	2.32	0.85	2.69	0.69	2.28	0.81	2.69	0.84
<i>t</i>		6.52***		4.96***		7.65***		5.56***		7.51***		-3.5***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8)	2.57	0.53	2.77	0.67	2.41	0.87	2.72	0.69	2.45	0.79	2.52	0.91
370 초과~570만원	(359)	2.67	0.51	2.86	0.70	2.57	0.92	2.84	0.69	2.52	0.87	2.54	0.86
570 초과~770만원	(322)	2.63	0.53	2.80	0.71	2.50	0.84	2.78	0.68	2.43	0.84	2.61	0.88
770만원 초과	(371)	2.64	0.52	2.83	0.65	2.49	0.82	2.79	0.68	2.46	0.79	2.62	0.87
<i>F</i>		1.08		0.84		1.23		1.20		0.59		0.89	
지역규모													
대도시	(492)	2.62	0.48	2.82	0.68	2.47	0.83	2.80	0.67	2.43	0.80	2.57 ^a	0.86
중소도시	(699)	2.65	0.54	2.83	0.67	2.53	0.88	2.81	0.68	2.47	0.85	2.59 ^a	0.89
읍면	(68)	2.72	0.52	2.82	0.69	2.53	0.94	2.75	0.70	2.65	0.88	2.87 ^b	0.77
<i>F</i>		1.45		0.12		0.72		0.23		2.18		3.56 [*]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3) 체중 만족(나는 내 체중에 불만스럽다), 외모교체 욕구(할 수 있다면 나의 외모에 대해 바꾸고 싶은 부분이 많다) 문항은 역코딩

* $p < .05$, *** $p < .001$.

신체적 자아상에 이어 아동이 본인의 체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본인의 체형에 대해 5점 척도(1.매우 마른 편~5.매우 비만)로 응답하게 되어 있는데, 조사대상 패널아동의 과반 정도인 46.12%가 본인의 체형이 보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약간 비만이라고 인식한 경우 26.23%, 약간 마른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15.74%, 매우 비만 7.36%, 매우 마른 편 4.54%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해보면 평균 3.16점으로 보통 정도 체형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의 체형 인식에서는 신체적 자아상과 마찬가지로 남녀 성별 차이가 뚜렷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본인의 체형이 보통, 혹은 약간 비만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5점 만점 환산점수에서도 남학생은 평균 3.00점인 반면, 여학생은 평균 3.33점으로 남학생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라 본인의 체형에 대한 인식 분포가 다소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의 아동이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 아동보다 본인의 체형을 약간 마른 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I-2-33〉 아동이 인식한 아동의 체형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마른 편	약간 마른 편	보통	약간 비만	매우 비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54	15.74	46.12	26.23	7.36	100.00(1,277)	3.16	0.93
아동 성별								
남	8.10	20.49	41.59	22.63	7.19	100.00(654)	3.00	1.02
여	0.80	10.75	50.88	30.02	7.54	100.00(623)	3.33	0.80
$\chi^2(df)/t$			69.32(4)***					-6.34***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4.69	22.66	40.63	18.75	13.28	100.00(128)	3.13	1.06
370 초과~570만원	4.46	18.11	41.78	27.58	8.08	100.00(359)	3.17	0.97
570 초과~770만원	5.28	14.60	47.83	23.91	8.39	100.00(322)	3.16	0.95
770만원 초과	4.04	14.02	50.40	28.03	3.50	100.00(371)	3.13	0.84
$\chi^2(df)/F$			28.72(12)**					0.12
지역규모								
대도시	4.47	17.28	46.14	24.59	7.52	100.00(492)	3.13	0.94
중소도시	4.43	15.59	46.21	26.90	6.87	100.00(699)	3.16	0.92
읍면	2.94	8.82	45.59	32.35	10.29	100.00(68)	3.38	0.90
$\chi^2(df)/F$			5.75(8)					2.14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마른 편이다~5.매우 비만이다).

** $p < .01$, *** $p < .001$.

체중조절 경험에 대해서는 감량하려고 노력한 적 있다는 응답이 38.14%, 노력해본 적 없다 30.85%, 유지 노력 18.95%, 마지막으로 증량하려고 노력한 경우도 12.06% 있었다. 여학생 중 감량하려고 노력한 적 있다는 응답은 50.88%에 반해, 남학생은 25.99%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남학생은 증량하려고 노력한 적 있다는 경우가 21.41%고, 여학생은 2.25%로 조사되어, 체중조절 경험 역시 남녀 성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표 III-2-34〉 체중조절 경험

단위: %, (명)

구분	감량 노력	유지 노력	증량 노력	노력 안함	계(수)
전체	38.14	18.95	12.06	30.85	100.00(1,277)
아동 성별					
남	25.99	20.18	21.41	32.42	100.00(654)
여	50.88	17.66	2.25	29.21	100.00(623)
$\chi^2(df)$	151.08(3) ^{***}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35.94	17.97	14.06	32.03	100.00(128)
370 초과~570만원	35.10	19.50	13.09	32.31	100.00(359)
570 초과~770만원	41.30	19.25	11.80	27.64	100.00(322)
770만원 초과	36.12	18.87	12.67	32.35	100.00(371)
$\chi^2(df)$	4.25(9)				
지역규모					
대도시	35.77	20.12	15.04	29.07	100.00(492)
중소도시	38.20	18.74	10.30	32.76	100.00(699)
읍면	51.47	14.71	8.82	25.00	100.00(68)
$\chi^2(df)$	12.99(6) [*]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01$.

체중을 줄이거나 유지하려고 노력한 경우 체중조절을 위해 사용한 방법에 대한 중복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운동 82.03%, 식사량 감량 70.10%로 이 두 방법이 주를 이뤘고, 아예 결식한다는 응답이 24.01%로 그다음 순이었다. 건강기능 식품 7.82%, 원푸드 다이어트 2.06%, 기타 1.37%, 처방 약을 먹는다는 경우(0.96%)도 드물지만 있었다.

〈표 Ⅲ-2-35〉 체중조절 방법(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운동	식사량 감량	결식	건강기능 식품	원푸드 다이어트	처방 약	기타	(수)
전체	82.03	70.10	24.01	7.82	2.06	0.96	1.37	(729)
아동 성별								
남	90.40	60.60	12.91	5.63	0.99	0.66	0.99	(302)
여	76.11	76.81	31.85	9.37	2.81	1.17	1.64	(427)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76.81	66.67	26.09	4.35	1.45	-	-	(69)
370 초과~570만원	81.63	66.33	20.92	7.14	1.53	1.53	1.53	(196)
570 초과~770만원	83.59	71.28	23.08	8.72	3.59	0.51	2.05	(195)
770만원 초과	84.31	72.55	25.98	9.80	1.47	1.47	0.98	(204)
지역규모								
대도시	81.82	69.09	23.64	7.64	1.82	1.09	1.09	(275)
중소도시	82.41	70.85	23.12	7.04	1.76	1.01	1.76	(398)
읍면	86.67	68.89	31.11	15.56	4.44	-	-	(45)

주: 아동의 응답임.

패널아동이 안경 혹은 일반 렌즈, 드림 렌즈 등의 시력 교정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를 조사한 결과, 안경은 평균 10.57세, 시력 교정도구는 평균 13.36세에 착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력 교정도구 착용 시기에 있어 아동의 성별이나 가구소득, 거주하고 있는 지역규모별 집단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2-36〉 아동의 시력 교정도구 착용 시기

단위: 세, (명)

구분	안경		(수)	시력 교정도구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57	2.69	(807)	13.36	2.20	(103)
아동 성별						
남	10.49	2.70	(391)	12.50	2.82	(26)
여	10.64	2.68	(416)	13.65	1.88	(77)
t		-0.82			-1.94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0.57	2.63	(86)	13.67	1.94	(9)
370 초과~570만원	10.69	2.76	(223)	13.00	2.15	(26)
570 초과~770만원	10.31	2.72	(212)	13.23	2.32	(31)
770만원 초과	10.59	2.63	(249)	13.76	2.25	(33)
F		0.77			0.67	
지역규모						
대도시	10.50	2.52	(321)	13.20	2.19	(50)
중소도시	10.61	2.83	(448)	13.57	2.23	(51)
읍면	10.63	2.48	(38)	12.00	1.41	(2)
F		0.19			0.74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전체 참여 아동의 62.70%는 안경, 8.00%는 시력 교정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함.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11차 조사, 아동 초4)부터 조사된 아동의 2차 성징 발현 여부 및 시작 시기 문항은 11차~13차까지 보호자가 응답하도록 하다가 중학교 시기(14차 조사, 아동 중1)부터 아동에게 직접 조사하였다. 우선 남학생의 경우를 살펴보면, 72.48%가 2차 성징이 발현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한 남학생의 25.38%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2차 성징이 발현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37〉 남학생의 2차 성징(몽정) 발현 여부 및 처음 나타난 시기

단위: %, (명)

구분	계(수)	몽정 발현 여부							나타나지 않음
		나타남 (처음 나타난 시기)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년 이전)	
고1	중3	중2	중1	초6	초5	초4 이전			
전체	100.00(654)	1.07	7.34	14.07	25.38	19.42	4.28	0.92	27.52

주: 아동의 응답임.

여학생의 2차 성징 문항 결과를 살펴보면, 95.67%가 2차 성징이 발현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한 여학생 중 40.29%가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처음 2차 성징이 발현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38〉 여학생의 2차 성징(초경) 발현 여부 및 처음 나타난 시기

단위: %, (명)

구분	계(수)	초경 발현 여부							나타나지 않음
		나타남 (처음 나타난 시기)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년 이전)	
고1	중3	중2	중1	초6	초5	초4 이전			
전체	100.00(623)	0.16	0.64	4.82	20.06	40.29	23.27	6.42	4.33

주: 아동의 응답임.

보호자를 대상으로 5점 척도(1.전혀 건강하지 않음~5.매우 건강함)로 보호자가 생각하는 아동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응답한 보호자의 79.40%가 아동이 건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3.94점으로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라 건강한 편이라고 나타났다. 건강상태 평균을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패널아동의 성별 및 거주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았고, 중소 및 대도시보다 읍면동에 거주하는 패널아동일수록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2-39〉 보호자가 인식한 아동의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건강하지 않음	건강하지 않은 편임	보통임	건강한 편임	매우 건강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23	2.49	17.87	62.00	17.40	100.00(1,287)	3.94	0.69
아동 성별								
남	0.30	2.27	15.61	61.36	20.45	100.00(660)	3.99	0.69
여	0.16	2.71	20.26	62.68	14.19	100.00(627)	3.88	0.67
$\chi^2(df)/t$			11.75(4) ^(a)				2.98 ^{**}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0.75	4.51	18.80	63.16	12.78	100.00(133)	3.83	0.73
370 초과-570만원	0.28	1.93	20.66	61.16	15.98	100.00(363)	3.91	0.68
570 초과-770만원	0.31	2.45	16.87	62.27	18.10	100.00(326)	3.95	0.69
770만원 초과	-	2.85	15.28	62.44	19.43	100.00(386)	3.98	0.68
$\chi^2(df)/F$			11.37(12) ^(a)				2.05	
지역규모								
대도시	0.20	2.37	17.75	62.72	16.96	100.00(507)	3.94 ^a	0.68
중소도시	0.28	2.81	18.57	61.74	16.60	100.00(711)	3.92 ^a	0.69
읍면	-	-	11.59	59.42	28.99	100.00(69)	4.17 ^b	0.62
$\chi^2(df)/F$			9.79(8) ^(a)				4.49 [*]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건강하지 않음~5.매우 건강함).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5$, ** $p < .01$.

다음은 아동의 객관적인 신체활동 및 운동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건강체력 평가시스템(PAPS)에 기입된 내용을 해당 패널아동의 담임교사에게 설문조사에 기재하도록 한 결과이다.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은 총 5개의 종목 점수(각 19점)를 종합하여 총 1등급(80~100점)부터 5(0~20점)등급으로 나뉜다. 담임교사가 응답한 패널아동 중 38.92%가 3등급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2등급이 34.05%, 4등급 12.97% 순이었다.



〈표 III-2-40〉 아동의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 결과

단위: %, (명), 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78	34.05	38.92	12.97	10.27	100.00(185)	2.92	1.02
아동 성별								
남	4.30	25.81	39.78	20.43	9.68	100.00(93)	3.05	1.01
여	3.26	42.39	38.04	5.43	10.87	100.00(92)	2.78	1.00
$\chi^2(df)/t$			11.98(4) ^(a)					1.83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4.35	26.09	47.83	13.04	8.70	100.00(23)	2.96	0.98
370 초과~570만원	1.56	32.81	40.63	12.50	12.50	100.00(64)	3.02	1.02
570 초과~770만원	5.00	40.00	30.00	15.00	10.00	100.00(40)	2.85	1.08
770만원 초과	6.12	32.65	38.78	12.24	10.20	100.00(49)	2.88	1.05
$\chi^2(df)/F$			4.32(12) ^(a)					0.27
지역규모								
대도시	7.41	33.33	35.80	12.35	11.11	100.00(81)	2.86	1.09
중소도시	1.09	31.52	43.48	14.13	9.78	100.00(92)	3.00	0.95
읍면	-	58.33	25.00	8.33	8.33	100.00(12)	2.67	0.98
$\chi^2(df)/F$			9.03(8) ^(a)					0.78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0-19점: 5등급, 20-39점: 4등급, 40-59점: 3등급, 60-79점: 2등급, 80-100점: 1등급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5$.

2) 질환 및 치료

보호자를 대상으로 패널아동이 지난 1년간 사고 및 중독 등으로 응급실 치료와 입원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중 4.04%가 지난 1년 중 응급실 치료를 경험하였고, 3.89%가 입원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 외 특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2-41〉 아동의 치료 및 입원 여부

단위: %, (명)

구분	응급실 치료 경험		입원 경험		계(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전체	4.04	95.96	3.89	96.11	100.00(1,287)
아동 성별					
남	3.18	96.82	3.18	96.82	100.00(660)
여	4.94	95.06	4.63	95.37	100.00(627)
$\chi^2(df)$		2.58(1)		1.79(1)	

구분	응급실 치료 경험		입원 경험		계(수)
	있음	없음	있음	없음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3.01	96.99	4.51	95.49	100.00(133)
370 초과~570만원	5.23	94.77	4.68	95.32	100.00(363)
570 초과~770만원	3.99	96.01	3.37	96.63	100.00(326)
770만원 초과	4.15	95.85	3.89	96.11	100.00(386)
$\chi^2(df)$	1.41(3)		0.86(3)		
지역규모					
대도시	4.34	95.66	3.94	96.06	100.00(507)
중소도시	3.66	96.34	3.80	96.20	100.00(711)
읍면	5.80	94.20	4.35	95.65	100.00(69)
$\chi^2(df)$	0.94(2)		0.06(2)		

주: 보호자의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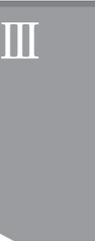
다음은 보호자를 대상으로 장애가 있다고 조사된 패널아동의 장애정도를 나타낸 결과이다. 전체 응답대상 중 18명의 패널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 종류(중복응답)에 따라 지적장애 10명, 심장 및 자폐성장애 각 3명, 지체 및 시각장애 각 2명, 뇌병변, 언어, 호흡기, 간질장애 각 1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42〉 아동의 장애 여부

단위: %, (명)

구분	계(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체장애	100.00(2)	50.00	50.00
뇌병변장애	100.00(1)	100.00	-
시각장애	100.00(2)	-	100.00
청각장애	-	-	-
언어장애	100.00(1)	-	100.00
안면장애	-	-	-
신장장애	-	-	-
심장장애	100.00(3)	33.33	66.67
간장애	-	-	-
호흡기장애	100.00(1)	-	100.00
장루, 요루장애	-	-	-
간질장애	100.00(1)	-	100.00
지적장애	100.00(10)	90.00	10.00
정신장애	-	-	-
자폐성장애	100.00(3)	66.67	33.33
기타 장애	-	-	-

주: 보호자의 응답임.



보호자를 통해 아동의 만성질환별 진단 및 치료 여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대상 중 14.06%가 만성 비염을 진단받았다고 응답하였고, 아토피 피부염 3.89%, 식품 알레르기 2.33% 순으로 진단 비율이 높았다. 대부분의 진단 받은 만성질환에 대한 치료 여부가 간헐적으로 받거나 받지 않음에 과반수가 분포 되어 있지만, 선천성 심장질환, 뇌전증(간질), 당뇨를 진단받은 패널아동은 모두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2-43〉 아동의 만성질환별 진단 및 치료 여부

단위: %, (명)

구분	계(수)	진단받은 비율 (중복응답)	치료 여부		
			지속적으로 받음	간헐적으로 받음	받지 않음
선천성 심장질환	100.00(1,287)	0.16	100.00	-	-
뇌전증(간질)	100.00(1,287)	0.23	100.00	-	-
당뇨	100.00(1,287)	0.16	100.00	-	-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100.00(1,287)	0.85	9.09	81.82	9.09
만성 중이염	100.00(1,287)	0.16	-	100.00	-
만성 요로감염	100.00(1,287)	-	-	-	-
천식	100.00(1,287)	0.70	22.22	55.56	22.22
만성 비염	100.00(1,287)	14.06	4.42	74.03	21.55
아토피 피부염	100.00(1,287)	3.89	10.00	66.00	24.00
식품 알레르기	100.00(1,287)	2.33	-	40.00	60.00
알레르기 결막염	100.00(1,287)	1.40	-	72.22	27.78
기타 질환	100.00(1,287)	1.63	33.33	38.10	28.57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치료 여부는 해당 질환을 진단받은 아동에 한정하여 분석됨.
 3) 진단받은 비율은 응답한 보호자를 전체로 산출됨.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심리·사회적 질환별 상담 및 치료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응답대상의 대부분이 1% 미만으로 심리·사회적 질환을 진단받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0.39%, 의사소통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특정 학습장애, 운동장애가 각각 0.31% 수준으로 나타났다. 불안장애 및 기타 장애를 제외하고는 심리·사회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패널아동의 50% 이상이 상담 및 치료를 간헐적으로 받거나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4〉 아동의 심리·사회적 질환별 의사 진단 여부

단위: %, (명)

구분	계(수)	진단받은 비율 (중복응답)	상담 및 치료 여부		
			정기적으로 받음	간헐적으로 받음	받지 않음
의사소통장애	100.00(1,287)	0.31	25.00	-	75.00
자폐스펙트럼장애	100.00(1,287)	0.31	50.00	-	50.00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100.00(1,287)	0.39	40.00	20.00	40.00
특정 학습장애	100.00(1,287)	0.31	25.00	25.00	50.00
운동장애	100.00(1,287)	0.31	50.00	25.00	25.00
파괴적, 충동통제 및品行장애	100.00(1,287)	0.23	33.33	33.33	33.33
배설장애	100.00(1,287)	-	-	-	-
급식 및 섭식장애	100.00(1,287)	-	-	-	-
불안장애	100.00(1,287)	0.23	66.67	33.33	-
기타 장애	100.00(1,287)	0.08	100.00	-	-

-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치료 여부는 해당 질환을 진단받은 아동에 한정하여 분석됨.
 3) 진단받은 비율은 응답한 보호자를 전체로 산출됨.

다. 학습 관련 특성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알아보기 위해 고등학교 성적 산정 방식을 반영하여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성적표를 기준으로 보호자에게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등급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과목별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는데, 국어, 영어의 경우 3등급이 각각 20.40%, 20.55%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는 4등급이 각각 20.47%, 16.76, 19.13%로 다른 등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2-45〉 아동의 학업성취도: 부모응답(1)

단위: %, (명)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국어	5.38	15.10	20.40	19.37	17.87
영어	5.85	12.02	20.55	18.50	17.87
수학	5.30	12.41	17.94	20.47	17.15
한국사	6.40	12.09	15.81	16.76	16.28
통합사회	6.09	13.91	18.66	19.13	18.74
통합과학	6.80	11.62	17.63	18.34	20.08

구분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해당없음	계(수)
국어	9.80	6.88	2.92	2.29		100.00(1,265)
영어	11.54	7.59	3.56	2.53		100.00(1,265)
수학	11.07	7.98	4.51	3.16		100.00(1,265)
한국사	10.67	7.04	2.85	2.45	9.64	100.00(1,265)
통합사회	10.51	5.30	3.16	2.21	2.29	100.00(1,265)
통합과학	10.67	7.91	4.03	2.92		100.00(1,265)

주: 1) 보호자의 응답임(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성적 기준)

- 2) 1등급: 4% 이하,
 2등급: 4% 초과~11% 이하
 3등급: 11% 초과~23% 이하
 4등급: 23% 초과~40% 이하
 5등급: 40% 초과~60% 이하
 6등급: 60% 초과~77% 이하
 7등급: 77% 초과~89% 이하
 8등급: 89% 초과~96% 이하
 9등급: 96% 초과~100%

고등학교 성적 산정 방식에 따라 예체능의 경우 A, B, C등급으로 조사하였는데, 응답한 아동의 과반수가 A 및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6〉 아동의 학업성취도: 부모응답(2)

단위: %, (명)

구분	A	B	C	해당없음	계(수)
음악	58.34	23.16	2.92	15.57	100.00(1,265)
미술	52.41	24.27	2.53	20.79	100.00(1,265)
체육	67.83	22.92	2.69	6.56	100.00(1,265)

주: 보호자의 응답임(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성적 기준)

성적표를 기준으로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조사한 결과와 달리, 아래의 결과는 아동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아동의 학업성취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이다.¹⁰⁾ 아동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학업성취도는 보통이 49.24%로 가장 높았고, 못하는 수준 21.99%, 잘하는 수준 18.41% 순이었으며, 평균 2.98점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를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학생의 학업성취도 점수가 남학생보다

10) 보호자에게 응답받은 학업성취도 문항의 경우 학교별 평가기준 및 학생별 이수과목 상이 등의 문제로 패널아동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한계가 존재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패널아동과 보호자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학업성취도 문항을 추가로 조사함.

유의하게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370만원 초과~570만원인 가구의 패널아동보다 770만원 초과 가구의 패널아동의 학업성취도 평균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2-47〉 아동의 주관적 학업성취도(반 기준): 아동 인식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보통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78	21.99	49.24	18.41	5.58	100.00(1,255)	2.98	0.90
아동 성별								
남	5.74	23.88	46.98	18.45	4.96	100.00(645)	2.93	0.92
여	3.77	20.00	51.64	18.36	6.23	100.00(610)	3.03	0.89
$\chi^2(df)/t$			6.97(4)					-2.01*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5.56	23.81	48.41	16.67	5.56	100.00(126)	2.93 ^{ab}	0.92
370 초과~570만원	5.85	24.79	50.70	15.88	2.79	100.00(359)	2.85 ^a	0.86
570 초과~770만원	4.13	22.22	47.30	19.37	6.98	100.00(315)	3.03 ^{ab}	0.93
770만원 초과	3.88	18.01	49.03	21.61	7.48	100.00(361)	3.11 ^b	0.92
$\chi^2(df)/F$			18.24(12)					5.34**
지역규모								
대도시	3.53	23.24	47.51	18.46	7.26	100.00(482)	3.03	0.92
중소도시	5.37	21.04	50.51	18.58	4.50	100.00(689)	2.96	0.89
읍면	7.46	25.37	49.25	11.94	5.97	100.00(67)	2.84	0.95
$\chi^2(df)/F$			9.93(8)					1.70

주: 1) 아동의 응답임. 아동의 소속 학급(반) 기준의 학업성취도임.

2) 5점 척도임(1.매우 잘 하는 수준~5.매우 못하는 수준). 모든 문항은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

* $p < .05$, ** $p < .01$.

아동과 동일하게 보호자에게도 보호자가 생각하는 아동의 주관적인 학업성취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 46.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잘하는 수준 22.37%, 못하는 수준 21.98% 나타났으며, 평균 3.02점으로 나타났다. 보호자가 인식하는 아동의 주관적 학업성취도 평균을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아동과 동일하게 성별과 가구소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패널아동의 성별이 여학생일수록, 가구소득이 370만원 초과 ~570만원인 가구의 패널아동보다 770만원 초과 가구의 패널아동일수록 보호자 인식하는 패널아동의 학업성취도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2-48〉 아동의 주관적 학업성취도(반 기준): 보호자 인식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보통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4.19	21.98	46.25	22.37	5.22	100.00(1,265)	3.02	0.91
아동 성별								
남	5.70	23.88	45.76	19.88	4.78	100.00(649)	2.94	0.92
여	2.60	19.97	46.75	25.00	5.68	100.00(616)	3.11	0.88
$\chi^2(df)/t$		13.74(4)**						-3.36***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6.92	23.08	43.08	21.54	5.38	100.00(130)	2.95 ^{ab}	0.97
370 초과~570만원	4.96	23.14	51.52	18.18	2.20	100.00(363)	2.90 ^a	0.83
570 초과~770만원	3.13	23.75	43.44	24.38	5.31	100.00(320)	3.05 ^{ab}	0.90
770만원 초과	3.48	18.18	43.85	26.74	7.75	100.00(374)	3.17 ^b	0.93
$\chi^2(df)/F$		28.25(12)**						6.14***
지역규모								
대도시	3.83	20.56	46.57	22.98	6.05	100.00(496)	3.07	0.91
중소도시	4.28	23.54	44.37	23.25	4.56	100.00(701)	3.00	0.91
읍면	5.88	16.18	63.24	8.82	5.88	100.00(68)	2.93	0.85
$\chi^2(df)/F$		14.88(8)						1.19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아동의 소속 학급(반) 기준의 학업성취도임.

2) 5점 척도임(1.매우 잘 하는 수준~5.매우 못하는 수준). 모든 문항은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역코딩

** $p < .01$, *** $p < .001$.

아동 학업에 대한 전반적인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패널아동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 정도를 5점 척도(1.그런 적 없다~5.항상 그렇다)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대상의 전체 학업 스트레스 정도는 평균 2.93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숙제/시험 스트레스 평균 3.04점, 대입/취업 스트레스 평균 3.03점, 공부 스트레스 평균 2.89점, 학교성적 스트레스 2.77점 순으로 나타났다.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 있어 아동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의 경우 하위 영역별 및 전체 학업 스트레스 평균 점수가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있어서는 전체 평균 및 대입 취업 스트레스 평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소득이 370만원 이하인 가구의 아동보다 770만원 초과인 가구의 아동이 전체 학업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가구소득이 370만원 초과 570만원 가구인 아동보다 770만원 초과인 가구 아동의 대입/취업 스트레스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입/취업 스트레스 영역에서만 유의

한 차이를 보였는데, 읍면에 거주하는 아동보다 중소도시 및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대입/취업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2-49〉 학업 스트레스

단위: (명), 점

구분	(수)	전체		학교성적 스트레스		숙제/시험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대입/취업 스트레스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277)	2.93	0.95	2.77	1.07	3.04	1.15	2.89	1.12	3.03	1.16
아동 성별											
남	(654)	2.76	0.96	2.57	1.07	2.86	1.17	2.74	1.14	2.85	1.19
여	(623)	3.11	0.90	2.97	1.04	3.24	1.09	3.04	1.08	3.21	1.11
<i>t</i>		-6.88***		-6.63***		-6.10***		-4.78***		-5.57***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8)	2.77 ^a	0.91	2.63	1.04	2.88	1.15	2.67	1.12	2.91 ^{ab}	1.18
370 초과~570만원	(359)	2.87 ^{ab}	0.97	2.73	1.06	3.00	1.17	2.86	1.14	2.88 ^a	1.22
570 초과~770만원	(322)	2.96 ^{ab}	0.94	2.75	1.12	3.08	1.14	2.91	1.09	3.10 ^{ab}	1.08
770만원 초과	(371)	3.03 ^b	0.96	2.84	1.08	3.13	1.15	2.96	1.16	3.18 ^b	1.15
<i>F</i>		3.11*		1.36		1.95		2.23		4.78**	
지역규모											
대도시	(492)	2.95	0.94	2.77	1.07	3.03	1.15	2.90	1.13	3.09 ^b	1.16
중소도시	(699)	2.94	0.92	2.77	1.06	3.08	1.12	2.90	1.10	3.02 ^b	1.15
읍면	(68)	2.69	1.16	2.66	1.28	2.76	1.36	2.71	1.27	2.63 ^a	1.26
<i>F</i>		2.31		0.34		2.43		0.94		4.78**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그런 적 없다~5.항상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에게 '나는 과목별 특징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한다' 등 총 5문항(4점 척도)으로 구성된 자기조절학습 정도를 측정한 결과는 평균 2.67점으로 나타났다.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자기조절학습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2-50〉 자기조절학습

단위: (명), 점

구분	(수)	자기조절학습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77)	2.67	0.55
아동 성별			
남	(654)	2.59	0.57
여	(623)	2.75	0.52
<i>t</i>		-5.21***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8)	2.68 ^a	0.57
370 초과~570만원	(359)	2.61 ^a	0.54
570 초과~770만원	(322)	2.67 ^a	0.53
770만원 초과	(371)	2.73 ^a	0.57
<i>F</i>		2.65*	
지역규모			
대도시	(492)	2.71	0.55
중소도시	(699)	2.65	0.53
읍면	(68)	2.59	0.73
<i>F</i>		2.32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라. 사회 및 정서 특성

1) 자아 발달

‘나에게 좋은 면이 많다’, ‘나는 스스로를 좋아한다’ 등의 총 5문항을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척도를 활용하여 패널아동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조사결과, 패널아동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평균 3.13점으로 대체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 특성별로는 패널아동의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 자아존중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그 외 가구소득 및 지역규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2-51〉 아동의 자아존중감

단위: (명), 점

구분	(수)	자아존중감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77)	3.13	0.55
아동 성별			
남	(654)	3.20	0.56
여	(623)	3.05	0.53
<i>t</i>			4.78***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8)	3.07	0.57
370 초과~570만원	(359)	3.12	0.54
570 초과~770만원	(322)	3.15	0.54
770만원 초과	(371)	3.13	0.59
<i>F</i>			0.64
지역규모			
대도시	(492)	3.11	0.55
중소도시	(699)	3.14	0.54
읍면	(68)	3.14	0.66
<i>F</i>			0.32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 $p < .001$.

아동의 끈기를 알아보기 위해 ‘나는 노력이이다’, ‘나는 부지런하다’ 등 8문항을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응답대상 전체 평균은 2.96점으로 나타났으며, 제 특성별로는 패널아동의 성별 및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패널아동 성별이 남학생일수록 끈기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2-52〉 아동의 GRIT(끈기)

단위: (명), 점

구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77)	2.96	0.53
아동 성별			
남	(654)	3.00	0.53
여	(623)	2.92	0.53
<i>t</i>			2.99**

구분	(수)	평균	표준편차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8)	3.02 ^a	0.46
370 초과~570만원	(359)	3.01 ^a	0.54
570 초과~770만원	(322)	2.90 ^a	0.52
770만원 초과	(371)	2.95 ^a	0.56
<i>F</i>			3.35*
지역규모			
대도시	(492)	2.97	0.58
중소도시	(699)	2.95	0.50
읍면	(68)	3.02	0.52
<i>F</i>			0.56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2) 정서 발달

패널아동이 생각하는 본인의 전반적 행복감을 4점 척도(1.전혀 행복하지 않다~4.매우 행복하다)로 조사한 결과, 응답대상 전체 평균 2.79점으로 나타났으며, 제 특성별로는 패널아동의 성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패널아동의 성별이 여학생인 경우보다 남학생인 경우일수록 전반적인 행복감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표 III-2-53〉 아동의 전반적 행복감

단위: (명), 점

구분	(수)	전반적 행복감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77)	2.79	0.45
아동 성별			
남	(654)	2.83	0.46
여	(623)	2.75	0.43
<i>t</i>			3.37***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8)	2.76	0.48
370 초과~570만원	(359)	2.81	0.46
570 초과~770만원	(322)	2.78	0.43
770만원 초과	(371)	2.78	0.46
<i>F</i>			0.62

구분	(수)	전반적 행복감	
		평균	표준편차
지역규모			
대도시	(492)	2.76	0.47
중소도시	(699)	2.81	0.43
읍면	(68)	2.81	0.47
<i>F</i>			2.09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전반적 행복감: 4점 척도임(1.전혀 행복하지 않다~4.매우 행복하다).
 *** $p < .001$.

전반적인 행복감 문항과 함께 패널아동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행복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등 11문항으로 구성된 문항을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전체 평균 1.52점으로 우울 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 특성별로는 패널아동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 외 가구소득 및 지역규모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2-54〉 아동의 우울

단위: (명), 점

구분	(수)	우울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77)	1.52	0.42
아동 성별			
남	(654)	1.49	0.39
여	(623)	1.55	0.44
<i>t</i>			-2.62**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8)	1.53	0.46
370 초과~570만원	(359)	1.49	0.41
570 초과~770만원	(322)	1.54	0.41
770만원 초과	(371)	1.55	0.43
<i>F</i>			1.49
지역규모			
대도시	(492)	1.55	0.45
중소도시	(699)	1.50	0.39
읍면	(68)	1.49	0.46
<i>F</i>			2.84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극히 드물다(일주일 동안 1일 이하), 2.가끔 있었다(1~2일), 3.자주 있었다(3~4일), 4.거의 대부분(5~7일)).
 ** $p < .01$.

3) 사회성 발달

가) 학교적응

학교적응 척도는 14차년도 조사부터(패널아동 중1 시기) 청소년용으로 변경하여 측정하였으며, 학교공부 8개 문항,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 각 10개 문항으로 총 4개 영역 3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영역은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영역별 학교적응 점수를 살펴보면, 학교공부 평균 3.43점, 학교친구 평균 3.97점, 학교교사 평균 3.63점, 학교생활 평균 3.96점으로 나타났다.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좀 더 높은 학교적응을 보였으나, 학교교사 부분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아동이 중학교 3학년이었던 16차조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학교적응을 보이고 있었으나(조미라 외, 2024: 120), 고등학교 진학 이후 학교적응에 있어 성별 특성이 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학교친구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가구소득이 370만원~570만원인 경우가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학생생활 적응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III-2-55〉 아동의 학교적응(중·고등학교)

단위: (명), 점

구분	(수)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55)	3.43	0.67	3.97	0.66	3.63	0.76	3.96	0.60
아동 성별									
남	(645)	3.44	0.68	4.00	0.65	3.69	0.76	3.96	0.61
여	(610)	3.43	0.66	3.94	0.66	3.55	0.75	3.95	0.59
<i>t</i>		0.39		1.53		3.34***		0.01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6)	3.40	0.70	3.82 ^a	0.77	3.68	0.75	3.96	0.66
370 초과~570만원	(359)	3.42	0.68	4.02 ^b	0.64	3.68	0.73	4.00	0.58
570 초과~770만원	(315)	3.42	0.67	3.97 ^{ab}	0.64	3.62	0.77	3.95	0.59
770만원 초과	(361)	3.47	0.69	3.98 ^{ab}	0.65	3.56	0.79	3.93	0.62
<i>F</i>		0.58		2.89*		1.75		1.02	

구분	(수)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지역규모									
대도시	(482)	3.45	0.68	3.95	0.70	3.62	0.77	3.99 ^a	0.62
중소도시	(689)	3.41	0.66	3.99	0.63	3.61	0.75	3.92 ^a	0.59
읍면	(67)	3.51	0.75	4.01	0.60	3.82	0.74	4.15 ^b	0.57
<i>F</i>		0.87		0.47		2.39		5.88 ^{**}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학교공부 하위요인인 학업유능감은 평균 3.48점, 학업가치는 3.36점이었고, 학교친구 하위요인인 친구관계는 평균 3.97점, 상호협조성은 3.97점으로 나타났다.

제 특성별로 남학생이 친구관계에서 여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고, 가구소득이 370만원~570만원인 아동이 친구관계 점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한편, 가구소득이 370만원 이하인 아동의 경우 친구관계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약간 낮은 적응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표 III-2-56〉 아동의 학교적응(중·고등학교): 학교공부 및 학교친구

단위: (명), 점

구분	(수)	학교공부				학교친구			
		학업유능감		학업가치		친구관계		상호협조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55)	3.48	0.70	3.36	0.89	3.97	0.73	3.97	0.67
아동 성별									
남	(645)	3.49	0.72	3.35	0.92	4.04	0.70	3.97	0.68
여	(610)	3.47	0.68	3.36	0.86	3.90	0.75	3.98	0.66
<i>t</i>		0.66		-0.08		3.21 ^{**}		-0.47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6)	3.40	0.72	3.40	0.87	3.81 ^a	0.83	3.83	0.78
370 초과~570만원	(359)	3.46	0.70	3.37	0.92	4.04 ^b	0.70	4.00	0.67
570 초과~770만원	(315)	3.47	0.70	3.33	0.90	3.95 ^{ab}	0.70	3.99	0.65
770만원 초과	(361)	3.54	0.71	3.35	0.91	3.97 ^{ab}	0.74	3.99	0.66
<i>F</i>		1.75		0.22		3.14 [*]		2.27	
지역규모									
대도시	(482)	3.50	0.70	3.36	0.90	3.95	0.78	3.95	0.71
중소도시	(689)	3.46	0.70	3.34	0.88	3.99	0.70	3.98	0.65
읍면	(67)	3.50	0.76	3.53	0.91	3.96	0.68	4.05	0.59
<i>F</i>		0.60		1.42		0.41		0.70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학교교사 영역의 하위요인인 교사호감은 평균 3.87점, 교사친밀감은 평균 3.38 점이었으며, 학교생활 영역의 하위요인인 질서/규칙준수는 평균 4.0점으로 전년도(16차년도) 조사보다 상승한 반면, 학교생활만족은 평균 3.91점으로 전년도(16차년도) 조사에 비해 약간 낮아졌다¹¹⁾.

제 특성별로 성별에 있어서 학교교사 영역의 2개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지역규모별로는 학교생활 부분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는데, 질서/규칙준수와 학교생활만족 부분 모두에서 읍면지역 아동의 적응도가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아동의 적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57〉 아동의 학교적응(중·고등학교): 학교교사 및 학교생활

단위: (명), 점

구분	(수)	학교교사				학교생활			
		교사호감		교사친밀감		질서/규칙준수		학교생활만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55)	3.87	0.75	3.38	0.90	4.00	0.64	3.91	0.67
아동 성별									
남	(645)	3.92	0.75	3.47	0.90	3.98	0.67	3.93	0.67
여	(610)	3.81	0.75	3.29	0.89	4.02	0.61	3.89	0.66
<i>t</i>		2.43*		3.59***		-1.13		1.10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6)	3.93	0.73	3.43	0.89	4.01	0.66	3.90	0.75
370 초과~570만원	(359)	3.90	0.72	3.45	0.89	4.05	0.64	3.96	0.63
570 초과~770만원	(315)	3.88	0.76	3.37	0.91	3.98	0.62	3.93	0.66
770만원 초과	(361)	3.81	0.79	3.30	0.92	3.98	0.66	3.87	0.69
<i>F</i>		1.28		1.76		0.81		1.20	
지역규모									
대도시	(482)	3.86	0.78	3.38	0.89	4.03 ^a	0.66	3.94 ^{ab}	0.67
중소도시	(689)	3.86	0.74	3.37	0.91	3.95 ^a	0.63	3.88 ^a	0.67
읍면	(67)	4.01	0.76	3.63	0.92	4.24 ^b	0.56	4.07 ^b	0.67
<i>F</i>		1.34		2.69		7.26***		3.21*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 $p < .001$.

11) 16차년도 학교생활 영역의 하위요인인 질서/규칙준수 및 학교생활만족 평균 점수는 각각 평균 3.94점, 3.95점임(조미라 외, 2024: 121).

나) 친구관계

아동에게 이성친구 유무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대상 패널 아동 중 11.28%가 이성친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이성친구가 있다는 비율이 높았고, 가구소득이 570만원~770만원인 집단,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집단 경우가 좀 더 높은 비중을 보이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2-58〉 아동의 이성친구 유무

단위: %, (명)

구분	계(수)	이성친구(%)	
		있음	없음
전체	100.00(1,277)	11.28	88.72
아동 성별			
남	100.00(654)	12.39	87.61
여	100.00(623)	10.11	89.89
$\chi^2(df)$		1.65(1)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00.00(128)	10.94	89.06
370 초과-570만원	100.00(359)	11.42	88.58
570 초과-770만원	100.00(322)	14.29	85.71
770만원 초과	100.00(371)	9.43	90.57
$\chi^2(df)$		4.04(3)	
지역규모			
대도시	100.00(492)	10.57	89.43
중소도시	100.00(699)	11.59	88.41
읍면	100.00(68)	14.71	85.29
$\chi^2(df)$		1.10(2)	

주: 아동의 응답임.

패널아동의 친구들과의 또래애착은 3개의 영역(의사소통, 신뢰, 소외), 총 9개로 구성된 문항(각 영역별 3문항)을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조사하였다. 각 하위영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하위영역 정도가 강한 것을 의미한다.

세부 항목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의사소통은 평균 3.15점, 신뢰 평균 3.13점, 소외 1.87점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조미라 외, 2024: 123). 또래애착의 의사소통 영역에 있어 남학생 평균 3.10점, 여학생 평균 3.21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370만원 이하인 아동의 경우 소외 부분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여 저소득가구 청소년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표 III-2-59〉 아동의 또래애착

단위: (명), 점

구분	(수)	의사소통		신뢰		소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0(1,277)	3.15	0.50	3.13	0.56	1.87	0.63
아동 성별							
남	100.00(654)	3.10	0.49	3.11	0.56	1.85	0.63
여	100.00(623)	3.21	0.50	3.15	0.57	1.88	0.63
<i>t</i>		-4.17***		-1.26		-0.64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00.00(128)	3.11	0.50	3.09	0.54	2.01 ^b	0.59
370 초과~570만원	100.00(359)	3.15	0.54	3.11	0.59	1.90 ^{ab}	0.68
570 초과~770만원	100.00(322)	3.15	0.47	3.15	0.55	1.84 ^a	0.62
770만원 초과	100.00(371)	3.16	0.49	3.15	0.58	1.83 ^a	0.59
<i>F</i>		0.36		0.68		3.12 [*]	
지역규모							
대도시	100.00(492)	3.14	0.48	3.11	0.57	1.84	0.62
중소도시	100.00(699)	3.16	0.51	3.15	0.56	1.88	0.62
읍면	100.00(68)	3.18	0.52	3.16	0.59	1.94	0.73
<i>F</i>		0.37		0.73		0.92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 $p < .05$, *** $p < .001$.

다) 비행행동

(1) 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폭력 피해 경험은 대체로 낮은 수준을 보였지만, ‘힘담, 심한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8.4%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16차년도 조사결과 14.15%(조미라 외, 2024: 124)에 비하면 많이 낮아진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 ‘뺨, 얼굴, 머리 등을 맞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5%, ‘왕따, 따돌림 경험’이 2.0%,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말이나 행동을 당한 경험’이 1.8% 등의 순이었다.

‘힘담, 심한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연 1~2회 경험했다는 응답이 5.48%로 가장 많았고, 월 1회가 1.02%였다. ‘뺨, 얼굴, 머리 등을 맞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연 1~2회였다는 응답이 2.90%로 가장 많았다. 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의 빈도는 낮지만 주 1~2회 이상 상습적으로 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들도 있는 상황임을 유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III-2-60〉 폭력 피해 경험: 전체

단위: %, (명)

구분	없다	연 1~2회	월 1회	월 2~3회	주 1~2회	일주일 여러 번	계(수)
뺨, 얼굴, 머리 등을 맞은 경험	96.48	2.90	0.31	0.16	0.08	0.08	100.00(1,277)
왕따, 따돌림 경험	98.04	1.25	0.31	0.08	0.16	0.16	100.00(1,277)
험담, 심한 욕설 등 폭언을 들은 경험	91.62	5.48	1.02	0.63	0.63	0.63	100.00(1,277)
고의적으로 특특침, 심부름, 숙제를 해오라는 등의 괴롭힘	99.30	0.47	0.08	0.16	-	-	100.00(1,277)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	99.61	0.16	0.16	-	0.08	-	100.00(1,277)
협박이나 위협을 당한 경험	99.22	0.55	0.08	0.08	-	0.08	100.00(1,277)
온라인상에서 신체적인 위협을 당한 경험	99.53	0.31	0.08	0.08	-	-	100.00(1,277)
온라인상에서 헛소문으로 괴롭힘 당한 경험	99.06	0.70	-	0.16	0.08	-	100.00(1,277)
신원미상의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힘 당한 경험	99.14	0.70	-	-	0.08	0.08	100.00(1,277)
학교친구에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힘 당한 경험	99.45	0.39	0.08	-	0.08	-	100.00(1,277)
학교 밖 사람에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힘 당한 경험	99.61	0.23	0.08	-	0.08	-	100.00(1,277)
촬영된 사진, 영상을 통해 위협받거나 괴롭힘 당한 경험	99.30	0.55	0.08	-	0.08	-	100.00(1,277)
성적수치심을 느끼는 말이나 행동을 당한 경험	98.20	1.41	-	0.08	0.16	0.16	100.00(1,277)

주: 아동의 응답임.

폭력 피해 모든 항목에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7.6%, 폭력 피해를 1개 항목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아동 비율은 12.45%로, 폭력 피해 경험은 15차년도 이후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미라 외, 2024: 125¹²⁾)

성별로는 남학생(15.75%)이 여학생(8.99%)에 비해 폭력피해 경험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 15차년도 폭력피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75.97%였으며, 16차년도에는 81.80%임.

〈표 III-2-61〉 폭력 피해 경험: 한 개 항목 이상에서의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폭력 피해 경험 모든 항목에서 없음	폭력 피해 경험 1개 항목 이상 있음	계(수)
전체	87.55	12.45	100.00(1,277)
아동 성별			
남	84.25	15.75	100.00(654)
여	91.01	8.99	100.00(623)
$\chi^2(df)$		13.38(1)***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84.38	15.63	100.00(128)
370 초과~570만원	89.14	10.86	100.00(359)
570 초과~770만원	86.96	13.04	100.00(322)
770만원 초과	85.98	14.02	100.00(371)
$\chi^2(df)$		2.57(3)	
지역규모			
대도시	89.02	10.98	100.00(492)
중소도시	86.41	13.59	100.00(699)
읍면	86.76	13.24	100.00(68)
$\chi^2(df)$		1.83(2)	

주: 아동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재산출한 결과임.

*** $p < .001$.

폭력 가해 경험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거나 놀리거나 싫어하는 장난을 친 경험’이 있다고는 응답한 비율이 13.39%로 가장 높았으나, 16차년도 조사(23.05%, 조미라 외, 2024: 125)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도적으로 따돌린 경험’이 1.49%였으며, 이외 폭력 가해 경험 응답 비율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폭력 가해 경험 비율을 보면,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거나 놀리거나 싫어하는 장난을 친 경험’이 있는 아동의 경우 연 1~2회가 7.83%, 월 1회가 1.80%, 월 2~3회가 1.64%, 주 1~2회가 1.41%, 일주일에 여러 번은 0.7%로 나타났다.

〈표 III-2-62〉 폭력 가해 경험: 전체

단위: %, (명)

구분	없다	연 1~2회	월 1회	월 2~3회	주 1~2회	일주일 여러 번	계(수)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거나 놀리거나, 싫어하는 장난친 경험	86.61	7.83	1.80	1.64	1.41	0.70	100.00(1,277)
의도적으로 따돌린 경험	98.51	0.86	0.31	0.08	0.23	-	100.00(1,277)
때리거나 차거나 조르거나 가둔 경험	99.30	0.47	0.16	0.08	-	-	100.00(1,277)
나쁜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쪽지 등을 돌린 경험	99.61	0.23	-	0.16	-	-	100.00(1,277)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험	99.53	0.16	0.16	0.08	0.08	-	100.00(1,277)
싫어하는 일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경험	99.45	0.47	-	0.08	-	-	100.00(1,277)
온라인상에서 신체적인 위협을 한 경험	99.30	0.55	0.08	0.08	-	-	100.00(1,277)
온라인상에서 친구에 대해 헛소문을 낸 경험	99.61	0.23	-	0.08	0.08	-	100.00(1,277)
누군지 모르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힌 경험	99.61	0.23	0.08	0.08	-	-	100.00(1,277)
학교친구에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힌 경험	99.77	0.08	-	0.08	-	0.08	100.00(1,277)
학교 밖 사람에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힌 경험	99.77	0.08	0.08	-	0.08	-	100.00(1,277)
사진, 영상 등을 촬영 후 상대를 위협하거나 괴롭힌 경험	99.61	0.16	0.08	0.08	0.08	-	100.00(1,277)
원하지 않는 성적인 괴롭힘을 가한 경험	99.77	0.08	0.08	-	0.08	-	100.00(1,277)

주: 아동의 응답임.

폭력 가해 모든 항목에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5.12%,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88%로, 폭력 가해 경험도 16차년도(경험 없음 75.52%, 조미라 외, 2024: 127)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 폭력 가해 경험 응답 비율은 25.56%, 여학생의 폭력 가해 경험 응답비율은 7.87%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해 경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폭력 가해 경험이 17.3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표 III-2-63〉 폭력 가해 경험: 한 개 항목 이상에서의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폭력 가해 경험 모든 항목에서 없음	폭력 가해 경험 1개 항목 이상 있음	계(수)
전체	85.12	14.88	100.00(1,277)
아동 성별			
남	78.44	21.56	100.00(654)
여	92.13	7.87	100.00(623)
$\chi^2(df)$		47.25(1)***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82.03	17.97	100.00(128)
370 초과~570만원	87.47	12.53	100.00(359)
570 초과~770만원	83.85	16.15	100.00(322)
770만원 초과	85.71	14.29	100.00(371)
$\chi^2(df)$		3.03(3)	
지역규모			
대도시	87.40	12.60	100.00(492)
중소도시	82.69	17.31	100.00(699)
읍면	91.18	8.82	100.00(68)
$\chi^2(df)$		7.18(2)*	

주: 아동의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재산출한 결과임.

* $p < .05$, *** $p < .001$.

(2) 음주 및 흡연경험

술을 마신 적이 없다는 응답은 80.74%로, 16차년도 조사 당시 89.83%(조미라 외: 2024: 127)에 비해 9.09%p가 낮아져, 음주 경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술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처음 술을 마신 시기는 평균 연령은 14.40세였고, 중3과 고1 시기에 접어들면서 음주 경험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II-2-64〉 아동의 음주경험 여부 및 첫 경험 시기

단위: %, (명), 세

구분	(수)	경험 없음	경험 있음(첫 경험 시기)								(수)	평균 연령	표준 편차
			초3 이전	초4	초5	초6	중1	중2	중3	고1			
전체	(1,277)	80.74	0.78	0.08	0.47	0.55	1.64	3.60	7.52	4.62	(246)	14.40	1.76
아동 성별													
남	(654)	76.76	0.92	0.15	0.76	0.92	1.83	3.98	8.26	6.42	(152)	14.39	1.85
여	(623)	84.91	0.64	0.00	0.16	0.16	1.44	3.21	6.74	2.73	(94)	14.43	1.60
	$\chi^2(df)/t$		7.70(7) ^(a)									-0.16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8)	82.81	1.56	-	-	0.78	1.56	3.13	5.47	4.69	(22)	14.14	2.29
370 초과~570만원	(359)	81.06	1.11	-	0.56	0.56	1.67	2.23	6.96	5.85	(68)	14.40	2.04
570 초과~770만원	(322)	78.88	0.31	0.31	0.31	0.93	1.55	4.66	8.39	4.66	(68)	14.47	1.56
770만원 초과	(371)	79.78	0.54	-	0.81	0.27	2.16	3.77	8.63	4.04	(75)	14.44	1.50
	$\chi^2(df)/F$		14.03(21) ^(a)									0.21	
지역규모													
대도시	(492)	84.35	0.41	-	0.61	0.41	1.83	3.05	5.89	3.46	(77)	14.40	1.53
중소도시	(699)	78.54	1.00	0.14	0.43	0.57	1.43	4.29	8.30	5.29	(150)	14.40	1.83
읍면	(68)	75.00	1.47	-	-	1.47	2.94	-	11.76	7.35	(17)	14.41	2.24
	$\chi^2(df)/F$		8.82(14) ^(a)									0.00	

주: 1) 아동의 응답임.

2) 평균과 표준편차는 음주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전체의 15.11% 아동의 학년을 만나이로 환산하여 산출함.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에게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시는지를 질문한 결과, 한 달에 1회 미만 마신다는 응답은 54.88%로 가장 많았고,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는 응답은 34.96%, 한 달에 1회 정도 마신다는 응답은 8.13%, 한 달에 2~4회 마신다는 응답은 1.22%, 주 2~3회 정도 마신다는 응답은 0.81% 순이었다.



〈표 III-2-65〉 아동의 음주 빈도

단위: %, (명)

구분	계(수)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음	한 달에 1회 미만	한 달에 1회 정도	한 달에 주 2~3회 정도	주 4회 이상	
전체	100.00(246)	34.96	54.88	8.13	1.22	0.81	-
아동 성별							
남	100.00(152)	30.26	57.24	9.87	1.97	0.66	-
여	100.00(94)	42.55	51.06	5.32	-	1.06	-
	$\chi^2(df)$			6.36(4) ^(a)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00.00(22)	31.82	50.00	13.64	-	4.55	-
370 초과~570만원	100.00(68)	32.35	61.76	5.88	-	-	-
570 초과~770만원	100.00(68)	35.29	50.00	10.29	2.94	1.47	-
770만원 초과	100.00(75)	37.33	56.00	6.67	-	-	-
	$\chi^2(df)$			12.98(12) ^(a)			
지역규모							
대도시	100.00(77)	31.17	54.55	11.69	1.30	1.30	-
중소도시	100.00(150)	36.67	54.67	6.67	1.33	0.67	-
읍면	100.00(17)	35.29	58.82	5.88	-	-	-
	$\chi^2(df)$			2.80(8) ^(a)			

주: 1) 아동의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최근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장소는 질문한 결과, 집 또는 친구 집이 86.88%로 가장 많았고, 놀이터, 공터, 야산, 공원, 길거리가 13.13%, 식당이 10.63% 순이었다.

〈표 III-2-66〉 아동의 음주 장소(중복응답)

단위: (명), %

구분	(수)	집, 친구 집	학교, 기숙사	놀이터, 공터, 야산, 공원, 길거리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식당	술집, 나이트, 포장마차
전체	(160)	86.88	1.25	13.13	-	10.63	0.63
아동 성별							
남	(106)	84.91	1.89	15.09	-	12.26	-
여	(54)	90.74	-	9.26	-	7.41	1.85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5)	73.33	6.67	13.33	-	20.00	-
370 초과~570만원	(46)	91.30	2.17	10.87	-	8.70	-
570 초과~770만원	(44)	84.09	-	13.64	-	11.36	-
770만원 초과	(47)	87.23	-	14.89	-	10.64	2.13
지역규모							
대도시	(53)	83.02	1.89	11.32	-	15.09	-
중소도시	(95)	87.37	1.05	14.74	-	9.47	1.05
읍면	(11)	100.00	-	9.09	-	-	-

주: 아동의 응답임.

최근 한 달 동안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술을 사려고 했을 때 경험을 질문한 결과, '최근 한 달 동안 술을 사려고 한 적이 없음'이 88.75%로 거의 대부분이 술을 사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사려고 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술 구입이 불가능'했다는 응답은 4.38%, 술 구입이 가능했다는 응답은 6.88%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술 구입의 어려움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력없이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3.13%, '조금만 노력하면 구입이 가능하다' 2.50%로, 아동의 외모가 성인과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연령이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표 III-2-67〉 아동의 주류 구입 경험

단위: (명), %

구분	계(수)	최근 한 달 동안 술을 사려고 한 적이 없음	술 구입 불가능	많이 노력하면 구입 가능	조금만 노력하면 구입 가능	노력 없이 쉽게 구입
전체	100.00(160)	88.75	4.38	1.25	2.50	3.13
아동 성별						
남	100.00(106)	88.68	4.72	0.94	2.83	2.83
여	100.00(54)	88.89	3.70	1.85	1.85	3.70
$\chi^2(df)$				0.54(4) ^(a)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00.00(15)	80.00	13.33	-	6.67	-
370 초과~570만원	100.00(46)	86.96	6.52	2.17	2.17	2.17
570 초과~770만원	100.00(44)	93.18	2.27	-	-	4.55
770만원 초과	100.00(47)	87.23	2.13	2.13	4.26	4.26
$\chi^2(df)$				9.12(12) ^(a)		
지역규모						
대도시	100.00(53)	84.91	7.55	1.89	3.77	1.89
중소도시	100.00(95)	89.47	3.16	1.05	2.11	4.21
읍면	100.00(11)	100.00	-	-	-	-
$\chi^2(df)$				4.23(8) ^(a)		

주: 1) 아동의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흡연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5명으로, 전체 응답 아동의 3.52%였다. 담배를 처음 피운 시기는 평균 연령은 14.38세였다. 담배를 처음 피운 시기는 중1 때 처음 피우기 시작했다는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 패널아동의 0.78%, 중2 때 1.02%, 중3 때 피우기 시작한 경우는 1.33%였다.

〈표 III-2-68〉 아동의 흡연경험 여부 및 첫 경험 시기

단위: %, (명), 세

구분	계(수)	경험 없음	경험 있음(첫 경험 시기)						평균 연령	표준 편차
			초6 이전	중1	중2	중3	고1	(수)		
전체	(1,277)	96.48	-	0.78	1.02	1.33	0.39	(45)	14.38	0.96
아동 성별										
남	(654)	95.26	-	0.92	1.53	1.53	0.76	(31)	14.45	0.99
여	(623)	97.75	-	0.64	0.48	1.12	-	(14)	14.21	0.89
				$\chi^2(df)/t$						0.76
				3.82(3) ^(a)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8)	97.66	-	0.78	-	1.56	-	(3)	14.33	1.15
370 초과~570만원	(359)	96.94	-	0.84	0.84	1.11	0.28	(11)	14.27	1.01
570 초과~770만원	(322)	95.96	-	0.62	0.62	2.17	0.62	(13)	14.69	0.95
770만원 초과	(371)	95.96	-	0.81	1.62	1.08	0.54	(15)	14.33	0.98
				$\chi^2(df)/F$						0.46
				5.50(9) ^(a)						
지역규모										
대도시	(492)	-	0.81	1.02	1.63	0.20	5.56	(18)	14.33	0.91
중소도시	(699)	-	0.86	1.14	1.14	0.57	15.38	(26)	14.38	1.02
읍면	(68)	-	-	-	1.47	-	-	(1)	15.00	-
				$\chi^2(df)/F$						0.22
				3.17(6) ^(a)						

주: 1) 아동의 응답임.

2) 평균과 표준편차는 흡연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전체의 2.90% 아동의 학년을 만나이로 환산하여 산출함.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흡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월평균 흡연일수는 9.02일로, 16차년도 조사 월평균 7.32일(조미라 외 2024: 131)에 비해 길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이나 가구소득, 지역규모 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2-69〉 아동의 흡연일수

단위: (명), 일

구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45)	9.02	12.71
아동 성별			
남	(31)	8.45	13.07
여	(14)	10.29	12.24
			t
			-0.44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3)	10.00	17.32
370 초과~570만원	(11)	3.09	4.93
570 초과~770만원	(13)	9.77	13.71
770만원 초과	(15)	12.33	14.25
			F
			1.20

구분	(수)	평균	표준편차
지역규모			
대도시	(18)	9.11	12.45
중소도시	(26)	9.00	13.37
읍면	(1)	8.00	-
<i>F</i>			0.00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최근 한 달 동안 담배를 한 대라도 피운 날에 대한 보고이며, 최근 한 달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았으면 0, 매일 담배를 피웠다면 30을 입력하도록 함.

최근 한 달 동안 담배 흡수 경로를 조사한 결과, ‘편의점, 가게 등에서 직접 사서 피움’이 38.10%로 가장 높고, ‘집, 친구집에서 있는 담배를 피움’이 33.33%, ‘친구 선후배에게 얻어 피움’ 23.81%였다. 16차년도 조사결과에서는 ‘친구, 선후배에게 얻어 피움’ 경우가 63.64%로 가장 많았고, ‘편의점, 가게 등에서 직접 사서 피움’이 18.18%, ‘집, 친구집에서 있는 담배를 피움’과 ‘주변(길거리 등)에서 주워 피움’이 9.09% 순으로(조미라 외, 2024: 132), 술과 마찬가지로 아동이 담배를 직접 구매할 수 있어진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70〉 아동의 담배 흡수 경로

구분	계(수)	단위: %, (명)				
		집, 친구집에서 있는 담배 피움	편의점, 가게 등에서 직접 사서 피움	친구, 선후배에게 얻어 피움	성인으로부터 얻어 피움	주변(길거리 등)에서 주워 피움
전체	100.00(21)	33.33	38.10	23.81	-	4.76
아동 성별						
남	100.00(14)	28.57	35.71	28.57	-	7.14
여	100.00(7)	42.86	42.86	14.29	-	-
<i>χ²(df)</i>				1.25(3) ^(a)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00.00(1)	-	100.00	-	-	-
370 초과~570만원	100.00(4)	100.00	-	-	-	-
570 초과~770만원	100.00(7)	14.29	28.57	42.86	-	14.29
770만원 초과	100.00(8)	12.50	62.50	25.00	-	-
<i>χ²(df)</i>				15.97(9) ^(a)		
지역규모						
대도시	100.00(8)	62.50	25.00	12.50	-	-
중소도시	100.00(12)	16.67	50.00	33.33	-	-
읍면	100.00(1)	-	-	-	-	100.00
<i>χ²(df)</i>				25.69(6) ^(a)		

주: 1) 아동의 응답임.
 2) 흡연경험이 있는 아동 중 최근 한 달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은(최근 한 달 흡연일수 0일) 아동 제외.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최근 한 달 동안,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사려고 했을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조사한 결과, ‘최근 한 달 동안 담배를 사려고 한 적이 없음’이 42.86%로 술 구매 경험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담배 구입이 불가능했다는 응답은 없었다.

〈표 III-2-71〉 아동의 담배 구입 경험

단위: %, (명)

구분	계(수)	최근 한 달 동안 담배 사려고 한 적 없음	담배 구입 불가능	많이 노력하면 구입 가능	조금만 노력하면 구입 가능	노력 없이 쉽게 구입
전체	100.00(21)	42.86	-	4.76	28.57	23.81
아동 성별						
남	100.00(14)	50.00	-	-	35.71	14.29
여	100.00(7)	28.57	-	14.29	14.29	42.86
$\chi^2(df)$				4.85(3) ^(a)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00.00(1)	-	-	-	100.00	-
370 초과~570만원	100.00(4)	100.00	-	-	-	-
570 초과~770만원	100.00(7)	57.14	-	-	14.29	28.57
770만원 초과	100.00(8)	12.50	-	12.50	37.50	37.50
$\chi^2(df)$				12.60(9) ^(a)		
지역규모						
대도시	100.00(8)	37.50	-	12.50	25.00	25.00
중소도시	100.00(12)	41.67	-	-	33.33	25.00
읍면	100.00(1)	100.00	-	-	-	-
$\chi^2(df)$				3.11(6) ^(a)		

주: 1) 아동의 응답임.

2) 흡연경험이 있는 아동 중 최근 한 달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은(최근 한 달 흡연일수 0일) 아동 제외.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4) 미래 의식

가) 진로

패널아동을 대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진로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학에 진학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76.90%, 취업 예정이 7.75%, 기타 1.1%였다. 성별에 따라 여학생의 경우 대학 진학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81.7%로 남학생 72.32%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가구소득이 370만원 이하인 아동의 경우 취업하겠다는 응답이 16.41%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 취업하겠다는 응답비중이 10.2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72〉 아동의 고등학교 진학 후 계획

단위: %, (명)

구분	계(수)	대학 진학	취업	기타	아직 잘 모르겠음
전체	100.00(1,277)	76.90	7.75	1.10	14.25
아동 성별					
남	100.00(654)	72.32	9.48	1.53	16.67
여	100.00(623)	81.70	5.94	0.64	11.72
$\chi^2(df)$			16.58(3)**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00.00(128)	68.75	16.41	0.78	14.06
370 초과~570만원	100.00(359)	74.65	7.24	1.11	16.99
570 초과~770만원	100.00(322)	78.26	6.52	1.55	13.66
770만원 초과	100.00(371)	81.13	5.39	0.54	12.94
$\chi^2(df)$			22.73(9)**(a)		
지역규모					
대도시	100.00(492)	77.85	8.54	2.24	11.38
중소도시	100.00(699)	77.25	7.01	0.43	15.31
읍면	100.00(68)	67.65	10.29	-	22.06
$\chi^2(df)$			17.88(6)**		

주: 1) 아동의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1$.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아동에게 진학 희망 이유를 질문한 결과, ‘더 나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가 36.5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더 많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18.53%, ‘대학을 가야 원하는 직업을 선택 가능’ 17.31%,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11.81% 순이었다. 대학 진학 이유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는데, 남학생의 경우에는 ‘더 많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20.51%)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을 보이는 데 반해, 여학생은 ‘더 나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39.10%)나 ‘대학을 가야 원하는 직업 선택 가능(19.65%)’이 더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III-2-73〉 아동의 대학교 진학 희망 이유

단위: %, (명)

구분	(수)	더 많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	높은 소득 기대	더 나은 직업 구하기 위해	사회적 대접	부모님 기대	남들이 다 가니까	대학을 가야 원하는 직업 선택가능	기타
전체	(982)	18.53	11.81	36.56	6.42	2.14	5.40	17.31	1.83
아동 성별									
남	(473)	20.51	15.43	33.83	6.55	2.33	4.44	14.80	2.11
여	(509)	16.70	8.45	39.10	6.29	1.96	6.29	19.65	1.57
	$\chi^2(df)$				19.36(7)**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88)	23.86	7.95	36.36	5.68	2.27	3.41	20.45	-
370 초과~570만원	(268)	20.15	13.06	35.82	6.34	0.75	4.10	17.91	1.87
570 초과~770만원	(252)	15.08	8.33	40.87	7.54	2.38	5.95	18.65	1.19
770만원 초과	(301)	16.94	14.95	34.22	6.31	3.32	6.64	14.95	2.66
	$\chi^2(df)$				24.53(21)				
지역규모									
대도시	(383)	18.02	11.23	36.29	6.79	2.35	5.48	18.80	1.04
중소도시	(540)	18.70	12.59	36.85	6.67	2.22	5.37	15.19	2.41
읍면	(46)	21.74	4.35	39.13	2.17	-	4.35	26.09	2.17
	$\chi^2(df)$				11.78(14)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1$.

아동에게 희망하는 대학 전공계열을 조사한 결과, 공학계열이 20.0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예체능계열 17.41%, 사회계열 14.26% 순이었다.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은 공학계열(30.44%)에 진학하기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희망하는 반면, 여학생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희망하는 전공계열은 예체능계열(18.27%)이었다.

〈표 III-2-74〉 아동의 희망하는 대학 전공계열

단위: %, (명)

구분	(수)	인문 계열	사회 계열	자연 계열	공학 계열	의약 계열	교육 계열	예체능 계열	경찰/군 관련 대학	기타	모르 겠음
전체	(982)	8.15	14.26	9.88	20.06	9.88	3.67	17.41	4.07	2.04	10.59
아동 성별											
남	(473)	6.13	11.63	8.46	30.44	7.82	1.69	16.49	5.07	1.69	10.57
여	(509)	10.02	16.70	11.20	10.41	11.79	5.50	18.27	3.14	2.36	10.61
	$\chi^2(df)$	76.71(9)**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88)	7.95	11.36	12.50	13.64	12.50	4.55	19.32	4.55	5.68	7.95
370 초과~570만원	(268)	10.45	13.81	9.70	21.27	8.58	4.85	17.16	3.73	1.49	8.96
570 초과~770만원	(252)	7.14	17.06	9.13	16.67	11.51	3.17	18.65	4.76	2.38	9.52
770만원 초과	(301)	6.64	13.29	8.31	25.58	9.63	2.33	16.61	3.65	1.66	12.29
	$\chi^2(df)$	27.79(27)									
지역규모											
대도시	(383)	8.09	12.27	9.14	22.45	9.92	3.92	17.49	3.39	2.87	10.44
중소도시	(540)	8.52	16.11	9.81	19.26	9.63	3.15	16.48	4.81	1.48	10.74
읍면	(46)	6.52	10.87	8.70	15.22	13.04	4.35	26.09	2.17	2.17	10.87
	$\chi^2(df)$	11.72(18)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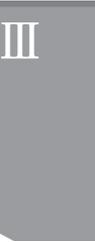
주: 1) 아동의 응답임.

2) 경찰/군 관련 대학: 경찰대학,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01$.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고자 한다고 응답한 아동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돈 벌고 싶어서’가 47.47%로 가장 많았고, ‘원하는 직업을 일찍 시작하려고’가 25.25%, ‘대학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가 9.09%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5〉 아동의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하고자 하는 이유

단위: %, (명)

구분	(계수)	사회생활 일찍 경험하고 싶어	대학 진학할 실력이 안되어	가정 경제적 어려움	공부하기 싫어서	돈 벌고 싶어서	대학이 별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가업을 잇기 위해	원하는 직업을 일찍 시작 하려고	기타
전체	(99)	6.06	6.06	1.01	2.02	47.47	9.09	1.01	25.25	2.02
아동 성별										
남	(62)	6.45	4.84	1.61	3.23	48.39	3.23	1.61	27.42	3.23
여	(37)	5.41	8.11	-	-	45.95	18.92	-	21.62	-
$\chi^2(df)$						10.65(8) ^(a)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21)	19.05	4.76	-	-	52.38	4.76	-	14.29	4.76
370 초과~570만원	(26)	3.85	15.38	3.85	-	38.46	15.38	-	23.08	-
570 초과~770만원	(21)	4.76	4.76	-	-	42.86	-	-	47.62	-
770만원 초과	(20)	-	-	-	-	60.00	15.00	5.00	15.00	5.00
$\chi^2(df)$						30.58(21) ^(a)				
지역규모										
대도시	(42)	9.52	4.76	-	2.38	45.24	4.76	-	30.95	2.38
중소도시	(49)	4.08	6.12	2.04	2.04	51.02	14.29	-	18.37	2.04
읍면	(7)	-	14.29	-	-	28.57	-	14.29	42.86	-
$\chi^2(df)$						22.70(16) ^(a)				

주: 1) 아동의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아동의 진로 성숙도는 4점 만점에 평균 3.03점으로 조사되었다.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지역규모에 있어서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의 거주하는 패널아동의 진로성숙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2-76〉 아동의 진로성숙도: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77)	3.03	0.55
아동 성별			
남	(654)	2.99	0.57
여	(623)	3.06	0.53
t			-2.12*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8)	3.05	0.56
370 초과~570만원	(359)	3.00	0.55
570 초과~770만원	(322)	3.04	0.57
770만원 초과	(371)	3.04	0.54
F			0.40

구분	(수)	평균	표준편차
지역규모			
대도시	(492)	3.00 ^a	0.54
중소도시	(699)	3.03 ^a	0.55
읍면	(68)	3.24 ^b	0.55
<i>F</i>		5.79 ^{**}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4.매우 그렇다).
^a $p < .05$, ^{**} $p < .01$.

세부 항목별로는 ‘① 향후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는 평균 2.66점, ‘②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평균 2.81점, ‘③ 향후 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는 평균 2.93점, ‘④ 내가 가보고 싶은 향후 진로가 자주 바뀐다’는 평균 2.95점, ‘⑤ 향후 진로설정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균 3.38점, ‘⑥ 미래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향후 진로를 미리 설정해뒀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평균 3.18점, ‘⑦ 나의 향후 진로설정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는 평균 3.26점이었다. 즉, ‘① 향후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⑤ 향후 진로설정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②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여학생의 경우 평균 2.87점, 남학생의 경우 평균 2.76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④ 내가 가보고 싶은 향후 진로가 자주 바뀐다’의 응답도 여학생이 평균 3.00점, 남학생이 평균 2.90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⑤ 향후 진로설정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의 응답은 여학생이 평균 3.43점, 남학생이 평균 3.33점으로, 그리고 ‘⑦ 나의 향후 진로설정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의 응답 또한 여학생이 3.32점, 남학생이 평균 3.21점으로 모두 여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지역규모에 따라 ‘① 향후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



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와 '③ 향후 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의 응답은 읍면지역 거주 아동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아동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III-2-77〉 아동의 진로성숙도: 세부 문항별

단위: (명), 점

구분	(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277)	2.66	0.84	2.81	0.79	2.93	0.83	2.95	0.83	3.38	0.71	3.18	0.76	3.26	0.72
아동 성별															
남	(654)	2.67	0.85	2.76	0.81	2.91	0.82	2.90	0.85	3.33	0.73	3.17	0.77	3.21	0.74
여	(623)	2.65	0.84	2.87	0.77	2.95	0.84	3.00	0.82	3.43	0.69	3.19	0.74	3.32	0.70
<i>t</i>		0.28		-2.31*		-0.84		-2.07*		-2.47*		-0.43		-2.80**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8)	2.72	0.88	2.84	0.82	3.01	0.82	2.99	0.78	3.30	0.73	3.26	0.76	3.23	0.76
370 초과~570만원	(359)	2.64	0.83	2.82	0.76	2.87	0.85	2.91	0.85	3.32	0.76	3.20	0.75	3.26	0.73
570 초과~770만원	(322)	2.65	0.89	2.82	0.80	2.94	0.83	2.98	0.84	3.43	0.71	3.19	0.76	3.25	0.74
770만원 초과	(371)	2.68	0.82	2.82	0.81	3.00	0.81	2.97	0.85	3.39	0.67	3.16	0.77	3.27	0.71
<i>F</i>		0.32		0.02		1.67		0.63		1.85		0.60		0.16	
지역규모															
대도시	(492)	2.63 ^a	0.83	2.78	0.79	2.88 ^a	0.82	2.94	0.82	3.37	0.71	3.16	0.75	3.22	0.73
중소도시	(699)	2.67 ^a	0.85	2.83	0.78	2.94 ^a	0.84	2.94	0.85	3.38	0.72	3.18	0.77	3.28	0.72
읍면	(68)	2.93 ^b	0.90	3.01	0.89	3.34 ^b	0.73	3.18	0.83	3.43	0.68	3.38	0.73	3.40	0.69
<i>F</i>		3.63*		2.81		9.16***		2.58		0.21		2.62		2.01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4.매우 그렇다).

3) ① 향후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 ②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③ 향후 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 ④ 내가 가보고 싶은 향후 진로가 자주 바뀐다, ⑤ 향후 진로설정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⑥ 미래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향후 진로를 미리 설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⑦ 나의 향후 진로설정에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 $p < .05$, ** $p < .01$, *** $p < .001$.

아동의 진로진학 활동 경험 중 '부모님과 대화'가 87.6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학교 담임교사와 상담' 77.45%, '진로 관련 검사(적성, 흥미검사) 실시' 73.30% 등의 순이었다. 진로진학 활동 경험의 도움 정도는 5점 척도(1.전혀 도움되지 않는다~5.매우 도움 된다)로 조사하였는데, '부모님과 대화' 평균 3.68점, '학교 담임교

사와의 상담’ 평균 3.70점, ‘진로 관련 검사(적성, 흥미검사) 실시’ 평균 3.30점이 었다. 진로진학 활동 경험 중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도움 정도 점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사교육종사자와의 상담’이 평균 3.89점으로 가장 높았고 진로 관련 검사 (적성, 흥미검사) 실시가 평균 3.30점으로 가장 낮았다.

〈표 III-2-78〉 아동의 진로진학 활동

단위: %, (명), 점

구분	경험 여부	도움 정도					(수)	평균	표준 편차
		전혀 도움 되지 않음	도움 되지 않는편	보통	도움 되는 편	매우 도움			
학교 담임교사와 상담	77.45	1.52	5.97	27.60	51.16	13.75	(989)	3.70	0.84
학교 진로담당교사와 상담	32.73	2.39	5.74	26.56	46.65	18.66	(418)	3.73	0.91
사교육종사자와 상담	37.51	0.63	1.46	24.43	55.74	17.75	(479)	3.89	0.72
부모님과 대화	87.63	0.45	5.63	33.78	45.84	14.30	(1,119)	3.68	0.80
타인(친인척, 이웃 등)으로부터 조언	37.27	1.26	6.09	35.29	48.74	8.61	(476)	3.57	0.78
진로 관련 검사(적성, 흥미검사) 실시	73.30	4.38	13.68	38.03	34.94	8.97	(936)	3.30	0.96
상급학교 방문	16.91	3.70	6.02	32.87	39.81	17.59	(216)	3.62	0.97
상급학교 입시 설명회 참석	15.35	1.02	8.16	31.63	36.73	22.45	(196)	3.71	0.94
대중매체(TV, 신문 등)를 통한 정보 습득	57.95	0.81	3.38	31.22	51.49	13.11	(740)	3.73	0.76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습득	59.51	0.92	4.21	32.50	49.74	12.63	(760)	3.69	0.78
기타	3.84	-	-	16.33	55.10	28.57	(49)	4.12	0.67

주: 1) 아동의 응답임.

2) 도움 정도는 5점 척도임(1.전혀 도움되지 않는다~5.매우 도움 된다).

나) 가족관, 결혼 및 양육 의사

패널아동의 결혼 의사에 대한 질문에서, ‘의사 있다’는 응답이 59.67%, ‘의사 없다’는 8.22%, ‘모르겠다’ 32.11%였으며, 자녀양육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의사 있다’ 47.61%, ‘의사 없다’ 15.66%, ‘모르겠다’ 36.73%였다. 결혼 의사는 아동의 성별 및 가구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자녀양육 의사는 성별 및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패널아동일수록 자녀양육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9〉 아동의 결혼 의사/자녀양육 의사

단위: %, (명)

구분	결혼 의사				자녀양육 의사			
	있음	없음	모름	계(수)	있음	없음	모름	계(수)
전체	59.67	8.22	32.11	100.00(1,277)	47.61	15.66	36.73	100.00(1,277)
아동 성별								
남	59.48	6.73	33.79	100.00(654)	52.45	10.09	37.46	100.00(654)
여	59.87	9.79	30.34	100.00(623)	42.54	21.51	35.96	100.00(623)
$\chi^2(df)$	4.84(2)				33.33(2)***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57.81	11.72	30.47	100.00(128)	50.00	16.41	33.59	100.00(128)
370 초과-570만원	59.05	7.52	33.43	100.00(359)	48.75	14.76	36.49	100.00(359)
570 초과-770만원	63.04	5.28	31.68	100.00(322)	49.69	15.22	35.09	100.00(322)
770만원 초과	57.95	9.16	32.88	100.00(371)	44.20	16.44	39.35	100.00(371)
$\chi^2(df)$	7.23(6)				3.13(6)			
지역규모								
대도시	56.30	8.33	35.37	100.00(492)	43.09	17.28	39.63	100.00(492)
중소도시	61.37	7.87	30.76	100.00(699)	50.07	14.16	35.77	100.00(699)
읍면	67.65	8.82	23.53	100.00(68)	58.82	16.18	25.00	100.00(68)
$\chi^2(df)$	5.69(4)				10.45(4)*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01$.

패널아동 생각하고 있는 결혼가치관 및 자녀가치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로 알아보았다. 조사결과, ‘①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도 괜찮다’ 평균 2.82점, ‘②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 평균 3.03점, ‘③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 평균 2.28점, ‘④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것도 괜찮다’ 평균 3.14점, ‘⑤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참고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낫다’는 평균 2.89점으로 나타났다. 즉, ‘④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것도 괜찮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③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②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 ‘④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것도 괜찮다’, ‘⑤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참고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낫다’의 응답 결과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가구소득이나 지역구

모에 따라서는 아동의 결혼가치관 및 자녀가치관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2-80〉 아동의 결혼가치관 및 자녀가치관

단위: %, (명), 점

구분	(수)	① 비혼 동거		② 비혼 독신		③ 비혼 출산		④ 결혼 비출산		⑤ 이혼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277)	2.82	0.71	3.03	0.75	2.28	0.89	3.14	0.68	2.89	0.83
아동 성별											
남	(654)	2.85	0.69	2.92	0.76	2.28	0.87	3.03	0.69	2.73	0.87
여	(623)	2.78	0.73	3.14	0.72	2.29	0.91	3.25	0.66	3.06	0.75
<i>t</i>		1.67		-5.34***		-0.18		-5.86***		-7.24***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8)	2.77	0.78	3.03	0.79	2.27	0.92	3.18	0.69	2.82	0.88
370 초과~570만원	(359)	2.82	0.77	2.96	0.80	2.27	0.91	3.11	0.68	2.83	0.90
570 초과~770만원	(322)	2.80	0.69	3.04	0.76	2.31	0.88	3.09	0.69	2.86	0.83
770만원 초과	(371)	2.82	0.68	3.08	0.71	2.24	0.87	3.20	0.67	2.94	0.78
<i>F</i>		0.25		1.73		0.37		1.95		1.33	
지역규모											
대도시	(492)	2.79	0.70	3.03	0.78	2.27	0.89	3.16	0.66	2.84	0.83
중소도시	(699)	2.83	0.72	3.01	0.73	2.29	0.89	3.12	0.68	2.93	0.82
읍면	(68)	2.82	0.81	3.09	0.84	2.29	0.90	3.09	0.82	2.84	0.96
<i>F</i>		0.34		0.34		0.05		0.64		1.59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3) ①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도 괜찮다 ②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 ③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 ④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것도 괜찮다 ⑤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참고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낫다

*** $p < .001$.

패널아동이 생각하는 가족기능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① 법적인 혼인,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 할 수 있다’는 4점 척도에 평균 2.41점, ‘② 결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는 평균 2.71점, ‘③ 결혼, 혈연관계가 아니고, 반드시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는 평균 2.57점이었다.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③ 결혼, 혈연관계가 아니고, 반드시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여학생의 경우 평균 2.51점, 남학생의 경우 평균 2.63점으로, 남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② 결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읍면지역에 비해 대도시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① 법적인 혼인,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 할 수 있다’는 응답의 경우 지역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견되긴 했으나,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 III-2-81〉 아동의 가족기능 인식

단위: %, (명), 점

구분	(수)	①		②		③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77)	2.41	0.88	2.71	0.73	2.57	0.81
아동 성별							
남	(654)	2.38	0.89	2.74	0.72	2.63	0.82
여	(623)	2.44	0.87	2.68	0.74	2.51	0.80
<i>t</i>		-1.36		1.41		2.54*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8)	2.46	0.85	2.73	0.70	2.60	0.84
370 초과~570만원	(359)	2.41	0.86	2.65	0.76	2.60	0.80
570 초과~770만원	(322)	2.34	0.90	2.72	0.71	2.60	0.81
770만원 초과	(371)	2.43	0.88	2.73	0.74	2.51	0.83
<i>F</i>		0.87		0.88		0.95	
지역규모							
대도시	(492)	2.30 ^a	0.86	2.78 ^b	0.74	2.64	0.83
중소도시	(699)	2.48 ^a	0.87	2.67 ^{ab}	0.71	2.53	0.78
읍면	(68)	2.50 ^a	1.01	2.50 ^a	0.84	2.47	0.89
<i>F</i>		6.34**		5.97**		2.97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3) ① 법적인 혼인,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 할 수 있다, ② 결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③ 결혼, 혈연관계가 아니고, 반드시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4)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가족 내 성역할 인식은 ‘만약 결혼을 한다면, 다음의 일은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가족의 경제적 부양은 5점 만점에 (1.주로 남편이, 2. 대체로 남편이, 3.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4. 대체로 아내가, 5. 주로 아내가) 평균 2.77점, ‘가족의 의사결정’은 평균 2.99점, ‘집안일 등 가사’는 평균 3.17점, ‘육아’는 평균 3.16점, 자녀교육은 평균 3.10점, 가족 돌봄(자녀 제외)은 평균

3.01점이었다.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가족의 경제적 부양의 응답이 여학생의 경우 평균 2.85 점, 남학생의 경우 평균 2.68점으로, 여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가족의 의사결정도 여학생이 평균 3.00점, 남학생이 평균 2.9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집안일 등 가사와 육아에 대한 응답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가구소득이나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가족 내 성역할 인식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2-82〉 가족 내 성역할 인식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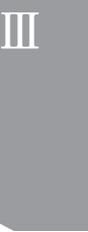
구분	(수)	가족의 경제적 부양		가족의 의사결정		집안일 등 가사		육아		자녀교육		가족 돌봄 (자녀제외)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277)	2.77	0.52	2.99	0.25	3.17	0.44	3.16	0.42	3.10	0.40	3.01	0.32
아동 성별													
남	(654)	2.68	0.60	2.97	0.30	3.22	0.49	3.18	0.46	3.10	0.43	3.01	0.36
여	(623)	2.85	0.41	3.00	0.19	3.12	0.37	3.13	0.37	3.10	0.37	3.02	0.25
<i>t</i>			-6.07***		-2.32*		4.28***		2.03*		-0.08		-0.66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8)	2.77	0.52	2.95	0.25	3.16	0.45	3.16	0.44	3.07	0.44	2.98	0.38
370 초과-570만원	(359)	2.76	0.53	2.98	0.26	3.16	0.43	3.14	0.39	3.11	0.42	3.02	0.33
570 초과-770만원	(322)	2.74	0.56	2.99	0.26	3.16	0.42	3.19	0.43	3.09	0.38	3.01	0.30
770만원 초과	(371)	2.77	0.50	2.99	0.24	3.19	0.44	3.16	0.40	3.14	0.42	3.03	0.30
<i>F</i>			0.18		0.88		0.29		0.60		1.20		0.67
지역규모													
대도시	(492)	2.78	0.50	2.99	0.23	3.16	0.43	3.14	0.44	3.12	0.42	3.02	0.33
중소도시	(699)	2.74	0.53	2.98	0.25	3.18	0.45	3.18	0.40	3.10	0.41	3.01	0.30
읍면	(68)	2.85	0.53	3.00	0.35	3.16	0.37	3.16	0.37	3.01	0.27	3.07	0.31
<i>F</i>			2.21		0.36		0.62		1.16		1.96		1.52

주: 1) 아동의 응답임.

2) 만약 결혼을 한다면, 다음의 일은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임.

3) 5점 척도임(1.주로 남편이, 2. 대체로 남편이, 3.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4. 대체로 아내가, 5. 주로 아내가).

* $p < .05$, *** $p < .001$.



5) 경제활동

패널아동이 생각하는 가구의 주관적인 사회경제적 지위는 10점 척도에 평균 5.95점으로, 6점이 26.0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 5점 24.04%, 6점 26.08% 순이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게 응답하는 경향이 분명하게 관찰되었다. 반면,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아동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83〉 아동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단위: %, (명), 점

구분	점 수										(수)	평균	표준 편차
	1	2	3	4	5	6	7	8	9	10			
전체	0.08	0.47	3.60	9.95	24.04	26.08	23.88	8.85	2.11	0.94	(1,277)	5.95	1.41
아동 성별													
남	-	0.46	3.52	8.72	22.17	25.84	24.92	10.24	3.06	1.07	(654)	6.07	1.44
여	0.16	0.48	3.69	11.24	26.00	26.32	22.79	7.38	1.12	0.80	(623)	5.82	1.37
$\chi^2(df)/t$	14.54(9) ^(a)											3.18 ^{**}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	0.78	11.72	17.97	30.47	21.88	11.72	3.91	1.56	-	(128)	5.20 ^a	1.41
370초과-570만원	0.28	1.11	3.34	13.37	27.30	25.07	18.94	8.08	1.39	1.11	(359)	5.74 ^b	1.45
570초과-770만원	-	0.31	2.48	7.45	22.98	30.43	26.09	7.76	1.86	0.62	(322)	6.03 ^b	1.28
770만원 초과	-	-	1.89	5.39	18.87	23.72	31.81	13.21	3.50	1.62	(371)	6.40 ^c	1.36
$\chi^2(df)/F$	110.93(27) ^{***a)}											29.28 ^{***}	
지역규모													
대도시	-	-	2.64	11.59	23.58	25.41	26.83	7.52	1.83	0.61	(492)	5.95	1.33
중소도시	-	0.57	4.43	8.30	24.61	26.32	22.46	9.87	2.29	1.14	(699)	5.97	1.44
읍면	1.47	2.94	1.47	11.76	26.47	23.53	17.65	10.29	2.94	1.47	(68)	5.79	1.67
$\chi^2(df)/F$	43.11(18) ^{**a)}											0.47	

주: 1) 아동의 응답임.

2) 10점 척도임(1.매우 못 산다~10.매우 잘 산다).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1$, *** $p < .001$.

아동의 용돈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정기적으로 용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63.82%로 가장 많았고, 필요시 받음 30.23%, 받지 않음 5.95% 순이었다. 일주일 동안 지급받는 평균 용돈 액수는 3만 4,680원이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 평균 용돈 금액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필요시 받는다는 응답이 남학생은 32.57%, 여학

생 27.77%로 남학생이 더 높은 반면, 여학생들은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응답이 67.74%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이 높을수록 용돈을 정기적으로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2-84〉 아동에 대한 용돈 지급 여부 및 지급 시 액수

단위: %, (명), 천원

구분	용돈 지급 여부			계(수)	일주일 용돈 지급액		
	받지않음	필요시 받음	정기적으로 받음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95	30.23	63.82	100.00(1,277)	34.68	30.37	(1,201)
아동 성별							
남	7.34	32.57	60.09	100.00(654)	33.94	28.80	(606)
여	4.49	27.77	67.74	100.00(623)	35.44	31.90	(595)
$\chi^2(df)/t$		9.69(2)**				-0.86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7.03	42.97	50.00	100.00(128)	30.99 ^a	28.83	(119)
370 초과-570만원	9.19	30.08	60.72	100.00(359)	31.14 ^a	28.56	(326)
570 초과-770만원	4.66	28.57	66.77	100.00(322)	35.80 ^a	32.27	(307)
770만원 초과	4.31	27.22	68.46	100.00(371)	37.61 ^a	28.67	(355)
$\chi^2(df)/F$		23.08(6)**				3.44*	
지역규모							
대도시	5.49	31.50	63.01	100.00(492)	35.44	31.01	(465)
중소도시	6.29	30.04	63.66	100.00(699)	34.32	30.36	(655)
읍면	4.41	27.94	67.65	100.00(68)	32.20	25.46	(65)
$\chi^2(df)/F$		1.14(4)				0.41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아동의 용돈 사용처는 간식 및 군것질(식사 포함)에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54.95%였으며, 교통비 11.99%, 저축 10.32%, 문화생활(음악, 게임) 9.83%, 의류, 화장품 구입 7.49%, 학습자료(학용품, 준비물 등) 3.58%였다. 남학생의 경우 간식 및 군것질(식사 포함)이 56.77%, 저축 12.38%로, 여학생 53.11%와 8.24%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여학생은 의류, 화장품 구입이 12.10%로 남학생(1.49%)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용돈 사용처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저축 비중이 18.46%로 대도시(11.40%)나 중소도시(8.40%)보다 높은 반면, 교통비에 사용한다는 응답이 3.08%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표 III-2-85〉 아동의 용돈 사용처

단위: %, (명)

구분	학습자료 (학용품, 준비물 등)	저축	간식 및 군것질 (식사포함)	교통비	문화생활 (음악, 게임)	의류, 화장품	기타	계(수)
전체	3.58	10.32	54.95	11.99	9.83	7.49	1.83	100.00(1,201)
아동 성별								
남	4.13	12.38	56.77	11.55	10.73	2.97	1.49	100.00(606)
여	3.03	8.24	53.11	12.44	8.91	12.10	2.18	100.00(595)
$\chi^2(df)$			42.14(6)***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68	10.08	58.82	13.45	8.40	6.72	0.84	100.00(119)
370 초과~570만원	3.68	12.27	56.13	10.43	8.59	7.36	1.53	100.00(326)
570 초과~770만원	3.26	9.45	52.12	14.01	11.73	7.49	1.95	100.00(307)
770만원 초과	3.94	8.73	57.75	10.70	9.01	8.45	1.41	100.00(355)
$\chi^2(df)$			10.66(18)					
지역규모								
대도시	3.44	11.40	53.76	14.62	9.68	5.16	1.94	100.00(465)
중소도시	3.82	8.40	55.88	10.84	9.92	9.31	1.83	100.00(655)
읍면	1.54	18.46	60.00	3.08	9.23	7.69	-	100.00(65)
$\chi^2(df)$			23.74(12)*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01$.

부모님이 언제까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학교 졸업까지라고 응답한 아동의 비중은 48.86%로 가장 많았고, 미성년시기(고등 졸업)까지 25.22%, 취업할 때까지 21.30%, 결혼할 때까지 2.66% 순이었다. 여학생의 경우 대학교 졸업까지라는 응답이 53.29%로, 남학생 44.65%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미성년시기(고등졸업)까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남학생의 경우 27.98%로 여학생(22.31%)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학교 졸업까지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기대한다는 비중이 61.76%로 대도시(46.14%)나 중소도시(49.50%)에 비해 높은 반면, 취업할 때까지 지원을 기대한다는 응답은 13.24%로 대도시(20.53%)나 중소도시(22.89%)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표 III-2-86〉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단위: %, (명)

구분	미성년시기 (고등 졸업)까지	대학교 졸업까지	취업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기타	계(수)
전체	25.22	48.86	21.30	2.66	1.96	100.00(1,277)
아동 성별						
남	27.98	44.65	21.56	3.52	2.29	100.00(654)
여	22.31	53.29	21.03	1.77	1.61	100.00(623)
$\chi^2(df)$			13.43(4)**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30.47	40.63	22.66	4.69	1.56	100.00(128)
370 초과~570만원	26.46	45.96	24.23	1.67	1.67	100.00(359)
570 초과~770만원	24.22	50.62	20.81	3.11	1.24	100.00(322)
770만원 초과	23.45	52.56	18.87	2.70	2.43	100.00(371)
$\chi^2(df)$			13.34(12)			
지역규모						
대도시	29.27	46.14	20.53	2.03	2.03	100.00(492)
중소도시	22.17	49.50	22.89	3.29	2.15	100.00(699)
읍면	23.53	61.76	13.24	1.47	-	100.00(68)
$\chi^2(df)$			15.55(8)*			

주 1) 아동의 응답임.

2) 부모님이 언제까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임.

* $p < .05$, ** $p < .01$.

6) 사회 관련 인식

패널아동의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6문항으로 구성된 문항을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조사한 결과, 평균 3.74점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아동의 성별이나 가구소득 및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2-87〉 아동의 공동체 의식: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수)	공동체 의식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77)	3.74	0.64
아동 성별			
남	(654)	3.74	0.65
여	(623)	3.73	0.63
t			0.29

구분	(수)	공동체 의식	
		평균	표준편차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8)	3.75	0.66
370 초과~570만원	(359)	3.77	0.63
570 초과~770만원	(322)	3.76	0.64
770만원 초과	(371)	3.70	0.64
<i>F</i>		0.90	
지역규모			
대도시	(492)	3.75	0.67
중소도시	(699)	3.72	0.62
읍면	(68)	3.90	0.62
<i>F</i>		2.52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공동체 의식 문항에 대해서 세부 결과를 살펴보면, ‘④ 나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타면 자리를 양보한다’의 응답이 평균 4.1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⑤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준다’는 응답이 3.8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 점수의 각 문항은 아동의 성별이나 가구소득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② 나는 좋은 사회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③ 나는 나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는 문항에 대한 응답의 경우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에 거주하는 아동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2-88〉 아동의 공동체 의식: 세부 문항별

구분	(수)	단위: (명), 점											
		①		②		③		④		⑤		⑥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77)	3.51	0.92	3.81	0.90	3.65	0.83	4.10	0.82	3.84	0.79	3.51	0.88
아동 성별													
남	(654)	3.50	0.93	3.79	0.96	3.69	0.84	4.08	0.82	3.85	0.81	3.54	0.88
여	(623)	3.52	0.91	3.84	0.84	3.61	0.81	4.12	0.81	3.83	0.76	3.48	0.87
<i>t</i>		-0.48		-0.94		1.72		-0.86		0.68		1.31	

구분	(수)	①		②		③		④		⑤		⑥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8)	3.44	0.91	3.86	0.88	3.75	0.84	4.06	0.89	3.88	0.79	3.54	0.89
370 초과~570만원	(359)	3.48	0.94	3.87	0.90	3.70	0.81	4.12	0.79	3.86	0.81	3.55	0.89
570 초과~770만원	(322)	3.53	0.95	3.81	0.95	3.66	0.85	4.16	0.81	3.88	0.77	3.53	0.87
770만원 초과	(371)	3.53	0.92	3.77	0.88	3.59	0.83	4.04	0.83	3.78	0.78	3.47	0.89
<i>F</i>		0.44		0.90		1.57		1.44		1.20		0.56	
지역규모													
대도시	(492)	3.51	0.93	3.78 ^a	0.94	3.68 ^{ab}	0.86	4.13	0.83	3.83	0.82	3.54	0.91
중소도시	(699)	3.51	0.92	3.82 ^a	0.89	3.61 ^a	0.81	4.06	0.82	3.83	0.76	3.48	0.85
읍면	(68)	3.51	0.98	4.10 ^b	0.76	3.85 ^b	0.80	4.24	0.77	4.03	0.79	3.66	0.91
<i>F</i>		0.01		3.77 [*]		3.20 [*]		1.92		2.04		1.55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① 나는 학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② 나는 좋은 사회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③ 나는 나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 ④ 나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나 장애인 이 타면 자리를 양보한다, ⑤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준다, ⑥ 나는 소외된 친구가 있으면 내가 먼저 따뜻하게 대해준다

* $p < .05$.

국민정체성의 경우 ‘①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이 법적으로 한국인이 되더라도 한국사람과 똑같이 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6점 만점에 평균 2.44점 ‘② 외국인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진정한 한국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평균 2.12점, ‘③ 한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았더라도 한국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균 2.17점, ‘④ 우리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국제결혼가정)의 아이가 한국말을 잘 못한다면 나와 같은 한국사람이란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는 평균 2.61점이었다.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①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이 법적으로 한국인이 되더라도 한국사람과 똑같이 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응답이 여학생의 경우 평균 2.32점, 남학생의 경우 평균 2.56점으로, 남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표 III-2-89〉 국민정체성

단위: (명), 점

구분	(수)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52)	2.44	1.25	2.12	1.15	2.17	1.13	2.61	1.32
아동 성별									
남	(643)	2.56	1.28	2.17	1.15	2.22	1.15	2.62	1.31
여	(609)	2.32	1.20	2.06	1.14	2.12	1.11	2.60	1.33
<i>t</i>		3.42***		1.75		1.46		0.18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5)	2.44	1.29	2.18	1.25	2.14	1.07	2.55	1.35
370 초과-570만원	(350)	2.36	1.24	2.15	1.15	2.21	1.14	2.57	1.32
570 초과-770만원	(315)	2.40	1.25	2.04	1.10	2.05	1.08	2.61	1.34
770만원 초과	(370)	2.50	1.25	2.10	1.14	2.19	1.16	2.65	1.33
<i>F</i>		0.84		0.69		1.42		0.26	
지역규모									
대도시	(482)	2.34 ^a	1.26	2.07	1.19	2.13	1.15	2.50 ^a	1.29
중소도시	(687)	2.52 ^a	1.23	2.17	1.13	2.20	1.12	2.70 ^a	1.33
읍면	(66)	2.32 ^a	1.25	1.94	0.99	2.11	1.02	2.41 ^a	1.47
<i>F</i>		3.29 [*]		1.92		0.74		4.16 [*]	

주: 1) 아동의 응답임.

2) 6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6.매우 그렇다).

3) ①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이 법적으로 한국인이 되더라도 한국사람과 똑같이 대하는 것은 어렵다, ② 외국인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진정한 한국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③ 한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았더라도 한국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④ 우리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국제 결혼가정)의 아이가 한국말을 잘 못한다면 나와 같은 한국사람이란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4)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아동의 다문화 거부와 회피정서의 경우, ‘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는 6점 척도에 평균 1.84점, ‘② 이웃이나 동네에서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과 마주치면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 하기 싫다’는 평균 1.71점, ‘③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 이주민과 함께 수영장이나 공중목욕탕에 들어가야 한다면 망설여질 것 같다’는 평균 1.79점, ‘④ 한국에 이민 온 외국 이주민들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평균 1.64점, ‘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사는 지역에 가야 한다면, 두려운 생각이 클 것이다’는 평균 2.23점이었다.

한편, 아동의 성별이나 가구소득,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다문화 거부·회피정서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2-90〉 다문화 거부·회피정서

단위: (명), 점

구분	(수)	①		②		③		④		⑤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252)	1.84	0.99	1.71	0.90	1.79	1.01	1.64	0.85	2.23	1.27
아동 성별											
남	(643)	1.88	0.98	1.75	0.89	1.83	0.99	1.67	0.84	2.18	1.24
여	(609)	1.79	0.99	1.66	0.90	1.76	1.02	1.62	0.85	2.29	1.31
<i>t</i>		1.59		1.83		1.23		1.17		-1.51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5)	1.85	1.08	1.78	0.96	1.85	1.11	1.69	0.90	2.34	1.37
370 초과~570만원	(350)	1.83	0.99	1.74	0.94	1.84	1.03	1.66	0.84	2.20	1.25
570 초과~770만원	(315)	1.80	0.97	1.65	0.87	1.70	0.96	1.61	0.86	2.17	1.31
770만원 초과	(370)	1.86	0.98	1.68	0.86	1.79	0.98	1.64	0.82	2.26	1.26
<i>F</i>		0.22		0.94		1.15		0.35		0.61	
지역규모											
대도시	(482)	1.81	1.00	1.69	0.92	1.79	1.02	1.63	0.87	2.22	1.30
중소도시	(687)	1.86	0.98	1.73	0.89	1.81	1.01	1.66	0.84	2.26	1.26
읍면	(66)	1.70	0.99	1.55	0.79	1.62	0.89	1.50	0.69	1.98	1.18
<i>F</i>		0.98		1.49		1.11		1.18		1.43	

주: 1) 아동의 응답임.

2) 6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6.매우 그렇다).

3) 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 ② 이웃이나 동네에서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과 마주치면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 하기 싫다, ③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 이주민과 함께 수영장이나 공중목욕탕에 들어가야 한다면 망설여질 것 같다, ④ 한국에 이민 온 외국 이주민들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사는 지역에 가야 한다면, 두려운 생각이 클 것이다

세계시민행동의지에 경우 ‘① 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다’는 6점 척도에 평균 4.26점, ‘② 나는 한 나라의 국민만으로서 보다는 세계 속의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는 평균 3.99점, ‘③ 나는 식량부족으로 굶주린 나라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기 위해 하루 한 끼를 굶을 수 있다’는 평균 4.24점, ‘④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를 돕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는 평균 4.02점이었다.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③ 나는 식량부족으로 굶주린 나라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기 위해 하루 한 끼를 굶을 수 있다’는 응답이 여학생의 경우 평균 4.43 점, 남학생의 경우 평균 4.06점으로, 여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④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를 돕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의 응답도 여학생이 평균 4.13점, 남학생이 평균 3.91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91〉 세계시민행동 의지

단위: (명), 점

구분	(수)	①		②		③		④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52)	4.26	1.21	3.99	1.25	4.24	1.23	4.02	1.13
아동 성별									
남	(643)	4.23	1.23	3.96	1.27	4.06	1.29	3.91	1.14
여	(609)	4.30	1.19	4.02	1.23	4.43	1.14	4.13	1.11
<i>t</i>		-0.93		-0.87		-5.41***		-3.43***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5)	4.15	1.16	3.88 ^a	1.22	4.19	1.26	3.97	1.18
370 초과~570만원	(350)	4.17	1.28	3.85 ^a	1.32	4.21	1.25	3.99	1.18
570 초과~770만원	(315)	4.40	1.12	4.09 ^a	1.17	4.36	1.16	4.08	1.08
770만원 초과	(370)	4.28	1.24	4.04 ^a	1.24	4.18	1.27	4.01	1.12
<i>F</i>		2.41		2.77*		1.40		0.49	
지역규모									
대도시	(482)	4.33	1.18	4.01	1.23	4.32	1.23	4.09	1.12
중소도시	(687)	4.24	1.23	3.96	1.26	4.20	1.21	3.98	1.13
읍면	(66)	4.02	1.21	3.95	1.29	4.03	1.40	3.88	1.30
<i>F</i>		2.25		0.25		2.42		1.71	

주: 1) 아동의 응답임.

2) 6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6.매우 그렇다).

3) ① 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다, ② 나는 한 나라의 국민만으로서 보다는 세계 속의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 ③ 나는 식량부족으로 굶주린 나라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기 위해 하루 한 끼를 굶을 수 있다, ④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를 돕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

4)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외국이주민에 대한 지각된 위협 인식에 경우 ‘①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그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평균 2.71점, ‘②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는 평균 2.44점, ‘③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는 평균 2.38점이었다.

아동 성별에 따라서는 ‘①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그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응답이 남학생의 경우 평균 2.77점, 여학생의 경우 평균 2.64점으로, 남학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②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는 응답도 남학생이 평균 2.52점, 여학생이 평균 2.35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외국이주민에 대한 지각된 위협 인식이 평균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가구소

특이나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외국이주민에 대한 지각된 위협 인식에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2-92〉 외국이주민에 대한 지각된 위협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수)	①		②		③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52)	2.71	1.19	2.44	1.09	2.38	1.18
아동 성별							
남	(643)	2.77	1.21	2.52	1.11	2.43	1.21
여	(609)	2.64	1.18	2.35	1.07	2.34	1.13
<i>t</i>		1.97*		2.88**		1.37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25)	2.58	1.23	2.46	1.15	2.46	1.27
370 초과~570만원	(350)	2.64	1.13	2.41	1.06	2.35	1.14
570 초과~770만원	(315)	2.74	1.18	2.39	1.07	2.30	1.16
770만원 초과	(370)	2.77	1.27	2.47	1.14	2.44	1.22
<i>F</i>		1.23		0.34		1.04	
지역규모							
대도시	(482)	2.75	1.22	2.43	1.11	2.35	1.21
중소도시	(687)	2.69	1.17	2.45	1.08	2.41	1.16
읍면	(66)	2.53	1.28	2.30	1.14	2.36	1.05
<i>F</i>		1.08		0.54		0.32	

주: 1) 아동의 응답임.

2) 6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6.매우 그렇다).

3) ①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그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②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 ③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 $p < .05$, ** $p < .01$.

3. 부모 및 가구 특성

3절에서는 패널아동 부모와 가구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부모 특성은 인구학적 특성이나 심리적 특성 등과 같은 개인 및 부부 특성, 신체 및 건강 특성, 직업 특성, 패널아동에 대한 성취압력, 부모애착 등과 같은 양육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가구 특성으로는 가구 구성 형태, 가구원수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 주거환경에 대한 물리적 특성, 가구소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대한 경제적 특성 등을 살펴보았다.

〈표 III-3-1〉 17차년도 부모 및 가구 특성 변인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부모 특성	개인 및 부부 특성	인구학적 특성	• 연령, 최종학력 • ○○(이)와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심리적 특성	• 주관적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 존중감	
		일상생활 특성	• 스마트폰 과의존(자기진단)	
		부부 특성	• 결혼상태 및 유지 기간 • 부부 갈등	
	신체 및 건강 특성	신체 특성	•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활동일수	
		질환/장애	• 장애 유무 및 정도	
		음주 및 흡연	• 음주 여부 및 횟수, 양, 과음 횟수 • 흡연 여부, 하루 흡연량	
	직업 특성	일반적 특성	• 취/학업 상태	
		취업 특성	• 재직 상태, 직장 변동 여부, 종사상 지위 • 취업모/부의 (주중, 주말) 근무 일/시간 • 취업모/부의 전반적 일자리 만족도	
	양육 특성	양육 실제	• 성취압력 • 부모애착 • 양육 스트레스 • 아동학대	
		부모 감독 및 참여	• 부모 감독 • 부모-자녀 의사소통 •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	
	가구 특성	인구학적 특성	가구 구성	• 가구 구성 형태, 가구원수
		물리적 특성	주거환경	• 패널아동 개별 방 여부, 반려동물 여부
		경제적 특성	소득	• 가구소득, 취업모/부의 근로소득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지출			• 가구에 대한 소비성, 비소비성 지출	

주: 17차 신규 및 변경문항 밑줄로 표시

가. 부모 특성

1) 개인 및 부부 특성

가) 인구학적 특성

패널아동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47.09세이고, 아버지 평균 연령은 49.63세였다.

〈표 Ⅲ-3-2〉 부모 연령

단위: 세,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7.09	3.63	(1,271)	49.63	3.99	(1,269)
30대 이하	37.52	1.89	(21)	34.25	6.40	(4)
40대	45.73	2.20	(941)	46.59	2.02	(621)
50대 이상	51.86	2.14	(309)	52.65	2.76	(644)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아동과의 동거 여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경우는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있었다(어머니와 동거 비율 92.72%, 아버지와 동거 비율 88.34%). 어머니의 경우는 패널아동과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7.28%였고, 비동거 이유로는 어머니의 장기 입원 혹은 요양 중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9.35%로 가장 많았고, 타지역에 근무(학업)하는 경우도 8.70%로 나타났다. 한편 패널아동이 아버지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는 11.66%였는데, 패널아동이 국내외 유학 중이어서 아버지와 떨어져 산다고 응답한 경우가 50.35%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아버지가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여 따로 산다고 응답한 경우가 39.72%로 조사되었다.

〈표 Ⅲ-3-3〉 아동과의 동거 여부 및 비동거 이유

단위: %, (명)

구분	동거 여부			비동거 이유					
	동거	비동거	계(수)	타지역 근무 (학업)	아동의 국내외 유학중	장기 입원, 요양중	군 복무 중	기타	계(수)
어머니	92.72	7.28	100.00(1,264)	8.70	-	79.35	-	11.96	100.00(92)
아버지	88.34	11.66	100.00(1,209)	39.72	50.35	0.71	-	9.22	100.00(141)

주: 보호자의 응답임.

나) 부부 특성

17차년도 조사에서는 패널아동 어머니와 아버지, 부부 특성에 대해 결혼상태 및 기간, 부부 갈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부모의 결혼상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배우-초혼은 어머니 97.28%, 아버지

92.62%로 가장 많았고, 이혼은 어머니 1.79%, 아버지 4.58%였다. 유배우 재혼인 경우는 어머니 0.78%, 아버지 1.17%였고, 동거하거나 사별, 별거한 경우도 드물지만 있었다. 부모의 결혼 기간은 평균 20.05년이였다.

〈표 III-3-4〉 부모의 결혼상태 및 기간

단위: %, (명), 년

구분	결혼상태							계(수)	결혼기간		
	미혼	유배우 -초혼	유배우 -재혼	동거 (사실혼)	사별	이혼	별거		평균	표준 편차	(수)
어머니	-	97.28	0.78	0.16	-	1.79	-	100.00(1,287)	20.05	3.19	(1,255)
아버지	-	92.62	1.17	0.16	0.85	4.58	0.62	100.00(1,287)			

주: 보호자의 응답임.

부부 갈등은 격년문항으로 17차년도에 조사되었는데, 이는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인식된 갈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인식하는 부부 갈등은 평균 2.09점이고, 아버지는 1.98점으로 어머니의 부부 갈등 점수가 아버지 점수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가 인식한 갈등은 어머니의 세부 특성별로 집단 차이를 보였는데, 어머니의 학력 수준이 고졸 이하인 집단이 느끼는 갈등이 전문대 졸업 이상인 집단보다 높았다.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느끼는 갈등 수준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월평균 가구소득이 370만원 이하 집단의 어머니는 570만원 초과 집단의 어머니보다 갈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거주하는 지역의 규모별 차이도 존재하였는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어머니보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가 인식하는 부부 갈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3-5〉 부모의 부부 갈등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09	0.81	(1,174)	1.98	0.76	(1,117)
모/부 학력						
고졸 이하	2.26 ^b	0.88	(287)	2.04 ^a	0.81	(274)
전문대졸	2.04 ^a	0.77	(349)	2.04 ^a	0.74	(239)
대졸 이상	2.02 ^a	0.80	(527)	1.93 ^a	0.75	(587)
F		8.50 ^{***}			3.03 [*]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2.29 ^b	0.87	(97)	2.10	0.88	(84)
370 초과~570만원	2.15 ^{ab}	0.86	(337)	2.02	0.81	(319)
570 초과~770만원	2.03 ^a	0.79	(304)	1.96	0.73	(293)
770만원 초과	2.02 ^a	0.77	(373)	1.95	0.73	(357)
<i>F</i>	4.13 ^{**}			1.15		
지역규모						
대도시	2.14 ^{ab}	0.80	(467)	2.03 ^a	0.74	(440)
중소도시	2.03 ^a	0.80	(634)	1.93 ^a	0.76	(605)
읍면	2.30 ^b	1.02	(64)	2.11 ^a	0.93	(64)
<i>F</i>	4.73 ^{**}			3.41 [*]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다) 심리적 특성

패널아동 부모의 심리적 특성으로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일상적 스트레스, 삶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자아존중감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17차년도에 조사한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평균 3.81점이고, 아버지는 3.85점으로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이 어머니의 자아존중감보다 다소 높았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아존중감은 최종 학력 수준과 가구소득에 따른 집단 차이가 존재하였다. 어머니의 최종 학력이 전문대 졸업 이상인 집단이 느끼는 자아존중감이 고졸 이하 집단의 자아존중감보다 높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370만원 이하인 집단보다 770만원 초과인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아버지도 어머니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아버지의 최종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집단이 느끼는 자아존중감이 전문대 졸업 이하 집단의 자아존중감보다 높았고, 월평균 가구소득이 370만원 이하인 집단보다 770만원 초과인 집단의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거주하는 지역규모에 따른 집단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3-6〉 부모의 자아존중감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81	0.56	(1,228)	3.85	0.53	(1,132)
모/부 학력						
고졸 이하	3.64 ^a	0.59	(310)	3.74 ^a	0.50	(280)
전문대졸	3.82 ^b	0.52	(362)	3.75 ^a	0.51	(240)
대졸 이상	3.90 ^b	0.55	(541)	3.95 ^b	0.54	(594)
<i>F</i>	23.15 ^{***}			21.02 ^{***}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3.62 ^a	0.62	(129)	3.62 ^a	0.53	(85)
370 초과~570만원	3.75 ^{ab}	0.56	(347)	3.75 ^{ab}	0.56	(322)
570 초과~770만원	3.84 ^{bc}	0.50	(311)	3.89 ^{bc}	0.48	(293)
770만원 초과	3.92 ^c	0.58	(376)	3.98 ^c	0.50	(358)
<i>F</i>	11.86 ^{***}			18.10 ^{***}		
지역규모						
대도시	3.80	0.57	(485)	3.83	0.51	(445)
중소도시	3.82	0.55	(668)	3.87	0.54	(615)
읍면	3.79	0.62	(65)	3.85	0.57	(64)
<i>F</i>	0.18			0.96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3번, 5번, 8번, 9번, 10번 문항은 역코딩함.
 *** $p < .001$.

패널아동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은 어머니, 아버지 각각 7점 척도(1.매우 행복하지 않다~7.매우 행복하다)로 응답하게 하였고, 7점에 가까울수록 행복감이 큰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행복감은 평균 5.22점이었고, 아버지의 행복감은 평균 5.34점으로 아버지의 행복감 수준이 어머니보다 다소 높았다.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도 앞서 살펴본 자아존중감과 유사하게, 부모의 최종 학력 수준과 가구소득에 따른 집단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최종 학력이 전문대 졸업 이상인 집단이 느끼는 행복감이 고졸 이하 집단의 행복감보다 높았고, 아버지의 최종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집단이 느끼는 행복감이 전문대 졸업 이하 집단의 행복감보다 높았다. 가구소득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행복감이 높은 경향이였다. 주관적 행복감에서도 거주하는 지역규모에 따른 집단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II-3-7〉 부모의 주관적 행복감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22	0.92	(1,228)	5.34	0.97	(1,132)
모/부 학력						
고졸 이하	4.96 ^a	0.98	(310)	5.15 ^a	1.02	(280)
전문대졸	5.27 ^b	0.86	(362)	5.19 ^a	0.98	(240)
대졸 이상	5.34 ^b	0.90	(541)	5.49 ^b	0.91	(594)
<i>F</i>	18.59 ^{***}			16.00 ^{***}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4.89 ^a	0.97	(129)	4.84 ^a	0.99	(85)
370 초과~570만원	5.13 ^b	0.97	(347)	5.20 ^b	1.02	(322)
570 초과~770만원	5.22 ^{bc}	0.83	(311)	5.38 ^{bc}	0.86	(293)
770만원 초과	5.41 ^c	0.89	(376)	5.59 ^c	0.92	(358)
<i>F</i>	12.22 ^{***}			18.71 ^{***}		
지역규모						
대도시	5.21	0.95	(485)	5.29	0.95	(445)
중소도시	5.24	0.90	(668)	5.38	0.97	(615)
읍면	5.14	1.02	(65)	5.30	1.14	(64)
<i>F</i>	0.43			1.35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7점 척도임(1.매우 행복하지 않다~7.매우 행복하다.).
 3)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음.
 *** $p < .001$.

부모가 느끼는 일상적 스트레스는 부모 각각 4점 척도(1.전혀 박지 않음~4.많이 받음)로 응답하게 하였고, 4점에 가까울수록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일상적 스트레스는 4점 척도에 평균 2.95점이었고, 아버지는 2.92점으로, 어머니의 스트레스 수준이 아버지보다 조금 높았다. 세부 배경변인에 따른 집단 차이는 없었다.



〈표 III-3-8〉 부모의 일상적 스트레스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95	0.57	(1,228)	2.92	0.59	(1,132)
모/부 학력						
고졸 이하	3.00	0.59	(310)	2.93	0.58	(280)
전문대졸	2.92	0.52	(362)	2.94	0.62	(240)
대졸 이상	2.93	0.59	(541)	2.92	0.58	(594)
<i>F</i>	2.20			0.12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3.04	0.62	(129)	2.92	0.58	(85)
370 초과~570만원	2.95	0.58	(347)	2.94	0.58	(322)
570 초과~770만원	2.90	0.56	(311)	2.90	0.58	(293)
770만원 초과	2.95	0.57	(376)	2.93	0.62	(358)
<i>F</i>	1.77			0.20		
지역규모						
대도시	2.96	0.54	(485)	2.91	0.59	(445)
중소도시	2.94	0.59	(668)	2.94	0.58	(615)
읍면	2.92	0.62	(65)	2.83	0.63	(64)
<i>F</i>	0.23			1.22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받지 않음~4.많이 받음).

다음은 패널아동 부모의 심리적 특성 중 마지막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삶의 만족도 역시 부모 각각 5점 척도(1.전혀 만족하지 못함~5.매우 만족함)로 응답하게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패널아동 어머니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 평균 3.64점, 아버지는 평균 3.76점으로 주관적 행복감과 유사하게 아버지의 점수가 어머니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패널아동 부모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부모의 최종 학력과 가구소득에 따른 집단 차이를 보였다. 어머니의 최종 학력이 전문대 졸업 이상인 집단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고졸 이하 집단보다 높았고, 아버지의 최종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집단이 전문대 졸업 이하 집단보다 높았다. 가구소득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3-9〉 부모의 삶의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64	0.70	(1,228)	3.76	0.70	(1,132)
모/부 학력						
고졸 이하	3.42 ^a	0.72	(310)	3.63 ^a	0.72	(280)
전문대졸	3.66 ^b	0.66	(362)	3.65 ^a	0.72	(240)
대졸 이상	3.77 ^b	0.69	(541)	3.87 ^b	0.65	(594)
<i>F</i>	24.37 ^{***}			16.07 ^{***}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3.33 ^a	0.82	(129)	3.48 ^a	0.78	(85)
370 초과~570만원	3.57 ^b	0.74	(347)	3.63 ^{ab}	0.73	(322)
570 초과~770만원	3.66 ^{bc}	0.62	(311)	3.81 ^{bc}	0.64	(293)
770만원 초과	3.78 ^c	0.66	(376)	3.94 ^c	0.63	(358)
<i>F</i>	15.56 ^{***}			17.40 ^{***}		
지역규모						
대도시	3.63	0.70	(485)	3.74	0.69	(445)
중소도시	3.67	0.69	(668)	3.79	0.68	(615)
읍면	3.46	0.81	(65)	3.69	0.85	(64)
<i>F</i>	2.84			1.00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만족하지 못함~5.매우 만족함).

*** $p < .001$.

2) 신체 및 건강 특성

가) 신체 건강 및 장애

다음은 부모 스스로가 인식하는 현재 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해 5점 척도, 1개의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5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건강한 상태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패널아동 어머니는 평균 3.45점 수준으로, 아버지는 평균 3.52점 수준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부모 학력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의 경우는 최종 학력이 전문대 졸업 이상인 집단이 고졸 이하 집단보다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았고, 아버지의 경우도 최종 학력인 고졸 이하인 집단보다 대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의 주관적으로 인식한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3-10〉 부모의 주관적 건강상태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45	0.76	(1,228)	3.52	0.72	(1,132)
모/부 학력						
고졸 이하	3.32 ^a	0.80	(310)	3.42 ^a	0.73	(280)
전문대졸	3.50 ^b	0.78	(362)	3.46 ^{ab}	0.76	(240)
대졸 이상	3.49 ^b	0.73	(541)	3.59 ^b	0.69	(594)
<i>F</i>	6.23 ^{**}			5.91 ^{**}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3.29	0.83	(129)	3.41	0.76	(85)
370 초과~570만원	3.44	0.76	(347)	3.52	0.75	(322)
570 초과~770만원	3.47	0.73	(311)	3.53	0.70	(293)
770만원 초과	3.50	0.76	(376)	3.56	0.70	(358)
<i>F</i>	2.44			0.98		
지역규모						
대도시	3.44	0.76	(485)	3.49	0.69	(445)
중소도시	3.45	0.77	(668)	3.55	0.74	(615)
읍면	3.55	0.77	(65)	3.41	0.81	(64)
<i>F</i>	0.65			1.71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건강하지 않음~5.매우 건강함).

** $p < .01$.

패널아동 어머니의 대부분(99.37%)은 장애가 없었고, 심한 장애가 있는 경우는 0.32%,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있는 경우 0.32%였다. 아버지도 98.76%가 장애가 없었고, 장애가 있는 경우, 전체 아버지의 0.25% 정도가 심한 장애, 0.99%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11〉 부모의 장애 유무

단위: %, (명)

구분	정도가 심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없음	계(수)
어머니	0.32	0.32	99.37	(1,264)
아버지	0.25	0.99	98.76	(1,209)

주: 보호자의 응답임.

출퇴근 시 걷는 것은 제외하고 탁구, 수영, 배구, 배드민턴, 빠르게 걷기,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등 격렬하거나 중증도의 신체활동을 한 번에 30분 이상

한 날을 조사한 결과, 지난 7일을 기준으로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아버지는 전체의 32.6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다음으로 3일 16.78%, 2일 16.61%, 1일 13.87% 순으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고, 5일 이상 운동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11.84%였다. 가구소득에 따라 신체활동 일수에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지난 일주일간 한 번도 신체활동하지 않았다는 응답비중이 확연히 높았다.

〈표 III-3-12〉 부의 한 번에 30분 이상 실내외에서 신체활동 일수(지난 7일간)

단위: %, (명)

구분	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이상	계(수)
전체	32.60	13.87	16.61	16.78	8.30	11.84	100.00(1,132)
아동 성별							
남	31.44	11.68	18.90	17.01	8.08	12.89	100.00(582)
여	33.88	16.03	14.21	16.58	8.56	10.75	100.00(549)
$\chi^2(df)$			9.33(5)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55.29	7.06	14.12	9.41	8.24	5.88	100.00(85)
370 초과~570만원	37.27	14.60	13.66	12.42	9.94	12.11	100.00(322)
570 초과~770만원	30.72	12.63	13.99	22.18	9.22	11.26	100.00(293)
770만원 초과	23.46	16.20	21.23	19.27	5.31	14.53	100.00(358)
$\chi^2(df)$			60.10(15) ^{***a)}				
지역규모							
대도시	32.81	15.06	15.96	16.40	7.42	12.36	100.00(445)
중소도시	30.89	13.33	17.40	17.40	9.76	11.22	100.00(615)
읍면	46.88	10.94	12.50	14.06	-	15.63	100.00(64)
$\chi^2(df)$			15.38(10)				

주: 1) 아버지의 응답임.

2) 신체활동: 탁구, 수영, 배구, 배드민턴, 빠르게 걷기,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등 격렬하거나 중증도의 신체활동(출퇴근 시 걷는 것은 제외).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01$.

어머니의 중증도 신체활동 일수를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경우와 유사한 응답패턴을 나타냈다. 지난 7일을 기준으로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한 어머니는 전체의 40.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3일 16.29%, 2일 14.41%, 1일 11.32%, 5일 이상 9.85% 등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가구소득에 따라 신체활동 일수에 차이가 있었던 부분도 아버지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지난 일주일간



한 번도 신체활동하지 않았다는 응답비중이 확연히 높았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5일 이상 신체활동을 한 응답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3-13〉 모의 한 번에 30분 이상 실내외에서 신체활동 일수(지난 7일간)

단위: %, (명)

구분	없음	1일	2일	3일	4일	5일 이상	계(수)
전체	40.07	11.32	14.41	16.29	8.06	9.85	100.00(1228)
아동 성별							
남	40.06	10.02	12.40	18.12	8.59	10.81	100.00(629)
여	39.93	12.75	16.44	14.43	7.55	8.89	100.00(596)
$\chi^2(df)$			9.60(5)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53.49	10.08	10.08	9.30	9.30	7.75	100.00(129)
370 초과~570만원	43.23	10.09	11.24	18.73	7.78	8.93	100.00(347)
570 초과~770만원	38.26	13.50	11.90	17.04	9.32	9.97	100.00(311)
770만원 초과	34.84	10.64	19.68	16.76	6.65	11.44	100.00(376)
$\chi^2(df)$			33.25(15)**(a)				
지역규모							
대도시	39.59	9.48	16.70	16.49	8.25	9.48	100.00(485)
중소도시	39.97	13.02	11.98	17.07	8.08	9.88	100.00(668)
읍면	43.08	9.23	21.54	9.23	4.62	12.31	100.00(65)
$\chi^2(df)$			14.03(10)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신체활동: 탁구, 수영, 배구, 배드민턴, 빠르게 걷기,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등 격렬하거나 중증도의 신체활동(출퇴근 시 걷는 것은 제외).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1$.

나) 음주 및 흡연

패널아동 아버지와 어머니의 음주 실태를 전체 음주 및 과음 횟수, 양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어머니의 경우는 월 1회 이하로 마신다는 응답이 34.20%로 가장 높았고, 최근 1년간 마시지 않았다 28.42%, 월 2~4회 26.71% 순으로 조사된 반면, 아버지는 월 2~4회 음주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4.45%, 주 2~3회 24.29%로 어머니에 비해 월등히 음주 횟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음하는 횟수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는데, 어머니는 전혀 없다는 응답이 41.98%인 반면, 아버지의 경우는 일주일에 1회 정도 과음한다는 응답이 27.11%, 한 달에 1번 정도 과음한다는 응답은 25.65%로 분석되었다. 음주량 역시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월등히 많았다.

〈표 III-3-14〉 부모의 음주 실태

단위: %, (명)

음주 횟수			과음 횟수			음주량		
구분	어머니	아버지	구분	어머니	아버지	구분	어머니	아버지
최근 1년간 안 마심	28.42	15.28	전혀 없음	41.98	18.87	1잔 또는 2잔	53.81	17.41
월 1회 이하	34.20	16.52	한 달에 1번 미만	30.38	22.84	3잔 또는 4잔	26.85	23.77
월 2~4회	26.71	34.45	한 달에 1번 정도	16.15	25.65	5잔 또는 6잔	11.15	23.46
주 2~3회	8.96	24.29	일주일에 1번 정도	10.24	27.11	7잔에서 9잔	5.80	20.44
주 4회 이상	1.71	9.45	거의 매일	1.25	5.53	10잔 이상	2.39	14.91
계 (수)	100.00 (1,228)	100.00 (1,132)	계 (수)	100.00 (879)	100.00 (959)	계 (수)	100.00 (879)	100.00 (959)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패널아동 어머니의 98.62%는 비흡연자이며, 아버지의 38.34%는 흡연자였다.

〈표 III-3-15〉 부모의 흡연 실태

단위: %, (명)

구분	피움	피우지 않음	계(수)
어머니	1.38	98.62	100.00(1,228)
아버지	38.34	61.66	100.00(1,132)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다) 미디어 이용

패널아동 부모 각각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는 척도로 스마트기기 과의존 정도를 조사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는 총 10개 문항으로, 현저성, 조절실패, 문제적 결과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저성은 자극(인터넷 콘텐츠 혹은 이용 환경)을 다른 현상보다 두드러지게 지각하여 스마트폰 사용 행동이 개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상태를 의미하고, 조절실패는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자율적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상태, 문제적 결과는 심리적·사회적·대인 관계적 면에서 부적응적 결과가 초래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상태를 뜻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하여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

가하고, 사용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개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에 따라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분류한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16: 274). 패널아동 아버지의 대부분은 일반 사용자군으로 나타났고(94.35%),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4.77%, 고위험 사용자군도 0.88%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3-16〉 부의 스마트폰(스마트기기) 과의존 척도: 아버지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스마트폰 과의존 집단 구분			계(수)	총점(60점 만점)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평균	표준편차
전체	94.35	4.77	0.88	100.00(1,132)	16.17	4.94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94.12	2.35	3.53	100.00(85)	16.02	5.40
370 초과~570만원	94.72	4.35	0.93	100.00(322)	16.20	5.17
570 초과~770만원	95.56	4.10	0.34	100.00(293)	16.03	4.68
770만원 초과	93.30	6.15	0.56	100.00(358)	16.13	4.89
$\chi^2(df)/F$		11.42(6) ^(a)				0.07
지역규모						
대도시	95.06	4.72	0.22	100.00(445)	16.32	4.72
중소도시	93.66	5.20	1.14	100.00(615)	16.09	5.05
읍면	95.31	1.56	3.13	100.00(64)	15.63	5.39
$\chi^2(df)/F$		7.90(4) ^(a)				0.68

- 주: 1) 아버지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3) 총점이 높을수록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 의존도가 심각함을 의미함.
 4) 점수별 사용자군 구분
 - 일반 사용자군: 총점 10~23점
 -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총점 24~28점
 - 고위험 사용자군: 총점 29~40점
 5)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어머니도 아버지의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전체의 95.60%는 일반 사용자군이었고,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3.91%, 고위험 사용자군도 0.49%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아버지에 비해,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비율이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어머니의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총점이 읍면지역 거주 중인 어머니의 점수보다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였다.

〈표 III-3-17〉 모의 스마트폰(스마트기기) 과의존 척도: 어머니 응답

단위: %, (명), 점

구분	스마트폰 과의존 집단 구분			계(수)	총점(60점 만점)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평균	표준편차
전체	95.60	3.91	0.49	100.00(1,228)	15.88	4.69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92.25	6.98	0.78	100.00(129)	15.70	5.31
370 초과~570만원	95.97	3.46	0.58	100.00(347)	15.99	4.77
570 초과~770만원	97.11	2.25	0.64	100.00(311)	15.48	4.48
770만원 초과	94.95	4.79	0.27	100.00(376)	16.07	4.55
$\chi^2(df)/F$		7.13(6) ^(a)				1.08
지역규모						
대도시	95.26	4.12	0.62	100.00(485)	16.27 ^b	4.64
중소도시	95.96	3.59	0.45	100.00(668)	15.68 ^{ab}	4.67
읍면	96.92	3.08	-	100.00(65)	14.74 ^a	4.75
$\chi^2(df)/F$		0.83(4) ^(a)				4.27 [*]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3) 총점이 높을수록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등) 의존도가 심각함을 의미함.
 4) 점수별 사용자군 구분
 - 일반 사용자군: 총점 10~23점
 -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총점 24~28점
 - 고위험 사용자군: 총점 29~40점
 5)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5$.

3) 직업 특성

가) 취업/학업 여부

부모의 취업 및 학업 상태를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경우 71.01%가 취업 중이었고, 미취업 혹은 미학업인 경우 26.14%,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경우도 2.61%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95.41%는 취업 중이었고, 취업과 학업을 병행 2.92%, 미취업 혹은 미학업인 경우는 1.24%였다.

〈표 III-3-18〉 부모 취·학업 상태

단위: %, (명)

구분	취업 (휴직 포함)	학업 (휴학 포함)	취업·학업 병행	미취업· 미학업	계(수)
어머니	71.01	0.24	2.61	26.14	100.00(1,228)
아버지	95.41	0.44	2.92	1.24	100.00(1,132)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어머니의 취업 및 학업 상태를 보다 상세히 배경변인에 따라 나누어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가구소득이 370만원 이하인 집단의 미취업/미학업 비중이 높았고, 570만원 이상인 집단의 취업 비중이 높았다. 덧붙여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어머니의 취업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표 III-3-19〉 모의 취·학업 상태

단위: %, (명)

구분	취업 (휴직 포함)	학업 (휴학 포함)	취업·학업 병행	미취업·미학업	계(수)
전체	71.01	0.24	2.61	26.14	100.00(1,228)
모 학력					
고졸 이하	71.61	-	1.61	26.77	100.00(310)
전문대졸	74.31	0.28	2.21	23.20	100.00(362)
대졸 이상	68.76	0.37	3.33	27.54	100.00(541)
$\chi^2(df)$		6.21(6) ^(a)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61.24	-	2.33	36.43	100.00(129)
370 초과~570만원	67.15	0.58	2.59	29.68	100.00(347)
570 초과~770만원	76.21	0.32	2.57	20.90	100.00(311)
770만원 초과	76.06	-	2.66	21.28	100.00(376)
$\chi^2(df)$		21.30(9) ^(a)			
지역규모					
대도시	70.31	0.62	3.30	25.77	100.00(485)
중소도시	70.66	-	1.95	27.40	100.00(668)
읍면	84.62	-	3.08	12.31	100.00(65)
$\chi^2(df)$		13.56(6) ^(a)			

주: 1) 어머니의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5$.

어머니에 이어, 아버지의 취업 및 학업 상태도 배경변인에 따라 나누어 분석하였고, 아버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가구소득이 370만원 이하인 집단 아버지의 미취업/미학업 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3-20〉 부의 취·학업 상태

단위: %, (명)

구분	취업 (휴직 포함)	학업 (휴학 포함)	취업·학업 병행	미취·미학업	계(수)
전체	95.41	0.44	2.92	1.24	100.00(1,132)
부 학력					
고졸 이하	95.71	0.36	2.86	1.07	100.00(280)
전문대졸	96.25	0.42	2.92	0.42	100.00(240)
대졸 이상	94.95	0.51	3.03	1.52	100.00(594)
$\chi^2(df)$			1.95(6) ^(a)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91.76	-	3.53	4.71	100.00(85)
370 초과~570만원	95.34	0.31	2.17	2.17	100.00(322)
570 초과~770만원	95.90	0.68	3.07	0.34	100.00(293)
770만원 초과	96.37	0.56	2.79	0.28	100.00(358)
$\chi^2(df)$			16.97(9) ^(a)		
지역규모					
대도시	94.16	0.67	3.82	1.35	100.00(445)
중소도시	95.93	0.33	2.60	1.14	100.00(615)
읍면	100.00	-	-	-	100.00(64)
$\chi^2(df)$			5.42(6) ^(a)		

주: 1) 아버지의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5$.

나) 취업 특성 및 직업 만족도

다음은 패널아동 부모가 일하고 있는 경우, 재직 상태와 종사상 지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경우, 재직 중 97.12%, 휴직 중인 경우는 2.88%였다. 일하는 어머니의 67.15%는 상용직,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12.39%, 임시직 7.74%, 종업원을 둔 고용주 6.53%, 무급가족 종사자 3.21%, 일용직 2.99% 순이었다. 일하는 아버지의 98.29%는 재직 상태였고, 휴직 중인 경우도 소수이지만 1.71% 있었다.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로는 상용직 68.37%,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15.90%, 종업원을 둔 고용주 11.77%, 일용직 1.89%, 임시직 1.62%, 무급가족 종사자 0.45% 순으로 조사되었다. 아버지의 비해 어머니의 임시직, 일용직,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3-21〉 부모의 재직 상태 및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구분	재직상태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종업원을 둔 고용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계(수)
	재직	휴직							
어머니	97.12	2.88	67.15	7.74	2.99	6.53	12.39	3.21	100.00(904)
아버지	98.29	1.71	68.37	1.62	1.89	11.77	15.90	0.45	100.00(1,113)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일하고 있는 아버지의 평균 주중 근무일은 4.91일, 평균 주중 근로시간은 42.10시간이었고, 주말을 포함하여 1주일 전체로 분석하면, 평균 근무일은 5.31일, 평균 근로시간은 45.23시간이었다. 아버지의 배경변인별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에 집단 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전문대 졸업 이하의 아버지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아버지보다 평균 근무일이 많았고, 고졸 이하의 아버지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아버지보다 평균 근무시간이 길었다. 가구소득은 근무일과 근무시간 모두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구소득이 370만원 이하인 아버지는 770만원 초과인 아버지보다 근무일과 근무시간 모두 길었다. 마지막으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아버지 근무일이 다른 지역 아버지 근무일보다 많았다.

한편, 취업 중인 어머니의 평균 주중 근무일은 4.83일, 평균 주중 근로시간은 36.32시간이었고, 1주일 전체로 분석하였을 경우의 평균 근무일은 5.14일, 평균 근로시간은 38.55시간이었다. 이는 아버지의 평균 근무일과 근로시간보다 낮은 수치인데, 이는 앞서 살펴본 종사상 지위에서 임시직, 일용직,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이 높았던 어머니의 특성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어머니의 배경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졸 이하의 어머니 집단의 평균 근무일이 전문대 졸업 이상 어머니 집단의 평균 근무일 보다 많았고, 고졸 이하의 어머니 집단 평균 근로시간이 대학교 졸업 이상 어머니 집단의 평균 근로시간보다 많았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규모별로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아버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읍면지역 어머니 근무일이 다른 지역 어머니 근무일보다 많았다.

〈표 III-3-22〉 취업부모 근무일 및 시간

단위: 일, 시간, (명)

구분	아버지					어머니				
	근무일		근로시간		(수)	근무일		근로시간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주중 평균	4.91	0.37	42.10	7.39	(1,113)	4.83	0.56	36.32	10.09	(904)
주말 평균	0.40	0.59	3.14	5.14	(1,113)	0.31	0.57	2.22	4.52	(904)
1주일 전체	5.31	0.65	45.23	9.95	(1,113)	5.14	0.75	38.55	11.80	(904)
모/부 학력										
고졸 이하	5.44 ^b	0.69	47.15 ^b	10.71	(276)	5.28 ^b	0.78	40.97 ^b	13.12	(227)
전문대졸	5.37 ^b	0.67	45.56 ^{ab}	10.04	(238)	5.18 ^{ab}	0.73	38.79 ^{ab}	11.02	(277)
대졸 이상	5.22 ^a	0.61	44.19 ^a	9.51	(582)	5.03 ^a	0.74	36.72 ^a	11.02	(390)
F	12.47 ^{***}		8.47 ^{***}			8.13 ^{***}		9.82 ^{***}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5.46 ^b	0.80	47.43 ^b	10.76	(81)	5.18	0.66	39.11	11.70	(82)
370 초과~570만원	5.38 ^{ab}	0.64	45.65 ^{ab}	10.50	(314)	5.23	0.83	37.63	11.87	(242)
570 초과~770만원	5.34 ^{ab}	0.69	46.03 ^{ab}	9.96	(290)	5.07	0.73	38.54	11.46	(245)
770만원 초과	5.21 ^a	0.56	43.90 ^a	8.95	(355)	5.11	0.74	38.94	11.97	(296)
F	5.86 ^{***}		4.29 ^{**}			2.08		0.65		
지역규모										
대도시	5.29 ^a	0.62	45.40	9.58	(436)	5.11 ^a	0.73	38.29	11.44	(357)
중소도시	5.29 ^a	0.64	45.01	10.11	(606)	5.14 ^a	0.77	38.42	12.11	(485)
읍면	5.61 ^b	0.80	46.43	11.30	(64)	5.39 ^b	0.72	40.97	11.69	(57)
F	7.39 ^{***}		0.67			3.55 [*]		1.31		

주: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취업 중인 부모 대상으로 현재 주된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어머니의 일자리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3.72점이고, 아버지는 3.67점으로, 아버지의 만족도가 어머니에 비해 다소 낮았다.

어머니의 경우, 가구소득이 370만원 이하인 어머니 집단이 770만원 이상인 집단 어머니에 비해 일자리 만족도가 낮았다. 아버지의 경우는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아버지가 대학교 졸업 이상인 아버지에 비해 만족도가 낮았고, 가구소득 역시 소득이 낮은 집단일수록 일자리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3-23〉 취업부모 일자리 전반적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72	0.71	(904)	3.67	0.75	(1,113)
모/부 학력						
고졸 이하	3.65	0.75	(227)	3.54 ^a	0.75	(276)
전문대졸	3.69	0.71	(277)	3.66 ^{ab}	0.81	(238)
대졸 이상	3.77	0.68	(390)	3.73 ^b	0.72	(582)
<i>F</i>	2.28			6.27 ^{**}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3.56 ^a	0.83	(82)	3.31 ^a	0.93	(81)
370 초과~570만원	3.63 ^{ab}	0.70	(242)	3.55 ^b	0.74	(314)
570 초과~770만원	3.72 ^{ab}	0.70	(245)	3.69 ^{bc}	0.68	(290)
770만원 초과	3.81 ^b	0.67	(296)	3.85 ^c	0.73	(355)
<i>F</i>	4.36 ^{**}			15.97 ^{***}		
지역규모						
대도시	3.69	0.72	(357)	3.64	0.75	(436)
중소도시	3.72	0.68	(485)	3.69	0.73	(606)
읍면	3.82	0.85	(57)	3.53	0.96	(64)
<i>F</i>	0.87			1.68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만족하지 않음~5.매우 만족).

** $p < .01$, *** $p < .001$.

4) 양육 특성

가) 양육 실제

패널아동이 인식한 부모의 성취압력 정도를 총 15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전체 평균은 2.37점으로 보통 이하 수준으로 분석되었고, 남학생이 느끼는 부모의 성취압력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하고 있는 지역 규모에 따른 집단 차이도 발견되었는데, 대도시에 거주하는 패널아동이 느끼는 부모의 성취압력이 읍면지역 패널아동보다 높았다.

〈표 III-3-24〉 부모의 성취압력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37	0.83	(1,277)
아동 성별			
남	2.44	0.82	(654)
여	2.31	0.84	(623)
<i>t</i>	2.90**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2.30 ^a	0.88	(128)
370 초과~570만원	2.30 ^a	0.82	(359)
570 초과~770만원	2.38 ^a	0.81	(322)
770만원 초과	2.48 ^a	0.85	(371)
<i>F</i>	3.27*		
지역규모			
대도시	2.48 ^b	0.84	(492)
중소도시	2.33 ^{ab}	0.82	(699)
읍면	2.11 ^a	0.79	(68)
<i>F</i>	8.55***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애착에 대해 패널아동이 부모 각각에 대해 총 12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하였고, 5점에 가까울수록 부모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부모애착 척도는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3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패널아동이 인식한 어머니의 부모애착 정도이다. 의사소통 평균 3.86점, 소외감 3.27점, 신뢰감 4.02점으로 분석되었다. 세부 배경변인에 따른 집단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3-25〉 부모애착: 어머니

단위: 점, (명)

구분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86	0.75	3.27	0.75	4.02	0.75	(1,269)
아동 성별							
남	3.87	0.75	3.25	0.74	4.05	0.73	(649)
여	3.86	0.75	3.29	0.75	4.00	0.76	(620)
<i>t</i>	0.24		-0.96		1.26		

구분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모 학력							
고졸 이하	3.81 ^a	0.79	3.21	0.74	4.01	0.79	(320)
전문대졸	3.83 ^a	0.75	3.29	0.73	3.99	0.73	(368)
대졸 이상	3.93 ^a	0.71	3.28	0.76	4.06	0.73	(549)
<i>F</i>	3.49 [*]		1.07		0.96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3.89	0.82	3.29	0.81	3.99	0.85	(128)
370 초과~570만원	3.86	0.78	3.26	0.75	4.07	0.76	(358)
570 초과~770만원	3.88	0.71	3.28	0.75	4.04	0.71	(322)
770만원 초과	3.87	0.73	3.26	0.74	3.98	0.74	(371)
<i>F</i>	0.09		0.14		0.99		

주: 1) 아동의 응답임(의사소통 6문항, 소외감 3문항, 신뢰감 3문항. 총 12문항).

2) 5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5.항상 그렇다).

3)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음: '소외감' 항목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감이 낮음을 의미함.

4)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이어서, 아버지에 대한 패널아동의 부모애착 결과이다. 의사소통 평균 3.55점, 소외감 평균 3.18점, 신뢰감 평균 3.85점으로 어머니의 점수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조금씩 낮은 수준이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는 아버지의 부모애착 중 신뢰감 점수가 여학생보다 높았고, 아버지의 최종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보다 대졸 이상이 경우 의사소통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에 따른 집단 차이도 있었는데,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인 집단의 아버지보다 570만원 이상 집단의 아버지에게 대해 느끼는 애착 중 의사소통 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3-26〉 부모애착: 아버지

단위: 점, (명)

구분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55	0.86	3.18	0.74	3.85	0.81	(1,257)
아동 성별							
남	3.58	0.86	3.19	0.73	3.91	0.80	(645)
여	3.51	0.85	3.16	0.75	3.80	0.82	(612)
<i>t</i>	1.59		0.62		2.52 [*]		
부 학력							
고졸 이하	3.45 ^a	0.84	3.18	0.72	3.82	0.82	(297)
전문대졸	3.52 ^{ab}	0.93	3.12	0.77	3.85	0.82	(254)
대졸 이상	3.64 ^b	0.79	3.19	0.71	3.89	0.78	(634)
<i>F</i>	5.43 ^{**}		0.99		0.88		

구분	의사소통		소외감		신뢰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3.33 ^a	0.97	3.23	0.80	3.70	0.90	(114)
370 초과~570만원	3.54 ^{ab}	0.87	3.18	0.77	3.85	0.85	(356)
570 초과~770만원	3.59 ^b	0.86	3.15	0.75	3.89	0.78	(320)
770만원 초과	3.59 ^b	0.82	3.19	0.71	3.87	0.78	(371)
<i>F</i>	2.91 [*]		0.37		1.77		

주: 1) 아동의 응답임(의사소통 6문항, 소외감 3문항, 신뢰감 3문항. 총 12문항).
 2) 5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5.항상 그렇다).
 3)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애착이 높음: '소외감' 항목을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소외감이 낮음을 의미함.
^{*} $p < .05$, ^{**} $p < .01$.

패널아동 부모가 각각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는 총 17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5점에 가까울수록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을 뜻한다.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는 평균 2.40점, 아버지는 2.30점으로 어머니가 느끼는 스트레스 수준이 아버지보다 다소 높았다. 특히, 어머니의 경우, 자녀의 성별이 남아인 경우 느끼는 스트레스가 여아에 비해 컸고, 거주하는 지역이 대도시인 어머니가 읍면지역 어머니보다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았다.

〈표 III-3-27〉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2.40	0.70	(1,228)	2.30	0.74	(1,132)
아동 성별						
남	2.46	0.71	(629)	2.34	0.75	(582)
여	2.34	0.69	(596)	2.26	0.73	(549)
<i>t</i>	2.82 ^{**}			1.94		
모/부 학력						
고졸 이하	2.46	0.71	(310)	2.33	0.76	(280)
전문대졸	2.42	0.70	(362)	2.28	0.75	(240)
대졸 이상	2.35	0.70	(541)	2.29	0.72	(594)
<i>F</i>	2.43			0.31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2.32	0.86	(129)	2.33	0.82	(85)
370 초과~570만원	2.42	0.68	(347)	2.31	0.74	(322)
570 초과~770만원	2.39	0.70	(311)	2.31	0.74	(293)
770만원 초과	2.39	0.66	(376)	2.28	0.71	(358)
<i>F</i>	0.66			0.18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지역규모						
대도시	2.46 ^b	0.66	(485)	2.35	0.72	(445)
중소도시	2.37 ^{ab}	0.72	(668)	2.29	0.74	(615)
읍면	2.23 ^a	0.76	(65)	2.14	0.80	(64)
<i>F</i>	4.11*			2.52		

주: 1) 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 $p < .05$, ** $p < .01$.

아동학대 관련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험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신체적 학대 경험에 대해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97.5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지만, 지난 6개월간 한두 번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1.88%, 한 달에 한두 번 0.31%, 일주일에 한두 번 경험했다는 응답도 0.23%로 나타났다.

〈표 III-3-28〉 아동학대: 신체적 학대 경험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계(수)
전체	97.57	1.88	0.31	0.23	-	100.00(1,277)
아동 성별						
남	97.71	1.68	0.15	0.46	-	100.00(654)
여	97.43	2.09	0.48	-	-	100.00(623)
<i>χ²(df)</i>			4.24(3) ^(a)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98.44	1.56	-	-	-	100.00(128)
370 초과-570만원	97.49	1.67	0.56	0.28	-	100.00(359)
570 초과-770만원	99.07	0.93	-	-	-	100.00(322)
770만원 초과	95.96	3.23	0.54	0.27	-	100.00(371)
<i>χ²(df)</i>			8.98(9) ^(a)			
지역규모						
대도시	96.75	3.05	0.20	-	-	100.00(492)
중소도시	98.14	1.14	0.43	0.29	-	100.00(699)
읍면	98.53	1.47	-	-	-	100.00(68)
<i>χ²(df)</i>			7.92(6) ^(a)			

주: 1) 아동의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다음으로 아동학대 중 언어적 학대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언어적 학대를 당한 적이 전혀 없다는 응답 85.90%, 지난 6개월간 한두 번 8.61%, 한 달에 한두 번 4.46%, 일주일에 한두 번 0.70%, 거의 매일도 0.31%로 나타났다. 소수이기는 하나 신체적 학대 경험보다는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3-29〉 아동학대: 언어적 학대 경험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계(수)
전체	85.90	8.61	4.46	0.70	0.31	100.00(1,277)
아동 성별						
남	86.24	8.41	4.13	0.61	0.61	100.00(654)
여	85.55	8.83	4.82	0.80	-	100.00(623)
$\chi^2(df)$			4.40(4) ^(a)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82.03	12.50	5.47	-	-	100.00(128)
370 초과-570만원	86.35	6.96	5.29	0.84	0.56	100.00(359)
570 초과-770만원	86.34	9.63	3.11	0.62	0.31	100.00(322)
770만원 초과	84.91	8.89	4.85	1.08	0.27	100.00(371)
$\chi^2(df)$			8.60(12) ^(a)			
지역규모						
대도시	82.52	10.57	5.49	1.02	0.41	100.00(492)
중소도시	87.84	7.58	3.86	0.57	0.14	100.00(699)
읍면	89.71	5.88	2.94	-	1.47	100.00(68)
$\chi^2(df)$			11.72(8) ^(a)			

주: 1) 아동의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다음은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는 정서적 학대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전혀 없다는 경우가 전체 아동의 90.84%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지난 6개월간 한두 번 경험했다 6.19%, 한 달에 한두 번 2.35%, 일주일에 한두 번 0.39%, 거의 매일 0.23%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아동학대 중 언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3-30〉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경험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 번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	거의 매일	계(수)
전체	90.84	6.19	2.35	0.39	0.23	100.00(1,277)
아동 성별						
남	90.06	6.57	2.29	0.61	0.46	100.00(654)
여	91.65	5.78	2.41	0.16	-	100.00(623)
$\chi^2(df)$			4.95(4) ^(a)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88.28	7.81	3.91	-	-	100.00(320)
370 초과-570만원	91.36	6.41	1.67	0.28	0.28	100.00(368)
570 초과-770만원	91.61	5.59	1.86	0.62	0.31	100.00(549)
770만원 초과	90.57	5.39	3.50	0.27	0.27	
$\chi^2(df)$			6.84(12) ^(a)			
지역규모						100.00(297)
대도시	88.21	8.13	2.85	0.41	0.41	100.00(254)
중소도시	92.85	4.72	2.15	0.29	-	100.00(634)
읍면	92.65	4.41	1.47	-	1.47	
$\chi^2(df)$			14.36(8) ^(a)			

주: 1) 아동의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나) 부모 감독, 소통 및 지원

부모 감독은 보호자가 총 4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조사하며, 4점에 가까울수록 자녀의 일상생활 중에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부모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패널부모는 자녀가 밤 시간에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3.57점, 방과후 어디 가는지에 대해서는 평균 3.56점,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40점, 평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서는 3.39점 수준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각 문항에 대해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 감독 차이가 분명하였는데, 모든 문항에서 자녀가 여학생인 경우 자녀의 행방에 대해 보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1〉 부모 감독: 보호자 응답

단위: 점, (명)

구분	방과후 어디 가는지 알고 있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있음		밤에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있음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있음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56	0.55	3.39	0.57	3.57	0.55	3.40	0.59	(1,287)
아동 성별									
남	3.53	0.55	3.36	0.58	3.54	0.56	3.35	0.61	(660)
여	3.59	0.55	3.42	0.56	3.61	0.53	3.46	0.58	(627)
<i>t</i>	-2.01*		-2.05*		-2.15*		-3.30***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3.59	0.51	3.43	0.58	3.57	0.58	3.42	0.64	(133)
370 초과-570만원	3.56	0.54	3.39	0.56	3.56	0.53	3.38	0.61	(363)
570 초과-770만원	3.55	0.56	3.36	0.56	3.58	0.56	3.41	0.58	(326)
770만원 초과	3.59	0.54	3.42	0.59	3.59	0.54	3.42	0.58	(386)
<i>F</i>	0.47		0.97		0.24		0.39		
지역규모									
대도시	3.62 ^a	0.52	3.43 ^a	0.54	3.63 ^a	0.53	3.48 ^a	0.59	(507)
중소도시	3.52 ^a	0.57	3.35 ^a	0.58	3.53 ^a	0.56	3.34 ^a	0.60	(711)
읍면	3.57 ^a	0.50	3.45 ^a	0.61	3.61 ^a	0.49	3.38 ^a	0.57	(69)
<i>F</i>	5.15**		3.01*		5.91**		8.36***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4.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은 패널아동 보호자를 대상으로 패널아동에 대한 학업적, 교육적 지원 정도에 대해 총 7개 문항 5점 척도로 응답하게 한 결과이다. 성적관리에 신경 쓴다는 응답이 평균 3.48점, 진로진학에 대한 정보 수집 3.44점, 집안 내 공부 분위기 조성 과 평소 생활 확인 및 일정 관리 두 항목 모두 3.42점 순으로 나타났다. 7개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학교공부 및 숙제 확인으로 2.85점이었다. 17차년도 조사 시 패널아동이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으므로, 숙제 확인보다는 성적관리나 진로진학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항목은 가구소득에 따른 집단 차이가 돋보였는데, 공부방법 조연구

성적관리에 신경 쓴다는 항목 모두에서 가구소득이 370만원 이하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덜 신경 쓰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진로진학에 대한 정보 수집, 평소 생활 확인 및 일정 관리 항목에 대해서도 가구소득별 집단 차이가 나타났는데, 월평균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집단에서 월평균 가구소득 570만원 초과 집단에 비해 진로진학에 대한 정보 수집, 평소 생활 확인 및 일정 관리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학부모 모임 및 인터넷 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월평균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지원이 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아동 성별이나 거주하고 있는 지역규모에 따른 집단 차이는 없었다.

〈표 III-3-32〉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1)

단위: 점, (명)

구분	집안의 공부 분위기 조성		학교공부 및 숙제 확인		공부방법 조언		성적관리에 신경 씀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2	0.84	2.85	1.01	3.32	0.89	3.48	0.85	(1,287)
아동 성별									
남	3.42	0.84	2.87	1.00	3.35	0.87	3.47	0.86	(660)
여	3.42	0.84	2.83	1.01	3.28	0.91	3.48	0.84	(627)
<i>t</i>		-0.06		0.66		1.42		-0.29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3.42	0.91	2.83	0.97	3.09 ^a	0.94	3.20 ^a	0.90	(133)
370 초과~570만원	3.39	0.81	2.89	1.01	3.36 ^b	0.92	3.48 ^b	0.85	(363)
570 초과~770만원	3.43	0.86	2.82	1.06	3.34 ^b	0.85	3.52 ^b	0.82	(326)
770만원 초과	3.48	0.85	2.89	1.01	3.38 ^b	0.89	3.57 ^b	0.85	(386)
<i>F</i>		0.70		0.42		3.70 [*]		6.66 ^{***}	
지역규모									
대도시	3.42	0.85	2.86	1.01	3.30	0.90	3.52	0.87	(507)
중소도시	3.41	0.83	2.82	0.99	3.33	0.89	3.46	0.82	(711)
읍면	3.55	0.80	3.06	1.08	3.38	0.94	3.36	0.95	(69)
<i>F</i>		0.88		1.74		0.34		1.31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 $p < .001$.

〈표 III-3-33〉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2)

단위: 점, (명)

구분	진로진학 정보 수집		평소 생활 확인 및 일정 관리		학부모 모임 및 인터넷 정보 수집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44	0.88	3.42	0.90	3.01	1.01	(1,287)
아동 성별							
남	3.44	0.87	3.41	0.89	3.06	0.99	(660)
여	3.44	0.89	3.42	0.90	2.96	1.03	(627)
<i>t</i>		-0.08		-0.27		1.93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3.25 ^a	0.96	3.17 ^a	0.93	2.76 ^a	1.02	(133)
370 초과~570만원	3.39 ^{ab}	0.90	3.37 ^{ab}	0.91	3.07 ^b	1.02	(363)
570 초과~770만원	3.48 ^b	0.85	3.47 ^b	0.92	3.02 ^b	1.02	(326)
770만원 초과	3.56 ^b	0.85	3.55 ^b	0.84	3.08 ^b	0.99	(386)
<i>F</i>		5.04 ^{**}		6.75 ^{***}		3.71 [*]	
지역규모							
대도시	3.46	0.90	3.46	0.90	3.06	1.00	(507)
중소도시	3.42	0.85	3.39	0.88	2.97	1.01	(711)
읍면	3.48	1.01	3.35	1.00	3.10	1.03	(69)
<i>F</i>		0.34		1.17		1.34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본인이 느끼는 가족과의 의사소통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패널아동을 포함하여 패널아동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각각 동일 문항을 질문하였다. 부모-자녀 의사소통(가족의사소통) 척도는 ‘우리 가족은 서로 애정을 표현하다’, ‘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게 감정표현을 한다’ 등 총 10개 문항 및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구성 및 응답 받도록 되어 있으며, 의사소통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느끼는 가족 간 소통이 효과적인 것을 의미한다.

응답 대상별로 전체 문항에 대한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아동 평균 3.87점, 부 평균 3.74점, 모 평균 3.72점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가족의사소통 정도에 대해서 ‘대체로 그렇다’의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 모두 가구소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모의 경우 지역규모에서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일수록 효과적인 가족의사소통이 이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3-34〉 부모-자녀 의사소통

단위: 점, (명)

구분	아동			부			모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3.87	0.70	(1,277)	3.74	0.60	(1,132)	3.72	0.57	(1,228)
아동 성별									
남	3.89	0.70	(654)	3.73	0.60	(582)	3.69	0.60	(629)
여	3.84	0.70	(623)	3.76	0.59	(549)	3.74	0.55	(596)
<i>t</i>	1.31			-0.95			-1.64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3.81	0.72	(128)	3.63 ^a	0.54	(85)	3.66 ^a	0.59	(129)
370 초과~570만원	3.89	0.72	(359)	3.70 ^a	0.62	(322)	3.66 ^a	0.59	(347)
570 초과~770만원	3.83	0.75	(322)	3.77 ^a	0.53	(293)	3.74 ^a	0.52	(311)
770만원 초과	3.90	0.68	(371)	3.80 ^a	0.63	(358)	3.76 ^a	0.60	(376)
<i>F</i>	0.88			2.79 [*]			2.62 [*]		
지역규모									
대도시	3.81	0.74	(492)	3.75	0.53	(445)	3.71 ^{ab}	0.54	(485)
중소도시	3.91	0.67	(699)	3.75	0.63	(615)	3.74 ^b	0.58	(668)
읍면	3.87	0.79	(68)	3.60	0.70	(64)	3.55 ^a	0.72	(65)
<i>F</i>	2.90			1.92			3.26 [*]		

주: 1) 아동/아버지/어머니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함을 의미함.

4)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p < .05$.

나. 가구 특성

1) 가구 구성 및 방 여부

패널아동의 가구구성원 현황을 살펴보면, ‘부모-자녀’로 구성된 경우가 88.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부모+부모+자녀’ 7.85%, ‘부모+자녀+친척’ 1.63%, ‘조부모+부모+자녀+친척’ 1.55% 순으로 보였고, 패널아동의 평균 가구원수는 약 4.34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3-35〉 가구 구성 및 가구원수

단위: %, (명)

가구 구성					가구원수		
부모+자녀	조부모+부모+자녀	부모+자녀+친척	조부모+부모+자녀+친척	기타	계(수)	평균	표준편차
88.97	7.85	1.63	1.55	-	100.00(1,287)	4.34	0.99

주: 보호자의 응답임.

다음은 패널아동의 단독 방 여부와 반려동물 양육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응답한 보호자 중 패널아동이 단독 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8.81%로 나타났다으며, 76.46%가 반려동물을 양육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3-36〉 아동의 단독 방 및 반려동물 여부

단위: %, (명)

아동의 단독 방			반려동물(중복응답)				
있음	없음	계(수)	키우지 않음	개	고양이	기타	(수)
88.81	11.19	100.00(1,287)	76.46	15.07	7.15	2.64	(1,287)

주: 보호자의 응답임.

2) 가구의 경제적 특성

가) 객관적 경제적 상황(소득, 지출, 부채)

패널가구의 경제적 상황 중 소득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보호자에게는 월평균 가구소득을, 어머니/아버지에게는 각각 월평균 근로소득을 조사하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시장소득에서 소득세, 연금 등 공적비소비지출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으로 패널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약 723.24만원이며, 60~11,000만원 사이의 분포를 보였다. 패널아동의 어머니 및 아버지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각각 약 317.21만원, 546.77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3-37〉 월평균 가구소득 및 어머니/아버지 근로소득

단위: 만원,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수)
월평균 가구소득	723.24	691.65	600.00	60.00	11000.00	(1,208)
월평균 어머니 근로소득	317.21	557.53	250.00	0.00	9000.00	(904)
월평균 아버지 근로소득	546.77	517.97	500.00	0.00	9000.00	(1,113)

주: 보호자/어머니/아버지의 응답임.

다음은 패널가구의 월평균 지출 현황을 살펴본 결과이다. 식료품·음료, 주류·담배, 의류 등의 비용이 포함된 패널가구의 월평균 소비성 지출 비용은 약 317.70만원이었으며, 세금, 연금, 대출 등의 비용이 포함된 패널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성 지출은 약 240.24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III-3-38〉 월평균 지출

단위: 만원, (가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중위값	최솟값	최댓값	(수)
소비성 지출	317.70	156.30	300.00	0.00	1500.00	(1,287)
비소비성 지출	240.24	166.36	200.00	15.00	2400.00	(1,287)

주: 보호자의 응답임.

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주관적 인식

보호자가 느끼는 패널가구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대한민국 전체 고려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지역사회 및 공동체를 고려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10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우선,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은 평균 5.36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은 평균 5.52점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차원 모두 가구소득 및 지역규모에 따라 유의한 인식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수준이 두 차원 모두 높았다.

〈표 III-3-39〉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단위: 점, (명)

구분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서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5.36	1.43	(1,287)	5.52	1.41	(1,287)
아동 성별						
남	5.31	1.38	(660)	5.49	1.37	(660)
여	5.41	1.48	(627)	5.56	1.46	(627)
<i>t</i>		-1.24			-0.85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4.41 ^a	1.46	(133)	4.59 ^a	1.46	(133)
370 초과~570만원	5.00 ^b	1.35	(363)	5.25 ^b	1.33	(363)
570 초과~770만원	5.40 ^c	1.29	(326)	5.52 ^b	1.33	(326)
770만원 초과	5.98 ^d	1.38	(386)	6.10 ^c	1.36	(386)
<i>F</i>		57.48***			49.47***	

구분	대한민국 전체에서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지역사회 및 공동체에서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인식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지역규모						
대도시	5.44 ^{ab}	1.47	(507)	5.60 ^a	1.40	(507)
중소도시	5.27 ^a	1.36	(711)	5.44 ^a	1.40	(711)
읍면	5.70 ^b	1.80	(69)	5.78 ^a	1.63	(69)
F		4.16 [*]			3.09 [*]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10점 척도임(1.가장 낮은 수준~10.매우 높은 수준).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01$.

4. 학교 및 사교육 특성

한국아동패널의 조사 영역 중 학교 특성으로는 패널아동의 학교 재학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패널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일반적인 특성, 담임교사 특성, 학급운영 및 가정협력 관련 문항이 있으며, 사교육 특성으로는 패널아동의 사교육 이용 여부,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에 대한 유형, 시간, 만족도, 비용 및 부담 정도 등과 EBS 이용 현황 등으로 변인을 구성하였다.

〈표 III-4-1〉 17차년도 학교·사교육 특성 조사변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학교	이용 특성	• 학교 재학 여부, 미진학 사유, 대체 이용기관
		• 전학 여부
	학교 특성	• 학교 유형(고등학교)
		• 학교 풍토, 학생비행
	물리적 특성	• 학급수, 학급 학생수, 학교 환경
	교사 특성	• 성별, 연령, 교사 경력, 담당과목
		• 업무 스트레스
교사효능감	• 교사효능감	
학급운영	• 교사-아동 인식	
가정협력		• 부모의 행사 참여 여부
		• 학교서비스 만족도
		• 고등학교 진학 유형
사교육	이용 특성	• 사교육 여부, 이용 유형, 시간, 만족도, 비용, 비용 부담 정도, 이용 이유, 교재비
	EBS	• EBS 이용 여부, 시간, 도움 정도

주: 17차 신규 및 변경문항 밑줄로 표시

가. 학교 특성

1) 이용 특성

17차 조사의 경우 패널아동의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해당하는데, 대안학교를 포함하여, 패널아동의 고등학교 재학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98.29%로 나타났다.

〈표 III-4-2〉 학교 재학 여부

단위: %, (명)

구분	고등학교 재학 중(대안학교 포함)	다니고 있지 않음	계(수)
전체	98.29	1.71	100.00(1,287)
아동 성별			
남	98.33	1.67	100.00(660)
여	98.25	1.75	100.00(627)
$\chi^2(df)$	0.01(1)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97.74	2.26	100.00(133)
370 초과~570만원	100.00	-	100.00(363)
570 초과~770만원	98.16	1.84	100.00(326)
770만원 초과	96.89	3.11	100.00(386)
$\chi^2(df)$	10.89(3)*		
지역규모			
대도시	97.83	2.17	100.00(507)
중소도시	98.59	1.41	100.00(711)
읍면	98.55	1.45	100.00(69)
$\chi^2(df)$	1.06(2)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은 패널아동을 대상으로 미진학 이유를 물어보았다. 응답 대상 패널아동 중 36.36%가 '학교 부적응'의 이유로 고등학교를 진학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취업/대학 진학에 더 유리하여' 18.18%, '해외 출국' 13.64% 순으로 고등학교 미진학 이유를 보였다.

〈표 III-4-3〉 고등학교 미진학 사유

단위: %, (명)

구분	학교 부적응	학교 폭력	해외 출국	부모 교육 철학	경제적 이유	질병	취업/대학 진학에 더 유리하여	기타	계(수)
전체	36.36	4.55	13.64	9.09	-	9.09	18.18	9.09	100.00(22)
아동 성별									
남	36.36	-	18.18	9.09	-	9.09	9.09	18.18	100.00(11)
여	36.36	9.09	9.09	9.09	-	9.09	27.27	-	100.00(11)
$\chi^2(df)$					4.33(6) ^(a)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66.67	-	-	-	-	33.33	-	-	100.00(3)
370 초과-570만원	-	-	-	-	-	-	-	-	-
570 초과-770만원	50.00	-	-	16.67	-	-	33.33	-	100.00(6)
770만원 초과	16.67	8.33	25.00	8.33	-	8.33	16.67	16.67	100.00(12)
$\chi^2(df)$					11.25(12) ^(a)				
지역규모									
대도시	36.36	-	9.09	9.09	-	-	36.36	9.09	100.00(11)
중소도시	30.00	10.00	20.00	10.00	-	20.00	-	10.00	100.00(10)
읍면	100.00	-	-	-	-	-	-	-	100.00(1)
$\chi^2(df)$					9.63(12) ^(a)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패널아동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외에 대체기관 이용 여부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학원과 홈스쿨링이 각각 31.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4-4〉 대체이용기관

단위: %, (명)

구분	이용하는 기관 없음	학원	홈스쿨링	기타	계(수)
전체	27.27	31.82	31.82	9.09	100.00(22)
아동 성별					
남	36.36	9.09	45.45	9.09	100.00(11)
여	18.18	54.55	18.18	9.09	100.00(11)
$\chi^2(df)$		5.52(3) ^(a)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66.67	-	-	33.33	100.00(3)
370 초과-570만원	-	-	-	-	-
570 초과-770만원	16.67	50.00	33.33	-	100.00(6)
770만원 초과	16.67	33.33	41.67	8.33	100.00(12)
$\chi(df)$		7.83(6) ^(a)			

구분	이용하는 기관 없음	학원	홈스쿨링	기타	계(수)
지역규모					
대도시	36.36	36.36	18.18	9.09	100.00(11)
중소도시	20.00	30.00	50.00	-	100.00(10)
읍면	-	-	-	100.00	100.00(1)
$\chi^2(df)$		13.20(6) ^(a)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5$.

다음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패널아동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진학 이후 전학 경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한 결과, 응답 대상 패널아동 중 96.36%가 전학을 경험하지 않고, 소수의 패널아동(3.64%)만 전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5〉 전학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학 경험 없음	전학 경험 있음	계(수)
전체	96.36	3.64	100.00(1265)
아동 성별			
남	96.76	3.24	100.00(649)
여	95.94	4.06	100.00(616)
$\chi^2(df)$		0.61(1)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99.23	0.77	100.00(130)
370 초과~570만원	93.94	6.06	100.00(363)
570 초과~770만원	98.13	1.88	100.00(320)
770만원 초과	96.26	3.74	100.00(374)
$\chi^2(df)$		12.03(3)**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1$.

2) 학교 특성

학교급 변동으로 인해 학교 유형이 다양해진 만큼 일반고등학교 외의 학교 유형에 진학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대부분은 일반고등학교(77.31%)가 재학 중이었으나, 직업 특성화 고등학교 11.1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3.16% 등에 다니는 사례도 있었다.

〈표 III-4-6〉 학교 유형

단위: %, (명)

구분	일반고	특성화 고(직업)	특성화 고(대안)	과학고	영재 학교	예술고	외고	체고	국제고	마이스 터고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 사립고	기타	(수)
전체	77.31	11.15	1.90	0.40	0.08	1.50	1.50	0.47	0.71	0.63	0.87	3.16	0.32	(1,265)
아동 성별														
남	76.89	11.25	1.69	0.31	0.15	1.08	0.46	0.92	0.62	1.08	1.23	4.01	0.31	(649)
여	77.76	11.04	2.11	0.49	-	1.95	2.60	-	0.81	0.16	0.49	2.27	0.32	(616)
$\chi^2(df)$						27.81(12)** ^(a)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71.54	19.23	1.54	-	-	0.77	-	-	-	1.54	1.54	3.85	-	(130)
370 초과-570만원	79.61	11.57	3.58	0.28	-	1.10	1.38	0.83	0.28	0.28	0.28	0.55	0.28	(363)
570 초과-770만원	76.88	12.19	0.94	0.63	-	2.19	1.88	0.63	0.63	0.31	0.63	3.13	-	(320)
770만원 초과	78.34	6.42	1.34	0.27	0.27	1.34	1.87	0.27	1.60	0.53	1.34	5.61	0.80	(374)
$\chi^2(df)$						65.45(36)** ^(a)								
지역규모														
대도시	73.79	12.90	1.21	0.40	0.20	2.02	1.61	0.60	0.81	0.81	0.60	4.64	0.40	(496)
중소도시	79.46	10.13	2.00	0.43	-	1.14	1.57	0.29	0.71	0.57	1.14	2.28	0.29	(701)
읍면	80.88	8.82	5.88	-	-	1.47	-	1.47	-	-	-	1.47	-	(68)
$\chi^2(df)$						26.12(24) ^(a)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1$.

패널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성별에 따른 학급 구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남녀공학 비율이 67.67%로 나타났으며, 남녀공학을 재학 중인 패널아동 중 85.28%가 남녀합반으로 구성된 학급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7〉 남녀공학 여부

단위: %, (명)

구분	남녀공학_합반	남녀공학_분반	남학교 혹은 여학교	계(수)
전체	57.71	9.96	32.33	100.00(1,265)
지역규모				
대도시	39.92	15.93	44.15	100.00(496)
중소도시	69.90	6.13	23.97	100.00(701)
지역규모	61.76	5.88	32.35	100.00(68)
학교유형				
일반고	56.17	10.49	33.33	100.00(1,077)
특성학교	66.49	6.91	26.60	100.00(188)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아동 재학 중인 학교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담임교사가 느끼는 학교 풍토를 총 3가지 차원(교사 풍토 4문항, 학생 풍토 5문항, 학부모 풍토 3문항)에서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담임교사가 느끼는 패널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 교사의 전반적인 풍토는 평균 3.17~3.62점으로 4점 척도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 중 ‘열심히 가르치려는 의지’가 평균 3.62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교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건의’는 평균 3.17점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열심히 가르치려는 의지’에 대한 질문에서 학교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성학교에 비해 일반고에서 교사가 ‘열심히 가르치려는 의지’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III-4-8〉 학교 풍토: 교사 풍토

단위: 점, (명)

구분	열심히 가르치려는 의지		교사 간 신뢰와 협력		학교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건의		학생생활 지도를 위한 노력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62	0.52	3.46	0.61	3.17	0.77	3.50	0.59	(279)
지역규모									
대도시	3.63	0.52	3.48	0.66	3.17	0.78	3.51	0.61	(123)
중소도시	3.64	0.51	3.47	0.57	3.18	0.79	3.53	0.58	(137)
읍면	3.37	0.50	3.26	0.56	3.11	0.66	3.26	0.56	(19)
F	2.38		1.09		0.08		1.68		

구분	열심히 가르치려는 의지		교사 간 신뢰와 협력		학교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건의		학생생활 지도를 위한 노력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교유형									
일반고	3.66	0.49	3.48	0.60	3.20	0.78	3.52	0.57	(233)
특성화고	3.41	0.58	3.35	0.64	3.02	0.75	3.41	0.72	(46)
<i>t</i>	2.97**		1.40		1.45		1.11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매우 낮다~4.매우 높다).
 ** $p < .01$.

다음으로는 학생 풍토에 대해서 살펴보면, 평균 3.03~3.39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선생님에 대한 예의 바른 태도’가 평균 3.39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교 시설을 아끼는 마음’이 평균 3.03점으로 가장 낮았다. 특히, 제 특성별 차이에서 학교유형이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4-9〉 학교 풍토: 학생 풍토

단위: 점, (명)

구분	학교에 대한 자부심		선생님에 대한 예의 바른 태도		학교생활을 잘 하려는 의지		학업성취를 높이하고자 하는 의지		학교 시설을 아끼려는 마음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07	0.71	3.39	0.65	3.28	0.69	3.12	0.81	3.03	0.75	(279)
지역규모											
대도시	3.06	0.73	3.40	0.71	3.27	0.75	3.08	0.86	2.99	0.73	(123)
중소도시	3.09	0.71	3.39	0.61	3.28	0.64	3.17	0.75	3.08	0.76	(137)
읍면	3.00	0.58	3.32	0.58	3.37	0.60	3.00	0.88	2.84	0.76	(19)
<i>F</i>	0.15		0.13		0.18		0.58		1.07		
학교유형											
일반고	3.12	0.66	3.46	0.59	3.35	0.62	3.18	0.77	3.07	0.72	(233)
특성화고	2.83	0.88	3.02	0.83	2.93	0.88	2.80	0.93	2.78	0.81	(46)
<i>t</i>	2.56*		4.29***		3.87***		2.91**		2.43*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매우 낮음~4.매우 높음).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학부모 풍토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2.97~3.09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학부모의 지원’이 평균 3.09점으로 가장 높았고, ‘학교 교육활동 및 행사에 대한 참여 및 지원’이 평균 2.97점으로 가장 낮았다. 학부모 풍토도 학생 풍토처럼 제 특성별 차이에서 학교유형이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4-10〉 학교 풍토: 학부모 풍토

단위: 점, (명)

구분	자녀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학부모의 요구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학부모의 지원		학교 교육활동 및 행사에 대한 참여 및 지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00	0.73	3.09	0.72	2.97	0.72	(279)
지역규모							
대도시	2.95	0.81	3.11	0.79	2.95	0.78	(123)
중소도시	3.07	0.65	3.11	0.65	3.00	0.69	(137)
읍면	2.79	0.71	2.84	0.76	2.89	0.66	(19)
<i>F</i>	1.76		1.23		0.26		
학교유형							
일반고	3.08	0.69	3.17	0.69	3.04	0.68	(233)
특성화고	2.59	0.80	2.70	0.76	2.63	0.85	(46)
<i>t</i>	4.33***		4.20***		3.57***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매우 낮음~4.매우 높음).

*** $p < .001$.

패널아동의 담임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학교 학생의 비행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문항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문제(일탈)행동을 지도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평균 2.48점,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문제(일탈)행동이 자주 발생한다’ 평균 2.12점으로 나타났다.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학교유형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두 항목 모두 패널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가 일반고등학교보다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비행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1〉 학생비행

단위: 점, (명)

구분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문제(일탈)행동이 자주 발생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문제(일탈)행동을 지도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12	0.95	2.48	1.12	(279)
지역규모					
대도시	2.08	1.00	2.40	1.11	(123)
중소도시	2.17	0.91	2.59	1.13	(137)
읍면	2.00	0.88	2.21	0.98	(19)
<i>F</i>	0.43		1.56		
학교유형					
일반고	1.97	0.85	2.33	1.05	(233)
특성화고	2.85	1.09	3.24	1.16	(46)
<i>t</i>	-6.05***		-5.27***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01$.

3) 물리적 특성

다음은 패널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의 물리적 특성으로, 전체 학급수, 패널아동의 학급 학생수,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세부화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패널아동의 학교 1학년 전체 학급수는 평균 9.03개이었으며, 패널아동의 해당 학급의 학생수는 평균 24.78명으로 조사되었다. 학급 내 아동성별 비율은 1:0.73명으로 상대적으로 남성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규모 및 학교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규모가 읍면보다 도시지역일수록 학급수 및 학생수가 많았으며, 특성화고의 학급수 및 학생수보다 일반고의 학급수 및 학생수가 유의하게 많았다.



〈표 III-4-12〉 전체 학급수 및 해당 학급 학생수

단위: 학급, 명, (명)

구분	학급수		학생수		(수)	학급 내 아동성별 비율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9.03	2.62	24.78	4.73	(279)	0.73	0.91	(202)
지역규모								
대도시	8.97 ^b	2.16	24.67 ^b	4.68	(123)	0.76	1.16	(79)
중소도시	9.45 ^b	2.57	25.45 ^b	4.62	(137)	0.68	0.73	(108)
읍면	6.42 ^a	4.06	20.74 ^a	3.77	(19)	0.87	0.54	(15)
<i>F</i>		12.03 ^{***}		8.82 ^{***}			0.38	
학교유형								
일반고	9.16	2.45	25.82	4.14	(233)	0.75	0.75	(171)
특성화고	8.37	3.33	19.50	3.94	(46)	0.58	1.53	(31)
<i>t</i>		1.87		9.54 ^{***}			0.97	

주: 1) 학급 내 아동성별 비율=남학생 1명당 여학생수

2) 담임교사의 응답임.

*** $p < .001$.

패널아동의 담임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을 건물상태, 기자재 및 시설, 주변환경, 통학조건(교통 편의성)의 4가지 차원에서 5점 척도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건물상태 평균 3.65점, 기자재 및 시설 평균 3.84점, 주변환경 평균 3.82점, 통학조건(교통 편의성) 평균 3.44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학교 주변환경에서 특성화고등학교보다 일반고등학교의 학교 주변환경이 유의하게 인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3〉 학교 환경에 대한 인식

단위: 점, (명)

구분	건물상태		기자재 및 시설		주변환경		통학조건(교통 편의성)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65	0.99	3.84	0.91	3.82	0.87	3.44	1.08	(279)
지역규모									
대도시	3.69	1.00	3.95	0.85	3.85	0.84	3.52	1.13	(123)
중소도시	3.66	0.90	3.79	0.88	3.85	0.87	3.43	1.05	(137)
읍면	3.26	1.37	3.47	1.35	3.42	1.02	3.00	1.00	(19)
<i>F</i>		1.58		2.72		2.17		1.92	
학교유형									
일반고	3.62	1.01	3.81	0.92	3.88	0.82	3.46	1.06	(233)
특성화고	3.76	0.87	3.98	0.86	3.50	1.05	3.33	1.21	(46)
<i>t</i>		-0.87		-1.14		2.76 ^{**}		0.79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나쁘다-5.매우 좋다).

** $p < .01$.

4) 교사 특성

교사 특성으로는 패널아동의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 성별 및 경력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인과 업무 스트레스 및 효능감에 대한 심리·정서적 특성 변인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패널아동의 담임교사 중 수학을 담당하는 담임교사가 14.70%로 가장 높았으며, 국어 13.62%, 영어 12.54%, 과학 12.1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14〉 교사 담당과목

단위: %, (명)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기술 가정	체육	예술	한문	제2 외국어	교양	기타	계(수)
13.62	12.54	14.70	11.11	12.19	8.96	1.79	4.66	7.53	1.79	1.43	-	9.68	(279)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교사 조사의 조사대상인 패널아동의 담임교사 성별은 여성 57.35%, 남성 42.65%로 상대적으로 여성인 교사가 많게 나타났으며, 교사 경력은 평균 11.42년으로 조사되었다.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교사 경력에서 지역규모 및 학교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읍면지역보다 도시지역일수록, 특성화고보다 일반 고등학교일수록 평균 교사 경력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4-15〉 교사 성별 및 경력

단위: %, (명), 년

구분	교사 성별		계(수)	교사 경력		(수)
	여	남		평균	표준편차	
전체	57.35	42.65	100.00(279)	11.42	8.44	(279)
지역규모						
대도시	52.85	47.15	100.00(123)	12.84 ^b	8.70	(123)
중소도시	61.31	38.69	100.00(137)	10.84 ^b	8.08	(137)
읍면	57.89	42.11	100.00(19)	6.47 ^a	7.16	(19)
$\chi^2(df)/F$	1.90(2)			5.49**		
학교유형						
일반고	56.65	43.35	100.00(233)	11.87	8.53	(233)
특성화고	60.87	39.13	100.00(46)	9.15	7.67	(46)
$\chi^2(df)/t$	0.28(1)			2.01*		

주: 담임교사의 응답임.

* $p < .05$, ** $p < .01$.

패널아동의 담임교사가 느끼는 업무 스트레스 정도를 총 4개의 차원으로 구성된 질문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항목별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개의 차원 중 행정업무 스트레스 정도가 평균 3.1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생활지도 평균 2.90점, 학부모와의 관계 평균 2.55점, 수업지도 평균 2.54점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지도 및 행정업무 스트레스의 경우 패널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일반고등학교보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의 생활지도 및 행정업무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4-16〉 교사 업무 스트레스

단위: 점, (명)

구분	학부모와 관계		생활지도		수업지도		행정업무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55	1.08	2.90	1.08	2.54	0.92	3.18	1.09	(279)
교사 경력									
10년차 이하	2.55	1.15	2.89	1.14	2.60	0.96	3.14	1.14	(159)
11~20년	2.62	0.97	3.05	1.01	2.50	0.90	3.29	1.07	(76)
21~30년	2.51	1.04	2.84	0.96	2.41	0.80	3.16	1.01	(37)
31년차 이상	2.00	0.82	2.00	0.82	2.29	0.76	2.71	0.76	(7)
<i>F</i>	0.72		2.19		0.74		0.73		
지역규모									
대도시	2.47	1.09	2.85	1.16	2.46	0.93	3.19	1.08	(123)
중소도시	2.61	1.06	2.96	1.00	2.58	0.92	3.14	1.11	(137)
읍면	2.63	1.21	2.79	1.13	2.74	0.87	3.37	1.07	(19)
<i>F</i>	0.56		0.44		1.02		0.38		
학교유형									
일반고	2.51	1.06	2.81	1.04	2.49	0.90	3.10	1.06	(233)
특성화고	2.76	1.16	3.37	1.20	2.78	1.01	3.54	1.21	(46)
<i>t</i>	-1.46		-3.25**		-1.96		-2.52*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5.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 $p < .05$, ** $p < .01$.

다음은 패널아동 담임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대해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들에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인다’ 등 9개로 구성된 문항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이다. 응답 대상의 교사효능감 평균 점수는 4.06점으로 나타났다.

〈표 III-4-17〉 교사효능감

단위: 점,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4.06	0.44	(279)
교사 경력			
10년차 이하	4.02	0.44	(159)
11~20년	4.12	0.45	(76)
21~30년	4.15	0.44	(37)
31년차 이상	4.03	0.12	(7)
<i>F</i>	1.46		
지역규모			
대도시	4.12	0.46	(123)
중소도시	4.02	0.41	(137)
읍면	4.00	0.49	(19)
<i>F</i>	1.94		
학교유형			
일반고	4.07	0.46	(233)
특성화고	4.01	0.34	(46)
<i>t</i>	0.93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5) 학급 운영

패널아동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패널아동의 학교적응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6개의 차원(학업성취도, 학업에 대한 열의, 교우관계, 학교 질서규칙, 정서적 안정, 인성)으로 6개의 문항을 구성하여 5점 척도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우선, 학업성취도, 학업에 대한 열의, 교우관계 정도를 살펴보면, 교우관계 평균 4.23점, 학업에 대한 열의 평균 3.66점, 교우관계 평균 4.23점으로 나타났다. 제 특성별로는 학교유형에 3개의 차원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성화고등학교보다 일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의 학업성취도, 학업에 대한 열의, 교우관계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4-18〉 교사-아동 인식(1)

단위: 점, (명)

구분	학업성취도		학업에 대한 열의		교우관계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30	1.07	3.66	1.14	4.23	0.88	(279)
교사 경력							
10년차 이하	3.28	1.02	3.57	1.14	4.14	0.94	(159)
11~20년	3.38	1.11	3.82	1.07	4.41	0.75	(76)
21~30년	3.22	1.18	3.68	1.18	4.22	0.89	(37)
31년차 이상	3.43	1.27	3.86	1.57	4.43	0.53	(7)
<i>F</i>		0.28		0.86		1.73	
학교유형							
일반고	3.36	1.09	3.74	1.11	4.31	0.80	(233)
특성화고	2.98	0.91	3.24	1.18	3.80	1.13	(46)
<i>t</i>		2.26*		2.78**		3.65***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패널아동의 학교 질서규칙, 정서적 안정, 인성에 대한 정도를 살펴보면, 인성 평균 4.50점, 학교 질서규칙 평균 4.47점, 정서적 안정 평균 4.18점으로 나타났다.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교사 경력에 따라 학교 질서규칙 및 인성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교사 경력이 10년차 이하인 집단보다 31년차 이상인 집단일수록 인성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특성화고인 집단보다 일반고인 집단일수록 정서적 안정 및 인성 점수가 유효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II-4-19〉 교사-아동 인식(2)

단위: 점, (명)

구분	학교 질서규칙		정서적 안정		인성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4.47	0.77	4.18	0.90	4.50	0.73	(279)
교사 경력							
10년차 이하	4.33 ^a	0.85	4.06	0.93	4.38 ^a	0.78	(159)
11~20년	4.63 ^a	0.61	4.38	0.82	4.67 ^{ab}	0.60	(76)
21~30년	4.62 ^a	0.68	4.27	0.93	4.59 ^{ab}	0.69	(37)
31년차 이상	4.86 ^a	0.38	4.43	0.53	5.00 ^b	-	(7)
<i>F</i>		3.96**		2.61		4.35**	

구분	학교 질서규칙		정서적 안정		인성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학교유형							
일반고	4.50	0.71	4.26	0.83	4.55	0.67	(233)
특성화고	4.28	1.03	3.80	1.13	4.26	0.93	(46)
<i>t</i>	1.77		3.17**		2.48*		

주: 1) 담임교사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 $p < .01$.

6) 가정협력

패널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주최한 학교 행사에 대해서 부모의 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7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자녀 관련 상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1~2회 참여 횟수 비율을 살펴보면, ‘자녀 관련 상담’의 경우 52.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진학설명회’ 32.09%, ‘부모교육 프로그램’ 19.68%, ‘기타 학교방문’ 17.8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20〉 부모의 학교생활 참여 횟수

단위: %, (명)

구분	전혀 없음	상반기 1~2회	상반기 3~4회	상반기 5회 이상	계(수)
자녀 관련 상담	44.58	52.25	2.61	0.55	100.00(1,265)
학교 내 자원봉사 활동	90.83	7.27	1.42	0.47	100.00(1,265)
학교 내 학부모단체 가입 및 활동	83.40	13.68	2.13	0.79	100.00(1,265)
부모교육 프로그램	77.79	19.68	2.37	0.16	100.00(1,265)
타부모들과 정보교류 모임	81.19	14.47	2.53	1.82	100.00(1,265)
진학설명회	65.93	32.09	1.66	0.32	100.00(1,265)
기타 학교방문	79.21	17.87	1.74	1.19	100.00(1,265)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아동이 재학 중인 학교 서비스 만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9개의 항목을 5점 척도로 조사를 하였다. 우선, ‘기초능력향상’, ‘자녀수준에 맞는 교육’, ‘교사들의 공정한 학생평가’, ‘학교급식’, ‘안전관리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안전관리 교육’이 평균 3.72점으로 가장 높았고, ‘교사들의 공정한 학생평가’

및 '학교급식'이 각각 평균 3.65점, '기초능력 향상' 및 '자녀수준에 맞는 교육'이 각각 평균 3.62점 순으로 나타났다. 제 특성별로는 아동의 성별 및 지역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패널아동의 성별이 남성일수록 '학교급식' 만족도가 높았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읍면에 거주하는 집단일수록 '기초능력 향상', '자녀수준에 맞는 교육', '학교급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 '인성지도', '학교 시설환경',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만족도 현황을 살펴보면,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가 평균 3.7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성지도' 평균 3.66점, '학교 시설환경'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가 각각 평균 3.65점 순으로 나타났다. 제 특성별로는 지역규모 및 학교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집단보다 읍면에 거주하는 집단일수록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 '인성지도' 만족도가 높았으며, 일반고보다는 특성화고 재학 집단일수록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표 III-4-21〉 학교 서비스 만족도(1)

단위: 점, (명)

구분	기초능력 향상		자녀수준에 맞는 교육		교사들의 공정한 학생평가		학교급식		안전관리 교육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62	0.64	3.62	0.68	3.65	0.68	3.65	0.83	3.72	0.66	(1,265)
아동 성별											
남	3.62	0.65	3.64	0.68	3.66	0.68	3.71	0.81	3.74	0.67	(649)
여	3.61	0.62	3.59	0.68	3.64	0.67	3.58	0.84	3.69	0.66	(616)
<i>t</i>	0.21		1.31		0.52		2.75**		1.46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3.59	0.55	3.55	0.66	3.65	0.61	3.60	0.79	3.69	0.63	(130)
370 초과-570만원	3.61	0.64	3.64	0.67	3.64	0.68	3.71	0.77	3.70	0.69	(363)
570 초과-770만원	3.59	0.63	3.62	0.68	3.69	0.64	3.66	0.82	3.76	0.64	(320)
770만원 초과	3.66	0.67	3.65	0.70	3.66	0.72	3.63	0.89	3.74	0.67	(374)
<i>F</i>	0.71		0.72		0.34		0.76		0.59		
지역규모											
대도시	3.63 ^{ab}	0.63	3.64 ^{ab}	0.69	3.68	0.69	3.66 ^{ab}	0.82	3.72	0.66	(496)
중소도시	3.59 ^a	0.64	3.59 ^a	0.67	3.62	0.66	3.62 ^a	0.84	3.70	0.66	(701)
읍면	3.78 ^b	0.62	3.81 ^b	0.70	3.79	0.68	3.93 ^b	0.70	3.90	0.67	(68)
<i>F</i>	3.11*		3.41*		2.68		4.32*		2.69		
학교유형											
일반고	3.63	0.63	3.61	0.66	3.66	0.67	3.63	0.83	3.72	0.66	(1077)
특성화고	3.55	0.67	3.65	0.78	3.63	0.69	3.74	0.83	3.71	0.68	(188)
<i>t</i>	1.46		-0.64		0.44		-1.61		0.23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

* $p < .05$, ** $p < .01$.

〈표 III-4-22〉 학교 서비스 만족도(2)

단위: 점, (명)

구분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		인성지도		학교 시설환경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70	0.70	3.66	0.72	3.65	0.74	3.65	0.68	(1,265)
아동 성별									
남	3.71	0.70	3.66	0.72	3.66	0.73	3.67	0.69	(649)
여	3.69	0.69	3.66	0.71	3.64	0.74	3.63	0.68	(616)
<i>t</i>	0.44		0.12		0.52		0.97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3.65	0.69	3.61	0.71	3.55	0.72	3.56	0.73	(130)
370 초과-570만원	3.69	0.68	3.64	0.73	3.65	0.72	3.63	0.67	(363)
570 초과-770만원	3.73	0.67	3.71	0.67	3.68	0.72	3.67	0.65	(320)
770만원 초과	3.74	0.74	3.67	0.74	3.67	0.76	3.70	0.68	(374)
<i>F</i>	0.66		0.85		1.12		1.54		
지역규모									
대도시	3.72 ^{ab}	0.72	3.68 ^{ab}	0.70	3.67	0.74	3.66	0.68	(496)
중소도시	3.67 ^a	0.69	3.62 ^a	0.72	3.62	0.74	3.62	0.69	(701)
읍면	3.91 ^b	0.64	3.91 ^b	0.82	3.76	0.63	3.81	0.63	(68)
<i>F</i>	3.92 [*]		5.37 ^{**}		1.64		2.38		
학교유형									
일반고	3.68	0.69	3.65	0.72	3.64	0.74	3.65	0.68	(1077)
특성화고	3.83	0.73	3.74	0.71	3.69	0.71	3.67	0.69	(188)
<i>t</i>	-2.73 ^{**}		-1.72		-0.89		-0.46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
 * $p < .05$, ** $p < .01$.

나. 사교육 특성

한국아동패널에서 조사변인으로 조사된 사교육 특성으로는 크게 학교 수업 외 교육, 사교육, EBS를 중심으로 하여, 이용 여부, 유형 및 만족도, 비용, 부담 정도, 인식 정도 등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다.

학교 수업 외 교육으로는 학원, 가정 내 개인 및 그룹지도(과외), 학습지, 인터넷 및 화상 강의, 교내 방과후 교실, 청소년/수련관/도서관 등 공공기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교육은 학교 수업 외 교육 및 EBS를 제외한 교육을 사교육으로 정의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1) 사교육 이용 여부 및 종류

보호자를 대상으로 패널아동이 이용한 학교 수업 외의 교육 및 사교육, EBS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수업 외의 교육을 이용한 비율이 80.96%로 조사되었으며, 사교육을 이용한 비율은 72.42%, EBS를 이용한 비율은 39.47%로 나타났다. 제 특성별로 살펴보면, 패널아동 성별, 가구소득, 지역규모, 학교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사교육 이용 여부에서는 여학생일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도시 지역일수록, 일반고등학교 재학 중인 집단일수록 사교육 이용비율이 높았고, EBS의 경우 여학생일수록 일반고등학교 재학 중인 집단일수록 EBS 이용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4-23〉 학교 수업 이외 교육 및 사교육, EBS 여부

단위: %, (명)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여부			사교육 여부			EBS 여부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계(수)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계(수)	이용함	이용하지 않음	계(수)
전체	80.96	19.04	100(1,287)	72.42	27.58	100(1,287)	39.47	60.53	100(1,277)
아동 성별									
남	78.33	21.67	100(660)	69.85	30.15	100(660)	33.64	66.36	100(654)
여	83.73	16.27	100(627)	75.12	24.88	100(627)	45.59	54.41	100(623)
$\chi^2(df)$	6.09(1)(a)			4.23(1)*			19.06(1)***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66.92	33.08	100(133)	55.64	44.36	100(133)	32.81	67.19	100(128)
370 초과-570만원	75.76	24.24	100(363)	67.49	32.51	100(363)	41.50	58.50	100(359)
570 초과-770만원	85.89	14.11	100(326)	76.69	23.31	100(326)	40.37	59.63	100(322)
770만원 초과	87.82	12.18	100(386)	80.57	19.43	100(386)	38.27	61.73	100(371)
$\chi^2(df)$	40.88(3)(a)			39.24(3)***			3.31(3)		
지역규모									
대도시	87.18	12.82	100(507)	77.32	22.68	100(507)	42.28	57.72	100(492)
중소도시	78.06	21.94	100(711)	70.89	29.11	100(711)	36.62	63.38	100(699)
읍면	65.22	34.78	100(69)	52.17	47.83	100(69)	44.12	55.88	100(68)
$\chi^2(df)$	27.7(2)(a)			21.08(2)***			4.59(2)		
학교유형									
일반고	88.02	11.98	100(1077)	81.24	18.76	100(1077)	43.53	56.47	100(1059)
특성화고	43.09	56.91	100(188)	25.53	74.47	100(188)	16.02	83.98	100(181)
$\chi^2(df)$	212.99(1)(a)			251.85(1)***			48.94(1)***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5$, *** $p < .001$.

보호자 대상으로 패널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 항목별로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응답 현황을 살펴보면, 수학 과목을 위해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이 8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어 805명, 국어 482명, 과학 296명 순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 이용 서비스를 살펴보면, 국어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코딩 등, 기타 과목에서 과반수가 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논술의 경우 학원 41.86%, 인터넷/화상 강의 37.21%, 사회의 경우 인터넷/화상 강의 71.20%를 보였다.

〈표 III-4-24〉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학원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학습지(방문교사)	인터넷/화상 강의	교내 방과후 교실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수)
국어	69.50	6.64	1.45	18.67	5.81	0.83	(482)
논술	41.86	16.28	2.33	37.21	-	2.33	(43)
영어	79.50	11.30	0.99	8.94	1.99	0.12	(805)
수학	81.92	10.92	1.06	6.69	2.23	0.12	(852)
사회	18.40	7.20	-	71.20	4.80	0.80	(125)
과학	51.69	6.08	0.68	38.18	4.73	0.68	(296)
음악	57.78	26.67	-	8.89	2.22	8.89	(45)
미술	81.58	7.89	-	5.26	2.63	2.63	(38)
체육	62.65	9.64	-	1.20	21.69	4.82	(83)
컴퓨터, 코딩 등	55.00	5.00	-	5.00	35.00	5.00	(20)
기타	73.33	4.44	2.22	2.22	13.33	4.44	(45)

주: 보호자의 응답임.

다음은 과목별 EBS 시청시간을 조사한 결과이다. 우선, EBS를 이용하여 시청한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평균 시청시간을 살펴보면, EBS를 이용하여 수학 과목을 시청한 대상의 평균 시청시간은 평균 2.02시간이었으며, 국어 평균 1.80시간, 영어 평균 1.55시간으로 나타났다. 제 특성별로는 국어 과목만이 가구소득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뿐 다른 특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BS를 이용하여 시청한 사회, 과학, 기타 과목의 평균 시청시간을 살펴보면, EBS를 이용하여 기타 과목을 시청한 대상의 평균 시청시간은 평균 3.05시간이었으며, 과학 평균 2.03시간, 사회 평균 1.48시간으로 나타났다. 제 특성별로는 사회

과목의 경우 가구소득 및 학교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학교유형의 경우 일반고가 아닌 특성화고 재학 중인 집단일수록 EBS로 사회과목을 시청하는 시간이 유효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5〉 과목별 EBS 시청시간(1)

단위: 시간, (명)

	국어			영어			수학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80	1.73	(223)	1.55	1.79	(137)	2.02	2.10	(236)
아동 성별									
남	1.75	1.82	(102)	1.38	1.61	(62)	2.29	2.55	(113)
여	1.83	1.65	(121)	1.70	1.92	(75)	1.77	1.56	(123)
<i>t</i>	-0.34			-1.05			1.86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2.03 ^a	1.56	(19)	1.83	1.74	(12)	2.42	1.94	(24)
370 초과-570만원	1.49 ^a	1.12	(74)	1.49	1.75	(49)	1.89	1.71	(83)
570 초과-770만원	1.59 ^a	1.47	(58)	1.33	1.53	(27)	2.05	2.70	(52)
770만원 초과	2.25 ^a	2.39	(57)	1.67	2.12	(42)	1.80	2.02	(61)
<i>F</i>	2.66*			0.29			0.57		
지역규모									
대도시	1.80	1.85	(89)	1.65	2.28	(55)	1.98	2.13	(92)
중소도시	1.83	1.69	(122)	1.55	1.43	(74)	2.12	2.24	(122)
읍면	1.63	1.22	(8)	0.92	0.66	(6)	1.56	0.79	(16)
<i>F</i>	0.05			0.46			0.53		
학교유형									
일반고	1.78	1.68	(204)	1.57	1.83	(123)	2.02	2.15	(212)
특성화고	2.29	2.53	(14)	1.54	1.57	(12)	1.93	1.76	(15)
<i>t</i>	-1.04			0.04			0.15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표 III-4-26〉 과목별 EBS 시청시간(2)

단위: 시간, (명)

	사회			과학			기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1.48	1.45	(133)	2.03	3.43	(242)	3.05	12.26	(82)
아동 성별									
남	1.51	1.67	(60)	1.84	1.90	(107)	5.44	19.80	(31)
여	1.45	1.26	(73)	2.18	4.27	(135)	1.61	1.56	(51)
<i>t</i>	0.22			-0.78			1.07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38 ^a	1.16	(13)	2.12	2.22	(25)	3.00	3.06	(5)
370 초과-570만원	0.95 ^a	0.91	(43)	1.40	1.05	(72)	1.76	3.13	(25)
570 초과-770만원	1.77 ^a	1.41	(35)	2.74	6.16	(62)	7.45	25.13	(19)
770만원 초과	1.91 ^a	2.06	(33)	2.01	1.90	(63)	1.56	1.14	(27)
<i>F</i>	3.31 [*]			1.59			0.96		
지역규모									
대도시	1.57	1.69	(54)	2.23	4.06	(108)	1.65	1.86	(33)
중소도시	1.38	1.25	(72)	1.85	3.02	(113)	4.77	17.64	(39)
읍면	1.90	1.95	(5)	1.93	1.53	(14)	0.89	0.49	(9)
<i>F</i>	0.50			0.34			0.72		
학교유형									
일반고	1.37	1.39	(123)	1.86	2.40	(226)	3.21	12.89	(74)
특성화고	2.71	1.38	(7)	2.06	3.26	(8)	1.57	1.37	(7)
<i>t</i>	-2.49 [*]			-0.23			0.33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일부 값에서 F값이 유의하더라도, 분석 보수성 정도에 차이가 있어 사후검정(Scheffe)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p < .05$.

2) 사교육 이용 특성

학교 외 교육 관련 서비스의 주당 평균 이용시간을 분석한 결과, 학원이 평균 10.76시간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화상 강의는 평균 6.59 시간,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는 평균 5.37시간, 학습지(방문교사)는 평균 3.12시간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나머지 유형의 학교 외 교육서비스의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5.60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III-4-27〉 학교 외 교육서비스 주당 평균 이용시간

단위: 시간, (명)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수)
학원	1.00	45.00	10.76	5.42	(814)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1.00	20.00	5.37	3.14	(160)
학습지(방문교사)	1.00	7.00	3.12	2.02	(13)
인터넷/화상 강의	0.50	45.00	6.59	7.22	(160)
그 외	1.00	24.00	5.60	4.67	(42)

주: 보호자의 응답임.

학교 외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만족한다’는 대답이 53.39%, ‘보통이다’가 38.35%, ‘대체로 만족하지 않는다’가 5.41%, ‘매우 만족한다’가 2.46%,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가 0.39%의 비율을 보였다. 지역규모별로 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대도시 및 중소도시보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일반고보다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4-28〉 학교 외 교육서비스 만족도

단위: %, (명), 점

	전혀 만족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39	5.41	38.35	53.39	2.46	100.00(1,017)	3.52	0.66
아동 성별								
남	0.60	5.98	37.85	52.79	2.79	100.00(502)	3.51	0.68
여	0.19	4.85	38.83	53.98	2.14	100.00(515)	3.53	0.63
$\chi^2(df)/t$			2.22(4) ^(a)					-0.44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	3.57	40.48	52.38	3.57	100.00(84)	3.56	0.63
370 초과-570만원	0.38	4.51	42.48	50.00	2.63	100.00(266)	3.50	0.65
570 초과-770만원	0.36	7.25	38.41	52.54	1.45	100.00(276)	3.47	0.67
770만원 초과	0.60	4.17	33.04	59.82	2.38	100.00(336)	3.59	0.64
$\chi^2(df)/F$			12.62(12) ^(a)					1.95
지역규모								
대도시	0.47	4.91	37.38	54.44	2.80	100.00(428)	3.54 ^a	0.66
중소도시	0.37	6.22	40.59	51.01	1.83	100.00(547)	3.48 ^a	0.66
읍면	-	-	19.05	73.81	7.14	100.00(42)	3.88 ^b	0.50
$\chi^2(df)/F$			17.05(8) ^(a)					7.86 ^{***}

	전혀 만족하지 않음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만족함	매우 만족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학교유형								
일반고	0.43	5.46	39.29	53.00	1.82	100.00(934)	3.50	0.65
특성화고	-	5.71	28.57	57.14	8.57	100.00(70)	3.69	0.71
$\chi^2(df)/t$			15.42(4)**(a)					-2.08*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5$, ** $p < .01$, *** $p < .001$.

패널아동이 이용한 학교 외 교육서비스의 월평균 이용 비용을 매체별로 살펴본 결과, 학원은 월평균 69.66만원,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는 57.12만원, 학습지(방문교사)는 16.85만원, 인터넷/화상 강의는 14.38만원, 그 외 교육서비스는 8.90만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29> 학교 외 교육서비스 월평균 이용 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수)
학원	0.00	200.00	69.66	31.19	(814)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0.00	400.00	57.12	45.46	(160)
학습지(방문교사)	2.00	50.00	16.85	14.28	(13)
인터넷/화상 강의	0.00	90.00	14.38	17.40	(160)
그 외	0.00	60.00	8.90	12.64	(42)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아동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학교 외 교육서비스의 이용 비용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부담되는 편’이라고 응답한 보호자가 41.89%, ‘적당하다’가 ‘30.19%’ ‘부담되지 않는 편이다’가 ‘12.88%’,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가 7.87%, ‘매우 부담된다’가 7.18%의 비율을 보였다. 부담 정도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았고, 특성화고 패널가구의 이용 부담이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III-4-30〉 학교 외 교육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 정도

단위: %, (명), 점

	전혀 부담되지 않음	부담되지 않는 편	적당	부담되는 편	매우 부담됨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7.87	12.88	30.19	41.89	7.18	100.00(1,017)	3.28	1.04
아동 성별								
남	9.76	10.16	30.68	43.03	6.37	100.00(502)	3.26	1.05
여	6.02	15.53	29.71	40.78	7.96	100.00(515)	3.29	1.02
$\chi^2(df)/t$			11.50(4)*					-0.47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0.71	7.14	21.43	46.43	14.29	100.00(84)	3.46 ^b	1.16
370 초과-570만원	4.89	10.53	28.20	46.99	9.40	100.00(266)	3.45 ^b	0.97
570 초과-770만원	6.88	13.04	26.81	46.74	6.52	100.00(276)	3.33 ^b	1.01
770만원 초과	10.12	15.77	35.42	34.23	4.46	100.00(336)	3.07 ^a	1.04
$\chi^2(df)/F$			37.89(12)***					8.33***
지역규모								
대도시	7.71	10.98	30.37	44.16	6.78	100.00(428)	3.31	1.02
중소도시	7.68	13.89	29.25	41.50	7.68	100.00(547)	3.28	1.05
읍면	11.90	19.05	40.48	23.81	4.76	100.00(42)	2.90	1.05
$\chi^2(df)/F$			9.87(8)					2.98
학교유형								
일반고	6.85	12.42	30.73	42.83	7.17	100.00(934)	3.31	1.01
특성학교	20.00	15.71	25.71	32.86	5.71	100.00(70)	2.89	1.23
$\chi^2(df)/t$			17.32(4)**					3.34***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패널아동 보호자에게 패널아동이 사교육을 받는 주된 이유를 조사하였다. ‘① 진학준비(특목고, 대입 등 준비)’가 58.31%로 가장 높았고, ‘④ 학교 수업 보충(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등)’이 19.47%, ‘③ 선행학습(학교 수업을 받는 데 유리해서 등)’이 13.57%, ‘② 불안심리(남들이 다 하는데 안하면 성적이 떨어질까봐,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으므로 등)’가 4.03%, ‘⑥ 취미·교양·재능개발’ 3.24%, ‘⑦ 기타(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등 기타 이유)’ 1.08%, ‘⑤ 자녀 감독(혼자 있거나, 집에 있는 경우 무엇을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이 0.2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31〉 사교육 이용 이유: 1순위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계(수)
전체	58.31	4.03	13.57	19.47	0.29	3.24	1.08	100.00(1,017)
아동 성별								
남	57.37	3.78	13.75	18.92	0.40	4.18	1.59	100.00(502)
여	59.22	4.27	13.40	20.00	0.19	2.33	0.58	100.00(515)
$\chi^2(df)$				5.93(6)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45.24	3.57	11.90	27.38	-	9.52	2.38	100.00(84)
370 초과~570만원	54.51	5.26	18.05	18.80	-	2.26	1.13	100.00(266)
570 초과~770만원	59.78	4.35	11.96	18.84	0.72	3.26	1.09	100.00(276)
770만원 초과	63.39	3.57	11.01	18.45	0.30	2.38	0.89	100.00(336)
$\chi^2(df)$				30.91(18) ^(a)				
지역규모								
대도시	60.98	3.74	13.55	16.59	0.23	3.97	0.93	100.00(428)
중소도시	56.49	4.39	13.16	22.12	0.18	2.56	1.10	100.00(547)
읍면	54.76	2.38	19.05	14.29	2.38	4.76	2.38	100.00(42)
$\chi^2(df)$				15.86(12) ^(a)				
학교유형								
일반고	59.10	4.18	13.81	19.91	0.21	2.03	0.75	100.00(934)
특성학교	48.57	2.86	12.86	14.29	-	17.14	4.29	100.00(70)
$\chi^2(df)$				59.08(6) ^{***(a)}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① 진학준비(특목고, 대입 등 준비), ② 불안심리(남들이 다 하는데 안하면 성적이 떨어질까봐,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으므로 등), ③ 선행학습(학교 수업을 받는 데 유리해서 등), ④ 학교 수업 보충(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등), ⑤ 자녀 감독(혼자 있거나, 집에 있는 경우 무엇을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⑥ 취미·교양·재능개발, ⑦ 기타(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등 기타 이유).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5$, *** $p < .001$.

패널아동의 사교육 이용 이유를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비율로 살펴보면, 진학준비(특목고, 대입 등 준비)가 76.40%로 가장 높았고, 학교 수업 보충(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등)이 46.90%, 선행학습(학교 수업을 받는 데 유리해서 등)이 41.99%, 불안심리(남들이 다 하는데 안하면 성적이 떨어질까봐,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으므로 등)가 19.57%, 취미·교양·재능개발 9.54%, 기타(친구들 사귀기 위해서 등 기타 이유) 3.15%, 자녀 감독(혼자 있거나, 집에 있는 경우 무엇을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2.46%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4-32〉 사교육 이용 이유: 1+2순위

단위: %, (명)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수)
전체	76.40	19.57	41.99	46.90	2.46	9.54	3.15	(1,017)
아동 성별								
남	76.49	18.53	41.43	46.61	2.59	9.96	4.38	(502)
여	76.31	20.58	42.52	47.18	2.33	9.13	1.94	(515)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71.43	19.05	35.71	53.57	3.57	11.90	4.76	(84)
370 초과-570만원	75.19	19.55	42.86	48.50	2.63	8.65	2.63	(266)
570 초과-770만원	76.09	19.20	42.39	46.01	2.90	10.14	3.26	(276)
770만원 초과	79.17	19.35	42.86	44.35	1.79	9.52	2.98	(336)
지역규모								
대도시	77.80	18.69	41.82	45.33	2.57	10.05	3.74	(428)
중소도시	76.05	19.74	42.05	48.45	2.38	8.96	2.38	(547)
읍면	66.67	26.19	42.86	42.86	2.38	11.90	7.14	(42)
학교유형								
일반고	76.87	20.34	43.15	47.64	2.25	7.60	2.14	(934)
특성학교	70.00	10.00	31.43	40.00	4.29	31.43	12.86	(70)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① 진학준비(특목고, 대입 등 준비), ② 불안심리(남들이 다 하는데 안하면 성적이 떨어질까봐,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으므로 등), ③ 선행학습(학교 수업을 받는 데 유리해서 등), ④ 학교 수업 보충(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등), ⑤ 자녀 감독(혼자 있거나, 집에 있는 경우 무엇을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⑥ 취미·교양·재능개발, ⑦ 기타(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등 기타 이유).

사교육을 위한 월평균 교재비는 5.87만원으로 나타났다. 교재에 월평균 비용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더 높다고 나타났으며, 일반고에 재학하는 아동의 월평균 교재비가 특성학교 아동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33〉 사교육 교재 월평균 비용

단위: 만원, (명)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수)
전체	0.00	45.00	5.87	5.70	(1,017)
아동 성별					
남	0.00	45.00	5.38	5.21	(502)
여	0.00	40.00	6.34	6.10	(515)
<i>t</i>				-2.68**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0.00	40.00	4.64 ^a	5.18	(84)
370 초과-570만원	0.00	45.00	5.23 ^{ab}	5.25	(266)
570 초과-770만원	0.00	45.00	6.29 ^{ab}	6.53	(276)
770만원 초과	0.00	40.00	6.40 ^b	5.57	(336)
<i>F</i>				3.79*	

구분	최소	최대	평균	표준편차	(수)
지역규모					
대도시	0.00	40.00	5.76	4.87	(428)
중소도시	0.00	45.00	5.90	6.11	(547)
읍면	0.00	45.00	6.50	7.76	(42)
<i>F</i>				0.34	
학교유형					
일반고	0.00	45.00	6.03	5.72	(934)
특성화고	0.00	35.00	3.93	5.05	(70)
<i>t</i>				2.98**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
 * $p < .05$, ** $p < .01$.

3) 아동의 사교육 이용 인식

패널아동이 인식한 사교육의 개수를 조사한 결과, '적당하다'고 인식한 비율이 75.38%였고, '적은 편이다'는 20.11%,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1%로 나타났다.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개수는 학교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일반고에 재학하는 아동이 특성화고에 재학하는 아동보다 사교육의 개수가 더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34〉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개수

구분	적은 편	적당한 편	많은 편	계(수)
전체	20.11	75.38	4.51	100.00(910)
아동 성별				
남	17.66	77.98	4.36	100.00(436)
여	22.36	73.00	4.64	100.00(474)
<i>χ²(df)</i>		3.29(2)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30.88	67.65	1.47	100.00(68)
370 초과-570만원	19.91	77.92	2.16	100.00(231)
570 초과-770만원	19.01	76.45	4.55	100.00(242)
770만원 초과	16.34	77.12	6.54	100.00(306)
<i>χ²(df)</i>		14.15(6)*		
지역규모				
대도시	21.28	72.87	5.85	100.00(376)
중소도시	19.46	77.02	3.52	100.00(483)
읍면	12.82	84.62	2.56	100.00(39)
<i>χ²(df)</i>		5.21(4)		

구분	적은 편	적당한 편	많은 편	계(수)
학교유형				
일반고	18.71	76.62	4.68	100.00(834)
특성화고	38.46	59.62	1.92	100.00(52)
$\chi^2(df)$		12.31(2)**		

주: 아동의 응답임.
* $p < .05$, ** $p < .01$.

패널아동이 인식한 사교육의 부담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2.31점으로 패널아동 스스로는 사교육을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 정도는 아동의 성별, 가구소득, 학교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III-4-35〉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부담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음	부담스럽지 않은 편	보통	부담스러운 편	매우 부담스러움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1.43	32.53	39.67	5.93	0.44	100.00(910)	2.31	0.89
아동 성별								
남	22.25	29.59	40.14	7.34	0.69	100.00(436)	2.35	0.93
여	20.68	35.23	39.24	4.64	0.21	100.00(474)	2.28	0.85
$\chi^2(df)/t$			6.50(4) ^(a)				1.04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27.94	36.76	27.94	5.88	1.47	100.00(68)	2.16	0.96
370 초과-570만원	23.38	33.33	38.53	4.33	0.43	100.00(231)	2.25	0.88
570 초과-770만원	22.31	30.99	39.67	6.61	0.41	100.00(242)	2.32	0.91
770만원 초과	17.65	32.68	43.14	6.21	0.33	100.00(306)	2.39	0.86
$\chi^2(df)/F$			10.67(12) ^(a)				1.79	
지역규모								
대도시	20.74	29.79	42.02	6.91	0.53	100.00(376)	2.37 ^b	0.91
중소도시	20.91	34.58	38.92	5.18	0.41	100.00(483)	2.30 ^b	0.87
읍면	38.46	30.77	25.64	5.13	-	100.00(39)	1.97 ^a	0.93
$\chi^2(df)/F$			10.80(8) ^(a)				3.62 [*]	
학교유형								
일반고	21.58	31.89	40.17	6.00	0.36	100.00(834)	2.32	0.89
특성화고	21.15	36.54	36.54	3.85	1.92	100.00(52)	2.29	0.91
$\chi^2(df)/t$			3.53(4) ^(a)				0.22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부담되지 않음~5.매우 부담스러움).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5$.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교육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패널아동을 대상으로 사교육 부담의 주된 이유를 조사하였다. 1순위로는, ‘학원/과외 수업시간이 길거나 많아서’가 37.93%로 가장 높았고, ‘학원/과외 숙제가 많아서’가 29.31%, ‘학원/과외비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까봐’가 12.07%, ‘학원/과외 수업내용이 어려워서’ 8.62%, ‘학원/과외가 너무 늦은 시간에 끝나서’ 5.17%, ‘학원/과외 장소까지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서’가 3.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36〉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부담 이유(1순위)

단위: %, (명)

구분	학원/과외 수업시간이 길거나 많아서	학원/과외 수업내용이 어려워서	학원/과외 숙제가 많아서	학원/과외 장소까지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서	학원 /과외비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까봐	학원 /과외가 너무 늦은 시간에 끝나서	기타	(수)
전체	37.93	8.62	29.31	3.45	12.07	5.17	3.45	(58)
아동 성별								
남	45.71	5.71	28.57	5.71	2.86	5.71	5.71	(35)
여	26.09	13.04	30.43	-	26.09	4.35	-	(23)
$\chi^2(df)$				11.18(6) ^(a)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40.00	-	20.00	-	40.00	-	-	(5)
370 초과-570만원	9.09	18.18	45.45	-	9.09	18.18	-	(11)
570 초과-770만원	35.29	5.88	47.06	11.76	-	-	-	(17)
770만원 초과	50.00	10.00	15.00	-	15.00	-	10.00	(20)
$\chi^2(df)$				29.80(18) ^(a)				
지역규모								
대도시	32.14	10.71	32.14	3.57	10.71	3.57	7.14	(28)
중소도시	48.15	3.70	29.63	-	11.11	7.41	-	(27)
읍면	-	50.00	-	50.00	-	-	-	(2)
$\chi^2(df)$				23.20(12) ^(a)				
학교유형								
일반고	39.62	9.43	30.19	3.77	7.55	5.66	3.77	(53)
특성학교	33.33	-	33.33	-	33.33	-	-	(3)
$\chi^2(df)$				2.83(6) ^(a)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부담되지 않음~5.매우 부담스러움).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5$.

패널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이용의 부담 이유를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비율을 살펴보면, ‘학원/과외 수업시간이 길거나 많아서’가 53.45%, ‘학원/과외 숙제가 많아서’가 51.72%, ‘학원/과외비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까봐’가 37.93%, ‘학원/과외가 너무 늦은 시간에 끝나서’가 18.97%, ‘학원/과외 수업내용이 어려워서’가 15.52%, ‘학원/과외 장소까지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서’가 12.07%로 나타났다.

〈표 III-4-37〉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부담 이유(1+2순위)

단위: %, (명)

구분	학원/과외 수업시간이 길거나 많아서	학원/과외 수업내용이 어려워서	학원/과외 숙제가 많아서	학원/과외 장소까지 이동시간이 많이 걸려서	학원/과외비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까봐	학원/과외가 너무 늦은 시간에 끝나서	기타	(수)
전체	53.45	15.52	51.72	12.07	37.93	18.97	10.34	(58)
아동 성별								
남	57.14	11.43	54.29	8.57	31.43	28.57	8.57	(35)
여	47.83	21.74	47.83	17.39	47.83	4.35	13.04	(23)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60.00	-	60.00	20.00	40.00	-	20.00	(5)
370 초과-570만원	27.27	36.36	54.55	9.09	45.45	27.27	-	(11)
570 초과-770만원	64.71	5.88	70.59	17.65	17.65	23.53	-	(17)
770만원 초과	55.00	20.00	35.00	10.00	50.00	5.00	25.00	(20)
지역규모								
대도시	53.57	10.71	50.00	14.29	35.71	17.86	17.86	(28)
중소도시	59.26	18.52	59.26	7.41	37.04	14.81	3.70	(27)
읍면	-	50.00	-	50.00	50.00	50.00	-	(2)
학교유형								
일반고	54.72	16.98	54.72	11.32	35.85	16.98	9.43	(53)
특성화고	66.67	-	33.33	33.33	33.33	33.33	-	(3)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부담되지 않음~5.매우 부담스러움).

패널아동에게 사교육이 자신의 실력(성적, 능력, 솜씨, 기술 등)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인식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그렇다’라고 응답한 아동이 64.07%, ‘매우 그렇다’가 17.58%, ‘보통’이 16.70%, ‘그렇지 않다’는 1.65%로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 가구소득, 지역규모, 학교유형에 따른 아동의 사교육 효과의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4-38〉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효과 인식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	1.65	16.70	64.07	17.58	100.00(910)	3.98	0.64
아동 성별								
남	-	1.83	17.89	63.99	16.28	100.00(436)	3.95	0.64
여	-	1.48	15.61	64.14	18.78	100.00(474)	4.00	0.64
$\chi^2(df)/t$			1.69(3) ^(a)					-1.29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	-	17.65	63.24	19.12	100.00(68)	4.01	0.61
370 초과~570만원	-	2.60	19.05	64.07	14.29	100.00(231)	3.90	0.66
570 초과~770만원	-	1.65	15.29	64.46	18.60	100.00(242)	4.00	0.64
770만원 초과	-	1.63	14.71	66.34	17.32	100.00(306)	3.99	0.62
$\chi^2(df)/F$			5.64(9) ^(a)					1.35
지역규모								
대도시	-	1.86	13.03	66.22	18.88	100.00(376)	4.02	0.63
중소도시	-	1.45	19.67	62.94	15.94	100.00(483)	3.93	0.64
읍면	-	2.56	17.95	61.54	17.95	100.00(39)	3.95	0.69
$\chi^2(df)/F$			7.45(6) ^(a)					2.02
학교유형								
일반고	-	1.56	17.03	64.27	17.15	100.00(834)	3.97	0.64
특성화고	-	3.85	15.38	63.46	17.31	100.00(52)	3.94	0.70
$\chi^2(df)/F$			1.60(3) ^(a)					0.30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아동이 인식한 EBS 교육방송 강의의 도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그렇다’라고 응답한 아동이 46.63%, ‘보통이다’가 41.07%, ‘매우 그렇다’ 8.33%, ‘그렇지 않다’ 3.57%, ‘전혀 그렇지 않다’가 0.40%로 나타났다.



〈표 III-4-39〉 아동이 인식한 EBS 효과 인식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0.40	3.57	41.07	46.63	8.33	100.00(504)	3.59	0.71
아동 성별								
남	-	4.55	38.18	48.18	9.09	100.00(220)	3.62	0.71
여	0.70	2.82	43.31	45.42	7.75	100.00(284)	3.57	0.71
$\chi^2(df)/t$			3.85(4) ^(a)				0.80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	-	45.24	40.48	14.29	100.00(42)	3.69	0.72
370 초과~570만원	0.67	2.68	32.89	53.69	10.07	100.00(149)	3.70	0.71
570 초과~770만원	0.77	6.92	39.23	45.38	7.69	100.00(130)	3.52	0.77
770만원 초과	-	2.82	45.77	46.48	4.93	100.00(142)	3.54	0.64
$\chi^2(df)/F$			16.86(12) ^(a)				2.09	
지역규모								
대도시	-	3.85	40.87	46.63	8.65	100.00(208)	3.60	0.70
중소도시	0.39	3.52	40.63	47.66	7.81	100.00(256)	3.59	0.70
읍면	3.33	3.33	40.00	43.33	10.00	100.00(30)	3.53	0.86
$\chi^2(df)/F$			7.57(8) ^(a)				0.12	
학교유형								
일반고	0.43	3.47	40.78	47.29	8.03	100.00(461)	3.59	0.71
특성화고	-	6.90	37.93	44.83	10.34	100.00(29)	3.59	0.78
$\chi^2(df)/t$			1.27(4) ^(a)				0.03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3)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5.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지역사회 특성으로는 이사 횟수 및 최근 이사 사유 등 이사와 관련된 사항, 지역 규모 특성, 여가공간·체육·문화·의료·교육·지역사회복지시설의 접근성 및 관련된 양육 환경에 대한 사항, 지역사회에 대한 안전성 인식을 살펴봤고, 정책 특성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수급 경험과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한 결과를 해석하였다.

〈표 III-5-1〉 17차년도 지역규모 및 정책 특성 조사변인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역 규모 특성	일반적 특성	가구 특성	• 이사 횟수, 최근 이사 사유
			• 지역규모, 6개 권역 구분
	양육환경	교육·복지·의료 문화·여가	• 여가공간·체육·문화·의료·교육·지역사회복지시설 접근의 편리성 및 이용 만족도
사회 안전		• 양육환경 안전성	
정책 특성	국가지원	수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 취약계층 지원 사업 수급 경험
		교육정책	• 사교육 경감대책에 대한 효과성 인식 • 교육정책방향에 대한 인식

주: 17차 신규 및 변경문항 밑줄로 표시

가. 지역사회 특성

패널아동이 출생 이후 현재까지 패널가구가 이사를 한 평균 횟수는 1.33회로 나타났다. 최초 조사 때부터 동일한 곳에 거주하는 경우(이사 횟수 0회)가 34.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이사 횟수 1회 27.97%, 2회 18.65%, 3회 10.64%, 4회 4.74% 등의 순이었다.

〈표 III-5-2〉 출생 후 총 이사 횟수

단위: %, (명), 회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이상	계(수)	평균	표준 편차
34.89	27.97	18.65	10.64	4.74	2.02	0.78	0.31	100.00(1,287)	1.33	1.39

주: 보호자의 응답임.

이전 조사 당시 주거지에서 이사하여 주소지가 변경된 패널가구를 대상으로 이 사 사유를 조사한 결과, ‘주거환경(주택, 교통)’이 38.69%로 가장 높았고, ‘교육환 경’이 19.05%, ‘주변환경(의료, 문화)’ 10.71%, ‘집값부담’ 11.31%, ‘안전환경’ 9.52% 등의 순이었다.

〈표 III-5-3〉 최근 이사 사유

단위: %, (명)

구분	주거환경 (주택, 교통)	교육환경	주변환경 (의료, 문화)	안전환경	집값부담	기타	계(수)
전체	38.69	19.05	10.71	9.52	11.31	10.71	100.00(168)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20.00	20.00	6.67	6.67	26.67	20.00	100.00(15)
370 초과~570만원	40.00	22.22	8.89	6.67	6.67	15.56	100.00(45)
570 초과~770만원	37.14	17.14	14.29	14.29	14.29	2.86	100.00(35)
770만원 초과	42.19	18.75	10.94	10.94	9.38	7.81	100.00(64)
$\chi^2(df)$			13.46(15) ^(a)				
지역규모							
대도시	46.88	20.31	7.81	4.69	9.38	10.94	100.00(64)
중소도시	34.41	19.35	11.83	9.68	12.90	11.83	100.00(93)
읍면	27.27	9.09	18.18	36.36	9.09	-	100.00(11)
$\chi^2(df)$			15.39(10) ^(a)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패널가구가 거주하는 지역규모를 조사하였다. 중소도시의 거주비율이 55.24%로 가장 높았고, 대도시에 39.39%, 읍면에는 5.36%의 패널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4〉 지역규모

단위: %, (명)

구분	대도시	읍면	중소도시	계(수)
전체	39.39	5.36	55.24	100.00(1,287)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42.11	9.77	48.12	100.00(133)
370 초과~570만원	33.61	6.34	60.06	100.00(363)
570 초과~770만원	40.80	4.60	54.60	100.00(326)
770만원 초과	43.26	3.63	53.11	100.00(386)
$\chi^2(df)$		15.98(6) [*]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패널가구의 거주지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경인권 거주비율이 32.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산/울산/경남권이 17.64%, 대전/충청/강원권이 14.30%, 광주/전라권/제주는 13.21%, 서울권 12.35%, 대구/경북권 10.41% 순

이었다. 거주지역은 가구소득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서울권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5-5〉 6개 권역 구분

단위: %, (명)

구분	서울권	경인권	대전/충청/강원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라권/제주	계(수)
전체	12.35	32.09	14.30	10.41	17.64	13.21	100.00(1,287)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9.02	26.32	15.79	12.03	21.80	15.04	100.00(133)
370 초과-570만원	6.89	31.40	12.40	12.67	22.04	14.60	100.00(363)
570 초과-770만원	13.50	32.82	12.88	10.43	17.79	12.58	100.00(326)
770만원 초과	18.91	32.90	13.47	7.77	13.73	13.21	100.00(386)
$\chi^2(df)$			38.90(15)**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1$.

패널가구 지역의 교육·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접근 편의성은 평균 3.65점, 보건소, 병원 등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 편의성은 평균 3.67점, 가족센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등 공공복지시설은 3.38점으로 나타났다. 접근 편의성은 지역규모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교육시설, 의료시설, 공공복지시설 모두 중소도시 및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읍면지역보다 접근 편리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6〉 교육·의료·복지시설 접근 편의성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2.02	7.69	27.89	48.17	14.22	100.00(1,287)	3.65	0.89	
지역규모									
교육 시설									
대도시	0.59	6.31	24.65	51.28	17.16	100.00(507)	3.78 ^b	0.82	
중소도시	2.25	6.89	30.66	47.12	13.08	100.00(711)	3.62 ^b	0.88	
읍면	10.14	26.09	23.19	36.23	4.35	100.00(69)	2.99 ^a	1.10	
$\chi^2(df)/F$			76.14(8)**					26.29***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의료 시설	전체	2.33	7.77	25.80	48.64	15.46	100.00(1,287)	3.67	0.91
	지역규모								
	대도시	0.99	6.51	21.10	54.04	17.36	100.00(507)	3.80 ^b	0.83
	중소도시	1.97	7.88	28.13	46.98	15.05	100.00(711)	3.65 ^b	0.90
	읍면	15.94	15.94	36.23	26.09	5.80	100.00(69)	2.90 ^a	1.14
	$\chi^2(df)/F$			90.98(8) ^{***}					31.86 ^{***}
공공 복지 시설	전체	2.49	11.89	37.45	41.10	7.07	100.00(1,287)	3.38	0.87
	지역규모								
	대도시	0.99	9.07	38.86	43.98	7.10	100.00(507)	3.47 ^b	0.80
	중소도시	2.67	12.66	37.13	39.94	7.59	100.00(711)	3.37 ^b	0.89
	읍면	11.59	24.64	30.43	31.88	1.45	100.00(69)	2.87 ^a	1.04
	$\chi^2(df)/F$			48.11(8) ^{***}					14.85 ^{***}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불편함~5.매우 편리함).
 3) 교육시설: 학교, 학원 등
 의료시설: 보건소, 병원 등
 공공복지시설: 가족센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등.
 *** $p < .001$.

다음은 패널가구 지역의 여가공간·의료·복지시설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놀이터, 공원, 산책로, 놀이공원 등 여가공간시설에 대한 접근 편의성은 평균 3.83점, 체육관, 수영장, 농구장, 축구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접근 편의성은 평균 3.49점,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천체관, 수족관 등 문화시설은 3.39점으로 나타났다. 접근 편의성은 지역규모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여가공간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모두 중소도시 및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읍면 지역보다 접근 편의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7〉 여가공간·체육·문화시설 접근 편의성

단위: %, (명), 점

구분		매우 불편함	불편한 편임	보통임	편리한 편임	매우 편리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여가 공간 시설	전체	1.40	4.82	21.83	53.69	18.26	100.00(1,287)	3.83	0.83
	지역규모								
	대도시	0.59	3.75	22.68	52.47	20.51	100.00(507)	3.89 ^b	0.79
	중소도시	1.27	4.64	20.53	55.98	17.58	100.00(711)	3.84 ^b	0.81
	읍면	8.70	14.49	28.99	39.13	8.70	100.00(69)	3.25 ^a	1.09
	$\chi^2(df)/F$			54.32(8) ^{***}				18.71 ^{***}	
체육 시설	전체	3.11	12.28	28.75	43.98	11.89	100.00(1,287)	3.49	0.96
	지역규모								
	대도시	1.97	10.06	27.42	46.35	14.20	100.00(507)	3.61 ^b	0.92
	중소도시	3.09	13.08	29.96	43.46	10.41	100.00(711)	3.45 ^b	0.95
	읍면	11.59	20.29	26.09	31.88	10.14	100.00(69)	3.09 ^a	1.18
	$\chi^2(df)/F$			31.71(8) ^{***}				10.66 ^{***}	
문화 시설	전체	4.35	14.61	29.37	40.95	10.72	100.00(1,287)	3.39	1.00
	지역규모								
	대도시	1.97	11.44	30.57	43.59	12.43	100.00(507)	3.53 ^b	0.92
	중소도시	4.92	15.61	29.11	39.94	10.41	100.00(711)	3.35 ^b	1.02
	읍면	15.94	27.54	23.19	31.88	1.45	100.00(69)	2.75 ^a	1.12
	$\chi^2(df)/F$			50.86(8) ^{***}				19.91 ^{***}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매우 불편함~5.매우 편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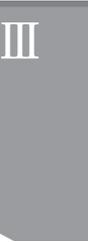
3) 여가공간시설: 놀이터, 공원, 산책로, 놀이공원 등

체육시설: 체육관, 수영장, 농구장, 축구장 등

문화시설: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천체관, 수족관, 동·식물원, 공연시설, 도서관 등

*** $p < .001$.

이어 패널가구 지역의 교육·의료·공공복지시설에 대한 이용 만족도를 조사해본 결과, 교육시설은 5점 척도에 평균 3.58점, 의료시설은 평균 3.60점, 공공복지시설은 평균 3.34점으로 나타났다. 이용 만족도는 교육시설, 의료시설, 공공복지시설 모두 중소도시 및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일수록 읍면지역보다 이용 만족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8〉 교육·의료·복지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교육시설		의료시설		공공복지시설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58	0.80	3.60	0.82	3.34	0.82	(1,287)
지역규모							
대도시	3.65 ^b	0.77	3.70 ^b	0.76	3.39 ^b	0.79	(507)
중소도시	3.58 ^b	0.80	3.59 ^b	0.81	3.33 ^b	0.82	(711)
읍면	3.05 ^a	0.86	2.91 ^a	0.96	2.94 ^a	1.01	(69)
<i>F</i>	16.89 ^{***}		28.57 ^{***}		7.17 ^{***}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만족하지 않음~5.매우 만족함).
^{***} $p < .001$.

패널가구 지역의 여가공간·체육·문화시설에 대한 이용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여가공간시설은 평균 3.77점, 체육시설은 평균 3.50점, 문화시설은 평균 3.44점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 만족도 평균은 문화시설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지역규모가 클수록 패널가구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9〉 여가공간·체육·문화시설 이용 만족도

단위: 점, (명)

구분	여가공간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3.77	0.72	3.50	0.88	3.44	0.88	(1,287)
지역규모							
대도시	3.76	0.74	3.51	0.89	3.53 ^b	0.85	(507)
중소도시	3.80	0.70	3.52	0.85	3.40 ^{ab}	0.90	(711)
읍면	3.58	0.76	3.31	0.98	3.19 ^a	0.86	(69)
<i>F</i>	2.45		1.31		5.68 ^{**}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전혀 만족하지 않음~5.매우 만족함).
^{**} $p < .01$.

패널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 양육 안정성과 관련하여 8개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유해시설(유해가, 윤락가 등)로부터의 안정성은 5점 척도에 평균 3.93점, 아동성폭행, 강도, 절도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은 평균 3.80점, 각종 시설물 설치나 재해 방지 시설 구비는 평균

3.74점, 각종 사고(교통사고, 화재, 추락 등)에 대비한 안전 설비 구비는 평균 3.72 점, 경찰이나 방범대원들의 정기순찰에 대한 인식은 평균 3.66점,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분위기는 평균 3.40점,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한 동네 주민의 행동 바로잡아주기는 평균 3.08점, 취객 및 싸움으로부터의 안정성은 평균 1.87점 순으로 나타났다. 협조 분위기와 행동 바로잡아주기에 대한 동의는 지역구 모별로 차이가 나타나,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지역에 거주할 때 해당 문항에 대한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5-10〉 양육환경 안전성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잘모름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취객, 싸움 없음	전체	34.11	49.65	12.67	2.18	1.24	0.16	100.00(1,287)	1.87	0.81
	지역규모									
	대도시	33.73	51.28	12.43	1.18	1.38	-	100.00(507)	1.85	0.78
	중소도시	32.77	49.79	13.08	2.95	1.13	0.28	100.00(711)	1.90	0.82
	읍면	50.72	36.23	10.14	1.45	1.45	-	100.00(69)	1.67	0.83
	$\chi^2(df)/F$			15.46(10) ^(a)					2.67	
범죄로부터 안전	전체	4.66	7.38	17.09	44.83	25.72	0.31	100.00(1,287)	3.80	1.05
	지역규모									
	대도시	5.33	7.69	16.37	43.20	27.02	0.39	100.00(507)	3.79	1.09
	중소도시	4.22	7.45	17.72	45.85	24.47	0.28	100.00(711)	3.79	1.03
	읍면	4.35	4.35	15.94	46.38	28.99	-	100.00(69)	3.91	1.01
	$\chi^2(df)/F$			4.00(10) ^(a)					0.43	
유해 시설로부터의 안전	전체	3.89	6.14	16.39	39.55	33.64	0.39	100.00(1,287)	3.93	1.05
	지역규모									
	대도시	4.14	6.51	14.79	41.81	32.15	0.59	100.00(507)	3.92	1.05
	중소도시	3.66	6.33	17.02	39.52	33.19	0.28	100.00(711)	3.93	1.04
	읍면	4.35	1.45	21.74	23.19	49.28	-	100.00(69)	4.12	1.08
	$\chi^2(df)/F$			16.75(10) ^(a)					1.12	
정기순찰	전체	2.10	6.53	29.91	42.04	16.39	3.03	100.00(1,287)	3.66	0.91
	지역규모									
	대도시	2.17	5.72	27.61	44.97	16.37	3.16	100.00(507)	3.70	0.90
	중소도시	1.69	7.31	32.35	39.66	15.75	3.23	100.00(711)	3.63	0.90
	읍면	5.80	4.35	21.74	44.93	23.19	-	100.00(69)	3.75	1.05
	$\chi^2(df)/F$			17.08(10)					1.32	
협조 분위기	전체	1.79	10.41	42.04	32.71	10.10	2.95	100.00(1,287)	3.40	0.88

구분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잘모름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지역규모									
	대도시	1.97	9.86	42.21	31.36	10.45	4.14	100.00(507)	3.40 ^a	0.89
	중소도시	1.83	11.25	42.62	32.49	9.42	2.39	100.00(711)	3.37 ^a	0.88
	읍면	-	5.80	34.78	44.93	14.49	-	100.00(69)	3.68 ^b	0.80
	$\chi^2(df)/F$			14.67(10)					3.86 [*]	
행동 바로 잡아주기	전체	3.50	20.20	43.75	19.11	8.00	5.44	100.00(1,287)	3.08	0.95
	지역규모									
	대도시	3.16	22.68	37.87	20.51	9.27	6.51	100.00(507)	3.11 ^a	0.99
	중소도시	3.80	19.27	48.10	17.16	6.61	5.06	100.00(711)	3.04 ^a	0.91
	읍면	2.90	11.59	42.03	28.99	13.04	1.45	100.00(69)	3.38 ^b	0.96
	$\chi^2(df)/F$			25.60(10)**					4.38 [*]	
시설물 설치	전체	1.24	4.90	30.54	43.98	18.10	1.24	100.00(1,287)	3.74	0.86
	지역규모									
	대도시	1.58	4.14	32.94	42.21	17.75	1.38	100.00(507)	3.71	0.86
	중소도시	0.84	5.63	29.25	44.87	18.28	1.13	100.00(711)	3.75	0.85
	읍면	2.90	2.90	26.09	47.83	18.84	1.45	100.00(69)	3.78	0.90
	$\chi^2(df)/F$			7.57(10)					0.34	
안전설비 구비	전체	0.85	4.74	32.01	43.90	16.86	1.63	100.00(1,287)	3.72	0.83
	지역규모									
	대도시	1.38	5.52	32.54	40.83	17.95	1.78	100.00(507)	3.70	0.88
	중소도시	0.42	4.36	32.21	44.73	16.88	1.41	100.00(711)	3.74	0.81
	읍면	1.45	2.90	26.09	57.97	8.70	2.90	100.00(69)	3.72	0.73
	$\chi^2(df)/F$			14.02(10) ^(a)			0.21		0.46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평균값은 잘모름을 제외하고 분석함.
 3) 취객, 싸움 없음(술 취한 사람이나 싸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문항은 역코딩을 실시함.
 4) 5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음~5.매우 그러함).
 5)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5$, ^{**} $p < .01$.

나. 정책 특성

1) 국가지원

패널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여부를 조사하였다.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의미한다.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만 받아도 국민기초생

활수급 가구에 해당한다. 조사결과, 응답한 패널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0.78%, 차상위계층 2.18%, 잘 모름/무응답이 0.62%로 조사되었다.

〈표 Ⅲ-5-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구분

단위: %, (명)

구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없음	잘 모름	무응답	계(수)
전체	0.78	2.18	95.03	1.40	0.62	100.00(1,287)

주: 보호자의 응답임.

패널가구를 대상으로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사업,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한 수급 경험을 조사하였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으로,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생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및 교과서비를 지급한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시도 교육청의 재량사업으로 시도별 상이하나, 통상 중위소득 50~80% 이하 초·중·고등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인터넷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대상자인 우수학생에게 월 25~45만원의 장학금(학교급, 유형별 차등)을 지급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은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에게, 아동이 계좌에 일정금액 적립 시 국가가 이에 매칭하여 적립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패널아동 중 교육급여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11.97%,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6.01%였다.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원경험이 있는 비율은 13.05%, 지원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84.46%, 복권기금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지원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9.32%, 지원경험이 없다는 비율은 87.41%,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은 지원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10.10%, 지원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86.79%로 나타났다.

〈표 III-5-12〉 취약계층 지원 사업 수급 경험

단위: %, (명)

구분	지원경험 있음	지원경험 없음	잘 모름	무응답	계(수)
교육급여	11.97	86.01	1.32	0.70	100.00(1,287)
교육비 지원 사업	13.05	84.46	1.79	0.70	100.00(1,287)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9.32	87.41	2.25	1.01	100.00(1,287)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	10.10	86.79	2.33	0.78	100.00(1,287)

주: 보호자의 응답임.

2) 교육정책

패널아동의 보호자에게 우리나라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이 사교육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먼저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 평가’의 사교육 경감의 효과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5.90%, ‘별로 효과없음’ 32.87%, ‘약간 효과있음’ 19.04%, ‘전혀 효과없음’ 11.03%, ‘매우 효과있음’ 1.17% 순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환산한 전체 평균은 2.66점이었고, 그 차이는 지역규모에 따라 중소도시 이상 규모의 패널가정보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패널가정에서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5-13〉 사교육 경감대책 효과성 인식(1)

단위: %, (명)

구분	전혀 효과없음	별로 효과없음	보통	약간 효과	매우 효과있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1.03	32.87	35.90	19.04	1.17	100.00(1,287)	2.66	0.95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8.27	27.82	39.10	24.06	0.75	100.00(133)	2.81 ^b	0.92
370 초과~570만원	10.19	29.75	37.74	20.94	1.38	100.00(363)	2.74 ^{ab}	0.95
570 초과~770만원	12.27	37.42	33.44	15.95	0.92	100.00(326)	2.56 ^a	0.93
770만원 초과	12.69	34.46	32.90	18.39	1.55	100.00(386)	2.62 ^{ab}	0.98
$\chi^2(df)/F$			13.94(12) ^(a)				3.41 [*]	
지역규모								
대도시	11.83	35.70	32.94	18.74	0.79	100.00(507)	2.61 ^a	0.95
중소도시	11.11	31.93	37.55	17.86	1.55	100.00(711)	2.67 ^a	0.95
읍면	4.35	21.74	40.58	33.33	-	100.00(69)	3.03 ^b	0.86
$\chi^2(df)/F$			19.58(8) ^(a)				6.03 ^{**}	

주: 1) 보호자의 응답임.

2) 기대빈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이 20% 이상), ^(a)라고 통계량에 표기함.

* $p < .05$, ** $p < .01$.

다음은 ‘사교육 담합(카르텔)·부조리 근절’의 사교육 경감의 효과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별로 효과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75%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 32.63%, ‘전혀 효과없음’ 15.07%, ‘약간 효과있음’ 11.97%, ‘매우 효과있음’ 3.57% 순이었다. 5점 척도로 환산한 전체 평균은 2.52점이었고, 그 차이는 지역규모에 따라 중소도시 이상 규모의 패널가정 보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패널가정에서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5-14〉 사교육 경감대책 효과성 인식(2)

단위: %, (명)

구분	전혀 효과없음	별로 효과없음	보통	약간 효과 있음	매우 효과있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5.07	36.75	32.63	11.97	3.57	100.00(1,287)	2.52	1.00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0.53	31.58	39.85	15.79	2.26	100.00(133)	2.68 ^b	0.94
370 초과~570만원	12.67	34.44	35.81	12.40	4.68	100.00(363)	2.62 ^{ab}	1.01
570 초과~770만원	17.48	39.26	31.90	9.20	2.15	100.00(326)	2.39 ^a	0.95
770만원 초과	18.39	38.34	26.94	12.18	4.15	100.00(386)	2.45 ^{ab}	1.05
$\chi^2(df)/F$								4.58 ^{**}
지역규모								
대도시	14.99	38.26	32.35	10.85	3.55	100.00(507)	2.50 ^a	0.99
중소도시	15.89	36.71	32.35	11.81	3.23	100.00(711)	2.50 ^a	1.00
읍면	7.25	26.09	37.68	21.74	7.25	100.00(69)	2.96 ^b	1.04
$\chi^2(df)/F$								6.90 ^{**}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이어 ‘대입수시 공정성 및 공교육 입시컨설팅 강화’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79%로 가장 높았고, ‘별로 효과없음’이 30.69%, ‘약간 효과있음’ 15.46%, ‘전혀 효과없음’ 10.49%, ‘매우 효과있음’ 2.56% 순이었다. 5점 척도로 환산한 전체 평균은 2.69점이었고, 그 차이는 지역규모에 따라 중소도시 이상 규모의 패널가정보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패널가정에서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5-15〉 사교육 경감대책 효과성 인식(3)

단위: %, (명)

구분	전혀 효과없음	별로 효과없음	보통	약간 효과	매우 효과있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49	30.69	40.79	15.46	2.56	100.00(1,287)	2.69	0.94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9.02	25.56	42.11	21.05	2.26	100.00(133)	2.82 ^b	0.94
370 초과~570만원	8.82	28.37	42.70	17.08	3.03	100.00(363)	2.77 ^{ab}	0.94
570 초과~770만원	11.66	35.58	38.65	12.27	1.84	100.00(326)	2.57 ^a	0.91
770만원 초과	12.18	32.38	38.34	13.73	3.37	100.00(386)	2.64 ^{ab}	0.98
$\chi^2(df)/F$			16.28(12)					3.82 ^{**}
지역규모								
대도시	11.24	33.53	36.49	17.36	1.38	100.00(507)	2.64 ^a	0.94
중소도시	10.69	29.68	43.32	13.22	3.09	100.00(711)	2.68 ^a	0.94
읍면	2.90	20.29	46.38	24.64	5.80	100.00(69)	3.10 ^b	0.89
$\chi^2(df)/F$			25.64(8) ^{**}					7.35 ^{***}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1$, *** $p < .001$.

패널아동의 보호자에게 ‘중·고등학교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의 사교육 경감 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8.77%, ‘별로 효과없음’이 28.13%, ‘약간 효과있음’ 19.27%, ‘전혀 효과없음’ 10.72%, ‘매우 효과있음’ 3.11% 순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환산한 전체 평균은 2.76점이었고, 그 차이는 지역규모에 따라 중소도시 이상 규모의 패널가정보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패널가정에서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5-16〉 사교육 경감대책 효과성 인식(4)

단위: %, (명)

구분	전혀 효과없음	별로 효과없음	보통	약간 효과	매우 효과있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10.72	28.13	38.77	19.27	3.11	100.00(1,287)	2.76	0.98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10.53	27.07	31.58	28.57	2.26	100.00(133)	2.85	1.03
370 초과~570만원	9.09	27.55	39.67	19.01	4.68	100.00(363)	2.83	0.99
570 초과~770만원	10.12	28.83	42.64	15.95	2.45	100.00(326)	2.72	0.93
770만원 초과	13.73	30.31	33.68	19.43	2.85	100.00(386)	2.67	1.03
$\chi^2(df)/F$			21.53(12) [*]					2.04

구분	전혀 효과없음	별로 효과없음	보통	약간 효과	매우 효과있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지역규모								
대도시	11.83	28.60	37.67	18.74	3.16	100.00(507)	2.73 ^a	1.00
중소도시	10.55	28.41	39.66	18.71	2.67	100.00(711)	2.75 ^a	0.97
읍면	4.35	21.74	37.68	28.99	7.25	100.00(69)	3.13 ^b	0.98
$\chi^2(df)/F$			12.42(8)				5.26 ^{**}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패널아동의 보호자에게 ‘초등단계 국가 책임 교육·돌봄 강화(늘봄학교, 방과후 과정 확대 등)’의 사교육 경감 효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9.39%, ‘약간 효과있음’이 30.85%, ‘별로 효과없음’ 17.95%, ‘전혀 효과없음’ 6.68%, ‘매우 효과있음’ 5.13% 순이었다. 5점 척도로 환산한 전체 평균은 3.10점이었고, 그 차이는 지역규모에 따라 중소도시 이상 규모의 패널가정보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패널가정에서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5-17〉 사교육 경감대책 효과성 인식(5)

단위: %, (명)

구분	전혀 효과없음	별로 효과없음	보통	약간 효과	매우 효과있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6.68	17.95	39.39	30.85	5.13	100.00(1,287)	3.10	0.98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6.77	13.53	42.86	30.08	6.77	100.00(133)	3.17	0.98
370 초과~570만원	4.41	17.91	37.19	35.54	4.96	100.00(363)	3.19	0.94
570 초과~770만원	7.06	20.55	39.26	29.45	3.68	100.00(326)	3.02	0.97
770만원 초과	9.33	17.36	38.34	29.02	5.96	100.00(386)	3.05	1.04
$\chi^2(df)/F$			15.83(12)				2.19	
지역규모								
대도시	7.10	18.74	39.84	29.19	5.13	100.00(507)	3.07 ^a	0.98
중소도시	7.03	18.00	39.38	31.22	4.36	100.00(711)	3.08 ^a	0.97
읍면	-	11.59	36.23	39.13	13.04	100.00(69)	3.54 ^b	0.87
$\chi^2(df)/F$			18.07(8) [*]				7.46 ^{***}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01$.

마지막으로 ‘유아 공교육 강화(이음학기 운영, 유보통합 등)’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76%으로 가장 높았고, ‘약간 효과있음’ 25.64%, ‘별로 효과없음’ 19.66, ‘전혀 효과없음’ 6.76, ‘매우 효과있음’ 3.19순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환산한 전체 평균은 2.99점이었고, 그 차이는 지역규모에 따라 중소도시 이상 규모의 패널가구 보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패널가구에서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5-18〉 사교육 경감대책 효과성 인식(6)

단위: %, (명)

구분	전혀 효과없음	별로 효과없음	보통	약간 효과 있음	매우 효과있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6.76	19.66	44.76	25.64	3.19	100.00(1,287)	2.99	0.92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6.02	19.55	43.61	27.07	3.76	100.00(133)	3.03	0.93
370 초과~570만원	4.13	19.01	45.18	28.65	3.03	100.00(363)	3.07	0.87
570 초과~770만원	7.36	23.01	46.93	19.33	3.37	100.00(326)	2.88	0.92
770만원 초과	9.84	17.62	41.19	27.98	3.37	100.00(386)	2.97	0.99
$\chi^2(df)/F$			20.52(12)					2.53
지역규모								
대도시	6.90	22.09	45.76	22.88	2.37	100.00(507)	2.92 ^a	0.90
중소도시	7.17	18.28	44.30	26.72	3.52	100.00(711)	3.01 ^a	0.94
읍면	1.45	15.94	42.03	34.78	5.80	100.00(69)	3.28 ^b	0.86
$\chi^2(df)/F$			12.90(8)					5.10 ^{**}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1$.

패널아동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고교학점제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보통’ 수준으로 동의한다는 비율이 34.81%로 가장 높았고, ‘동의’ 32.17%, ‘동의하지 않음’ 15%, ‘잘 모르겠음’ 6.60%, ‘전혀 동의하지 않음’ 6.22%, ‘매우 동의’ 5.2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5-19〉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동의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	잘 모르겠음	계(수)	평균	표준 편차
전체	6.22	15.00	34.81	32.17	5.21	6.60	100.00(1287)	3.16	0.98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6.77	15.79	31.58	31.58	6.02	8.27	100.00(133)	3.16 ^{ab}	1.03
370 초과-570만원	3.58	12.67	34.44	35.54	7.16	6.61	100.00(363)	3.32 ^b	0.94
570 초과-770만원	4.60	15.34	39.26	28.53	3.99	8.28	100.00(326)	3.13 ^{ab}	0.92
770만원 초과	10.36	17.88	31.09	32.38	4.15	4.15	100.00(386)	3.02 ^a	1.06
$\chi^2(df)/F$			35.61(15)**					5.56***	
지역규모									
대도시	10.06	15.98	37.87	25.64	3.35	7.10	100.00(507)	2.96 ^a	1.01
중소도시	4.08	14.35	32.77	36.29	6.19	6.33	100.00(711)	3.28 ^b	0.95
읍면	-	14.49	33.33	37.68	8.70	5.80	100.00(69)	3.43 ^b	0.87
$\chi^2(df)/F$			42.08(10)***					17.58***	

주: 보호자의 응답임.

* $p < .05$, ** $p < .01$, *** $p < .001$.

6. 소결

이하에서는 17차년도 기초분석 결과를 아동, 부모 및 가구, 학교 및 사교육, 지역사회 및 정책의 4개 영역별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가. 아동 특성

첫째, 아동의 일상생활 분석의 결과이다. 식생활 관련, 인스턴트 식품 및 패스트 푸드는 주 1~2회 섭취가 45.73%로 가장 많았으며, 단백질, 채소, 지방이 많은 단백질, 인스턴트 식품 등에서 유의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해당 식품을 더 자주 섭취하였다.

생활시간 조사결과, 평균 수면 시간은 주중 평균 6.66시간, 주말 평균 8.48시간으로 청소년 권장 수면 시간(8~10시간)보다 크게 적게 나타났으며 취침시간의 경우 여학생, 고소득층 아동의 경우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은 주중 평균 8.04시간, 주말 평균 5.40시간, 학교 외 교육 시간(학원, 과외 등)은 주중 평균 2.52시간, 주말 평균 3.51시간이었다. 주중 학교 시간은 읍면지역 아동

이, 학교 외 교육 시간은 대도시지역 아동이 길게 나타났다.

미디어 사용 관련, 조사대상 아동의 97.65%가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태블릿 등 기타 스마트기기 소지율은 38.37%였다. 스마트폰 및 PC의 일일 평균 이용시간은 6.02시간이었다. 남학생, 저소득층, 대도시지역 아동의 이용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이용내용별 조사결과 엔터테인먼트(동영상, 웹툰 등) 감상(평균 1.50시간), 학습(1.47시간), SNS 이용(1.41시간), 게임(1.09시간), 정보 검색(0.52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평가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수준과 아동이 직접 평가한 스마트폰(스마트기기) 과의존 수준을 비교한 결과, 아동 자기응답 결과(고위험군 1.18%)는 보호자 응답 결과(고위험군 36.67%)와 매우 큰 인식 차이를 보였다.

신체활동 관련, 아동의 30분 이상 실내외 신체활동 일수(지난 7일간)는 활동 없음의 응답이 24.82%이었다. 집단별로는 여학생, 읍면지역 아동의 신체활동이 저조하게 나타났다. 여행 및 연수 관련해서는 1박 이상의 국내여행 참여율 76.15%, 해외여행 및 연수는 20.44%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참여 비율이 높았다.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극명하게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신체 및 건강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남학생은 평균 신장 174.14cm, 체중 69.16kg, 여학생은 평균 신장 162.56cm, 체중 55.52kg였다. 신체적 자아상에 대해(5개 질문, 4점 척도) 분석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는 평균 2.64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신장 만족을 제외한 4개 문항 모두에서 남학생의 만족도가 여학생보다 높았다. 체중조절 경험 조사결과, 여학생은 50.88%가 감량 노력 경험이 있는 반면, 남학생은 25.99%임. 남학생은 증량 노력 경험(21.41%)이 여학생(2.25%)보다 높았다. 주관적 건강상태(보호자 인식, 5점 척도)는 평균 3.94점으로 '건강한 편'이라고 인식하였으며, 남학생, 읍면지역 아동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만성질환 조사결과, 만성 비염(14.06%), 아토피 피부염(3.89%), 식품 알레르기(2.33%)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아동의 학습 관련 특성 분석결과이다. 아동이 인식하는 주관적 학업성취도(5점 척도)의 경우 보통이 49.24%로 가장 높았으며, 평균 2.98점으로 산출되었다. 집단별로는 여학생, 고소득가구(770만원 초과) 아동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호자가 인식하는 아동의 학업성취도(5점 척도)는 평균 3.02점이며, 아동과 동일하게 여학생, 770만원 초과 가구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학업 스트레스(5점 척

도)는 평균 2.93점이며, 집단별로는 여학생, 770만원 초과 가구 아동이 370만원 이하 가구 아동보다 전체 학업 스트레스 점수가 높았다. 또한 대입/취업 스트레스 영역에서는 도시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아동 점수가 높았다.

넷째, 아동의 사회 및 정서 발달 특성 분석결과, 자아존중감(4점 척도)은 평균 3.13점이며 GRIT(끈기, 5점 척도)의 경우 평균 2.96점이었다. 전반적 행복감(4점 척도)은 평균 2.79점으로 남학생이 더 높았다. 우울(4점 척도)은 평균 1.52점으로 우울 정도가 다소 낮았으며(2점: 가끔 있었다(1~2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래 애착(4점 척도)의 경우 의사소통(3.15점), 신뢰(3.13점), 소외(1.87점)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별로는 370만원 이하 아동의 경우 소외 부분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폭력 피해를 1개 항목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아동은 12.5%로 남학생(15.75%)이 여학생(8.99%)에 비중이 높았으며, 폭력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88%로 이 역시 남학생(21.56%)이 여학생(7.87%)보다 높았다. 음주 관련, 술을 마신 적이 없다는 응답은 19.26%로, 첫 음주 평균 연령은 14.40세였다. 음주 경험이 있는 아동 중 한 달에 1회 미만 마신다는 응답이 54.88%이고, 술을 마신 장소는 '집 또는 친구 집'이 86.88%로 가장 높았다. 흡연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52%로, 첫 흡연 평균 연령은 14.38세였다. 담배 입수 경로 조사결과, '편의점, 가게 등에서 직접 사서 피움'이 38.10%로 가장 높았다.

다섯째, 아동의 미래 인식 관련, 고등학교 졸업 후의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학 '진학 계획'이 76.90%로 가장 높고, '취업 예정'은 7.75%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아동의 취업하겠다는 응답(16.41%)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았다. 대학 진학 희망 이유로는 '더 나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36.56%)가 가장 높았고, 희망 전공 계열은 공학계열(20.06%), 예체능계열(17.41%), 사회계열(14.26%) 순이었다. 진로 성숙도(4점 척도)의 평균 점수는 3.03으로 여학생, 읍면 지역 아동이 높았다(점수가 높을수록 성숙도가 낮음). 진로진학 활동 경험 및 도움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사교육 종사자와의 상담'(3.89점)이 가장 높고, '진로 관련 검사 실시'(3.30점)가 가장 낮았다.

아동 특성 중 마지막으로, 심층조사의 일환으로 결혼 및 다문화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결혼과 자녀양육 의향 조사결과,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9.67%, 자녀 양육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7.61%였다. 집단별로는 남학생, 읍면지역 아동이 자녀 양육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결혼가치관 및 자녀가치관(4점 척도) 조사결과,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것도 괜찮다'(3.14점)가 가장 높고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2.28점)가 가장 낮았다. 가족 기능 인식(4점 척도) 조사결과, '결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인식의 점수가 2.71점으로 가장 높았다. 부모의 경제적 지원 기대 시기의 경우 '대학교 졸업까지'(48.86%)가 가장 비중이 높았다.

다문화 인식 중 국민 정체성(6점 척도) 관련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에 대한 동등한 대우의 어려움'의 경우 남학생(2.56점)이 여학생(2.32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 거부/회피 정서(6점 척도)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사는 지역에 가야 한다면, 두려운 생각이 클 것이다'(2.23점)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 부모 및 가구 특성

가구 구성의 경우 '부모+자녀' 구성이 82.44%로 가장 많으며, 가구 내 자녀수는 2명이 60.37%로 가장 많다. 총 가구원수는 평균 4.34명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723.24만원이었다. 부모의 취업상태 분석결과, 어머니 71.01%, 아버지 95.41%가 취업 중이었다. 아버지 주 평균 근무일 5.31일, 주 평균 근로시간 45.23시간, 어머니의 주 평균 근무일 5.14일, 주 평균 근로시간 38.55시간으로 보고되었다.

부모의 정서 특성 중 부부 갈등(5점 척도, 높을수록 갈등 높음)의 경우 어머니 평균 2.09점, 아버지 평균 1.98점으로 어머니의 갈등 수준이 높았다. 특히 모의 학력수준이 낮고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갈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5점 척도)은 어머니 평균 3.81점, 아버지 평균 3.85점으로 아버지가 다소 높았으며, 주관적 행복감(7점 척도)도 어머니 평균 5.22점, 아버지 평균 5.34점으로 아버지가 높았다. 자아존중감과 주관적 행복감은 부모 모두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일상적 스트레스(4점 척도)는 어머니 평균 2.95점, 아버지 평균 2.92점으로 어머니가 조금 높았다. 삶의 만족도(5점 척도)의 경우, 어머니 평균 3.64점, 아버지 평균 3.76점으로 아버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

역시 부모 모두 학력 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부모의 음주 관련 음주 횟수 조사결과, 아버지는 월 2~4회(34.45%), 주 2~3회(24.29%)로 어머니보다 월등히 빈번하였다. 어머니는 월 1회 이하(34.2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 특성 관련해 부모의 성취압력(아동 인식, 5점 척도) 분석결과, 평균 2.37점으로 나타나 보통 이하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남학생, 대도시 거주 아동이 성취압력을 높게 느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동이 인식하는 부모애착(5점 척도)의 경우, 어머니 애착은 의사소통 평균 3.86점, 신뢰감 평균 4.02점, 소외감 평균 3.27점이며, 아버지 애착은 의사소통 평균 3.55점, 신뢰감 평균 3.85점, 소외감 평균 3.18점으로 어머니보다 모든 영역에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버지에 대한 의사소통 점수가 높았다.

양육 스트레스(부모 인식, 5점 척도)의 경우 어머니 평균 2.40점, 아버지 평균 2.30점으로 어머니가 다소 높았다. 특히 자녀가 남아인 경우와 대도시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의사소통(5점 척도)의 경우, 아동 응답 평균 3.87점, 아버지 평균 3.74점, 어머니 평균 3.72점으로 모두 '대체로 그렇다' 수준을 보였으며, 부모 모두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보호자 응답, 5점 척도)의 경우, 높은 지원 영역은 성적 관리(3.48점), 진로진학 정보 수집(3.44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이 인식하는 아동 학대 경험은 신체적 학대의 경우 '전혀 없음' 97.57%로 대부분을 차지하나 언어적 학대는 '전혀 없음' 85.90%로, 신체적 학대보다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학교 및 사교육 특성

아동의 고등학교 재학 비율은 98.29%였으며, 재학 학교는 일반고등학교 77.31%, 직업 특성화고등학교 11.1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3.16% 비중을 보였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이유로는 '학교 부적응'(36.36%)이 가장 높았고, '취업/대학 진학에 더 유리하여'(18.18%), '해외 출국'(13.64%) 순이었다.

교사가 인식하는 학교 풍토(4점 척도) 조사 중 '교사 풍토'의 경우 '열심히 가르

치려는 의지'(3.62점)가 가장 높았으며,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 교사가 특성화고 교사보다 의지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학생 풍토'는 '선생님에 대한 예의 바른 태도'(3.39점)가 가장 높고, 학교 유형별로 일반고가 특성화고보다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 풍토'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학부모의 지원'(3.09점)이 가장 높으며, 이 역시 학교 유형별로 일반고가 특성화고보다 모든 항목에서 유의하게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어 교사의 업무 스트레스(5점 척도) 조사결과, 행정 업무 스트레스(3.18점)가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 교사가 일반고 교사보다 생활지도 및 행정 업무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보호자가 인식하는 학교 서비스 만족도(5점 척도) 분석결과, 안전관리 교육(3.72점), 진로 탐색 및 진로 지도(3.70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읍면지역 거주 집단일수록 '기초 능력 향상', '자녀 수준에 맞는 교육', '학교 급식', '진로 탐색 및 진로 지도', '인성 지도'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성화고 재학 집단일수록 '진로 탐색 및 진로 지도'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 수업 외 교육 이용률 분석결과 80.96%가 이용하였으며, EBS의 경우 39.47%가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수업 외 교육 서비스 이용의 주요 과목은 수학(852명), 영어(805명), 국어(482명) 순이었다. 국어, 영어, 수학 등 대부분 과목에서 학원 이용이 과반수이며 사회 과목은 인터넷/화상 강의(71.20%) 이용률이 높았다. EBS 시청 시간의 경우 수학(2.02시간)이 가장 길게 나타났다. 학교 외 교육 서비스 주당 평균 이용시간은 학원(10.76시간)이 가장 길고, 인터넷/화상 강의(6.59시간), 가정 내 개인/그룹 지도 과외(5.37시간) 순이었다. 학교 외 교육 서비스 만족도(보호자 응답, 5점 척도)의 경우 대체로 만족한다(53.39%)가 가장 높았으며, 평균 3.52점으로 산출되었다. 학교 외 교육 서비스 월평균 이용 비용 조사결과, 학원(69.66만원)이 가장 높고, 가정 내 개인/그룹 지도 과외(57.12만원)가 다음으로 높았다. 이용 비용 부담 정도 조사결과(보호자 인식, 5점 척도) 평균 3.28점이었으며, '부담되는 편이다'(41.89%)가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다.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개수와 부담 정도를 분석한 결과, 개수에 대해 75.38%가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이 인식한 사교육 효과 분석결과, 64.07%가 '그렇다', 17.58%가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3.98점으로

나타나 긍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제시되었다. 아동이 인식한 EBS 교육방송 강의 도움 정도는 46.63%가 '그렇다', 41.07%가 '보통이다'로 응답했으며, 도시지역보다 읍면지역에서 도움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지역사회 및 정책 특성

출생 후 총 이사 횟수는 평균 1.33회이며, 최초 조사 때부터 동일한 곳에 거주하는 경우(0회)가 34.89%로 가장 많았다. 최근 이사 사유로는 '주거환경(주택, 교통)'이 38.69%로 가장 높고, '교육 환경'(19.05%)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의료·공공복지시설 접근 편의성, 이용 만족도 분석결과, 도시지역 가구가 읍면지역보다 높았으며, 여가공간·체육·문화시설의 이용 만족도의 경우 문화시설에서 지역규모가 클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양육 환경 안전성(5점 척도)에 대한 분석결과, 유해 시설(유해가, 윤락가 등)로부터의 안정성(3.93점)이 가장 높으나, 취객 및 싸움으로부터의 안정성(1.87점)은 낮게 나타났다. '이웃 간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분위기'와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동네 주민의 행동 바로잡아주기'에 대한 동의는 읍면지역이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더 높은 특성을 보였다.

공공부조 국가지원 사업 수급 경험 조사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0.78%, 차상위계층 2.18%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비 지원 사업(13.05%), 교육급여(11.97%), 아동발달지원계좌(10.10%),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9.32%)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의 보호자 대상으로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5점 척도)을 조사한 결과, 공정한 수능 평가 평균 2.66점, 사교육 담합/부조리 근절 평균 2.52점, 대입 수시 공정성 및 공교육 입시 컨설팅 강화 평균 2.69점, 중고등학교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평균 2.76점, 초등 단계 국가 책임 교육/돌봄 강화(늘봄학교 등) 평균 3.10점, 유아 공교육 강화(유보통합 등) 평균 2.99점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5점 척도)를 조사한 결과, '보통'(34.81%)이 가장 높았고, '동의함'(32.17%)이었으며, 평균 점수는 3.16점으로 나타났다.

IV

1~17차년도 종단자료 분석

01 1~17차 표본이탈 패턴분석

02 1~17차 주요 변인 추이분석

IV. 1~17차년도 종단자료 분석

1. 1~17차 표본이탈 패턴분석

가. 분석 개요

1) 분석 필요성

패널자료의 표본이탈은 자료의 질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패널이탈에 따라 발생하는 비표본오차에 따라 연구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패널자료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개인의 미관측 이질성을 통제하여 보다 정확한 추정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 반면, 비표본오차로 인해 오히려 연구의 결과를 왜곡하게 될 위험 또한 높아지게 된다.

아동패널조사는 2006년도 기준 연간 분만건수가 500건 이상인 표본 의료기관에서 2008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를 조사 모집단으로 구성하여 표집을 실시하였다(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¹³⁾). 이로 인해 최초 원표본 구축 당시에도 중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중산층 이상 가구만을 표집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발적 참여의사가 높은 사람들로 표본이 구축됨에 따라 표본 편의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 참여의사가 높은 경우를 표본 대상으로 함에 따라 장기간의 종단면 조사에서 표본 유지가 용이해져 자료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패널자료의 질 제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표집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아동패널조사의 경우 초기 표본이탈 이후 지속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표본유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동패널홈페이지¹⁴⁾).

2008년생 코호트에 대한 종단 추적조사인 아동패널조사는 2025년 기준 18차년도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표본 아동들은 초중등학교를 거쳐 16차년도

13)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n.d.) 표본설계

https://panel.kicce.re.kr/pskc/html.do?menu_idx=26 (인출일: 2025. 9. 4.)

14)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n.d.) 표본유지율

https://panel.kicce.re.kr/pskc/html.do?menu_idx=30 (인출일: 2025. 9. 4.)

(2024년)에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상황이다. 통상 아동 대상 조사의 경우 학교급이 변동하는 시기에 표본 추적 및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 표본유지율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대응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장기간에 걸친 추적 조사로 인해, 아동패널 가구들의 응답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장기간의 이탈 표본의 누적으로 인해 17차년도(2024년 기준) 표본 응답자 수는 1,287가구 (원표본 대비 59.8%)로 줄어든 상황이다(아동패널 원자료).

아동패널 표본유지 및 표본 특성 관련하여 최효미(2017)의 연구에서 1~7차년도 자료에 대한 분석이 실시된 바 있으며, 조숙인 외(2022)에서 1~13차년도까지의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즉, 최효미(2017)의 연구는 표본이 영유아기인 경우의 표본 유지에 관한 분석이며, 조숙인 외(2022)는 초등학교까지의 표본 특성에 관한 연구라 볼 수 있다. 이후 표본 아동들은 중학교에 진학하였으며 17차년도 조사부터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상황으로, 아동의 조사 참여의사에 따라 표본유지율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할 때 중·고등학교 진학에 따른 표본의 이탈 특성 등에 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표본이탈 유형에 대한 분석은 데이터 유저들에게 중단 자료 분석 시 표본이탈에 따른 오차를 감안한 연구 결과의 해석과 분석을 위한 중요한 기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된다. 또한, 남아 있는 표본의 특성에 대한 고찰은 향후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표본 추적 및 유지에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표본이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표본 특성 관련된 변수는 <표 IV-1-1>과 같다. 표본이탈 분석에 활용된 주요 가구 특성 변수는 패널표본 유지에 관한 선행 연구(이경상, 2021; 이경상, 이순래, 2017; 이해정 외, 2023; 조숙인 외, 2022; 최효미, 2017)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뒤, 아동패널 1차년도부터 17차년도까지 모든 차수에 조사가 된 변수를 기준으로 하여 추출하였다. 이는 표본이탈 직전의 표본가구의 특성 변수를 활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단, 중단면에 걸쳐 가구특성의 변화가 없거나 일정한 변수, 예컨대 아동의 성별, 연령 등은 1차년도 한 번만 조사되어도 변수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분석에 활용된 가구 특성은 가구원수와 가구소득, 거주지역, 주택소유 여부 등이며, 주택소유 여부는 5차년도까지만 조사하고 이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모든 표본에 응답값이 존재하는 1차년도 응답값을 기준으로 삼았다. 반면, 가구원수와 가구소득, 거주 지역규모는 해마다 변동될 수 있는 변수로 표본이탈이 발생하기 직전의 상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가장 최근에 응답한 차수의 응답값을 끌어다 활용하였다. 즉, 가구원수와 같이 가장 최근 응답값을 활용한 경우는 표본이탈 직전 연도의 상태 값이 차년도 표본이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가구소득의 경우 17년 동안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추세가 있다는 점이다. 즉, 2차년도 이후 쪽 응답하지 않는 가구의 경우에는 1차년도 가구소득을 활용하고, 15차년도 이후 응답하지 않는 가구는 14차년도의 가구소득을 활용하게 되는데, 1차년도(2008년) 당시 100만원과 14차년도(2021) 기준 100만원의 가치는 매우 다른 상황이다. 즉, 지난 17년 동안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명목 가구소득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지 않고 응답차수를 감안하지 않은 명목 소득을 활용할 경우 당연히 소득이 높은 집단이 계속 응답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통상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소득을 실질소득으로 환산하여 활용하게 되는데, 아동패널의 경우에는 가구소득을 연속변수로 질문한 경우와 범주변수로 질문한 경우가 뒤섞여 있는 상황으로, 전체 자료의 활용을 위해서는 연속변수를 범주변수로 변환하여 활용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득의 실질화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차수별로 가구소득분위를 생성하여 그 값을 활용하였다. 즉, 차수별로 상대적인 소득 수준(가구소득분위)을 기준으로 표본이탈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가구소득분위는 이미 전년도에 가구소득이 높거나 낮은 집단에서 체계적인 표본이탈이 발생한 경우는 남아 있는 사람 중에서 상대적인 소득의 수준을 의미하므로, 지속적으로 하위분위(저소득가구)에서 이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 실제 가구소득 수준이 낮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집단에서 이탈 위험이 좀 더 높다 등으로 해석해야 함을 주지하는 바이다.

한편, 표본이탈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 특성은 성별과 출생순위로, 성별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수가 아니므로 1차년도 응답값을 활용하였고, 출

생순위는 부모의 이혼, 재혼 등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장 최근 응답차수의 결과를 활용하였다. 부모 특성 변인으로는 모 연령, 모 학력, 모 취업 여부, 혼인상태 등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이 외에 아동의 발달 정도, 부모의 양육 방식, 아동의 학업성취 등이 표본이탈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긴 했으나, 해당 변인은 아동패널 1~17차년도 기간 동안 연속 측정이 되지 않는 변수로, 특정 차수의 자료만을 활용할 경우 해당 차수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가 분석에서 모두 제외되면서 자료의 왜곡을 가져 오기 때문에 부득이 활용할 수 없었음을 밝혀둔다.

〈표 IV-1-1〉 가구 특성 및 아동 특성 변수 정의

구분	변수명	항목 구분	기준 시점	특기사항
가구특성	가구원수	연속변수	가장 최근 응답	-
	가구소득분위	10분위 집단	가장 최근 응답	각 차수별 분위값을 생성하여 활용
	거주 지역규모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지역	가장 최근 응답	3.읍면지역 base (코드북 순서와 상이하므로 주의)
	주택소유 여부	1. 자가 0. 그 외	1차년도 응답	5차년도 이후 조사하지 않음.
아동 특성	성별	1. 남아 0. 여아	1차년도 응답	-
	출생순위	연속변수	가장 최근 응답	11차년도 조사하지 않음
부모 특성	모 연령	연속변수	1차년도 응답	-
	모 학력	1. 고졸 이하 2. 전문대졸 3. 4년제대졸 이상	1차년도 응답	1.고졸이하 base
	모 취업 여부	1. 취업 0. 미취업	가장 최근 응답	취업+학업의 경우 취업으로 분류
	혼인상태	1. 기혼 유배우 0. 그 외	가장 최근 응답	기혼 유배우는 재혼 포함

분석방법은 우선 1~17차년도의 응답 여부를 기준으로 사건계열을 만들어서, 사건계열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사건계열을 기준으로 표본이탈 패턴을 유형화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적용된 군집분석의 방법은 K-means이며, 집단은 최종적으로 4개로 설정하였다. 이후 응답횟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OLS를 적용하였고, 집단 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은 다항로짓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나. 분석결과

1) 표본 응답 현황

표본이탈 유형 분석에 앞서 조사차수별로 응답 현황을 살펴보면, 1차년도 원표본은 2,150가구이며, 2차년도에 상대적으로 표본이탈이 크게 발생하여 1,904가구(88.6%)가 응답하였다. 4차년도 조사 이후 표본이 안정화되면서 매해 50가구 내외 정도의 추가 이탈이 발생하였다. 애초 10차 조사까지 기획되었던 조사가 20년으로 연장되면서, 11차년도에 표본이탈이 10차 조사 대비 50개 감소하였으나, 12차년도와 13차년도에는 표본이탈이 전년에 비해 20개 정도만 증가하였다. 다만, 학교급이 변동한 14차년도 조사에서는 전년 대비 51가구가 감소하여, 완전히 둔화되고 있던 표본이탈률이 조금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추가 이탈표본수가 감소하였고, 고등학교 진학한 17차년도에는 16차년도 대비 응답 표본가구수가 1개 감소한 수준으로, 최근에는 매우 안정적으로 표본이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2〉 조사차수별 응답 현황

단위 : 가구(%)

구분	응답		미응답	
	N	(%)	N	(%)
1차 (0세)	2,150	(100.0)	0	(0.0)
2차 (1세)	1,904	(88.6)	246	(11.4)
3차 (2세)	1,802	(83.8)	348	(16.2)
4차 (3세)	1,754	(81.6)	396	(18.4)
5차 (4세)	1,703	(79.2)	447	(20.8)
6차 (5세)	1,662	(77.3)	599	(22.7)
7차 (6세)	1,620	(75.4)	530	(24.7)
8차 (7세, 초1)	1,598	(74.3)	552	(25.7)
9차 (8세, 초2)	1,525	(70.9)	625	(29.1)
10차 (9세, 초3)	1,484	(69.0)	666	(31.0)
11차 (10세, 초4)	1,434	(66.7)	716	(33.3)
12차 (11세, 초5)	1,412	(65.7)	738	(34.3)
13차 (12세, 초6)	1,397	(65.0)	753	(35.0)
14차 (13세, 중1)	1,348	(62.7)	802	(37.3)
15차 (14세, 중2)	1,304	(60.7)	846	(39.4)
16차 (15세, 중3)	1,288	(59.9)	862	(40.1)
17차 (16세, 고1)	1,287	(59.9)	863	(40.1)

자료: 한국아동패널조사 1~17차년도 원자료.

이와 같은 한국아동패널조사의 표본유지율을 조사대상이 유사한 다른 패널조사
와 비교해보면, 2차년도 표본유지율이 다른 조사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이
후 조사에서는 표본이 안정화되며 높은 유지율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한국교육종단조사-2013년 코호트의 11차 조사 기준 67.7%로, 한국아동패널조사
66.7%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표 IV-1-3 참조). 한편,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의 경우 추적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표본을 추적 대상에서 제외한 유효표
본 대비 표본유지율을 보고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6년 코호트의 8차년도 원표본
유지율은 71.2%로, 한국아동패널의 8차년도 표본유지율(74.3%)이 오히려 소폭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표 IV-1-3 참조).

한편, 아동패널의 경우 유사 다른 패널과 비교할 때 1차년도 표본 구축 당시 원
표본의 규모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1차년도 원표본의 규모 자체가 적기 때문
에 아동패널 자료에서의 표본이탈은 전체 응답 표본 특성의 변화에 좀 더 크게 영
향을 미칠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아동패널 조사의 경우에는 표본의 체계적 이
탈이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주시하고, 표본이탈에 따른 분석결과와 왜곡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 요구되는 바이다.

〈표 IV-1-3〉 유사 패널조사의 표본유지율

단위 : 년, 명, %

구분	한국 아동 패널	한국교육종단조사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한국교육고용패널		
		2005 코호트	2013 코호트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2004 코호트	2016 코호트	
1차 조사	조사 년도	2008	2005	2013	2003	2004	2010	2019	2004	2016
	아동 연령	0세	중1	초5	중2	초4	초1, 4, 중1	초4 중1	중고등 학생	고등 학생
	표본 규모	2,150	6,908	7,324	3,449	2,884	7,071	5,197	6,000	10,558
표 본 유 지 율	2차	88.6	99.3	98.3	93.3	95.2	96.3	93.8	90.3	90.0
	3차	83.8	93.4	93.2	90.6	94.0	94.4	92.3	86.0	90.1
	4차	81.6	94.2	91.2	90.5	88.3	89.4	87.4	86.8	90.2
	5차	79.2	92.4	89.0	86.0	86.1	88.7	87.8	79.8	90.3
	6차	77.3	89.8	85.5	82.1	-	87.5	85.9	79.4	90.2
	7차	75.4	90.4	84.8	-	-	82.9	-	82.6	90.0
	8차	74.3	85.6	82.7	-	-	-	-	80.1	85.7
9차	70.9	-	77.9	-	-	-	-	80.0	-	

구분	한국 아동 패널	한국교육종단조사		한국청소년패널조사			한국교육고용패널		
		2005 코호트	2013 코호트	K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2004 코호트	2016 코호트	
10차	69.0	-	71.4	-	-	-	-	80.1	-
11차	66.7	-	67.7	-	-	-	-	80.2	-
12차	65.8	-	-	-	-	-	-	80.2	-

- 주: 1)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년 코호트 표본유지율은 전화 조사 미포함 기준
 2) 한국아동패널 이외에 조사차수가 가장 긴 한국교육고용패널(1) 기준으로 12차년도 조사까지만 남김.
 3) 한국교육고용패널(1)의 표본은 4차년도(2007년)에 신규패널 1,580명(기존패널은 3,942명이 남음)을 추가 구축하였으며, 4차년도 조사 이후 표본유지율은 신규 구축 표본을 포함한 유지율임.
 4)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표본유지율은 유효표본 대비 유지율로, 실제 원표본 유지율은 이보다 낮음. 예를 들면, 2004년 코호트의 4차년도(2007년) 기준 패널의 원표본 유지율은 65.7%이며, 2016년 코호트의 8차년도(2024년) 원표본 대비 표본 유지율은 71.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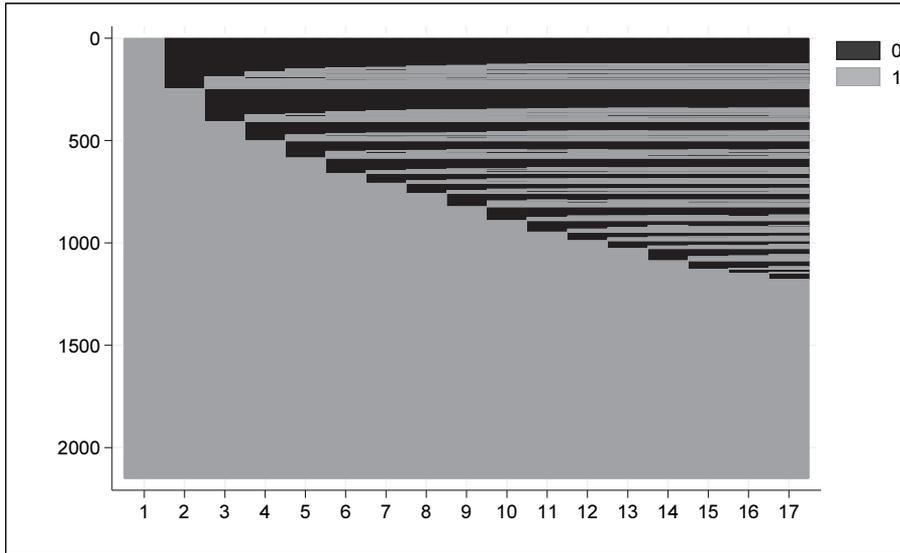
자료: 1) 한국아동패널조사 1~17차년도 원자료.

- 2) 김영분 외(2014). 2014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종단연구(KELS)2005(IX) - 조사개요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3) 한호정 외(2024). 2024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종단연구2013(XII): 조사개요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4) 이경상 외(2009).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 하형석 외(2024). 202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사업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 유한구 외(2017). 한국교육고용패널 기초분석보고서(2016) -제12차(2015)년도 자료 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7) 김지영 외(2024).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202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 표본이탈 유형 분석

아동패널 원표본가구의 지난 17년 동안의 표본응답패턴(사건계열)을 살펴보면, [그림 IV-1-1]과 같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차년도를 기준으로 응답가구와 미응답가구가 적당히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으며, 17차년도에 응답한 가구의 상당수는 1차년도부터 계속 응답하고 있는 가구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반면, 그래프에서 검정으로 표기된 부분(미응답) 표본의 응답패턴을 살펴보면, 한번 이탈이 발생하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응답을 거부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다만, 1차년도 조사 이후 초기(2~4차) 조사에서 미응답하였으나, 이후 다시 복귀하여 응답하고 17차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표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패널 표본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한두 번 이탈이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표본유지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단, 표본이탈이 4~5회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표본 복귀가 매우 어렵다는 점 또한 사건계열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 표본이탈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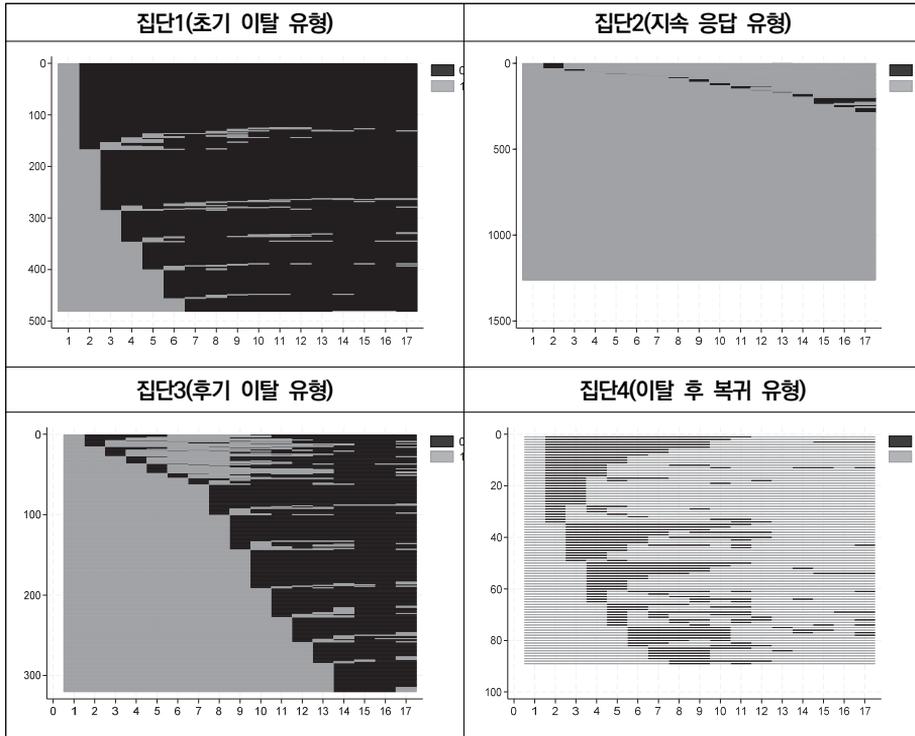
[그림 IV-1-1] 전체 표본 사건계열 그래프



주: 1(회색)이 응답한 경우, 0(검정)이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군집분석(k-means clustering)을 실시하여 아동패널 표본의 응답패턴 유형화를 실시한 결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먼저 집단1(초기 이탈 유형)은 패널 조사 초기에 응답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계속 응답하지 않고 거의 표본 복구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유형이다. 반대로 집단2(지속 응답 유형)은 어쩌다 한두 번 응답하지 않은 차수가 섞여 있을 수 있으나, 17년 동안 거의 모든 차수에 응답한 가구들로 구성된 유형이다. 집단3(후기 이탈 유형)은 초기 조사단계에서는 지속 응답하였으나, 비교적 최근에 표본이탈이 발생한 다음 지속적으로 표본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집단4(이탈 후 복귀 유형)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는 미응답한 경우가 있으나 이후 표본 복구에 성공한 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응답 표본이 유지되고 있는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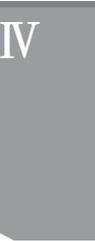
[그림 IV-1-2] 표본이탈 유형 집단별 사건계열 그래프



주: 1(회색)이 응답한 경우, 0(검정)이 응답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

패널 가구의 응답횟수를 살펴보면, 17년 동안 단 1회만 조사에 응답한 가구는 124가구로, 이들은 1차년도에만 한 번 응답하고 이후 추적조사에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가구들이다. 반면 17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응답한 가구 표본은 973가구로 원표본 대비 45.3%에 해당한다.

한편, 표본이탈 유형 집단별 응답횟수를 살펴보면, 집단1(초기 이탈 유형)은 10회 이상 응답한 가구가 하나도 없으며 5회 미만 응답한 경우가 다수인 경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반대로 집단2(지속 응답 유형)는 12회 이하 응답한 가구가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16회 이상 응답한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집단3(후기 이탈 유형)과 집단4(이탈 후 복귀 유형)는 응답횟수가 중간 수준을 유지하는 집단으로 집단3(후기 이탈 유형)에 비해서 집단4(이탈 후 복귀 유형)에 속한 가구들의 응답횟수가 좀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V-1-4〉 표본이탈 유형 집단별 응답횟수

단위: 가구(%)

구분	전체		집단별 응답횟수							
			집단1 (초기 이탈 유형)		집단2 (지속 응답 유형)		집단3 (후기 이탈 유형)		집단4 (이탈 후 복귀 유형)	
	N	(%)	N	(%)	N	(%)	N	(%)	N	(%)
1회	124	(5.8)	124	(5.8)	0	(0.0)	0	(0.0)	0	(0.0)
2회	112	(5.2)	112	(5.2)	0	(0.0)	0	(0.0)	0	(0.0)
3회	67	(3.1)	67	(3.1)	0	(0.0)	0	(0.0)	0	(0.0)
4회	65	(3.0)	66	(3.0)	0	(0.0)	0	(0.0)	0	(0.0)
5회	68	(3.2)	41	(3.1)	0	(0.0)	2	(0.1)	0	(0.0)
6회	48	(2.2)	2	(1.9)	0	(0.0)	6	(0.3)	1	(0.1)
7회	47	(2.2)	2	(0.1)	0	(0.0)	44	(2.1)	1	(0.1)
8회	58	(2.7)	2	(0.1)	0	(0.0)	52	(2.4)	4	(0.2)
9회	57	(2.7)	2	(0.1)	0	(0.0)	48	(2.2)	7	(0.3)
10회	44	(2.1)	0	(0.0)	0	(0.0)	37	(1.7)	7	(0.3)
11회	44	(2.1)	0	(0.0)	0	(0.0)	38	(1.8)	6	(0.3)
12회	48	(2.2)	0	(0.0)	0	(0.0)	39	(1.8)	9	(0.4)
13회	65	(3.0)	0	(0.0)	7	(0.3)	45	(2.1)	13	(0.6)
14회	74	(3.4)	0	(0.0)	45	(2.1)	9	(0.0)	20	(0.9)
15회	89	(4.1)	0	(0.0)	68	(3.2)	0	(0.0)	21	(1.9)
16회	167	(7.8)	0	(0.0)	167	(7.8)	0	(0.0)	0	(0.0)
17회	973	(45.3)	0	(0.0)	973	(45.3)	0	(0.0)	0	(0.0)
전체	2,150	(100.0)	481	(22.4)	1,260	(58.6)	320	(14.9)	89	(4.1)

주: 비중은 전체 2,150명 기준 대비 비중임.

표본이탈 유형 집단별로 평균 응답횟수와 표본수를 살펴보면, 전체 표본 2,150 가구 기준 평균 응답횟수는 12.4회였다. 집단1(초기 이탈 유형)은 평균 응답횟수가 2.98회로 매우 적은 유형으로 전체 표본에서 481가구에 이 유형에 속하였다. 집단 2(지속 응답 유형)는 평균 응답횟수가 16.63회로 거의 모든 차수에 응답한 표본들로 1,260가구가 이 유형에 속하여 아동패널 데이터의 높은 표본 안정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3(후기 이탈 유형)의 평균 응답횟수는 9.9회로 320명이 이 유형에 속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4(이탈 후 복귀 유형)는 89가구로 관측치는 많지 않지만, 평균 응답횟수는 12.54회로 집단3(후기 이탈 유형)에 비해 2.64회 가량 응답횟수가 많고, 중간에 이탈이 발생했으나 패널조사 표본으로 다시 복귀하여 꾸준히 응답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유형이다.

〈표 IV-1-5〉 표본이탈 유형 집단별 평균 응답횟수

단위: 회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전체	2,150	12.40	5.76	1.0	17.0
집단1 (초기 이탈 유형)	481	2.98	1.74	1.0	9.0
집단2 (지속 응답 유형)	1,260	16.63	0.79	13.0	17.0
집단3 (후기 이탈 유형)	320	9.90	2.20	5.0	14.0
집단4 (이탈 후 복귀 유형)	89	12.54	2.33	6.0	15.0

3) 표본이탈 유형별 가구 및 아동 특성

이하에서는 표본이탈에 영향을 준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응답 표본의 가구 특성과 아동 특성, 부모 특성 등 다양한 변인이 표본이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 연구는 앞서 표본이탈 유형 집단별로 특성별 차이가 발견되는지를 중심으로 요인을 파악하였다.

먼저 표본이탈 유형별 가구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표본 기준 평균 가구원수가 4.26명인 상황에서, 집단1(초기 이탈 유형)은 3.97명, 집단2(지속 응답 유형)는 4.33명, 집단3(후기 이탈 유형)은 4.41명, 집단4(이탈 후 복귀 유형)는 4.46명으로, 조사 초기 응답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집단1(초기 이탈 유형)의 경우에 가구원수가 조금 적은 것으로 나오나, 이는 지속 미응답가구의 후속출산 여부가 관측되지 않은 문제에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최근 미응답하는 가구가 많은 집단3(후기 이탈 유형)의 경우 4.41명으로, 계속 응답가구 유형인 집단2(지속 응답 유형)에 비해 자녀수가 많은 것 등을 통해서도, 가구원수가 표본이탈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가구소득분위는 전반적으로 5분위 수준으로, 소득분위에 따른 편차는 크게 없어 보이기 는 하나, 집단2(지속 응답 유형)의 소득분위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기 는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역규모별로는 집단1(초기 이탈 유형)은 대도시 거주자 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특징을 보였으며, 자가주택소유 여부는 집단3(후기 이탈 유형)에서 약간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6〉 표본이탈 유형별 가구 특성

구분	전체		집단별 응답횟수							
			집단1 (초기 이탈 유형)		집단2 (지속 응답 유형)		집단3 (후기 이탈 유형)		집단4 (이탈 후 복귀 유형)	
	N	(%)	N	(%)	N	(%)	N	(%)	N	(%)
평균 가구원수(명)	4.26		3.97		4.33		4.41		4.46	
평균 소득분위	5.48		5.45		5.53		5.37		5.29	
거주 지역	대도시	903 (42.0)	215 (44.7)	521 (41.4)	131 (40.9)	36 (40.5)				
	중소도시	1,045 (48.6)	178 (37.0)	670 (53.2)	149 (46.6)	48 (53.9)				
규모	읍면지역	202 (9.4)	88 (18.3)	69 (5.5)	40 (12.5)	5 (5.6)				
	주택 소유 여부	자가	807 (37.5)	157 (32.6)	482 (32.3)	136 (42.5)	32 (36.0)			
	그 외	1,343 (62.5)	324 (67.4)	778 (61.8)	184 (57.5)	57 (64.0)				

주: 가구소득분위 응답 관측치는 2,034명으로 가구소득을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가구가 116가구 있음.

표본이탈 유형별 아동 특성을 살펴보면, 집단3(후기 이탈 유형)에 남아가 약간 더 높은 비중을 보이기는 하나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며, 출생 순위 또한 집단4(이탈 후 복귀 유형)가 1.72로 약간 높긴 하였다.

〈표 IV-1-7〉 표본이탈 유형별 아동 특성

구분	전체		집단별 응답횟수							
			집단1 (초기 이탈 유형)		집단2 (지속 응답 유형)		집단3 (후기 이탈 유형)		집단4 (이탈 후 복귀 유형)	
	N	(%)	N	(%)	N	(%)	N	(%)	N	(%)
성별	남아	1,091 (50.7)	232 (48.2)	640 (50.8)	174 (54.4)	45 (50.6)				
	여아	1,059 (49.3)	249 (51.8)	620 (49.2)	146 (45.6)	44 (49.4)				
평균 출생순위	1.64		1.60		1.65		1.66		1.72	

주: 출생순위 응답 관측치는 2,114명으로 패널 자녀의 출생순위를 알 수 없는 경우가 36가구 있음.

표본이탈 유형별 모 연령은 집단별로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모 학력의 경우에는 집단1(초기 이탈 유형)의 경우 고졸 이하의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가 취업자인 경우는 집단2(지속 응답 유형)과 집단4(이탈 후 복귀 유형)의 비중이 70%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 모가 취업자인 경우가 오히려 지속 응답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1-8〉 표본이탈 유형별 부모 특성

구분	전체	집단별 응답횟수							
		집단1 (초기이탈 유형)		집단2 (지속 응답 유형)		집단3 (후기이탈 유형)		집단4 (이탈 후 복귀 유형)	
		N	(%)	N	(%)	N	(%)	N	(%)
평균 모 연령 (세)	31.3	31.7		31.2		31.3		31.3	
모 학력	고졸 이하	643 (29.9)	158 (32.9)	356 (28.3)	99 (30.9)	30 (33.7)			
	전문대졸	590 (27.4)	105 (21.8)	376 (29.8)	93 (29.1)	16 (18.0)			
	4년제대졸 이상	829 (38.7)	189 (32.3)	486 (38.6)	119 (37.2)	35 (39.3)			
모 취업 여부	취업	1,267 (58.9)	181 (37.6)	877 (69.6)	148 (46.3)	61 (68.5)			
	미취업	883 (41.1)	300 (62.4)	383 (30.4)	172 (53.8)	28 (31.5)			
혼인 상태	기혼 유배우	2,089 (97.2)	468 (2.7)	1236 (98.1)	300 (93.8)	85 (95.5)			
	그 외	61 (2.8)	13 (97.3)	24 (1.9)	20 (6.2)	4 (4.5)			

주: 모학력 응답 관측치는 2,062명으로 88가구가 응답하지 않음. 모연령 응답 관측치는 2,077명으로 73명이 1차년도 조사 당시 모 연령을 응답하지 않음. 비중은 2,150명 기준으로 산출된 값으로 합이 100%가 안 될 수 있음.

4) 표본이탈 결정 요인

이 항에서는 아동패널 표본의 이탈(혹은 표본 응답) 결정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아동패널 표본의 응답횟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는 OLS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1~17차년도 조사까지 응답횟수에 가구 특성의 대부분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모의 학력수준(4년제 대졸 이상) 정도만이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것에 비해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1차년도 조사 당시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업 모인 경우, 기혼 유배우자의 응답횟수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모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응답횟수는 유의하게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1-9〉 표본의 응답횟수에 영향을 미친 요인(OLS)

구분	전체	
가구원수(명)	0.679 ***	
소득분위	-0.143 ***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3.224 ***
	중소도시	4.042 ***
주택소유 여부 (자가=1)	0.520 **	
성별 (남아=1)	0.094	

구분		전체
아동 출생순위		-0.098
모 연령 (세)		-0.070 *
모 학력	전문대졸	0.890 ***
	4년제대졸 이상	0.468
모 취업 여부(취업=1)		3.652 ***
혼인상태(기혼유배우=1)		2.863 ***
상수		3.631 **

주: 1) 종속변수는 1~17차년도까지의 표본 응답횟수임.

2) 표본 분석에 사용된 실제 표본은 1,935개로 변수별로 모름/무응답 값 등으로 인한 결측이 있었기 때문임.

* $p < .05$. ** $p < .01$. *** $p < .001$.

앞서 <표 IV-1-9>이 종속변수를 응답횟수로 하는 선형모형의 결과였다면, <표 IV-1-10>는 표본이탈 유형 집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항로짓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앞서 사건계열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된 표본이탈 유형 집단은 어떠한 가구 및 개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때, 기준 집단은 집단4(이탈 후 복귀 유형)이다.

먼저 계속 미응답하는 유형인 집단1(초기 이탈 유형)에 속할 확률은 가구원수, 소득분위, 지역규모, 주택소유 여부, 모취업 여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즉, 집단4(이탈 후 복귀 유형)에 비해 집단1(초기 이탈 유형)에 속할 확률은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소득수준은 높을수록, 도시지역 거주에 비해 읍면지역 거주자인 경우, 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취업모에 비해 미취업모인 경우에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집단4(이탈 후 복귀 유형)에 비해 집단2(지속 응답 유형)에 속할 확률은 가구특성 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모 학력 수준이 고졸 이하 대비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집단2(지속 응답 유형)에 속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집단4(이탈 후 복귀 유형)에 집단3(후기 이탈 유형)에 속할 확률은 모 학력이 고졸 이하 대비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미취업모인 경우, 기혼 유배우자가 아닌 경우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부모가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기혼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패널이탈 확률이 유의하게 높아지고 이후로도 조사에 복귀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10〉 표본이탈 유형에 영향을 미친 요인(다항로지 분석)

구분		집단1 (초기 이탈 유형)	집단2 (지속 응답 유형)	집단3 (후기 이탈 유형)
가구원수(명)		-0.648 ***	-0.065	-0.032
소득분위		0.087 *	0.012	0.057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0.128 **	0.076	-0.627
	중소도시	-1.832 ***	-0.110	-0.811
주택소유 여부 (자가=1)		-0.431 *	-0.124	0.034
성별 (남아=1)		-0.150	-0.086	0.069
아동 출생순위		0.304	0.048	0.046
모 연령 (세)		0.029	0.001	0.011
모 학력	전문대졸	0.274	0.777 **	0.652 *
	4년제대졸 이상	-0.114	0.120	0.017
모 취업 여부(취업=1)		-1.461 ***	0.093	-1.014 ***
혼인상태(기혼유배우=1)		-0.725	0.606	-1.756 *
상수		5.672 ***	2.022	3.400 **

주: 1) 종속변수는 표본이탈 유형집단이며 base는 집단4(이탈 후 복귀 유형)임.

2) 분석에 사용된 실제 표본은 1,935개로 변수별로 모름/무응답 값 등으로 인한 결측이 있었기 때문임.

* $p < .05$. ** $p < .01$. *** $p < .001$.

5) 응답 표본의 특징

이 항에서는 한국아동패널 1차년도 당시 응답자 특성과 가장 최근 조사인 17차년도 조사의 응답자 특성을 비교해보았다. 1차년도와 17차년도 사이의 응답자 특성의 변화는 표본이탈에 따른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응답자들의 특성이 변화한 결과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의 특성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모의 취업률이나 가구소득 등은 원표본이 전부 유지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성이 변화하는 변수들이다.

먼저, 주요 가구 특성과 관련하여, 평균 가구원수는 1차년도(2008년) 당시 3.86명이었으나, 17차년도(2024년)에는 4.34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표본가구에서 원표본 아동의 동생을 출산한 것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가구소득은 1차년도 조사에서는 201~300만원 사이가 3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101~200만원도 25.8%에 달했던 반면, 17차년도 조사에서는 401~500만원이 20.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601~700만원이 14.4%로 나타났다. 17차년도에는 가구소득이 10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도 7.1%에 달해, 아동패널 표본의 경우 고

소득 가구의 표본이탈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1차년도 대비 2017년에 아동패널 응답 표본가구의 가구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은 17년 동안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상승뿐 아니라 맞벌이 가구의 증가, 저소득가구 표본이탈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거주지역의 경우 1차년도(2008년) 당시 대도시 거주자가 40.1%, 중소도시 거주자 39.6%, 읍면지역 거주자가 20.3%였는데, 17차년도에는 대도시가 39.4%, 중소도시가 55.2%, 읍면지역이 5.4%로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즉, 지난 17년 동안 읍면지역 거주자가 크게 감소하고 중소도시 거주자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가 읍면지역 거주자의 표본이탈에 기인한 것인지, 거주지역의 이전에 따른 것인지는 1차년도 거주지역과 17차년도 거주지역을 교차 분석해 봄으로써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17차년도 응답 대상 기준 1차년도 조사 당시 읍면지역에 거주했다고 응답한 가구는 총 259가구로, 이 중 51가구만이 17차년도에도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9가구 중 143가구는 17차년도에는 중소도시에 거주하였으며, 65가구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차년도 응답가구(1,287가구) 기준 1차년도 조사 당시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대도시가 39.3%, 중소도시 40.6%, 읍면지역 20.1%로, 1차년도 표집 당시의 지역규모별 가구 비중과 거의 흡사하여, 지역규모에 따른 표본이탈은 심각하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즉, 17차년도 응답 표본이 중소도시에 밀집된 것은 아동패널 표본가구들이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이동을 한 것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체계적인 표본이탈이 아닌 자연스러운 거주지 이전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아동패널 표본가구 중 읍면지역 거주자의 비중이 매우 적다는 점은 횡단면 자료 분석 시에는 유념하여야 하는 지점이라 사료된다.

한편, 아동 특성과 관련하여 남아 비중이 조금 더 증가하긴 했으나, 큰 변화가 없어 성별에 따른 체계적 이탈은 발견되지 않았다. 출생순위도 조금 증가하긴 했으나, 큰 변화는 없는 상태로 아동 표본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모 연령은 1차년도 당시 기준 연령으로 1차년도 응답자와 17차년도 응답자 모두 평균이 31.3세로 표본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취업 여부는 1차년도에는 취업자가 28.4%였으나, 17차년도에는 69.9%까지 증가했는데, 이는 자녀의 연령 증가에 따라 모의 재취업 등이 진

행됨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혼인상태의 경우에는 기혼 유배우 비중이 1차년도에는 96.0%, 17차년도에는 98.1%로, 기혼 유배우인 경우가 조사 확률이 조금 높을 것으로 보이거나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11〉 표본이탈 유형별 가구 특성

단위: 명, 세, (%)

구분		1차년도	17차년도
전체		2,150 (100.0)	1,287 (100.0)
평균 가구원수(명)		3.86	4.34
가구 특성	가구 소득	100만원 이하	39 (1.9)
		101~200만원	532 (25.8)
		201~300만원	684 (33.1)
		301~400만원	405 (19.6)
		401~500만원	246 (11.9)
		501~600만원	79 (3.8)
		601~700만원	38 (1.8)
		701~800만원	14 (0.7)
		801~900만원	16 (0.8)
		901~1000만원	4 (0.2)
	1000만원 이상	5 (0.2)	
	거주지역 규모	대도시	862 (40.1)
		중소도시	851 (39.6)
읍면지역		436 (20.3)	
아동 특성	성별	남아	1,091 (50.7)
		여아	1,059 (49.3)
	평균 출생순위	1.65	
모 특성	평균 모 연령	31.3	
	모 취업 여부	취업	611 (28.4)
		미취업	1,539 (71.6)
	혼인 상태	기혼 유배우	2,064 (96.0)
		그 외	86 (4.0)

주: 1) 1차년도 가구소득을 0원을 응답한 경우가 3가구 있으며, 가구소득을 응답하지 않는 경우 85가구 있음. 17차년도에는 가구소득 결측이 79가구 있음. 1차년도 가구소득의 백분율은 2,065가구 기준이며, 17차년도 가구소득은 1,208가구 기준의 백분율임.

2) 모 연령은 1차년도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함.

다. 소결

이상의 분석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패널 표본은 17차년도에 걸친 장기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 초기 2~3차 조사에서는 패널 표본의 이탈이 상당수 진행되었으나 이후로는 표본이탈이 크지 않았으며, 초기 이탈 후 다시 복귀하여 이후 지

속적으로 조사가 이뤄진 표본도 90개 내외 있었다.

둘째, 초기 2~3차 조사에서 일부 표본의 집중적 이탈이 발견되기는 하나, 장기에 걸쳐서는 17차년도까지 1차년도 표본의 특성이 비교적 잘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아동의 성별이나 출생순위, 모 연령 등은 거의 1차년도 당시의 표본 특성을 17차년도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셋째, 표본 응답횟수에 가구원수나 소득분위, 거주지역 규모, 모취업 여부 및 혼인상태 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긴 했으나, 표본이탈 유형 분석에서는 집단1(초기 이탈 유형)의 경우에만 집단4(이탈 후 복귀 유형)에 비해 유의하게 이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2~3차년도의 표본이탈 당시에는 일부 표본 특성을 가진 집단의 체계적 이탈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가구원수가 적고 고소득 가구이면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미취업모의 초기 표본이탈 위험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아동패널의 초기 조사차수 데이터를 포함하는 종단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표본이탈로 인한 결과의 왜곡을 좀 더 유의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넷째, 패널데이터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하는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큰 변화가 발견되는 변수도 일부 있으나, 이 또한 표본이탈에 따른 특성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 표본가구의 특성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가구소득이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나 읍면지역 거주자 비중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 맞벌이 가구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 등은 표본의 특성 자체가 변화한 것으로, 아동의 연령이 상승함에 따른 이와 같은 표본 특성의 변화 또한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아동의 연령 변화에 따라 거주지 이전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등에 대한 고찰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표본의 체계적 이탈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 차수의 아동패널 데이터를 횡단면으로 사용할 경우는 이러한 표본 특성의 변화로 인해 일부 변수(예: 지역규모, 저소득가구 등) 표본이 과소 표집되어 있어, 해당 변수의 영향력이 왜곡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2. 1~17차 주요 변인 추이분석

가. 분석 개요

이 절에서는 한국아동패널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변인의 추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최근 5년간 한국아동패널 보고서에서 시도한 추이분석은 두 가지의 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첫째, 장기간의 추이를 볼 수 있는 일부 변수들을 선정하여 분석하거나 두 번째는 학교급별 조사가 완료된 시점(2021년, 2024년)에 패널아동의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의 특성을 살펴보는 분석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후자의 방식은 해당 학교급별 아동 성장·발달의 주요 영역을 포괄하는 주제로서 심층분석의 하나로 수행된 측면이 있다. 또한 전자의 경우는 가능한 긴 기간의 추이분석이 가능한 변수로 구성하려다 보니 선정된 변수의 개수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2025년에는 이 둘을 혼합한 방식으로 추이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즉, 특정 시기의 성장·발달을 보고자 하는 심층분석 형태는 아니나, 장기간의 추이를 보고자함에 따라 매우 제한된 변수로만 분석했던 것에서 벗어나 일부 기간에 조사된 자료로 분석하더라도 아동 성장·발달의 영역별 변인들을 더 많이 포괄하고 주 영역별로 고르게 선정하여 추이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 하에 선정된 영역별 변인과 활용차수는 아래와 같다.

〈표 IV-2-1〉 추이분석에 활용된 영역별 변인

구분(영역)	변수	활용 차수
일상생활	- 생활시간(평일, 주말)	8차(2015년)~17차(2024년)
	- 미디어 이용시간	9차(2016년)~17차(2024년)
	- 미디어 기기 중독	10차(2017년)~17차(2024년)
학업	- 학업 스트레스	11차(2018년)~17차(2024년)
	- 학원 등 학교 외 교육서비스 이용(이용 여부, 시간, 비용)	8차(2015년)~17차(2024년)
	- 진로성숙도	13차(2020년)~17차(2024년)
	- 성취압력	11차(2018년)~17차(2004년)
정서	- 자아존중감	8차(2015년)~17차(2024년)
	- 전반적 행복감	8차(2015년)~17차(2024년)
부모님	- 부모의 취·학업상태	1차(2008년)~17차(2024년)
	- 부모의 결혼만족도	11차(2008년)~16차(2023년)
	- 부모의 삶의 만족도	8차(2015년)~17차(2024년)
신체 발달	- 신장, 체중	1차(2008년)~17차(2024년)
	- 신체적 자아상	12차(2019년)~17차(2024년)

나. 분석결과

1) 아동의 일상생활

가) 아동의 생활시간

이하에서는 아동의 초등 시기부터의 생활시간을 분석하여 하루 24시간 내 주요 활동의 평균 시간량을 살펴보았다. 이때 아동의 생활시간은 13차까지는 보호자가 응답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아동이 응답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생활시간 중 아동 연령 증가에 따라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수면과 학습 시간이다. 수면 시간의 경우 초등 중학년인 4학년까지 9시간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6학년에는 8시간대, 중등 시기에는 7시간대로 떨어지며 고등 1학년 시기에는 6시간대까지 낮아졌다. 반면 학습 시간은 초등 시기 동안은 8시간대에서 중등 1학년 때 9시간 이상으로 증가하고 중등 2, 3학년 10시간 이상이 되었다가 고등학교 1학년에는 11시간을 훌쩍 넘어섰다. 이처럼 수면 시간의 경우 초등 1학년 9.62시간에서 고등 1학년 때 6.66시간으로 3시간 이상 줄고, 학습 시간은 초등 1학년 8.08시간에서 고등 1학년 11.29시간으로 3시간 이상 증가하여 아동 연령이 증가하면서 3시간 가량의 수면 시간과 학습 시간이 대체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식사, 씻기 등 기본생활시간, TV시청 시간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다. 이는 식사, 씻기 등의 경우 기본활동이므로 변화가 크지 않으며 TV시청의 경우도 다른 미디어를 통한 대체가 가능하기에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책 읽기, 놀이, 활동시간, 기타 시간은 연령에 따라 변화가 있다. 책 읽기 시간은 초등 시기 1시간 가량에서 중등 이후 0.17~0.29시간(약 10분~17분) 정도로 축소되며 고등 1학년 시기에는 0.13시간(약 8분) 가량으로 줄어든다. 놀이, 활동시간 역시 초등 1학년 3.02시간에서 고등 1학년 때 2.35시간까지 줄어든다. 반면, 이동시간이 포함된 기타 시간은 초등 1,2학년 때 15분 정도에서 고등 1학년 때에는 1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주말의 생활시간의 가장 큰 특성은 연령 증가에 따라 놀이, 활동시간과 학습 시간이 서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초등 1학년 시기 8시간이 넘었던 주말의 놀이, 활동시간은 고등 1학년 때에는 5.54시간으로 줄어든 반면 학습 시간의 경우 초등 시기 1~2시간이었다가 고등 1학년 때에는 4.34시간으로 증가한다. 즉,

초·중등 시기에는 주말의 주된 활동이 놀이, 활동이었는데 고등 시기부터는 놀이, 활동만큼 학습도 주된 활동으로 바뀌게 된다.

〈표 IV-2-2〉 일일 생활시간 평일(8차~17차)

단위: 시간, 명

구분	수면		식사, 씻기 등 기본생활		학습		책임기		TV 시청		놀이, 활동		기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초등1(8차)	9.62	0.63	1.32	0.50	8.08	1.32	0.69	0.49	1.01	0.79	3.02	1.22	0.26	0.54	1,598
초등2(9차)	9.46	0.64	1.29	0.48	8.45	1.27	0.69	0.46	1.06	0.79	2.81	1.18	0.25	0.51	1,525
초등3(10차)	9.28	0.66	1.45	0.65	8.74	1.33	0.63	0.43	0.96	0.71	2.07	1.19	0.87	0.69	1,484
초등4(11차)	9.13	0.67	1.43	0.64	8.90	1.37	0.60	0.46	1.02	0.72	2.10	1.20	0.82	0.70	1,434
초등5(12차)	8.94	0.67	1.32	0.59	9.18	1.35	0.54	0.43	1.04	0.70	2.22	1.18	0.76	0.62	1,412
초등6(13차)	8.77	0.79	1.47	0.68	8.60	1.55	0.52	0.48	1.23	0.81	2.52	1.40	0.89	0.82	1,397
중등1(14차)	7.81	1.16	1.26	0.58	9.69	1.83	0.29	0.43	1.23	0.92	2.79	1.57	0.94	0.88	1,328
중등2(15차)	7.47	1.29	1.31	0.63	10.07	1.87	0.20	0.38	1.29	0.95	2.69	1.64	0.97	0.69	1,294
중등3(16차)	7.20	1.26	1.24	0.62	10.28	1.99	0.17	0.36	1.33	0.99	2.80	1.65	0.98	0.72	1,258
고등1(17차)	6.66	1.37	1.33	0.66	11.29	2.5	0.13	0.32	1.15	0.90	2.35	1.68	1.09	0.85	1,277

주: 1) 아동의 일일 생활시간을 합산하면 24시간임.

2) 한국아동패널 9~13차의 경우 보호자 응답, 14~17차의 경우 아동의 응답임.

자료: 1) 9~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262

2) 14~17차: 한국아동패널 14~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표 IV-2-3〉 일일 생활시간 주말(8차~17차)

단위: 시간, 명

구분	수면		식사, 씻기 등 기본생활		학습		책임기		TV 시청		놀이, 활동		기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초등1(8차)	9.74	0.78	1.61	0.63	1.03	1.38	0.91	0.72	2.22	1.21	8.03	2.09	0.45	0.78	1,598
초등2(9차)	9.69	0.82	1.63	0.66	1.34	1.58	0.94	0.74	2.33	1.19	7.62	2.18	0.46	0.75	1,525
초등3(10차)	9.58	0.89	1.85	0.80	1.73	1.65	0.99	0.75	2.27	1.33	5.93	2.08	1.66	1.41	1,484
초등4(11차)	9.50	0.89	1.78	0.76	1.74	1.55	0.90	0.77	2.35	1.30	6.15	2.09	1.57	1.30	1,434
초등5(12차)	9.47	0.90	1.73	0.74	1.97	1.80	0.86	0.72	2.38	1.23	6.06	2.04	1.53	1.30	1,412
초등6(13차)	9.47	0.95	1.85	0.79	2.02	1.72	0.76	0.70	2.49	1.32	5.78	2.09	1.63	1.43	1,397
중등1(14차)	9.11	1.37	1.57	0.70	2.20	2.14	0.48	0.69	2.43	1.54	6.52	2.56	1.69	1.70	1,328
중등2(15차)	8.82	1.41	1.58	0.79	2.67	2.42	0.35	0.59	2.45	1.55	6.63	2.75	1.50	1.44	1,294
중등3(16차)	8.66	1.41	1.51	0.72	3.07	2.68	0.33	0.58	2.57	1.50	6.37	2.71	1.48	1.45	1,258
고등1(17차)	8.48	1.44	1.61	0.77	4.34	3.31	0.25	0.53	2.34	1.50	5.54	2.86	1.44	1.36	1,277

주: 1) 한국아동패널 9~13차의 경우 보호자 응답, 14~17차의 경우 아동의 응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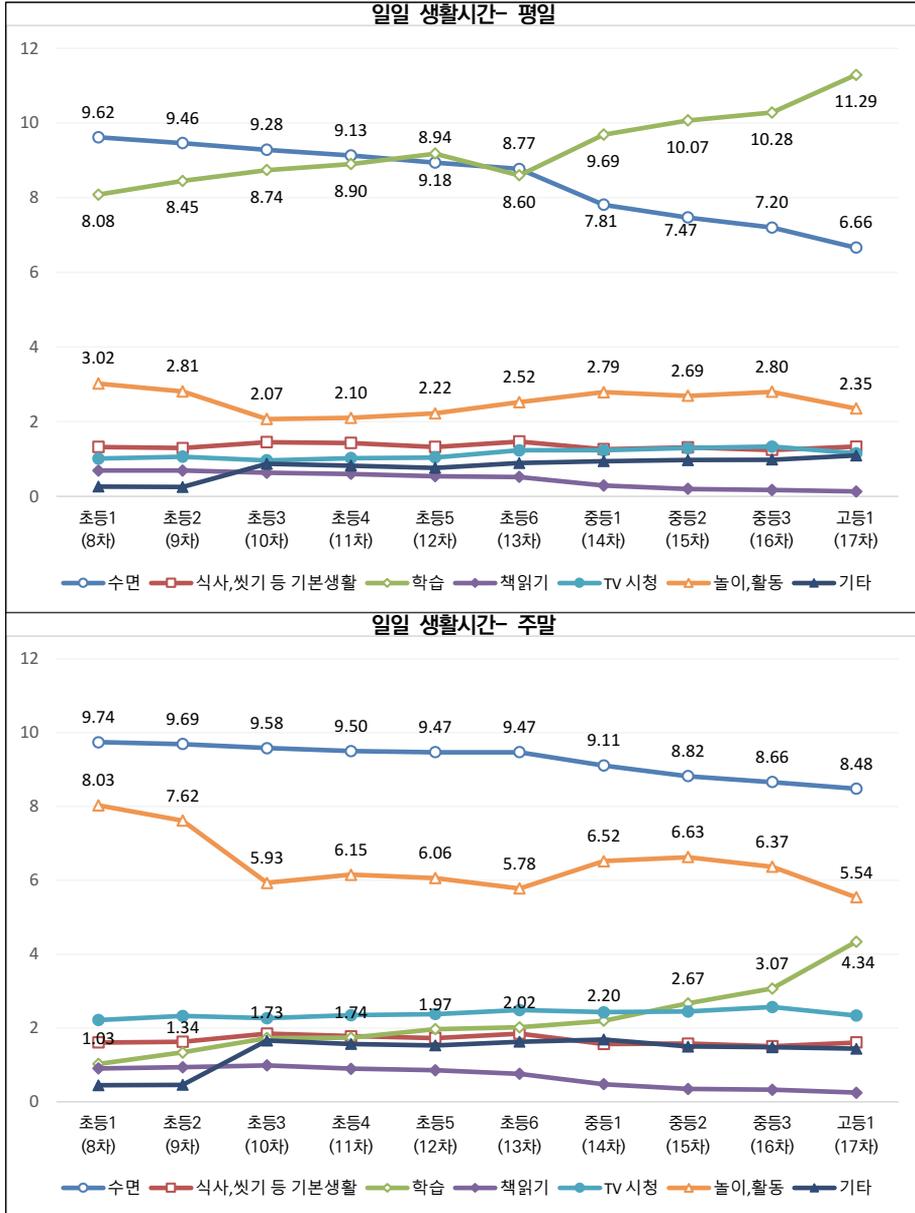
2) 아동의 일일 생활시간을 합산하면 24시간임.

자료: 1) 9~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263

2) 14~17차: 한국아동패널 14~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IV-2-1] 일일 생활시간 - 평일/주말(8차~17차)

단위: 시간



주: 1) 한국아동패널 9-13차의 경우 보호자 응답, 14-17차의 경우 아동의 응답임.
 2) 아동의 일일 생활시간을 합산하면 24시간임.
 자료: 1) 9-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p. 262-263
 2) 14-17차: 한국아동패널 14-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나) 아동의 미디어 이용

아동의 미디어 이용에 대해서는 미디어 이용시간과 인터넷 중독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9~13차까지는 보호자가 응답하고, 그 이후부터는 아동이 응답하였으며, 이때의 미디어 사용은 정보검색, 게임, 동영상 및 웹툰 감상 등의 엔터테인먼트 활동, SNS뿐 아니라 인터넷 강의, 온라인 수업 등의 학습 활동도 포함됨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초등 2, 3학년 시기 약 1시간에서 점차 증가하여 초등 6학년 때는 약 3시간, 학교급이 바뀌고 보호자 응답에서 아동 직접 응답으로 변경되는 중등 시기부터는 5, 6시간으로 급격히 증가한다. 물론 미디어 이용시간이 가장 긴 중등 1학년 때는 팬데믹의 정점인 2021년이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고등 1학년 때에는 중등 3학년 때보다 약 15분 가량 감소하는 양상도 드러난다.

〈표 IV-2-4〉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9차~17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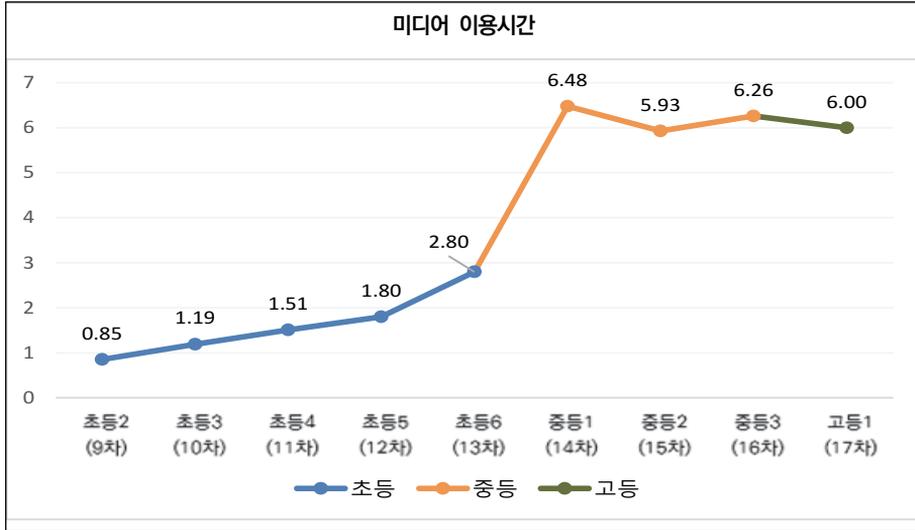
단위: 시간, 명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
초등2(9차)	0.85	0.72	(1,525)
초등3(10차)	1.19	0.82	(1,484)
초등4(11차)	1.51	0.97	(1,409)
초등5(12차)	1.80	1.03	(1,391)
초등6(13차)	2.80	1.55	(1,377)
중등1(14차)	6.48	3.48	(1,328)
중등2(15차)	5.93	3.12	(1,294)
중등3(16차)	6.26	3.42	(1,258)
고등1(17차)	6.00	3.06	(1,277)

주: 한국아동패널 9~13차의 경우 보호자 응답, 14~17차의 경우 아동의 응답임.
 자료: 1) 9-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268.
 2) 14-17차: 한국아동패널 14-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IV-2-2] 미디어 이용시간(9차~17차)

단위: 시간



주: 한국아동패널 9~13차의 경우 보호자 응답, 14~17차의 경우 아동의 응답임.
 자료: 1) 9~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268.
 2) 14~17차: 한국아동패널 14~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이하는 부모 응답을 통해 산출한 아동의 인터넷 중독 정도이다.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인터넷 중독 고위험 사용자군의 비율은 미디어 이용시간이 급증하는 중등 2학년 시기(44.9%)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후 점차 감소하여 고등 1학년 때에는 30%대로 떨어진다. 이와 연동하여 일반 사용자군의 비중은 중등 1, 2학년 때에 절반에 못 미치지만, 그 이후에는 절반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표 IV-2-5> 아동의 인터넷 중독(10차~17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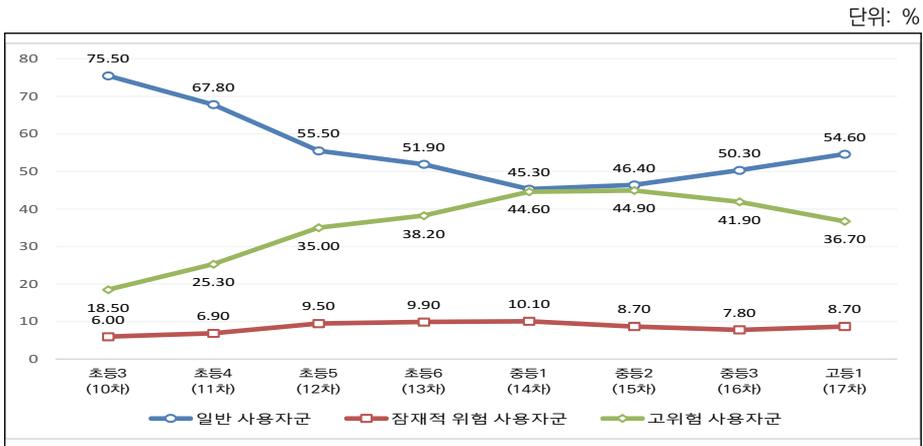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계(수)
초등3(10차)	75.5	6.0	18.5	100.0 (1,389)
초등4(11차)	67.8	6.9	25.3	100.0 (1,401)
초등5(12차)	55.5	9.5	35.0	100.0 (1,308)
초등6(13차)	51.9	9.9	38.2	100.0 (1,393)
중등1(14차)	45.3	10.1	44.6	100.0 (1,348)
중등2(15차)	46.4	8.7	44.9	100.0 (1,304)

구분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	계(수)
중등3(16차)	50.3	7.8	41.9	100.0 (1,288)
고등1(17차)	54.6	8.7	36.7	100.0 (1,287)

주: 1) 보호자 응답임.
 2) 일반 사용자군: 총점과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충족되는 경우(총점 27점 이하, 1요인 12점 이하, 3요인 10점 이하, 4요인 9점 이하),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총점과 각 요인별 점수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총점 28-29점, 1요인 13점 이상, 3요인 11점 이상, 4요인 10점 이상), 고위험 사용자군: 총점 기준에 해당하거나 각 요인별 점수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총점 30점 이상, 1요인 14점 이상, 3요인 12점 이상, 4요인 11점 이상)
 자료: 1) 9-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269.
 2) 14-17차: 한국아동패널 14-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IV-2-3] 인터넷 중독 분류(10차~17차)



자료: 1) 9-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269.
 2) 14-17차: 한국아동패널 14-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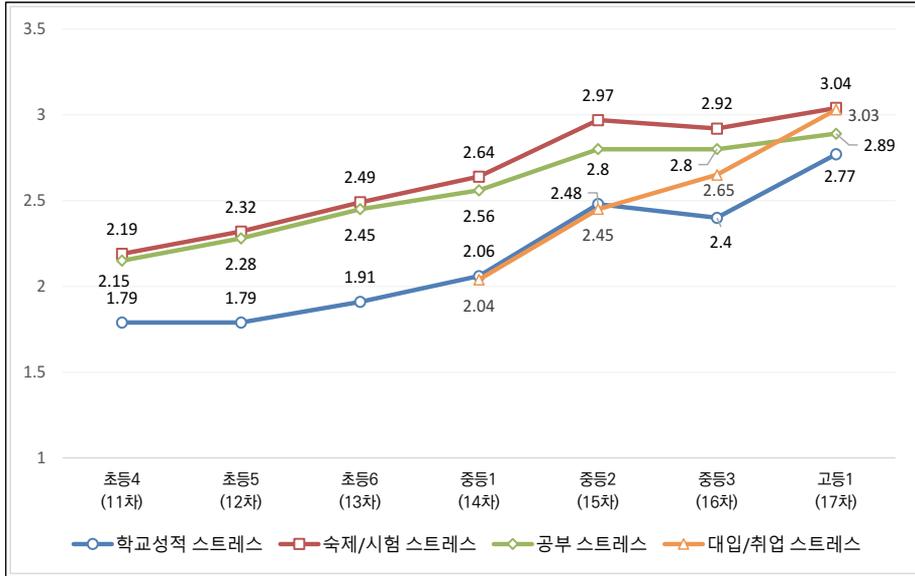
2) 아동의 학업

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는 연령 증가에 따라 커지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학업 스트레스를 학교성적 스트레스, 숙제/시험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대입/취업 스트레스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학교 시기가 되면서 숙제/시험 스트레스가 다른 스트레스보다 높은 특성을 보인다. 특히 중등 1학년부터 조사된 대입/취업 스트레스는 가파르게 증가해 고등 1학년 시기가 되면 숙제/시험 스트레스와 함께 3점 이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고등학생 때 대입/취업, 숙제/시험 스트레스가 크게 높은 상태임이 확인된다.

[그림 IV-2-4] 학업 스트레스(11차~17차)

단위: 점(5점 척도)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그런 적 없다~5.항상 그렇다).
 자료: 한국아동패널 11-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표 IV-2-6> 학업 스트레스(11차~17차)

단위: 점, (명)

구분	학교성적 스트레스		숙제/시험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대입/취업 스트레스		전체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초등4(11차)	1.79	0.94	2.19	1.08	2.15	1.08	-	-	2.04	0.87	(1,428)
초등5(12차)	1.79	0.88	2.32	1.09	2.28	1.06	-	-	2.13	0.85	(1,398)
초등6(13차)	1.91	0.92	2.49	1.15	2.45	1.15	-	-	2.28	0.91	(1,359)
중등1(14차)	2.06	0.93	2.64	1.08	2.56	1.09	2.04	1.05	2.33	0.82	(1,328)
중등2(15차)	2.48	1.05	2.97	1.10	2.80	1.08	2.45	1.12	2.67	0.88	(1,294)
중등3(16차)	2.40	1.07	2.92	1.12	2.80	1.12	2.65	1.18	2.69	0.91	(1,258)
고등1(17차)	2.77	1.07	3.04	1.15	2.89	1.12	3.03	1.16	2.93	0.95	(1,277)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그런 적 없다~5.항상 그렇다).
 자료: 한국아동패널 11-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학업 스트레스의 총점수를 성별, 지역규모별로 분석해보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집단별 격차가 커진다. 격차는 특히 중등 시기부터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성별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나며, 지역규모별로는 도시지역 아동의 스트레스가 읍면지역 아동보다 높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에 들어서면서 남학생과 여학생, 그리고 도시지역과 읍면지역의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표 IV-2-7〉 성별, 지역규모별 학업 스트레스(11차~17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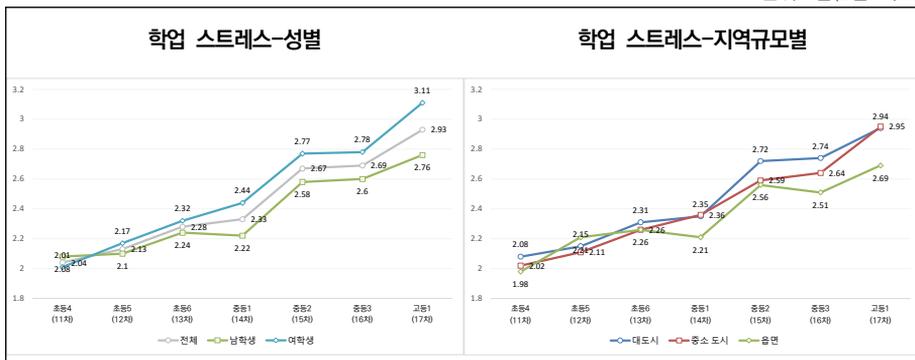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아동성별		지역규모			(수)
		남학생	여학생	대도시	중소 도시	읍면	
초등4(11차)	2.04	2.08	2.01	2.08	2.02	1.98	(1,428)
초등5(12차)	2.13	2.10	2.17	2.15	2.11	2.21	(1,398)
초등6(13차)	2.28	2.24	2.32	2.31	2.26	2.26	(1,359)
중등1(14차)	2.33	2.22	2.44	2.35	2.36	2.21	(1,328)
중등2(15차)	2.67	2.58	2.77	2.72	2.59	2.56	(1,294)
중등3(16차)	2.69	2.60	2.78	2.74	2.64	2.51	(1,258)
고등1(17차)	2.93	2.76	3.11	2.94	2.95	2.69	(1,277)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그런 적 없다~5.항상 그렇다).
 자료: 한국아동패널 11~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IV-2-5〉 아동성별 및 지역규모별 학업 스트레스(11차~17차)

단위: 점(5점 척도)



주: 1) 아동의 응답임.
 2) 5점 척도임(1.그런 적 없다~5.항상 그렇다).
 자료: 한국아동패널 11~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나) 아동의 학교 수업 이외 교육 및 사교육

이하에서는 아동의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이용의 추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이용 여부는 보호자가 응답하였다. 초등 1학년 시기부터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등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시기까지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서비스를 90% 이상이 이용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중등 3학년 87.81%, 고등 1학년 때는 80.96%까지 낮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이는 학교 수업 이외 교육 및 사교육이 대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직업계고를 준비하고 진학하는 경우 입시 학원 등의 이용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에 한해 학원,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학습지(방문교사), 인터넷 화상강의, 교내 방과후 교실, 문화센터/종교기관/사설기관, 주민센터/복지관 등 공공기관, EBS 교육방송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당 이용시간과 월평균 비용을 분석하였다.

주당 이용시간의 경우 학원의 이용시간이 압도적으로 길며 증가하는 패턴을 보인다. 즉, 초등 1학년 때 7시간이었던 학원 이용시간은 점차 증가하다가 중등 시기에는 10시간 이상으로 나타나며 중등 3학년 때 11.51시간으로 정점을 찍고 고등 1학년 때에는 11.36시간으로 다소 짧아진다. 인터넷 화상강의는 초등 시기 주당 2~4시간 이용하였으나 중등 시기부터는 5시간 이상으로 증가하며 고등 1학년 때에는 주당 7시간 이상까지 증가한다. 가정 내 개인지도의 경우 초등 시기 2~4시간에서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고등 1학년 때에는 주당 5시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어 월평균 비용을 분석해보면 학원의 비용이 모든 시기에 걸쳐 가장 높으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즉 초등 시기에는 20~30만원 대였다가 중등 시기부터 50만원 대로 높아지고 고등 1학년 시기에는 72.85원까지 상승한다. 다음으로는 가정 내 개인지도(과외)의 비용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 역시 중등 시기부터 30만원을 훌쩍 넘었으며 고등 1학년 시기의 비용은 58.60만원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8〉 학교 수업 이외 교육 및 사교육 이용 여부(8차~17차)

단위: %, (명)

구분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여부		계(수)
	이용안함	이용함	
초등1(8차)	3.94	96.06	100.0 (1,598)
초등2(9차)	2.23	97.77	100.0 (1,525)
초등3(10차)	2.29	97.71	100.0 (1,484)
초등4(11차)	2.79	97.21	100.0 (1,434)
초등5(12차)	3.68	96.32	100.0 (1,412)
초등6(13차)	8.73	91.27	100.0 (1,397)
중등1(14차)	9.20	90.80	100.0 (1,348)
중등2(15차)	9.20	90.80	100.0 (1,304)
중등3(16차)	12.19	87.81	100.0 (1,288)
고등1(17차)	19.04	80.96	100.0 (1,287)

- 주: 1)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학원,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학습지(방문교사), 인터넷 화상강의, 교내 방과후 교실, 문화센터/종교기관/사설기관, 주민센터/복지관 등 공공기관
 2) 14~16차에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여부에 문화센터/종교기관/사설기관이 삭제되고 EBS 교육방송으로 대체됨.
 3) 17차부터는 ebs 교육방송 관련 문항 추가 및 아동을 이동으로 해당 결과에서 미포함.
- 자료: 1) 8-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p. 286-287.
 2) 14-17차: 한국아동패널 14-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표 IV-2-9〉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이용아동(8차~17차)

단위: 시간, 명

구분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																			
	전체		학원		가정내 개인지도(과외)		학습지 (방문교사)		인터넷 화상강의		기타 전체		교내 방과후교실		사설기관		공공기관		EBS 교육방송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평균 (SD)	수
초등1(8차)	8.98 (4.75)	1,533	7.00 (3.83)	1,236	3.12 (2.63)	245	1.38 (0.98)	630	2.83 (1.42)	18	3.70 (2.84)	858	3.72 (2.71)	761	3.42 (3.51)	110	3.29 (3.22)	70	-	-
초등2(9차)	11.06 (5.77)	1,491	7.99 (4.38)	1,231	3.57 (3.25)	327	1.34 (1.68)	642	2.51 (2.00)	67	4.02 (3.16)	996	4.08 (2.85)	898	2.73 (2.32)	135	4.33 (5.50)	99	-	-
초등3(10차)	10.63 (5.85)	1,450	7.98 (4.56)	1,198	3.61 (3.21)	357	1.64 (2.47)	537	3.10 (2.50)	142	3.74 (2.98)	760	3.77 (2.74)	650	3.09 (3.18)	140	3.64 (4.41)	101	-	-
초등4(11차)	10.84 (5.67)	1,394	8.41 (4.70)	1,159	3.55 (3.15)	325	1.48 (1.66)	463	2.95 (2.06)	140	3.67 (3.04)	747	3.68 (2.93)	632	3.15 (2.52)	116	4.03 (4.66)	102	-	-
초등5(12차)	10.62 (5.89)	1,360	8.49 (4.73)	1,133	3.90 (3.42)	340	1.50 (2.07)	382	3.28 (2.71)	153	3.50 (3.05)	617	3.33 (2.64)	516	3.44 (3.48)	115	4.98 (5.60)	63	-	-
초등6(13차)	9.87 (5.54)	1,275	8.71 (4.82)	1,057	4.10 (3.32)	305	1.38 (1.40)	302	4.45 (3.61)	176	3.97 (4.12)	214	3.49 (3.60)	129	3.96 (4.14)	67	5.53 (5.17)	37	-	-
중등1(14차)	11.81 (5.86)	1,223	10.44 (5.07)	1,037	4.83 (3.51)	275	2.68 (3.62)	145	5.69 (5.22)	189	4.77 (4.62)	174	4.95 (5.11)	87	-	-	6.23 (6.06)	39	4.60 (3.85)	67
중등2(15차)	12.12 (6.18)	1,184	10.74 (5.55)	1,024	4.84 (3.73)	273	2.90 (3.89)	68	6.15 (5.31)	191	4.73 (4.49)	140	3.91 (3.41)	62	-	-	6.42 (6.60)	24	4.99 (4.22)	58
중등3(16차)	12.66 (6.62)	1,142	11.51 (6.08)	988	5.32 (4.08)	229	1.74 (1.68)	34	6.56 (5.69)	187	5.03 (4.80)	116	4.55 (3.74)	61	-	-	7.20 (5.92)	15	5.64 (5.50)	51
고등1(17차)	12.46 (7.16)	1,042	11.36 (6.13)	904	5.34 (3.48)	179	3.68 (2.58)	14	7.09 (7.83)	182	5.24 (4.77)	80	-	-	-	-	-	-	-	-

주: 1)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학원,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학습지(방문교사), 인터넷 화상강의, 교내 방과후 교실, 문화센터/중요기관/사설기관, 주민센터/복지관 등 공공기관.

2) 14차부터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여부에 문화센터/중요기관/사설기관이 삭제되고 EBS 교육방송으로 대체됨. / 3)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아동만 분석함.

자료: 8-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 발달 중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p. 288-289. / 14-17차: 한국아동패널 14-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표 IV-2-10〉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월평균 비용-이용아동(8차~17차)

단위: 만원, 명

구분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 유형																			
	전체			학원			가정내 개인지도(과외)			학습지(방문교사)			인터넷 화상강의			기타				
	평균(SD)	수	평균(SD)	수	평균(SD)	수	평균(SD)	수	평균(SD)	수	평균(SD)	수	평균(SD)	수	평균(SD)	수	평균(SD)	수		
초등1(8차)	28.41(18.22)	1,516	21.67(14.73)	1,237	15.71(12.22)	245	9.55(5.80)	633	8.54(4.36)	18	7.10(4.73)	797	7.10(4.73)	706	8.86(8.10)	103	4.97(4.91)	59	-	-
초등2(9차)	34.52(21.87)	1,486	25.23(17.21)	1,230	16.83(13.40)	326	10.06(6.39)	642	7.77(5.68)	67	7.92(6.38)	985	7.25(5.49)	889	7.38(7.34)	134	4.00(3.59)	93	-	-
초등3(10차)	38.89(26.53)	1,430	30.68(24.24)	1,195	18.04(13.50)	337	10.83(6.78)	537	8.94(4.71)	125	8.68(10.03)	684	7.27(5.22)	587	9.55(18.46)	126	5.66(8.50)	82	-	-
초등4(11차)	40.74(25.52)	1,371	33.07(21.90)	1,157	19.48(18.16)	300	11.14(7.35)	461	9.38(5.72)	129	8.12(10.66)	665	6.71(5.24)	565	11.37(21.82)	103	6.25(9.26)	70	-	-
초등5(12차)	43.68(27.90)	1,334	36.83(25.10)	1,128	21.52(17.26)	319	11.00(7.25)	379	9.60(5.23)	133	8.32(8.81)	531	6.91(5.73)	445	11.10(14.40)	96	7.53(12.09)	37	-	-
초등6(13차)	44.39(27.02)	1,252	39.34(24.61)	1,054	26.59(19.49)	284	10.41(6.85)	302	11.30(6.71)	151	10.24(14.10)	158	6.20(4.16)	97	17.53(21.67)	53	4.83(4.51)	18	-	-
중등1(14차)	55.30(30.67)	1,192	49.68(26.61)	1,036	35.98(27.58)	266	11.63(10.00)	142	13.89(13.35)	170	12.67(20.44)	69	13.31(22.45)	39	-	-	12.95(20.65)	22	7.13(4.27)	16
중등2(15차)	58.55(35.61)	1,184	53.61(29.80)	1,024	38.19(29.43)	273	11.74(10.89)	68	13.41(12.64)	191	4.57(7.80)	140	5.02(8.02)	62	-	-	6.42(8.07)	24	3.95(7.94)	58
중등3(16차)	64.87(44.76)	1,142	60.66(33.30)	988	45.85(49.31)	229	9.71(6.06)	34	14.39(20.57)	187	5.47(15.33)	116	4.23(7.19)	61	-	-	2.80(3.71)	15	8.12(21.89)	51
고등1(17차)	77.28(46.71)	1,042	72.85(38.75)	904	58.60(48.40)	179	18.57(14.06)	14	15.23(18.15)	182	14.26(34.22)	80	-	-	-	-	-	-	-	-

주: 1)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학원,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학습지(방문교사), 인터넷 화상강의, 인터넷 화상강의, 교내 방과후 교실, 문화센터/종교기관/사설기관, 주안센터/복지관 등 공공기관.
2) 14차부터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여부에 문화센터/종교기관/사설기관이 삭제되고 EBS 교육비용으로 대체됨. / 3)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아동만 분석함.

자료: 8-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중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291. / 14-17차: 한국아동패널 14-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IV-2-6] 학교 수업 외 교육서비스 주당 이용시간 및 월평균 비용-이용아동(8차~17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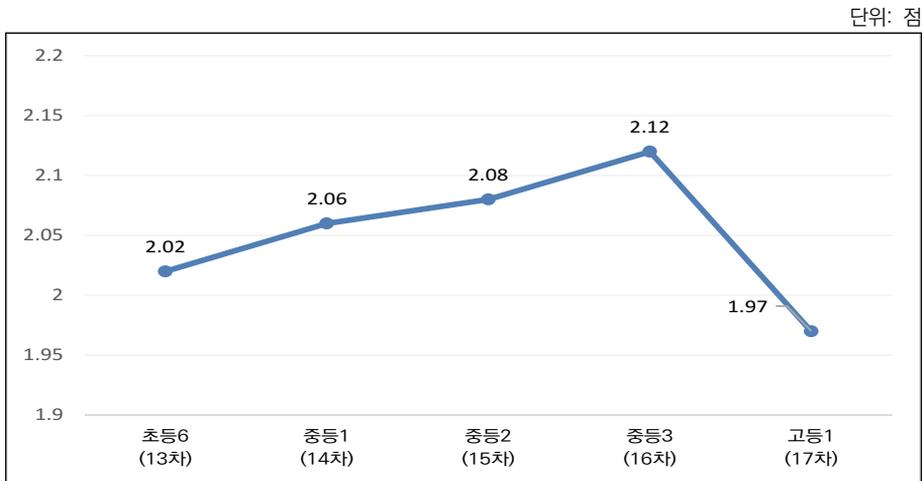
주: 1)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학원, 가정 내 개인/그룹지도(과외), 학습지(방문교사), 인터넷 화상강의, 교내 방과후 교실, 문화센터/종교기관/사설기관, 주민센터/복지관 등 공공기관
 2) 14차부터 학교 수업 이외 교육 여부에 문화센터/종교기관/사설기관이 삭제되고 EBS 교육방송으로 대체됨.
 3) 학교 수업 이외 교육서비스 이용아동만 분석함.
 자료: 8-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이동통신진흥협회 2021(한국이동통신 II). 육이정책연구소, pp. 288-289, 291. / 14-17차: 한국이동통신 14-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다) 아동의 진로성숙도

다음으로 아동의 진로성숙도에 대해 초등 6학년 시기부터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아동패널 진로성숙도 문항의 경우 ‘향후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 ‘미래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향후 진로를 미리 설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내가 가보고 싶은 향후 진로가 자주 바뀐다’, ‘향후 진로설정에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 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나의 향후 진로설정에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등 진로설정의 확신, 주도성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진로성숙도는 4점 척도로 평균 2점대(아니다)로 대체로 낮은 점수를 보이지만, 중등 시기까지는 정도가 크진 않지만 점수가 증가세여서 아동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진로에 대한 확신과 주도성이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등 1학년 시기에는 1점대로 나타나 학교급 전환에 따라 아동의 진로에 대한 확신과 주도성이 높아지는 등 진로성숙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IV-2-7] 진로성숙도(13차~17차)



-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4.매우 그렇다).
 3) 점수가 낮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한국아동패널 13~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표 IV-2-11〉 진로성숙도(13차~17차)

단위: 점, (명)

구분	진로성숙도		수
	평균	표준편차	
초등6(13차)	2.02	0.54	(1,359)
중등1(14차)	2.06	0.54	(1,328)
중등2(15차)	2.08	0.51	(1,294)
중등3(16차)	2.12	0.55	(1,258)
고등1(17차)	1.97	0.55	(1,277)

주: 1) 아동의 응답임.
 2) 4점 척도임(1.전혀 아니다~4.매우 그렇다).
 3) 점수가 낮을수록 진로성숙도가 높음을 의미함.
 자료: 한국아동패널 13~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라) 부모의 성취압력

이러 부모의 성취압력에 대한 점수 추이를 살펴보았다. 부모의 성취압력은 아동이 응답하며 ‘부모님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부모님은 나에게 남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등 학업, 성적에 대한 압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성취압력은 5점 척도에서 평균 2점대로 ‘그렇지 않다’에 머무르는 가운데 초등 5, 6학년 시기에 가장 낮고 초등 6학년 이후부터 중학교 시기에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고등 1학년 때에는 다소 낮아져 아동의 진로설정에 따른 고교 진학이 마무리되면서 아동이 부모로부터 성취압력을 다소 덜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2-12〉 부모 성취압력(11차~17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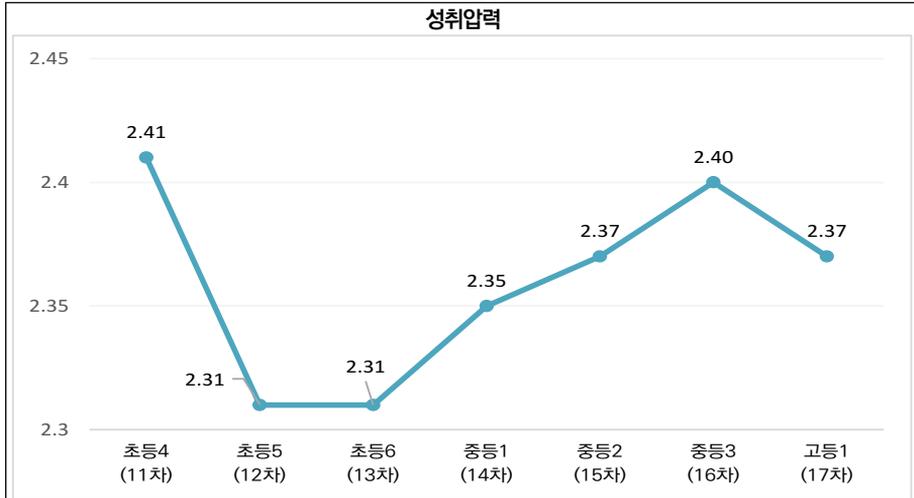
단위: 점, (명)

구분	성취압력		
	평균	표준편차	(수)
초등4(11차)	2.41	0.69	(1,428)
초등5(12차)	2.31	0.66	(1,398)
초등6(13차)	2.31	0.77	(1,359)
중등1(14차)	2.35	0.81	(1,328)
중등2(15차)	2.37	0.84	(1,294)
중등3(16차)	2.40	0.83	(1,258)
고등1(17차)	2.37	0.83	(1,277)

주: 1) 아동응답임.
 2)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자료: 한국아동패널 8~17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IV-2-8] 부모 성취압력(11차~17차)

단위: 점



주: 1) 아동응답임.
 2)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
 자료: 한국아동패널 8~17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3) 아동의 정서

가) 아동의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아동의 정서와 관련하여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행복감에 대한 추이를 살펴보았다.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행복감의 경우 초등 고학년 시기부터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특히 4점 척도로 측정되는 전반적 행복감의 경우 초등 6학년 이후부터는 2점대로 낮아져 아동들이 평균적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추세는 고등 1학년 시기까지 계속된다.

<표 IV-2-13> 아동의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8차~17차)

단위: 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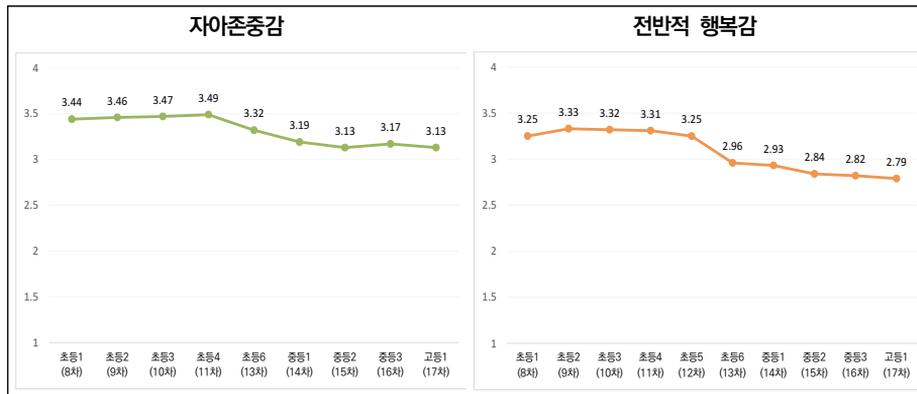
구분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초등1(8차)	3.44	0.50	3.25	0.48	(1,560)
초등2(9차)	3.46	0.44	3.33	0.44	(1,496)
초등3(10차)	3.47	0.44	3.32	0.45	(1,480)

구분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초등4(11차)	3.49	0.46	3.31	0.46	(1,428)
초등5(12차)	-	-	3.25	0.44	(1,398)
초등6(13차)	3.32	0.56	2.96	0.48	(1,359)
중등1(14차)	3.19	0.53	2.93	0.45	(1,328)
중등2(15차)	3.13	0.54	2.84	0.48	(1,294)
중등3(16차)	3.17	0.56	2.82	0.45	(1,258)
고등1(17차)	3.13	0.55	2.79	0.45	(1,277)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자아존중감: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3) 전반적 행복감: 4점 척도임(1.전혀 행복하지 않다~4.매우 행복하다).
 자료: 1) 9-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272.
 2) 14-17차: 한국아동패널 14-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IV-2-9] 아동의 자아존중감, 전반적 행복감(8차~17차)

단위: 점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자아존중감: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3) 전반적 행복감: 4점 척도임(1.전혀 행복하지 않다~4.매우 행복하다).
 자료: 1) 9-13차: 김지현 외(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p. 272.
 2) 14-17차: 한국아동패널 14-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4) 아동의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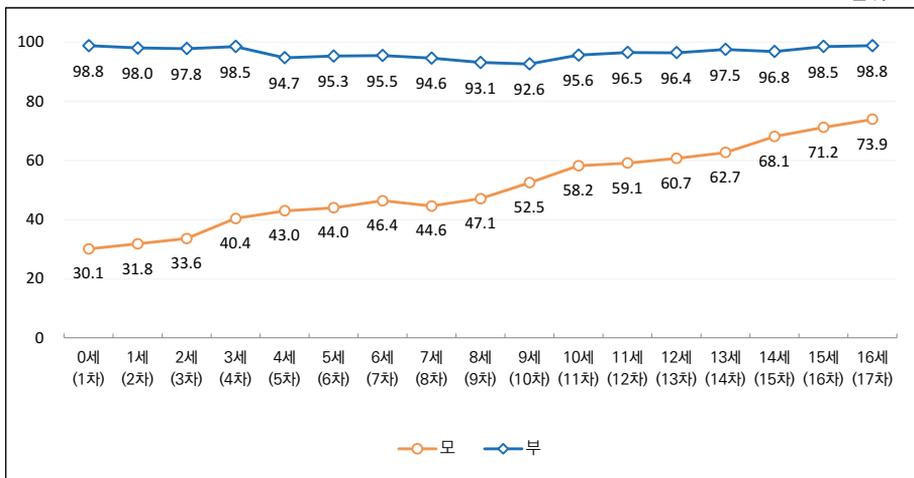
가) 부모의 취/학업

아동의 부모 각각의 취/학업상태 추이를 분석하였다. 부의 경우 아동연령 0세부터 16세 고등 1학년 시기까지 90% 이상이 취/학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해, 모의

경우 아동이 0~2세일 때 30% 대로 가장 낮다가 3세부터 40% 이상으로 증가하며 아동이 9세인 초등 2학년 시기에는 절반 이상이 취/학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모의 취/학업 비중은 증가세를 보여 아동이 고등 1학년 때인 16세일 때 73.9%의 비중으로 나타났다.

[그림 IV-2-10] 부모의 취업상태(1차~17차)

단위: %



자료: 한국아동패널 1~17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표 IV-2-14> 부모의 취/학업 상태(1차~17차)

단위: %,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취/학업 중	미취/ 미학업 중	계(수)	취/학업 중	미취/ 미학업 중	계(수)
0세(1차)	30.1	69.9	100.0(2,078)	98.8	1.2	100.0(2,010)
1세(2차)	31.8	68.2	100.0(1,887)	98.0	2.0	100.0(1,892)
2세(3차)	33.6	66.4	100.0(1,801)	97.8	2.2	100.0(1,788)
3세(4차)	40.4	59.6	100.0(1,741)	98.5	1.5	100.0(1,740)
4세(5차)	43.0	57.0	100.0(1,683)	94.7	5.3	100.0(1,616)
5세(6차)	44.0	56.0	100.0(1,638)	95.3	4.7	100.0(1,540)
6세(7차)	46.4	53.6	100.0(1,587)	95.5	4.5	100.0(1,483)
7세(8차)	44.6	55.4	100.0(1,568)	94.6	5.4	100.0(1,469)
8세(9차)	47.1	52.9	100.0(1,492)	93.1	6.9	100.0(1,371)
9세(10차)	52.5	47.5	100.0(1,442)	92.6	7.4	100.0(1,304)

구분	어머니			아버지		
	취/학업 중	미취/ 미학업 중	계(수)	취/학업 중	미취/ 미학업 중	계(수)
10세(11차)	58.2	41.8	100.0(1,391)	95.6	4.4	100.0(1,333)
11세(12차)	59.1	40.9	100.0(1,365)	96.5	3.5	100.0(1,244)
12세(13차)	60.7	39.3	100.0(1,365)	96.4	3.6	100.0(1,232)
13세(14차)	62.7	37.3	100.0(1,321)	97.5	2.5	100.0(1,166)
14세(15차)	68.1	31.9	100.0(1,279)	96.8	3.2	100.0(1,167)
15세(16차)	71.2	28.8	100.0(1,198)	98.5	1.5	100.0(1,106)
16세(17차)	73.9	26.1	100.0(1,228)	98.8	1.2	100.0(1,132)

자료: 한국아동패널 1-17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이어 취업상태인 패널아동 부, 모 각각의 종사상 지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모의 경우 아동이 0~2세 때 정규직/상용직의 비중이 약 70~80% 대로 높게 나타나다가 그 이후부터는 줄곧 60%대에 머무르는 특성을 보인다. 분석대상인 취업 모의 비중이 0~2세 때에는 30% 초반대로 낮다가 이후부터 증가하는 것과 연결해 해석해보면 0~2세 때에는 정규직/상용직인 이들이 주로 취업상태를 유지하고, 아동 연령 증가가 따라 재취업하는 모 가운데 비정규직, 자영업 등 정규직/상용직이 아닌 상태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부의 경우도 아동 연령 0~1세에는 정규직/상용직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다가 그 이후부터는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긴 하나 모의 경우보다 그 정도가 크진 않다.

〈표 IV-2-15〉 부모의 종사상 지위(1차~17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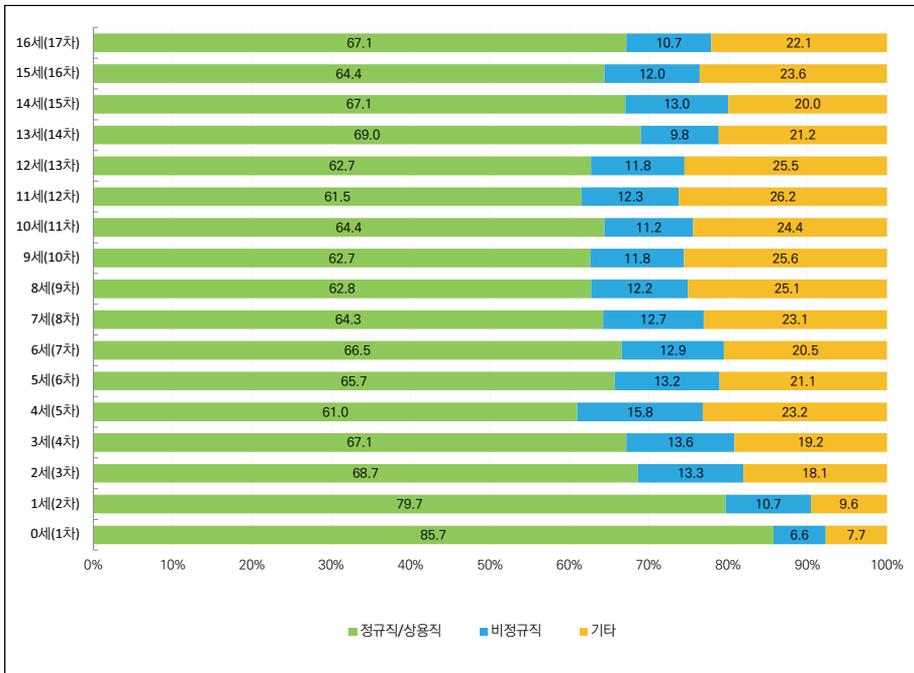
구분	어머니					아버지				
	정규직/ 상용직	비정규직		기타	계(수)	정규직/ 상용직	비정규직		기타	계(수)
		임시직	일용직				임시직	일용직		
0세(1차)	85.7	4.8	1.8	7.7	100.0(622)	82.2	4.2	2.1	11.6	100.0(1,902)
1세(2차)	79.7	8.3	2.4	9.6	100.0(591)	84.4	3.5	2.7	9.4	100.0(1,751)
2세(3차)	68.7	11.6	1.7	18.1	100.0(588)	73.0	3.0	2.8	21.1	100.0(1,657)
3세(4차)	67.1	12.4	1.2	19.2	100.0(691)	73.4	2.3	2.7	21.6	100.0(1,534)
4세(5차)	61.0	12.9	2.9	23.2	100.0(715)	74.1	2.0	2.6	21.3	100.0(1,477)
5세(6차)	65.7	11.7	1.5	21.1	100.0(711)	73.5	2.3	2.9	21.3	100.0(1,330)
6세(7차)	66.5	12.1	0.8	20.5	100.0(725)	74.2	1.7	3.1	21.0	100.0(1,242)

구분	어머니					아버지				
	정규직/ 상용직	비정규직		기타	계(수)	정규직/ 상용직	비정규직		기타	계(수)
		임시직	일용직				임시직	일용직		
7세(8차)	64.3	11.1	1.6	23.1	100.0(694)	75.8	2.3	2.0	19.9	100.0(1,246)
8세(9차)	62.8	10.9	1.3	25.1	100.0(698)	74.0	2.6	2.4	21.0	100.0(1,217)
9세(10차)	62.7	10.3	1.5	25.6	100.0(751)	76.2	3.0	1.5	19.3	100.0(1,272)
10세(11차)	64.4	9.3	1.9	24.4	100.0(807)	75.4	2.6	2.2	19.8	100.0(1,296)
11세(12차)	61.5	10.1	2.2	26.2	100.0(802)	76.4	2.9	2.1	18.6	100.0(1,164)
12세(13차)	62.7	9.7	2.1	25.5	100.0(821)	77.4	3.0	1.9	17.7	100.0(1,049)
13세(14차)	69.0	8.5	1.3	21.2	100.0(822)	75.3	3.5	2.0	19.2	100.0(980)
14세(15차)	67.1	11.4	1.6	20.0	100.0(862)	69.9	1.2	2.2	26.7	100.0(1,129)
15세(16차)	64.4	10.0	2.0	23.6	100.0(842)	67.8	1.8	2.5	27.9	100.0(1,086)
16세(17차)	67.1	7.7	3.0	22.1	100.0(904)	68.4	1.6	1.9	28.1	100.0(1,113)

주: 기타는 자영업, 가족기업 종사자수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1~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IV-2-11] 어머니의 종사상 지위(1차~17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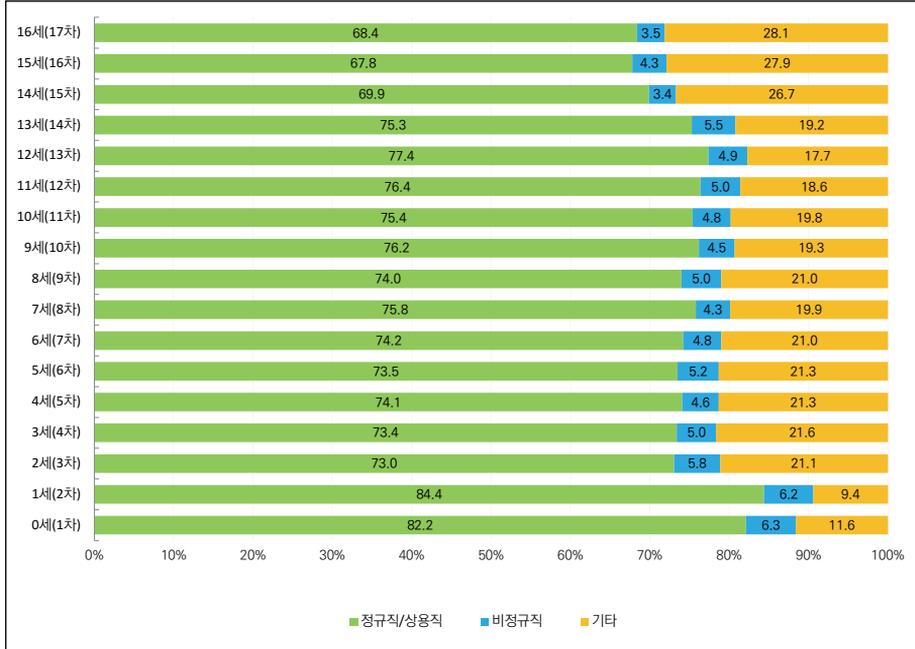


주: 비정규직 수치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산한 수치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1~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IV-2-12] 아버지의 종사상 지위(1차~17차)

단위: %



주: 비정규직 수치는 임시직과 일용직을 합산한 수치임.
 자료: 한국아동패널 1-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나) 부모의 결혼만족도

패널아동 부모의 결혼만족도 점수 추이를 살펴보면 큰 변화는 없지만 아동 연령 6세 때 가장 낮으며 전후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6세 전 미취학 시기에는 0~2세 영아 시기에 높고 다소 낮아지다가 6세 취학기 이후부터는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5점 척도로 조사된 결혼만족도는 부의 경우 줄곧 4점대인데 비해 모는 3점대로 나타나 모의 결혼만족도가 부에 비해 낮은 것도 확인된다.

<표 IV-2-16> 부모의 결혼만족도(1차~16차)

단위: 점,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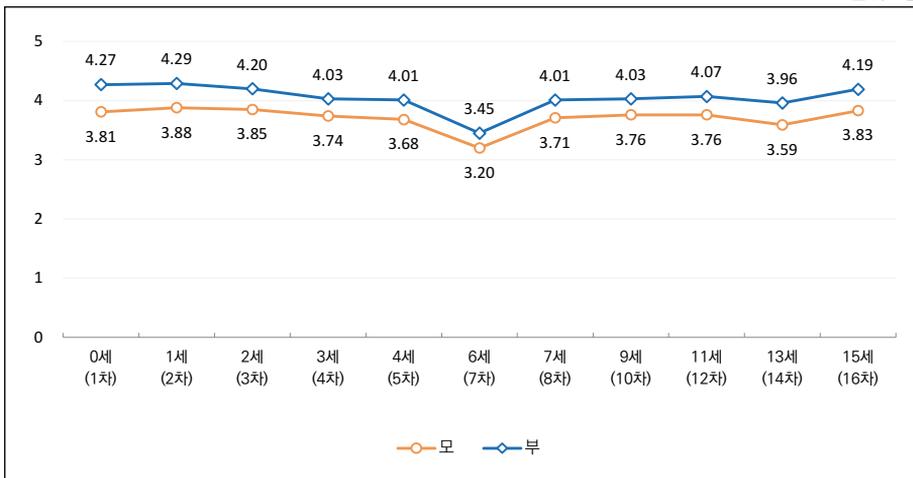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0세(1차)	3.81	0.77	(1,857)	4.27	0.68	(1,648)
1세(2차)	3.88	0.79	(1,874)	4.29	0.71	(1,788)
2세(3차)	3.85	0.77	(1,756)	4.20	0.72	(1,673)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3세(4차)	3.74	0.73	(1,690)	4.03	0.65	(1,622)
4세(5차)	3.68	0.76	(1,665)	4.01	0.66	(1,611)
6세(7차)	3.20	0.67	(1,564)	3.45	0.56	(1,479)
7세(8차)	3.71	0.81	(1,547)	4.01	0.73	(1,467)
9세(10차)	3.76	0.78	(1,379)	4.03	0.73	(1,289)
11세(12차)	3.76	0.81	(1,216)	4.07	0.75	(1,119)
13세(14차)	3.59	0.80	(1,320)	3.96	0.73	(1,166)
15세(16차)	3.83	0.89	(1,145)	4.19	0.75	(1,091)

주: 1) 결혼만족도는 8차 조사 이후 격년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2) 5점 척도임(1.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
 자료: 한국아동패널 1-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IV-2-13] 부모의 결혼만족도(1차~16차)

단위: 점



주: 1) 결혼만족도는 8차 조사 이후 격년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2) 5점 척도임(1.매우 불만족~5.매우 만족).
 자료: 한국아동패널 1-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다) 부모의 삶의 만족도

부모의 삶의 만족도를 아동 연령 7세부터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 모두 3점대 중후반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 모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아동 연령에 따른 변화가 크진 않으나 아동 연령 13세 이후부터는 이전 시기에 비해 다소 높다.



〈표 IV-2-17〉 부모의 삶의 만족도(8차~17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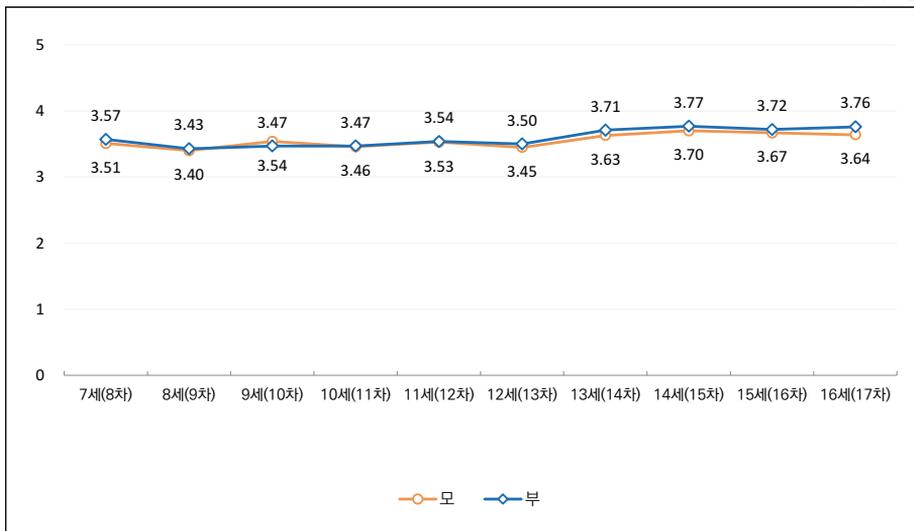
단위: 점, (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평균	표준편차	(수)	평균	표준편차	(수)
7세(8차)	3.51	0.74	(1,556)	3.57	0.72	(1,469)
8세(9차)	3.40	0.77	(1,464)	3.43	0.77	(1,369)
9세(10차)	3.54	0.78	(1,394)	3.47	0.77	(1,299)
10세(11차)	3.46	0.76	(1,401)	3.47	0.81	(1,182)
11세(12차)	3.53	0.73	(1,308)	3.54	0.74	(1,244)
12세(13차)	3.45	0.73	(1,303)	3.50	0.76	(1,232)
13세(14차)	3.63	0.68	(1,320)	3.71	0.72	(1,166)
14세(15차)	3.70	0.70	(1,247)	3.77	0.68	(1,167)
15세(16차)	3.67	0.71	(1,198)	3.72	0.71	(1,106)
16세(17차)	3.64	0.70	(1,228)	3.76	0.70	(1,132)

주: 5점 척도임(1.전혀 만족하지 못함~5.매우 만족함).
 자료: 한국아동패널 7-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IV-2-14〉 부모의 삶의 만족도(8차~17차)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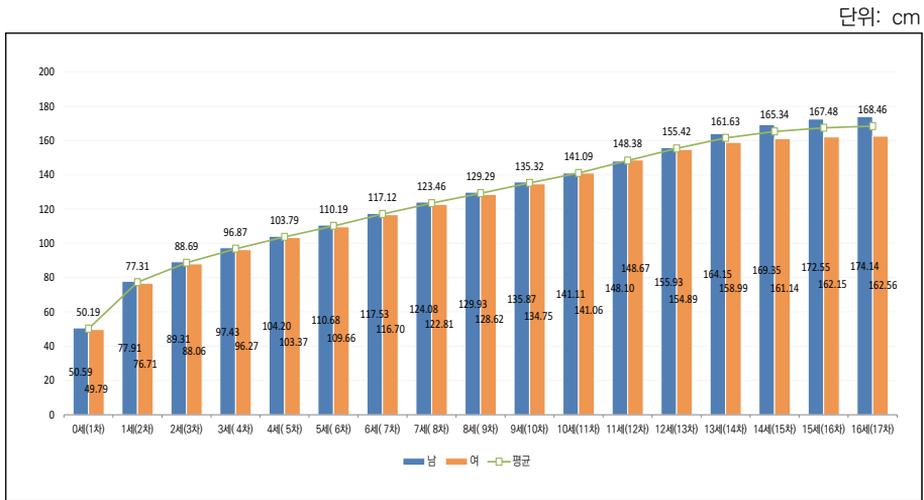
주: 5점 척도임(1.전혀 만족하지 못함~5.매우 만족함).
 자료: 한국아동패널 7-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5) 아동의 신체

가) 아동의 신장/체중

아동의 신장은 0세일 때 남학생 50.59cm, 여학생은 49.79cm였으며 4세 이후부터 남녀 모두 100cm를 넘어섰다. 12세경까지는 남녀의 키가 비슷하게 155cm 정도였으나 이후부터는 남학생의 신장이 크게 증가하여 남녀의 격차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고등학교 시기 남학생의 평균 신장은 170cm 이상이 되고 여학생은 162cm로 조사되었다.

[그림 IV-2-15] 아동의 신장(1차~17차)



자료: 한국아동패널 1-17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표 IV-2-18> 아동의 신장(1차~17차)

단위: cm, (명)

구분	신장(남)					신장(여)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0세(1차)	50.59	2.35	36.5	60.0	(908)	49.79	2.74	29.4	58.0	(907)
1세(2차)	77.91	4.09	60.0	96.0	(558)	76.71	3.98	60.0	100.0	(561)
2세(3차)	89.31	4.11	65.0	110.0	(716)	88.06	3.89	69.0	100.0	(699)
3세(4차)	97.43	3.82	85.0	111.0	(902)	96.27	3.56	85.0	110.0	(851)
4세(5차)	104.20	4.19	85.0	125.0	(870)	103.37	3.93	91.2	120.0	(833)
5세(6차)	110.68	4.55	97.0	130.0	(851)	109.66	4.31	98.0	125.0	(801)

구분	신장(남)					신장(여)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6세(7차)	117.53	4.70	103.0	132.0	(791)	116.70	4.62	104.0	130.5	(757)
7세(8차)	124.08	5.02	109.0	144.0	(798)	122.81	4.98	107.2	140.5	(761)
8세(9차)	129.93	5.27	114.0	148.8	(769)	128.62	5.19	113.0	147.0	(727)
9세(10차)	135.87	5.58	119.0	155.0	(750)	134.75	5.68	116.0	154.0	(724)
10세(11차)	141.11	6.24	123.1	172.2	(718)	141.06	6.44	120.3	164.7	(687)
11세(12차)	148.10	6.70	129.0	172.0	(709)	148.67	6.43	122.3	168.0	(675)
12세(13차)	155.93	7.36	134.5	180.0	(678)	154.89	5.88	126.4	172.0	(662)
13세(14차)	164.15	7.16	139.9	185.4	(670)	158.99	5.37	135.0	180.0	(641)
14세(15차)	169.35	6.41	145.9	187.0	(648)	161.14	5.22	142.0	180.0	(619)
15세(16차)	172.55	5.99	152.4	191.0	(595)	162.15	5.05	150.0	178.0	(567)
16세(17차)	174.14	5.87	152.0	192.0	(596)	162.56	4.98	150.0	179.5	(573)

자료: 한국아동패널 1-17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아동의 체중은 0세일 때 남학생은 3.31kg, 여학생은 3.20kg이었다가 10세 때 남녀 각각 38.81kg, 36.49kg으로 여학생의 체중이 다소 적으나 큰 차이는 없다가 그 이후부터는 남녀 차이가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 고등학교 시기부터 남학생은 60kg 후반대, 여학생은 50kg 중반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19〉 아동의 체중(1차~17차)

단위: kg,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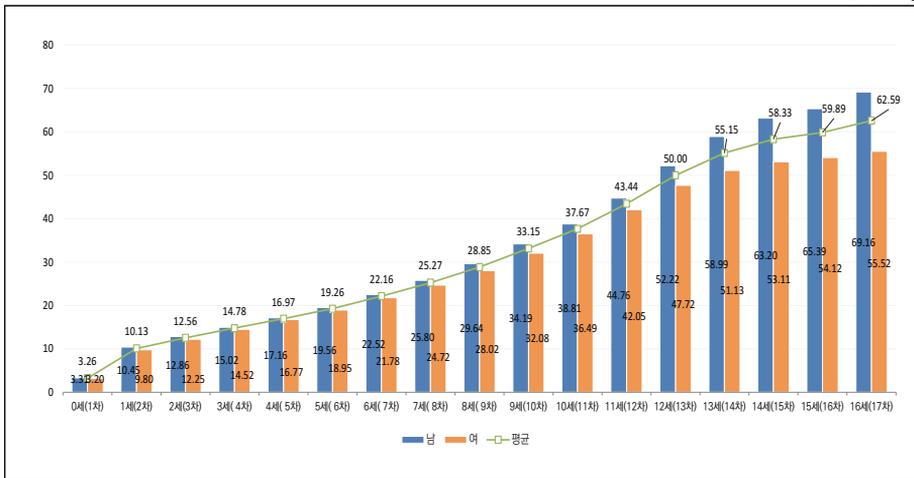
구분	체중(남)					체중(여)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0세(1차)	3.31	0.41	1.4	4.7	(1055)	3.20	0.40	1.2	4.9	(1018)
1세(2차)	10.45	1.09	5.7	15.0	(858)	9.80	1.03	7.0	13.0	(851)
2세(3차)	12.86	1.44	7.0	21.0	(883)	12.25	1.37	8.6	20.0	(854)
3세(4차)	15.02	1.67	11.0	21.0	(902)	14.52	1.66	10.0	21.0	(852)
4세(5차)	17.16	2.09	11.0	25.0	(870)	16.77	2.14	11.6	29.6	(833)
5세(6차)	19.56	2.67	13.0	33.0	(853)	18.95	2.63	11.0	34.5	(802)
6세(7차)	22.52	3.65	15.4	38.8	(794)	21.78	3.49	14.0	38.6	(756)
7세(8차)	25.80	4.64	16.8	48.2	(797)	24.72	4.34	17.0	48.7	(759)
8세(9차)	29.64	5.88	19.4	54.3	(769)	28.02	5.36	18.0	55.0	(726)
9세(10차)	34.19	7.38	20.6	69.3	(751)	32.08	6.64	18.8	60.0	(724)
10세(11차)	38.81	8.68	20.0	75.5	(725)	36.49	8.01	21.3	75.6	(696)
11세(12차)	44.76	10.05	23.4	75.0	(706)	42.05	8.55	24.4	75.0	(666)
12세(13차)	52.22	11.34	25.0	95.0	(671)	47.72	8.87	27.0	91.5	(653)
13세(14차)	58.99	12.90	30.0	116.0	(667)	51.13	9.15	32.0	105.0	(638)

구분	체중(남)					체중(여)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수)
14세(15차)	63.20	13.57	32.0	122.0	(652)	53.11	9.23	35.0	100.0	(608)
15세(16차)	65.39	12.96	38.0	125.0	(590)	54.12	8.96	38.0	97.0	(563)
16세(17차)	69.16	13.75	38.0	140.0	(597)	55.52	9.08	39.0	97.0	(555)

자료: 한국아동패널 1-17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IV-2-16] 아동의 체중(1차~17차)

단위: kg



자료: 한국아동패널 1-17차년도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나)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

다음으로는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에 대한 분석결과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신체적 자아상은 아동의 초등 5학년 시기부터 조사하였으며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할 수 있다면 나의 외모에 대해 바꾸고 싶은 부분이 많다’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으로 해석한다.

분석결과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 점수는 초등 5학년 시기에 3점대였으나 이후 2점대로 낮아져 하락세를 보였으며 남녀의 격차도 초등 6학년 이후부터 커진다. 즉, 연령 증가에 따라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에 대한 긍정성이 낮아지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긍정성이 더 낮고 성별 격차도 커짐을 알 수 있다.



〈표 IV-2-20〉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12차~17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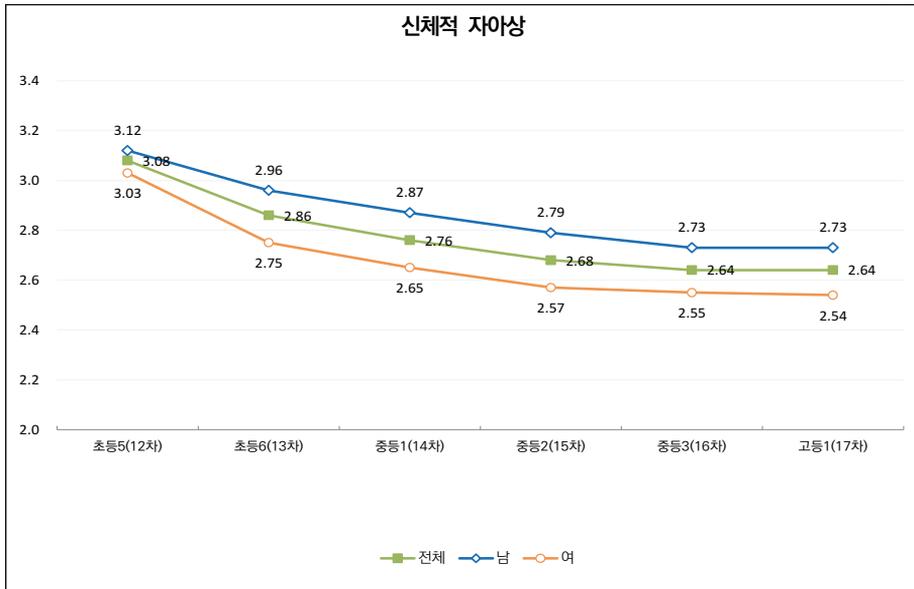
단위: 점. (명)

구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초등5(12차)	3.08	0.54	3.12	0.52	3.03	0.55	(1,398)
초등6(13차)	2.86	0.55	2.96	0.54	2.75	0.55	(1,359)
중등1(14차)	2.76	0.52	2.87	0.50	2.65	0.52	(1,328)
중등2(15차)	2.68	0.52	2.79	0.50	2.57	0.51	(1,294)
중등3(16차)	2.64	0.54	2.73	0.51	2.55	0.55	(1,258)
고등1(17차)	2.64	0.52	2.73	0.50	2.54	0.52	(1,277)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신체적 자아상: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3)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짐.
 자료: 한국아동패널 12~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그림 IV-2-17〉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12차~17차)

단위: 점



주: 1) 아동의 응답임.
 2) 신체적 자아상: 4점 척도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
 3)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짐.
 자료: 한국아동패널 12~17차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분석함.

다. 소결

이하의 소결에서는 앞선 1~17차 주요 변인 추이분석의 결과 요약을 제시하였다. 추이분석은 일상생활, 학업, 정서, 부모님, 신체 발달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서 2~4개의 변인을 선정해 분석하였다.

첫째, 아동의 일상생활 영역에서는 생활시간(평일, 주말), 미디어 이용시간과 미디어 기기중독에 대해 분석하였다. 평일 생활시간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수면 시간과 학습 시간이다. 초등 중학년(4학년)까지 9시간 이상이던 수면 시간은 중등 시기를 거쳐 고등 1학년 시기에는 6시간대로 크게 감소한다. 반면, 학습 시간은 초등 시기 8시간대에서 고등 1학년에는 11시간을 넘겨 증가하였다. 이는 연령 증가에 따라 약 3시간 분량의 수면 시간이 학습 시간으로 대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타 활동 중에서는 책 읽기 시간과 놀이 활동 시간이 연령에 따라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초등 1학년 시기 8시간이 넘었던 주말 놀이 활동 시간은 고등 1학년 때 5.54시간으로 줄어든 반면, 주말 학습 시간은 고등 1학년 때 4.34시간으로 증가한다. 즉, 초등·중등 시기 주말의 주된 활동이 놀이었다면, 고등 시기부터는 학습도 주된 활동으로 자리 잡는다.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은 초등 2~3학년 시기 약 1시간에서 점차 증가하여, 중등 시기부터 5, 6시간으로 크게 증가한다. 인터넷 중독 위험군(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및 고위험 사용자군)의 비율은 중등 2학년 시기에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고등 시기에는 30%대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둘째 학업과 관련해서는 학업 스트레스, 학원 등 학교 외 교육서비스 이용, 진로 성숙도, 부모의 성취압력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는 연령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커진다. 특히 중학교 시기가 되면서 숙제/시험 스트레스가 다른 스트레스보다 높게 나타나며,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는 대입/취업 스트레스와 숙제/시험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수준(3점 이상)을 보인다. 스트레스 수준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도시지역 아동이 읍면지역 아동보다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이 격차는 고등학교 시기에 더욱 벌어진다. 학교 수업 이외 교육(사교육) 이용 여부는 초등 1학년부터 중2까지 90% 이상이 이용하다가 중3부터 낮아져 고등 1학년 때에는 80.96%까지 낮아진다. 학교 수업 이외 교육(사교육)의 이용유형을 보

면 학원 이용시간이 압도적으로 길며,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 중등 3학년 때 주당 11.51시간으로 가장 길다. 월평균 비용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여 고등 1학년 시기에는 학원 비용이 72.85만원에 이른다. 진로성숙도 점수는 중등 시기까지는 점수가 증가하는 추세(점수가 높을수록 성숙도 낮음)를 보였으나, 고등 1학년 시기에는 점수가 낮아지면서 오히려 진로에 대한 확신과 주도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정서와 관련해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행복감을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전반적 행복감은 초등 고학년 시기부터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 추세는 고등 1학년 시기까지 계속되어 고등 1학년 시기에는 행복감이 2.79점(4점 척도)까지 낮아져 아동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님과 관련해 부모의 취·학업상태, 부모의 결혼만족도, 부모의 삶의 만족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부는 아동 연령 0세부터 고등 1학년까지 90% 이상이 취·학업 중인 반면, 모의 경우 아동이 0~2세일 때 30% 대였다가 증가하여 초등 2학년 시기에는 50% 정도, 고등 1학년 때는 73.9%로 나타났다. 부모의 결혼만족도는 아동연령 6세 이전까지는 낮아지다 이후 높아지는 패턴을 보이며, 모가 부보다 결혼만족도가 줄곧 낮았다. 부모의 삶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 모의 차이는 거의 없다.

다섯째, 아동의 신체 발달과 관련해 신장, 체중, 신체적 자아상을 분석한 결과, 동의 신장은 12세경까지 남녀의 키가 비슷했으나, 이후부터 남학생의 신장이 크게 증가하여 남녀 간 격차가 커졌다. 고등 1학년 남학생의 신장은 170cm 이상, 여학생은 162cm였다. 체중 역시 10세 때까지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이후 남학생의 증가세가 커져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남학생은 60kg 후반대, 여학생은 50kg 중반대였다. 신체적 자아상은 초등 5학년 시기 3점대(4점 척도)였다가 중등 3학년 시기에는 2.64점까지 낮아져 연령증가에 따라 긍정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학생의 긍정성이 남학생보다 더 낮고 성별 격차도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V

결론: 분석의 시사점 및 조사를 위한 제언

01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시사점

02 향후 조사를 위한 제언

V. 결론: 분석의 시사점 및 조사를 위한 제언

이하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으로 데이터 분석결과에 근거한 시사점과 한국아동패널 사업의 향후 조사를 위한 제언을 서술하였다. 즉, 17차년도(2024년) 기초분석과 1~17차년도 종단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표본이탈 패턴분석, 추이분석의 결과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패널아동 고3 시기인 2026년 19차년도 조사와 패널아동이 성인이 되는 2027년의 20차년도 조사를 위한 제언을 서술하였다.

1. 데이터 분석에 근거한 시사점

가. 17차년도(2024년) 데이터 기초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1) 미디어 중독 인식 격차 해소 및 고위험군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강화

보호자가 평가한 아동의 미디어기기 중독 고위험 사용자군 비율(36.67%)은 아동이 스스로 인식한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비율(1.18%)과 간극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확한 진단과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 보호자와 아동 양측의 평가를 모두 고려하고, 주체 간 인식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의사소통 및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위험 사용자군에 속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으며 도시지역이 읍면지역보다 고위험군 비중이 높게 나타났기에, 아동의 성별 및 거주하는 지역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개입도 필요해 보인다.

2) 저소득층의 진로 탐색 및 학업 지원 체계 강화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계획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학 진학 계획이 높았으며, 월평균 가구소득 370만원 이하 집단은 다른 집단에 비해 취업하겠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370만원 이하)은 고소득 집단보다 성적 관리나 진로진학 정보 수집 등 부모의 학업적·교육적 지원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가구차원에서의 지원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공의 지원이 요구

된다. 대표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교육 기반의 체계적인 진로 탐색, 학업 코칭, 정보 제공 프로그램의 강화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의 가족가치관 조사 실시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확대

심층조사로 진행된 결혼 가치관 조사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비혼 독신, 결혼 비출산, 이혼 허용 정도 등 전반적으로 더 비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닌 것으로 보였다. 또한 가사 및 육아 관련 성역할 인식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사/육아 책임은 여성이 져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의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관련하여 조사연구 등으로 현시대 청소년들의 가족 인식 및 성역할 가치관을 면밀히 파악하고, 성별 간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며 성인지적 관점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나. 1~17차 주요 변인 추이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1) 청소년 수면 시간 부족 해소를 위한 학교운영 및 학업부하 조정

아동의 평균 수면 시간은 초등 1학년(8차) 9.62시간에서 고등 1학년(17차) 6.66시간으로 약 3시간 이상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감소분은 주로 학습 시간 증가로 대체되어, 학습 시간이 같은 기간 8.08시간에서 11.29시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은 몸과 마음의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의 수면 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수업시간 조정, 야간 학습 활동 제한, 학습 부하 관리 등 정책적 개입이 필요해 보인다.

2) 고등학생 대상 진로/입시 스트레스 관리 완화를 위한 지원

학업 스트레스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고등 1학년(17차) 시기에는 대입/취업 스트레스(평균 3.03점)와 숙제/시험 스트레스(평균 3.04점)가 가장 높은 수준(5점 만점 기준 3.0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진학 이후 극심한 대입/진로의 경쟁 압박에 면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시기에 놓인 청소년들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및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강화하여 중대한 진로 결정 시기의 정신 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3) 아동연령에 따른 미디어중독 위험 관리 및 예방

인터넷 중독 분류 추이를 보면, 아동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 사용자군 비율은 초등 3학년(10차) 18.5%에서 중등 1학년(14차) 44.6%가 되고 중등 2학년(15차) 44.9%가 되어 최고치에 달했다가 고등 1학년(17차)에는 36.7%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아동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미디어 과의존 문제가 심각해지며, 특히 중학생 시기가 미디어 중독 위험이 가장 큰 취약 시기임을 보여준다. 청소년기 초반(중학교)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중독 예방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다. 1~17차 표본이탈 패턴분석의 시사점

1) 장기 패널자료의 내재적 특성 변화를 활용한 후속 연구 제언

1~17차의 자료를 보면 표본가구의 특성 자체가 변화한 것이 확인된다. 즉, 읍면 지역 거주자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20.3% → 5.4%) 모의 취업률(맞벌이 가구 비중)이 크게 증가하며(28.4% → 69.9%) 가구소득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표본이탈뿐 아니라 아동의 성장 과정에 따른 가구의 자연스러운 사회경제적 변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표본 특성의 변화 자체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이므로 이러한 자료 특성을 활용한 후속 연구를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2) 가족 구조 변화 등 취약 시점 표본 추적 시의 유의점

집단 3(후기 이탈 유형)에 속할 확률은 부모의 혼인 상태가 기혼-유배우자가 아닌 경우(이혼, 사별, 별거 등)에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 구조의 위기나 변화가 발생했을 때 응답 피로도가 높아져 패널에서 이탈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관리 측면에서 가정 내 위기에 처한 패널 가구에 대한 세심한 접근을 통해 참여 지속을 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초기 이탈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패널 관리 전략 및 데이터 활용 주의

집단 1(초기 이탈 유형)에 속할 위험은 가구원수가 적고, 소득 수준이 높으며, 미취업모가 많은 가구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관리하는 또 다른 패널인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조사 등 한국아동패널 조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장기조사의 경우 초기 차수 진행시에, 이탈 위험이 큰 특정 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표본유지 전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자들이 한국아동패널 초기 차수 데이터를 포함하는 중단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초기 체계적 이탈로 인한 결과 왜곡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료를 해석하도록 안내할 필요도 제기된다.

4) 최근 횡단면 자료 사용 시의 대표성 왜곡 고려

읍면지역 거주자 비중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최근 차수의 패널데이터를 횡단 자료로 활용하여 읍면지역 또는 저소득가구에 대해 분석할 경우, 과소 표집으로 인해 결과가 왜곡될 위험이 있다. 최근 패널자료 제공 시 이러한 표본 특성의 변화 및 특정 집단의 대표성 문제를 명확히 고지하여 자료 해석의 오류를 방지할 필요도 제기된다.

2. 향후 조사를 위한 제언

이하에서는 향후 조사를 위한 제언을 위해 국내외 패널연구 중에서 청소년에서 성인기로의 전환기 조사를 포함한 주요 연구를 검토하였다. 이때 국내연구의 경우 조사대상과 조사시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국외연구의 경우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의 주요 내용도 포함하였다. 국내외 조사연구의 내용 검토 후에는 전환기에 드러나는 조사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국내연구의 경우 고3, 성인기 조사 시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여 한국아동패널의 차후 조사수행 시에 한국의 현실을 고려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다.

가. 국내외 청소년-성인 전환기를 포함한 조사연구 검토

1) 국내 조사연구 검토

가) 국내 조사연구 개요

(1)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YPS)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조사로, 아동 청소년 성장 발달의 변화양상을 체계적 다면적으로 분석 가능한 자료의 구축을 목적으로 2003년, 2010년, 2018년의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025년 4기 조사가 시작되었다¹⁵⁾.

KYPS 2003는 1기 조사로서 2003년 기준 중2 3,449명, 2004년 기준 초4 2,884명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8년 6년간 조사되었다. 따라서 중2 코호트는 중2부터 대1까지, 초4코호트는 초4부터 중2까지 추적조사 하였다.

KCYPS 2010는 2기 조사로 2010년~2016년의 7년간 조사되었다. 2010년 기준으로 초1, 초4, 중1, 각 2,300여 명씩 총 7,071명을 표집해 조사하였으며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KCYPS 2010의 경우, 초1 코호트는 초1부터 중1까지, 초4 코호트는 초4부터 고1까지 그리고 중1 코호트는 중1부터 대1까지 조사되었다. 특히 중1 코호트는 2016년 본조사 종료 후 2024년까지 유지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접촉하였으며 2025년에는 신규사업(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의 본조사로 연계하여 조사하였다.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KCYPS 2018는 3기 조사로 2018년에 구축되어, 2025년까지 8년 연속 추적 조사 중에 있다. KCYPS 2018은 초4 코호트와 중1 코호트의 두 개 코호트로 구축되어 2018년 기준 초4, 중1 코호트 각각 2,500여 명씩 총 5,197명을 표집해 조사한다. KCYPS 2010이 아동청소년과 보호자 조사로 진행된 데 비해 KCYPS 2018은 아동청소년, 보호자 외에 형제자매를 추가하여 조사한다. KCYPS 2018의 초4 코호트는 한국아동패널과 동일연령(2008년생)으로 2018년도 초등 4학년부터

15) 관련 내용은 <표 V-2-1>에 정리되어 있으며 상세 출처는 표 자료 참조할 것.

KCYPS 2025 4기 사업은 '하형석·황진구·최인재·한지형(2025)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의 내용(요약 그림 2.)을 토대로 작성함.

시작해 2025년도 고등학교 2학년 조사가 진행되었다. KCYPS 2018의 중1 코호트는 중등 1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까지 조사가 계획되어 있다.

KCYPS 2025는 4기 조사로 2025년 기준 초4 2,400여명을 표집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2028년에 신규코호트로 초4 2,400명을 추가할 계획에 있다.

(2) 한국교육고용패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주관하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의 과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2004년과 2016년, 2회에 걸쳐 구축하여 한국교육고용패널 I(KEEP I), 한국교육고용패널 II(KEEP II) 2기의 조사를 진행했다¹⁶⁾.

KEEP I은 2004년 1차년도 조사 시 중3 코호트 2,000명, 고3 코호트 4,000명을 표집하여 2004~2015년간 매해 추적조사 하였다. 따라서 중3 코호트는 중3부터 26세까지,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는 고3부터 29세까지 조사한 결과가 축적되어 있다. KEEP I의 경우 2007년 4차년도 조사 시 1,495명을 추가하였으며 2010년 7차년도 조사 시에는 비교를 위한 보정패널 757명을 추가하는 작업도 거쳤다.

KEEP II는 2016년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558명을 표집하며 1차 조사를 실시하여, 2025년 현재 26세가 된 청년들을 조사하고 있다. KEEP II의 고2에 대한 1차 조사는 2016년에 조사되었으나 2차년도 조사는 2017년이 아닌 2018년 3월에 실시되었다. 즉 고3 시기의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듬해에 통합조사 형태로 수행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본다.

(3) 청년패널조사

청년패널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주관하는 조사로 교육과정의 질 향상, 진로, 직업지도의 내실화 방안 마련의 근거로 활용될 청년들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이동과정에 대한 정보 축적을 목적으로 수행된다. 청년패널조사는 2001년, 2007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총 3기의 조사를 구축하여 진행해 오고 있다¹⁷⁾.

첫 번째 조사인 YP2001는 2001년 기준 15~29세 청년층 5,956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가 시작되어 2006년까지 6차의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두 번째 조사인

16) 관련 내용은 <표 V-2-1>에 정리되어 있으며 상세 출처는 표 자료 참조할 것

17) 관련 내용은 <표 V-2-1>에 정리되어 있으며 상세 출처는 표 자료 참조할 것

YP2007는 2007년 기준 15~29세 청년 10,206명을 대상으로 1차년도 조사가 수행되어 2020년까지 14차의 조사가 진행되었다.

세 번째 청년패널조사인 YP2021는 2021년 기준 19~28세의 청년층 12,213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되어 2025년 현재에도 조사 중에 있다. YP2021는 이전 YP2001, YP2007과 달리 15세부터가 아니라 19세 고3 시기부터 표집했다. 라포가 형성되기 전인 2차 조사 때에 이동이 많은 성인전환기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야 했기에 패널유지를 위해 연중 조사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표 V-2-1〉 국내 청소년-성인 전환기를 포함한 주요 조사연구

구분	KCYPS 2003	KCYPS 2010	KCYPS 2018	KCYPS 2025	KEEP I	KEEP II	YP2001	YP2007	YP2021
조사명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03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25	한국교육고용패널 I	한국교육고용패널 II	청년패널조사 2001	청년패널조사 2007	청년패널조사 2021
조사목적	이동 청소년 성장 발달의 변화상을 체계적·다면적으로 분석 가능한 자료의 구축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과정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구축		청년들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및 이동과정에 대한 정보제공		
조사대상	이동 청소년 보호자	이동 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	이동 청소년, 보호자	이동 청소년 보호자	학생, 학부모, 학교(행정), 담임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행정), 담임교사	청년주거 가구, 기용, 개인용 조사로 구성		
조사시기	2003-2008년 중2 코호트: 중2부터 중4 코호트: 초4부터 중2까지	2010-2016년 초1 코호트: 초1부터 중1까지, 초4 코호트: 초4부터 고1까지, 중1 코호트: 중1부터 중1까지	2018년부터 8년간 진행 중 초4코호트: 초4부터 중1까지, 고2(이동패널과 동일연령) 중1 코호트: 중1부터 대1까지	2025년부터	2004-2015년 중3 코호트: 중3부터 26세까지, 고3 코호트: 고3부터 29세까지	2016-2025년 고2부터 26세까지	2001-2006년 6차 추적조사 종료	2007-2020년 14차 추적조사 종료	2021년부터 추적조사 진행 중
청소년 연령 및 샘플 수	2003년 기준 중2 3,449명, 2004년 기준 초4 2,884명	2010년 기준 초1, 초4, 중 1각각 2,300여명 (총 7,071명)	2018년 기준 초4, 중1, 각 2,500여명 (총 5,197명)	2025년 기준 초4 2,400여명, 2028년 초4 2,400명 추가, 코호트 구축 예정	2004년 기준 중3 2,000명, 고3 4,000명(고3은 일반계 2,000명, 전문계 2,000명)	2016년 기준 고2 10,568명	2001년 기준 만 15-29세 청년 원표본: 5,966명	2007년 기준 만 15-29세 청년 원표본: 10,206명	2021년 기준 만 19-28세 원표본: 12,213명
조사방법	면접 조사	면접 조사, 보호자는 전화 조사	면접 조사	면접 조사	면접 조사, 웹 조사, 전화 조사	면접 조사, 웹 조사, 종이 설문 조사	고3 등 면접 조사	면접 조사	면접 조사, 여러 가지 방법 활용
홈페이지	https://www.nypi.re.kr/archive/board?menuId=MENU00220				https://www.krivet.re.kr/kor/sub.do?menuSn=17				https://survey.keis.or.kr/yp/yp01/yp01/yp0101.jsp
조사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자료: 1)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n.d.). <https://www.nypi.re.kr/archive/board?menuId=MENU00220> (인출일: 2025.10.15).
 2) 한국교육고용패널(n.d.). <https://www.krivet.re.kr/kor/sub.do?menuSn=17> (인출일: 2025.10.15).
 3) 청년패널조사(n.d.). <https://survey.keis.or.kr/yp/yp01/yp0101.jsp> (인출일: 2025.10.15).

나) 국내 조사연구의 전환기 조사 시 특성¹⁸⁾

(1) 전환기 조사 유지율의 경향

일반적으로 학교급이 변하거나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는 패널조사에서 이탈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의 경우, 고3 때 유지율은 예년에 비해 원표본 유지율의 하락 정도가 1~2%p 정도로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CYPS 2010 중1 코호트가 고3 시기에 실시된 2016년 6차 조사의 원표본 유지율은 87.5%로 5차 조사의 원표본 유지율 88.9%에 비해 1.4%p 떨어졌으며(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23), KCYPS 2018 중1 코호트가 고3 때 실시된 2023년 6차 조사의 원표본 유지율도 85.9%로 5차 조사 원표본 유지율인 86.9%에 비해 1.0%p만큼만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담당 연구진은 패널대상 가구가 모두 대입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며, 고3 패널 대상자 중 대학 입시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비중이 약 1/3 되는 것 같다고 추측하였다. 또한 그간의 장기간의 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한 충성도 높은 패널의 경우 대입 수험 기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답하였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탈이 가장 우려되는 시기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기에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0(KCYPS 2010)의 경우 표본유지율이 전년에 비해 7.5%p 정도 떨어지는 특성을 보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23). 청년패널조사의 담당자도 이 시기가 가장 조사가 어려운 때로 회고하였다. 이때 유지율이 낮아지는 것은 참여대상자들이 성인기로 접어들며 이사, 학교입학, 군입대로 이동이 많아 접촉이 어렵고, 자유의지가 확대되어 부모(보호자)의 권유로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확연히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18) 본 내용 중 출처를 표기하지 않은 사실 내용은 19차 사업계획 수립기에 개최한 전문가 자문회의(2025. 4.23.)의 자문 의견에 근거하여 작성함(육아정책연구소, 2025).

(2) 고3, 성인진입기의 통합조사 시도

한국교육고용패널(KEPS)의 경우 복잡한 예산 문제와 더불어 고3 시기에 조사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통합 조사를 시도한 바 있다. 2016~2025년 고2부터 26세 까지 조사가 계획되어 있는 KEEP II의 경우 고2 대상 1차 조사는 2016년에 조사 되었으나 2차년도 조사는 2017년을 건너뛴 2018년 3월에 실시되어 고3 조사와 성인기 조사를 통합조사로 진행했다. 즉 2018년 3월에 실시된 2차년도 조사 시에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 동안의 고등학교 재학기간의 경험을 통합하여 회고 문항으로 묻고, 2018년 봄 현재 시점의 문항도 섞어서 물었다.

이러한 통합조사는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였다. 행복도 같은 인식 문항은 현재 시점으로 응답하도록 요청 하는 등 추가로 시점에 대한 설명이 강조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조사의 공식적인 명칭도 한국교육고용패널II 2차년도(2017)이었기 때문에 2018년에 조사에 응하고 있는 대상자들 가운데 혼동하는 경우가 있었다.

(3) 본조사 종료 후 유지조사의 시행과 활용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0(KCYPS 2010)의 중1 코호트의 경우 제1~7차의 본조사(2016년 종료, 원표본 유지율 80%)를 종료한 뒤에도 제1~8차의 유지조사(2024년 종료, 원표본 유지율 55.7%)를 수행하였다(하형석 외, 2025: 5, 196). 유지조사는 재취업/학업 상태와 만족도 정도만을 묻는 문항으로 1분 내외로 응답할 수 있도록 짧게 구성해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유지조사의 데이터도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조사문항 자체가 적어 분석에 제한이 많지만 유지조사 시점의 노동시장 상태에 따른 과거 시점의 특성 분석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KCYPS 2010의 중1 코호트는 2024년도에 유지조사를 종료한 이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25년 신규 조사사업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로연구’ 본조사로 조사를 이어간다(하형석 외, 2025: 5, 202). 이처럼 유지조사로 접촉을 지속한 대상들을 적절한 시기에 본조사대상으로 이어갈 경우 과거 자료와 연계할 수 있어 강력한 종단자료의 의미를 갖게 될 수 있다.

(4) 진학정보, 수능점수 조사방법

대학 진입 후 대학 정보에 대한 조사에 대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은 학교명을 자료화하지는 않고, 지역과 전공 계열만 자료화하여 공개한다. 학교명 자체는 조사 시 조사원이 묻고 응답 시 기록하나, 공개를 동의받지 않았기에 내부데이터로만 관리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청년패널조사의 경우 학교명 및 전공(한국표준전공분류) 등을 몇 개 항목으로 물어보고는 있으나, 공개하지는 않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점수도 주목하고 있는 변인이나 대부분의 패널은 설문문항으로 수능점수 수준을 질문하거나, 주관적인 인식 기반의 학업성취도(또는 만족도)를 묻는 방법을 활용한다. 객관적인 점수를 제공하는 공공데이터(평가원 자료)와 연계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수능점수를 평가원 자료와 연계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이를 수집하려면 조사 전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경우, 패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기에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한때 한국교육고용패널이 공공데이터와 연계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5) 전환기 패널 관리 전략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은 고3 시기 조사 시 사례비를 100% 증액해 지급하기도 했다. 담당자는 이 증액이 이탈률을 낮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한국교육고용패널의 담당자는 사례비 증액이 단기간의 효과만 내어 큰 효과는 없다고 언급했다. 왜냐하면 다음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기대치가 고려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이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은 고3 학생들에게 수능 전후 중 언제 조사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조사시기를 물어보고 조사에 임하였다. 한편, 청년패널조사는 1차 조사 후 3개월 텀으로 2차 조사를 바로 연달아 진행함으로써 성인기 전환 시의 추적 불가자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경험한 바 있다.

군 입제도 전환기의 특징이다. 청년패널조사 등에서 군 입대자 대상 설문은 별도의 설문지를 제작하지 않고 일반 설문지를 사용하되 해당 없는 문항을 건너뛰는 방식으로 유지조사 차원에서 관리했다. 휴가 기간에 조사를 진행하거나, 전화 통화가 가능하면 전화 조사로 간단하게 조사를 수행하였다.

2) 국외 조사연구 검토

가) 국외 조사연구 개요

(1) 미국의 ELS:2002, HSLs:2009

미국의 대표적인 청소년 대상 패널연구로는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of 2002(ELS:2002)와 High School Longitudinal Study of 2009(HSLs:2009)가 있다. 두 연구 모두 미국 교육부 산하 국가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 NCES)에서 수행하였으며 고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성인기까지 청소년 집단을 추적·관찰한 패널연구이다(Ingels, et al., 2011, 2014).

2002년에 시작된 ELS:2002는 당시 10학년 학생(15~16세) 약 15,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청소년기의 가정환경과 학업 경험이 장기적인 진로 및 진학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Ingels et al., 2014: 6). 첫 번째 조사에서는 학생의 나이, 성별, 출신 지역 등 인구학적 특성, 인지 능력 및 학업성취도, 부모의 학력과 사회·경제적 지위 등 가정환경, 학교 규모, 교사의 전문성, 정책 및 행정 지원 등 학교 특성 변수가 포함되었으며, 학생, 부모, 교사, 학교 행정 직원 등 다양한 관련 집단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였다(Ingels et al., 2014: 8). 이후 2004년(12학년) 조사에서는 수강 교과목과 성적, 교과 외 참여 활동, SAT/ACT 등 대학 입학시험 정보¹⁹⁾, 대학 진학계획 등의 항목이 추가되었고, 2006년에는 직업 탐색이나 경력 개발 등의 진로 활동, 학자금 및 재정 지원 여부, 초기 취업 경험 등을 중심으로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다(Ingels et al., 2014: 8-9). 마지막으로 2012년에는 진학 및 직업 활동뿐만 아니라 결혼과 가족 형성 등 생애 전환 경험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였다(Ingels et al., 2014: 17).

HSLs:2009는 ELS:2002와 비교하여 1살 어린 9학년 학생(14~15세) 약 23,000명을 대상으로 2009년에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학생들의 교육 경험과 가정 배경, 그리고 특히 과학·기술·공학·수학(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STEM) 분야에 관한 관심이 향후 진로 및 진학 경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목적으로 실시하였다(Ingels et al., 2011: iii). 첫 번째

19) SAT와 ACT는 미국의 대학 입학에 위한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시험으로, 학생들은 두 시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SAT는 읽기, 쓰기, 수학을 평가하며, ACT는 여기에 과학 과목이 추가됨.

조사에서는 학생의 인구학적 특성, 수학 및 학업성취도, STEM 분야에 대한 태도 등이 포함되었으며, 부모, 교사, 학교 행정 담당자 등을 통해 가정환경, 교육 환경, 학교 특성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수집하였다(Ingels et al., 2011: 11). 이후 2012년(11학년)에는 수강 과목과 성적, 교과 외 참여 활동, 취업 및 대학 진학계획 등이 추가되었고, 2013년에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지원 현황과 졸업 이후 계획 등이 조사되었다(Duprey, et al., 2018: 7-8). 2016년에는 대학 진학 및 재학 여부, 학자금 조달 방법 및 재정 상태, 초기 취업 경험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Duprey et al., 2020: 7), 2021년에는 학위 취득 여부, 고용 상황, 소득 수준, 가족 구성 변화 등 성인기 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Cohen et al., 2024: 2).

(2) 영국의 MCS, ALSPAC, UKHLS, GUS

영국의 대표적인 청소년 및 출생 코호트 패널연구로는 Millennium Cohort Study(MCS), Avon Longitudinal Study of Parents and Children(ALSPAC), Understanding Society/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UKHLS), 그리고 Growing Up in Scotland(GUS)가 있다. 각 연구는 개인과 가족을 장기간 추적·관찰하여 건강, 교육, 사회·경제적 조건 및 진로 발달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Millennium Cohort Study(MCS)는 런던 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 산하 패널연구센터(Center for Longitudinal Studies; CLS)에서 수행한 출생 코호트 연구로, 2000~2001년경 영국에서 출생한 약 19,000명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설계되었다(Plewis et al., 2007). MCS의 주요 목적은 가족 배경, 사회·경제적 조건, 그리고 생애 초기 경험이 영유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건강, 전반적인 발달, 그리고 장기적인 삶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분석하는 것이다(Connelly & Platt, 2014: 1720). 첫 번째 조사(2001~2002년)에서는 당시 약 9개월령이었던 영아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 부모의 건강, 사회·경제적 지위, 주거환경, 영아 발달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Centre for Longitudinal Studies, 2020: 7). 이후 3세, 5세, 7세, 11세, 14세, 17세 시점에서 반복 조사를 통해 아동의 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 학교적응 준비도, 신체 및 정신건강, 또래관계, 비행 행동, 진로 인식과 희망 직업 등의 항목을 포함

하여 추적하였다(Joshi & Fitzsimons, 2016: 409). 가장 최근 조사(23세 시점)에서는 교육, 취업, 건강, 가족 형성, 그리고 사회 활동 참여 등 성인 초기 삶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Avon Longitudinal Study of Parents and Children(ALSPAC)은 1991년 4월부터 1992년 12월 사이에 영국 에이번(Avon) 지역에서 출생한 약 14,5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된 출생 코호트 연구이다(Golding et al., 2001). ALSPAC의 목표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 생활 습관 등이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Fraser et al., 2013: 98). 정보 수집은 임신 기간 중 산모를 대상으로 한 상세 설문지, 의료 기록, 생물학적 샘플 채취로 시작하여, 영유아기에는 출생 시 건강 지표, 신생아 건강상태, 모유수유 여부, 예방접종 현황, 부모의 건강 및 생활 습관, 그리고 단계별 발달 항목이 포함되었고,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학업성취, 또래관계, 신체적·정신적 건강, 비행 행동, 가정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반복 조사가 이루어졌다(Boyd et al., 2013). 청소년기와 성인기에는 진로 및 진학 경로, 성 건강, 삶의 만족도와 전반적 행복감, 생활 습관 관련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유전자 데이터, 혈액 샘플, 임상 평가 등 생물학적 측정 자료는 연구 전반에 걸쳐 통합되어 수집되었다. 현재 참가자들이 30대 초반에 접어든 ALSPAC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Children of the Children of the 90s'라는 후속 연구를 통해 기존 참가자의 자녀 세대까지 조사를 확장하고 있다(Fraser et al., 2013: 98).

Understanding Society/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UKHLS)는 영국 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상황, 신체 및 정신건강,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설계된 패널연구이다(Fumagalli et al., 2017: 5). UKHLS의 주요 목적은 변화하는 가족 구조, 고용, 교육, 건강, 그리고 삶의 태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사회·경제적 결과 및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Fumagalli et al., 2017: 5). 정보 수집은 2009년 약 40,000가구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초기 조사에서는 가구 구성, 인구학적 특성, 소득, 주거환경, 건강상태, 직업 특성, 정책 인식 및 의견 등을 포함하였다(Boreham et al., 2012: 1). 이후 매년 실시되는 조사에서는 교육, 가족 관계, 지역사회 환경, 이주, 사회 활동 참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친환경 행동

및 사회적 이동성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설문도 추가되었다(University of Essex,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2018: 53-56). 또한 UKHLS는 영국 내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소수민족 부스트 샘플도 포함하며, 특정 조사 단계에서는 생체표지자 및 유전정보 등 생물학적·건강 데이터를 추가로 수집하여 설문조사를 보완하고 있다(Nandi et al., 2025).

Growing Up in Scotland(GUS)는 스코틀랜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는 연구로, 스코틀랜드 내 아동과 가족의 삶을 장기적으로 추적한다. GUS의 주요 목적은 생애 초기 경험, 가정 환경, 그리고 공공 정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동의 발달, 건강, 교육, 복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다. 정보 수집은 2005년에 시작되었으며, 2002-2003년생, 2004-2005년생, 2010-2011년생 등 세 개의 서로 다른 출생 코호트에 걸쳐 14,2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Bradshaw et al., 2005). 초기 조사에서는 가족 특성, 양육 환경, 부모의 건강 및 신체 상태, 보육 기관 이용, 그리고 영유아기 건강 및 발달에 관한 항목들이 포함되었다(Scottish Centre for Social Research, n.d.: 16). 이후 실시된 조사에서는 인지 및 사회성 발달, 학교적응 준비도, 교육 진척 상황, 또래관계, 행동 양상, 가족 관계, 주거환경, 소득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아동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정보 수집 범위는 학교 경험, 또래 영향, 희망 진로, 건강 행동, 대학교 진학 등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확대되었다(Bradshaw & Keyes, 2023).

(3) 호주의 LSAC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LSAC, “Growing Up in Australia”)은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더 다양한 사회 및 정책 환경 속에서 아동의 발달 경로를 조사하기 위해 설계된 연구이다(Zubrick, 2015: 1).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영유아기 생활환경, 양육 방식, 교육, 건강 등이 영유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있다. 정보 수집은 2004년에 시작되었으며, 출생 코호트(모집 당시 0~1세)와 유치원 코호트(모집 당시 4~5세), 두 개의 코호트에 걸쳐 약 10,0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2025c). 초기 조사에서는 아동 및 가

족의 인구학적 특성, 건강상태, 보육기관 이용, 부모의 취업상태, 양육 방식 등의 정보를 포함하였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2: 2).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후속 조사에서는 인지 및 사회정서 발달, 학교 교육, 또래관계, 지역사회 참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이후 조사에서는 건강 행동, 학업성취도, 희망 진로, 취업 경험,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로의 전환 과정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였다(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2: 2).

(표 V-2-2) 국외 청소년-성인 전환기를 포함한 주요 조사연구

구분	미국 ELS:2002	미국 HSL:2009	영국 MCS	영국 ALSPAC	영국 UKHLS	영국 GUS	호주 LSAC
조사명	Educational Longitudinal Study of 2002	High School Longitudinal Study of 2009	Millennium Cohort Study	Avon Longitudinal Study of Parents and Children	Understanding Society/ 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	Growing Up in Scotland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Growing Up in Australia")
조사목적	아동의 학업 경험과 학업 성취,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 장기 추적	아동의 학업 경험과 진로 개발 과정 장기 추적	아동 성장 과정과 건강, 발달, 교육, 가족 환경 영향 파악	태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유전, 환경, 사회적 요인 연구	삶의 변화와 안정성 정보 제공, 정책 입안 근거	아동과 가정 건강, 교육 사회적 환경 영향 파악 및 정책 개선	가족, 지역사회, 사회적 환경에서 아동 발달 연구
조사대상	부모, 아동, 교사, 학교 교장	부모, 아동, 교사, 학교 교장, 진로상담 교사	부모, 아동, 교사	부모, 아동, 일부 형제자매, 확장 코호트 ¹⁾	부모, 아동	부모(또는 주 양육자), 아동, 교사	부모, 아동, 교사
조사시기	-2002~2013년 주요 전환점에 맞춰 비정기적 조사 (2002, 2004, 2005, 2006, 2012, 2013)	-2009~2018년 (2025년 조사예정) 주요 전환점에 맞춰 비정기적 조사 (2009, 2012, 2013, 2013-14, 2016, 2017-18)	-2000년부터 진행 중, 3-4년 간격으로 조사	-1991년부터 진행 중, 1-5세 사이에는 매년 조사, 5세 이후부터는 학교 진학 등 주요 전환점에 맞춰 조사	-2009년부터 진행 중, 매년 조사	-2005년부터 진행 중, 6개월-2년 조사	-2003년부터 진행 중, 매년 조사
청소년 연령 및 샘플수	15세-25세	14세-24세	9개월-23세 (신행중)	태아기-33세 (신행중)	10세-성인기 (신행중)	출생 코호트 1: 10개월-17세(신행중) 출생 코호트 2: 10개월-5세(종료) 아동 코호트: 3-6세 (종료)	코호트 1: 0-20세 코호트 2: 4-24세

구분	미국 ELS:2002	미국 HSLS:2009	영국 MCS	영국 ALSPAC	영국 UKHLS	영국 GUS	호주 LSAC
조사방법	15,000명 -학교방문 면담 -교사 설문 -부모 설문 및 면담 -전화 조사 -학업능력 검사 -행정자료 연계	23,000명 -학교 방문 면담 -교사 설문 -전화 조사 -자기기입 설문	19,000명 -방문 면담 -검사 -교사 설문 -행정자료 연계	13,988명 ²⁾ -방문 면담 -생활학적 샘플 수 집 -건강검사 -교사 설문 -전화 조사	55,000명 -방문면담 -자기기입 설문 -전화 인터뷰 -온라인 설문 -행정자료 연계	출생 코호트1: 5217명 출생 코호트2: 6127명 아동 코호트: 2858명 -방문면담 -자기기입 설문 -관찰 평가 -행정자료 연계	코호트별 5,000명
홈페이지	https://nces.gov/surveys/els2002	https://nces.ed.gov/surveys/hsls09/	https://cls.ucl.ac.uk/cls-studies/millennium-cohort-study/	https://bristol.ac.uk/alspac/	https://www.understandingsociety.ac.uk	https://growingupin-scotland.org.uk	https://aifs.gov.au/growing-up-in-australia

주: 1) 확장 코호트(Children of the Children, G2 generation)

2) 초기 ALSPAC 표본은 14,541건의 임신부 표집함. 이후 14,062명 아동 출생 후 13,988명이 1세 시점에 생존함.

자료: 1) 미국 HSLS:09 홈페이지(n.d.): <https://nces.ed.gov/surveys/hsls09/> (인출일: 2025. 8. 1.).

2) 미국 ELS:02 홈페이지(n.d.): <https://nces.gov/surveys/els2002> (인출일: 2025. 8. 1.).

3) 영국 MCS 홈페이지(n.d.): <https://cls.ucl.ac.uk/cls-studies/millennium-cohort-study/> (인출일: 2025. 8. 1.).

4) 영국 ALSPAC 홈페이지(n.d.): <https://bristol.ac.uk/alspac/> (인출일: 2025. 8. 1.).

5) 영국 UKHLS 홈페이지(n.d.): <https://www.understandingsociety.ac.uk> (인출일: 2025. 8. 1.).

6) 영국 GUS 홈페이지(n.d.): <https://www.understandingsociety.ac.uk> (인출일: 2025. 8. 1.).

7) 호주 LSAC 홈페이지(n.d.): <https://aifs.gov.au/growing-up-in-australia> (인출일: 2025. 8. 1.).

나) 국외 조사연구의 전환기 조사 시 특성

(1) 설문구성, 조사대상의 변경

국외 패널조사는 조사대상의 성장·발달과 전환에 따라 설문지 내용과 조사방법 및 응답자 유형을 조정하는 일이 잦다. 우선, 조사대상이 영아이거나 취학 전 아동일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자가 보고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부모 보고를 통해 정보 수집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MCS는 생후 약 9개월 시점의 초기 조사에서 인구학적 특성, 부모의 건강 및 고용 상태, 양육 방식, 영아 건강 및 발달에 관한 정보를 부모 보고를 통해 수집하였다(Hansen, 2014: 30-31). ALSPAC 또한 임신 기간부터 산모 설문지, 의료 기록, 생물학적 샘플을 수집하며, 영유아기 조사에서는 수유 특성, 예방접종 여부, 초기 발달 단계 등에 대한 부모 보고에 의존하였다(University of Bristol, n.d.). LSAC와 GUS 역시 출생 코호트 및 유치원 코호트를 대상으로 부모 인터뷰 및 보고를 통해 아동의 건강, 양육 환경, 가정환경을 파악하였다(Bradshaw et al., 2005: 3; Zubrick, 2015: 3).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설문조사는 점차 자가 보고에 무게를 두게 되며, 이는 아동의 인지적·사회적 성숙도의 발달을 반영한 것이다. MCS에서는 3세 및 5세 조사부터 부모 보고와 병행하여 아동의 언어 능력, 인지 발달, 사회정서적 행동에 대한 관찰평가를 도입하며, 7세와 11세 조사에서는 아동 스스로 학교적응 및 또래관계에 대해 자가 보고를 하게 된다(Hansen, 2014: 34-35). ALSPAC도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인지 검사, 정서 및 행동 설문지, 임상 평가 등을 통해 아동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였다(University of Bristol, n.d.). GUS는 약 3세부터 부모와 아동 양측에서 정보를 수집하며, 아동 평가는 인지 능력, 사회정서 발달, 건강 영역을 포함한다(Scottish Centre for Social Research, n.d.). 정규 학교 진입 이후에는 교사 설문을 도입하여 학업성취, 교육 성과, 교실 내 행동 등 학교생활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취합한다(Growing Up in Scotland, n. d.). LSAC도 초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교사 설문과 관찰평가를 통해 부모 및 아동 설문을 보완하였다(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2025a). 이 시기부터 삶의 만족도, 또래관계, 희망진로와 같은 주제에 대한 자가 보고 항목이 영국과 미국의 여러 코호트 조사에서 공통으로 포함되어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청소년기에는 자가 보고 비중이 더욱 커지며, 학교 기반의 패널조사에서는 초기부터 학생이 주요 응답자가 되어 부모 및 교사의 응답을 보완적 자료로 결합한 다중 데이터 출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9~10학년(14~16세)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패널연구인 ELS:2002와 HSLS:2009는 초기 조사에서 학업 태도, 성취도, 참여도, 미래 인식 등을 측정하며, 부모와 교사는 학생의 상황적 요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Ingels et al., 2004: 16, 2011: 23). 특히 HSLS:2009에서는 학생의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노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학습 지원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부모의 의견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교사와 학교 행정 직원은 교육과정과 학교 풍토에 대한 상황적 정보를 제공한다(Duprey et al., 2018: 23). 이후 11~12학년 조사에서는 교과 과정, 방과 후 활동, 대학 입학시험, 대학 준비도, 아르바이트 및 취업 경험 등 보다 심화된 정보를 수집한다(Duprey et al., 2018: 6-7). MCS와 ALSPAC에서도 청소년기에는 연령에 적합한 인지 능력 평가와 사회적 적응 등에 대한 자가 보고 설문도 도입된다(Connelly & Platt, 2014: 1721; University of Bristol, n.d.).

후기 청소년기 및 초기 성인기에는 설문의 내용과 형식이 학력, 취업 경험, 건강 행동, 사회 활동 참여 등과 같은 개인의 삶 전반에 대한 자가 보고로 전환된다. ELS:2002 및 HSLS:2009 패널연구는 대학 진학 여부, 재학 유지, 취업 경험 및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항목이 포함되며, 학교 성적, 학자금 수혜, 재정 지원, 노동 활동 등과 관련된 정보도 함께 수집된다(Duprey et al., 2018; Ingels et al., 2014: 15-16). 이 시기에는 부모 및 학교의 보고 비중은 줄어들지만, 여전히 학생의 교육 배경이나 가정환경 등 보완적인 정보는 수집된다(Duprey et al., 2020: 5; Ingels et al., 2014: 15-16). 출생 코호트 연구인 MCS, ALSPAC, LSAC도 이 시기에 이르면 건강 행동, 삶의 만족도, 대인관계, 취업 경험 및 대학 진학과 같은 청년기 전환 과정을 포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 범위가 확장되며, 특히 ALSPAC과 LSAC에서는 유전 정보와 바이오마커를 포함한 생체 자료가 통합되어 자가 보고 설문을 보완하는 객관적 건강 지표로 활용된다(Fitzsimons et al., 2020: 7; Northstone et al., 2019; Zubrick, 2015: 5; University of Bristol, n.d.). UKHLS는 생애 전반에 걸쳐 모든 가구구성원을 추적하는 대표적인 패널연구로 아동이 16세에 도달하면 설문은 성인용으로 전환된

다(Boreham et al., 2012: 11). 그 이전까지 자녀에 대한 정보가 부모의 응답을 통해 수집되었지만, 이 시점부터는 자녀가 주요 응답자로 참여하여 교육, 고용, 소득, 가족 형성, 건강, 사회적 태도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 자가 응답하는 것이다(Boreham et al., 2012: 13).

(2) 행정자료 연계 활용

대부분의 해외 패널연구는 성적표, 보건자료, 행정기록 등 다양한 행정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설문 자료를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자료 연계는 건강, 교육 등 정부 시스템의 객관적 기록을 활용함으로써 조사의 품질을 높이고 응답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발달 과정과 결과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자료를 제공한다(Harron et al., 2020: 1).

미국의 ELS:2002와 HSLS:2009 패널연구는 주로 학교 및 학군과의 협약을 통해 행정자료를 연계한다. 이들 연구에서는 학생의 설문 응답을 학교 기록과 연계하는데, 여기에는 성적, 수업 이수 현황, 표준화 시험 점수, 출석률 등이 포함된다(Bozick et al., 2006; Duprey et al., 2020). 이러한 연계는 학생이 자가 보고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보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Bozick et al., 2006; Duprey et al., 2020).

영국의 MCS는 국민보건서비스(NHS), 교육부 등 여러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광범위한 행정자료를 연계하고 있다(Centre for Longitudinal Studies, 2020: 67-71). 예를 들어, 건강 기록은 예방접종, 입원, 발달 검진 등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모가 보고한 건강 및 발달 데이터를 보완한다(Tingay et al., 2019: 2-3). 교육 기록에서는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²⁰⁾ 점수, A-level(Advanced level)²¹⁾ 점수, 학교 출석률, 특수 교육 필요성 판정 정보 등을 연계한다(Peters et al., 2024). 이러한 행정자료 연계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아동을 추적 관찰하는 과정에서 자가 보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영유아기의 양육 및 생활환경 노출이 장기적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Benzeval et al., 2020: 3).

20) 14~16세 학생들이 응시하는 중등 교육 과정 말기 시험으로, 대학 진학이나 직업 교육을 위한 기초 자격을 제공함.

21) 16~18세 학생들이 선택 과목에 대해 심화 학습을 마친 후 치르는 시험으로, 대학 입학 자격 심사에 활용됨.

ALSPAC은 설문 자료, 생물학적 데이터, 행정기록 등이 광범위하게 연계된 출생 코호트 연구이다. 참가자의 설문 및 임상 자료는 NHS의 건강 기록과 연계되는데, 여기에는 입원 기록, 진료 기록, 예방접종 이력, 처방전 등이 포함된다(University of Bristol, 2025). 또한 ALSPAC은 교육 행정자료(Key Stage 평가²²), 시험 성적, 학교 출석률 등)와 정책지원 수급 경험 자료도 통합하였다(Golding et al., 2001: 79). 현재 코호트에는 고용 및 고등교육 기록도 연계할 수 있는 청년층이 포함되어 연계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며,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건강 및 교육 성과를 객관적으로 장기 추적·분석할 수 있다(University of Bristol, 2025: 4).

UKHLS는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가구 패널연구로, 건강 기록, 세금 및 정책지원 수급 데이터, 교육 기록 등 다양한 자료와 연계하고 있다(Benzeval et al., 2020: 1-2). 예를 들어, 건강 기록 연계를 통해 연구자들은 자가 보고된 건강상태를 NHS 데이터와 교차 검증할 수 있으며, 교육 및 소득 데이터는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및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자료와 연계되어 더 정확히 보완할 수 있다(Department for Education,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2020: 5). UKHLS는 가구 내 여러 세대를 포함하기 때문에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가구 및 개인 요인에 대한 다중 수준 분석이 가능하다(Department for Education &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2020).

GUS는 정책 연구 강화를 위해 행정 데이터 연계 방식을 설계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통합하였다(Scottish Centre for Social Research, n.d.: 8). . 아동의 출생 등록, 병원 입원, 예방접종 기록, 학교 성적 등 건강, 사회복지, 교육 기록에 대한 자료를 연계하고,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아동 발달을 객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부모나 교사의 보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Scottish Centre for Social Research, n.d.). 또한 GUS는 사회복지 서비스 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가정환경과 아동 안전 및 복지 상태를 파악하여 스코틀랜드 아동 발달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Growing Up in Scotland, n.d. -b).

LSAC 역시 행정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분석 범위를 확장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22) 영국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 과정을 구분하는 교육 단계 체계로, 국가 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에 따라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과 평가 방식이 각 Key Stage별로 정해져 있음.

호주 교육·기술·고용부 및 주 보건부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2025b). 연계된 행정자료에는 학교 출석 및 교육 이수 정보, 표준화된 학업 평가 결과, 입원 및 예방접종 기록 등 주요 교육 및 건강 관련 정보가 포함된다(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2025b). LSAC은 또한 가정 및 지역사회 환경에 대한 상세한 설문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 이러한 정보가 행정기록과 결합되어 아동 발달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층적 데이터를 제공한다(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2025b).

해외 패널연구에서 행정자료 연계는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을 보인다. 첫째, 연계되는 행정자료는 참가자의 발달 단계에 맞추어 이루어진다. 유아기 코호트 연구(MCS, ALSPAC, LSAC, GUS)에서는 건강 및 초기 교육과 관련된 기록을 주로 활용하는 반면, 청소년 및 청년 코호트 연구(ELS:2002, HSLS:2009, UKHLS)에서는 교육과 고용 관련 자료의 비중이 점차 확대된다. 둘째, 행정자료 연계는 설문조사 데이터를 보완하여 건강상태, 학업성취도, 취업 경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패널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 자가 보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셋째, 모든 연구는 참가자의 동의 절차와 데이터 보안 및 관리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행정자료 활용의 유용성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 유아기 단계에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참가자 연령에 따라 본인이 직접 동의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반영한다(Shepherd, 2013).

행정자료 연계는 해외 패널연구의 핵심요소로, 설문조사만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여 아동 발달, 교육, 사회적 결과에 대한 깊이 있고 신뢰성 높은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Batra et al., 2025: 1). 행정기록과 설문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자가 보고의 한계를 보완하고, 참가자를 다양한 영역과 생애단계에 걸쳐 추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증거 기반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생애경로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표 V-2-3〉 국외 청소년-성인 전환기를 포함한 주요 조사연구의 행정 데이터 연계

조사명	행정 데이터 출처	연령대별 연계 대상	동의 방식
미국 ELS:2002	학교 기록(성적증명서, 출석 기록), 대학 진학 및 재정 지원 기록	고등학교(10~12학년) 및 초기 성인기	학교/교육구 협약, 익명 성 보장
미국 HLSL:2009	학교 기록(성적증명서, 수강 과목, 성적, 출석 기록), 대학 진학 및 재정 지원 기록	고등학교(9~12학년) 및 초기 성인기	학교/교육구 협약, 익명 성 보장
영국 MCS	국민보건서비스(NHS) 건강 기록(입원, 예방접종, 검진), 교육 기록(학교, 시험 성 적, 특수 교육 요구 사항)	영아기부터 초기 성인기	부모 동의(초기 단계), 아동 동의(후기 단계)
영국 ALSPAC	국민보건서비스(NHS) 건강 기록(일반의 방문 기록, 처방전), 교육 기록(Key Stage 평가, 출석률), 사회복지 및 복지 혜택 데 이터	태아기부터 성인기까지	부모 동의(초기 단계), 아동 동의(후기 단계)
영국 UKHLS	건강 기록(NHS), 세금 및 복지 혜택 (HMRC), 학력 기록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참가자 동의
영국 GUS	건강 기록(출생, 병원, 예방접종), 교육 기 록(학력, 출석), 사회복지 데이터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 까지	초기에는 부모 동의; 아 동은 연령에 따라 후속 조사에서 동의
호주 LSAC	교육 기록(등록, 평가), 건강 기록(병원 방문 기록, 예방접종)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초기에는 부모 동의; 아 동은 연령에 따라 후속 조사에서 동의

- 자료: 1) 미국 HLSL:09 홈페이지: <https://nces.ed.gov/surveys/hsls09> (인출일: 2025. 8. 1.).
 2) 미국 ELS:02 홈페이지: <https://nces.gov/surveys/els2002> (인출일: 2025. 8. 1.).
 3) 영국 MCS 홈페이지: <https://cls.ucl.ac.uk/cls-studies/millennium-cohort-study> (인출일: 2025. 8. 1.).
 4) 영국 ALSPAC 홈페이지: <https://bristol.ac.uk/alspac> (인출일: 2025. 8. 1.).
 5) 영국 UKHLS 홈페이지: <https://www.understandingsociety.ac.uk> (인출일: 2025. 8. 1.).
 6) 영국 GUS 홈페이지: <https://www.understandingsociety.ac.uk> (인출일: 2025. 8. 1.).
 7) 호주 LSAC 홈페이지: <https://aifs.gov.au/growing-up-in-australia> (인출일: 2025. 8. 1.).

(3) 주요 전환기 중심으로의 유연한 조사수행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패널조사에서는 조사대상의 발달적, 학업적, 사회적 전환 시기에 맞추어 조사시점을 계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설계는 응답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개인의 생애경로를 체계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장기 추적 연구의 지속 가능성과 자료 수집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다.

해외 패널연구 중 MCS, ALSPAC, GUS, LSAC 등은 가장 이른 시점인 출생 또는 그 이전부터 조사대상자를 추적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연구는 영유아기의 급속한 발달 변화를 포착하기 위하여 매년 또는 격년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취학 전 아동의 건강, 발달, 가정환경, 양육 방식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이 정규학교에 진입하는 시기는 매우 중요한 전환 시점이므로 조사도 이 시기에 맞추어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LSAC는 아동이 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 4~5세에 조사를 실시하였고, MCS는 영국의 초등 교육 전환 시점을 반영하여 5세와 7세에 데이터를 수집하였다(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2025c; Connelly & Platt, 2014: 1719). 또한 GUS는 3세, 5세, 7세에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로의 전환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적하였다(Growing Up in Scotland, n.d. -a).

학교 재학기간 동안의 조사는 국가 교육제도상의 평가시기와 연계되는 경향을 보인다. 영국에서는 Key Stage(7세, 11세, 14세, 16세 등)와 조사시점을 일치시키며(Connelly & Platt, 2014: 1719), 호주 및 미국에서는 대학 입학시험 시점과 같은 주요 학업 평가시기를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ALSPAC 및 MCS는 조사시점을 Key Stage에 맞추고, 아동의 인지 발달 및 학업성취와 관련된 정보를 행정 데이터와 연계하여 보다 정교하고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Centre for Longitudinal Studies, 2020: 67-71; Golding et al., 2001: 79). 미국의 패널연구인 ELS:2002와 HSLs:2009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그리고 노동시장 진입 시점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는데, 두 연구 모두 응답자가 고등학교 진입, 또는 재학 초기에 데이터를 수집한 후, 11학년(대학 진학 결정기), 졸업 직후(진학·취업 확정기) 등 전환기에 맞춰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다(Ingels et al., 2014: 8-9).

청소년기 이후에는 아동이 성장하고 발달 변화속도가 느려지는 한편, 조사 참여의 어려움이 증가하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하여 조사주기가 점차 간격을 두고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MCS는 유아기에는 2년 주기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조사간격이 길어졌다(Fitzsimons et al., 2020: 8). ALSPAC도 출생 후 10년 동안은 빈번하게 조사를 실시하다가, 청소년기와 성인기로 접어들면서는 조사간격을 늘리고 전략적으로 시기를 조정해 추적 조사로 전환되었고(Boyd et al., 2013: 118), GUS 역시 조사대상자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기부터 조사주기가 길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Growing Up in Scotland, n.d. -a). 그러나 조사간격이 넓어지더라도 대부분의 연구는 여전히 학업적·사회적 주요 전환 시점에 맞춰 조사를 실시하는 전략은 유지하고 있다. MCS는 아동이 중학교에 진학하는 11세와 중기 청소년기인 14세에 조사를 실시하였고

(Connelly & Platt, 2014: 1719), ALSPAC는 대학 진학, 취업, 가족 형성과 같은 주요 전환기 시점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University of Bristol, n.d.), LSAC 역시 15~17세경에 조사시기를 설정하여 의무교육에서 고등교육, 직업훈련 또는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을 관찰하였다(Zubrick, 2015: 5). ELS:2002와 HSLs:2009는 처음부터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및 노동시장 진입 등 후기 청소년기 전환을 관찰하기 위해 설계되어 교육 및 직업 결정의 주요 전환점인 11학년과 졸업 직후에 맞춰 조사를 실시하였다(Ingels et al., 2007: 11-12, 2013: 6).

주요 전환기 시점에 전략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설계는 단순한 주기적 조사보다 이론적 및 실용적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정보 수집이 급격한 발달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생애경로의 전환점을 보다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게 한다. 실용적으로는 조사빈도를 조절하여 장기 추적 연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응답자의 참여 부담과 조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학교 입학, 대학 입시, 졸업, 진학, 취업, 결혼, 출산 등 주요 전환 시점에 맞춰 설문조사를 재개하는 방식은 생애 전반에 걸친 발달적·교육적·사회적 경로를 체계적으로 추적하는 데 효과적이다.

나. 향후 조사를 위한 제언

1) 조사대상 축소 등 변화 고려

2025년 패널아동이 고2인 18차 조사까지는 아동, 주양육자, 부모 각각, 아동학교의 담임 대상으로 5종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2026년 아동이 고3시기인 19차 조사 시에는 아동과 주양육자 조사만 실시하고, 2027년 아동이 성인이 되는 20차 조사 시에는 아동 조사만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을 축소시킬 것을 제안한다.

조사대상자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로 성장함에 따라 설문 내용, 조사방법, 응답자 유형을 조정하는 것은 국내외 패널연구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경향이다. 청소년기에는 아동의 인지적, 사회적 성숙도가 발달함에 따라 설문조사는 점차 자가 보고에 무게를 두게 되고 부모와 교사는 상황적 요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완적인 응답자로서 활용된다. 특히, 성인기 진입 후에는 조사대상을 아동 단독으로 전환하기도 한다(영국의 UKHLS). 성인 진입 이후의 패널 조사는 대학

진학 여부, 노동시장 진입 과정 등 개인 중심의 구체적인 항목을 포함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한국아동패널의 19, 20차년도 조사 시 조사대상을 축소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최근 들어서 진행된 사업예산 축소에 따른 현실적인 대안이기도 하다.

2) 목적별 유연한 조사설계 검토: 유지조사 후 청년기 확장 본조사로 연계 고려

2008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2008년도에 1차년도 조사를 시작한 한국아동패널 사업은 애초에 초등학교 6학년 시기인 2020년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패널자료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아동이 19세에 이르러 성인이 되는 2027년 20차년도 조사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아동패널은 신생아기부터 아동,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조사하는 한국 최초의 장기추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더해지고 있다.

20차년도 조사를 끝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쉬움을 토로하며 더 긴 기간의 추적관찰로 강력한 종단자료로 기능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연구진은 2027년 사업 종료 후 최소한의 문항으로 구성된 유지조사를 하다가 이후 생애주기상 유의미한 시점에 확장된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예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 2010)의 중1 코호트는 2016년 본조사(7차)를 종료한 뒤에도 2024년까지 제1차부터 8차까지 간단한 유지조사를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접촉하다가 2024년에 유지조사를 종료하고 2025년 신규 조사사업인 '청년의 성인기 이행 경로 연구' 본조사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매년 또는 격년 등 일정 주기로 조사하는 것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조사시점과 조사내용을 택하는 접근 방식은 조사대상의 발달적, 학업적, 사회적 전환 시기에 맞추어 조사시점과 내용을 계획하는, 국외 패널에서 다수 목격된, 전환점 중심 설계의 전략과도 일치한다.

3) 고3, 성인전환기 패널유지를 위한 전략

고3 시기와 성인 전환기는 패널 이탈이 우려되는 시점으로 패널유지를 위한 다양한 전략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간 추적조사에 응한 한국아동패널 대상자들의 경우, 이미 조사에 성실히 응한 충성도 높은 패널이 많아 대입 수험 기간(고3 시기)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답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실제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KCYPs)의 고3 시기 유지율 하락 정도는 예년에 비해 1~2%p 정도로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입시와 취업 등으로 부담이 큰 시기일 것이므로 참여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조사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은 고3 학생들에게 수능 전후 중언제 조사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조사시기를 물어보고 조사에 임했으며, 이는 성공적인 패널 유지 전략 중 하나로 제시된 바 있다.

패널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3 조사와 성인기 조사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방안은 지양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이 고3 시기 조사를 건너뛰고 이듬해 성인기 조사와 통합하여 진행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문가들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을 이탈이 가장 우려되는 시기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사례비 증액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 군 입대자의 경우 청년패널조사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별도의 설문지 제작 없이 일반 설문지를 사용하되, 휴가 기간에 조사를 진행하거나 전화 조사로 간단히 마무리하는 유지조사 차원의 전략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진학정보 확보를 위한 현실적 방안 및 향후 행정자료 연계의 전망

고등학교 3학년의 진로 및 학업성취의 결과로 나타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점수와 대학 진학 정보는 아동의 성취를 측정하고 생애경로를 추적하는 데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국내 패널조사에서 이러한 정보를 객관적인 공공데이터(평가원 자료)와 연계하여 파악하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객관적인 수능점수를 평가원 자료와 연계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조사 전에 주민등록번호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3 조사 경험이 있는 타패널 관리 전문가들은 이러한 목적을 밝힐 경우 패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측하며 시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다. 따라서 진학 정보(수능점수 수준, 진학 학교의 지역 및 전공/계열)는 현재 대부분의 패널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 조사로 파악된 정보라 하더라도 진학한 학교 정보의 경우 학교명은 공개하지 않고 지역과 전공/계열만 자료화하여 공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학교명도 조사원이 묻고 기록하지만, 내부 데이터로만 관리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한국아동패널의 차후 조사에서도 진학 등의 정보 공개 여부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국내와 달리 많은 해외 패널연구는 성적표, 보건 자료, 행정 기록 등 다양한 행정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설문 자료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연계는 정부 시스템의 객관적 기록을 활용함으로써 조사의 품질을 높이고 응답자 부담을 줄이며, 발달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예로 미국 패널연구(ELS:2002, HSLS:2009)는 학교 및 학군과의 협약을 통해 학생의 성적, 출석 기록, 대학 진학 및 재정 지원 기록 등을 연계하여 학생의 자가 보고 자료를 객관적으로 보완한다. 영국의 코호트 연구(MCS, UKHLS, ALSPAC) 역시 국민보건서비스(NHS) 건강 기록, 교육 기록(시험 성적, 출석률), 세금 및 정책 지원 수급 데이터 등을 광범위하게 연계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아동패널과 육아정책연구소의 다른 패널인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사업 시 행정자료 연계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료 연계는 설문조사만으로는 측정하기 어려운 다양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여 아동 발달, 교육, 사회적 결과에 대한 깊이 있고 신뢰성 높은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이때 개인정보보호와 동의에 대한 절차가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공단(2024). 2024 건강검진 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
- 김양분·남궁지영·김정민·박경호·임현정·김난옥·송승원·이영주·최보미(2014). 2014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종단연구(KELS)2005(IX): 조사개요보고서(기술보고 TR 2014-81). 한국교육개발원.
- 김지영·민주홍·반가운·윤혜준·장수아·윤종혁·김혜정·권현지·이진솔·강서울(2024).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2024)(기본사업 2024-06).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김지현·김동훈·조미라·배운진·김혜진·박은영(2021).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1(한국아동패널 II)(연구보고 2021-27). 육아정책연구소.
- 유한구·민숙원·류지영·신동준·이은혜(2017). 한국교육고용패널 기초분석보고서(2016): 제12차(2015)년도 자료 분석(연구자료 2017-2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육아정책연구소(2025). 2025년 한국아동패널-전문가 자문회의(2025.4.23.) 내부자료. 육아정책연구소.
- 이경상(2021).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의 표본이탈의 종단적 변화유형 및 관련 표본특성요인. *공공정책연구*, 38(2), 79-104. <http://doi.org/10.33471/ILA.38.2.4>
- 이경상·이순래(2017).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의 종단적 최초표본이탈에 영향을 미치는 표본특성요인. *한국청소년연구*, 28(2), 157-195. <http://doi.org/10.14816/sky.2017.28.2.157>
- 이경상·안선영·곽수민·유동훈·반호준(2009).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KYPS) VII: 1~6차년도 조사개요 보고서(연구보고 09-R0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상정·이주연·전진아·김수진·임성은·신영규·류정희·하태정·권영지·김시아·김지현·유민상(2023). 2023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혜정·변종석·황안나·염아림(2023). 패널조사 표본이탈 경향 분석과 추가표본 추출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중심으로(연구보고 2023-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미라·최효미·김동훈·김혜진·강민권(2023).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3

- (한국아동패널 II)(연구보고 2024-20). 육아정책연구소.
- 조미라·최효미·김동훈·김혜진·강민권(2024).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4 (한국아동패널 II)(연구보고 2024-20). 육아정책연구소.
- 조숙인·김지현·이상인·송경희·최효식·송주현·김재철·김희수(2022). 한국아동패널 2008~2020 심층분석 연구(연구보고 2022-14).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2017). 아동패널조사의 원표본이탈에 관한 연구. *조사연구*, 18(2), 39-65. <http://doi.org/10.20997/SR.18.2.2>
- 하형석·황진구·최인재·한지형(2025).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사업보고서(연구보고25-일반-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16). 2016년 정보문화포럼 정책연구보고서(NIA V-RER-B-16007).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KCYPs 2010) 유저 가이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유저 가이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효정·금중예·남궁지영·박근영·박성호·이주연·임소현·최유리·이태호(2024). 2024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종단연구2013(XII): 조사개요보고서(기술보고 TR 2024-02). 한국교육개발원.
- Batra, K., Goel, V. S., Reyes, A. L., Assoumou, B., Simangan, D. P., Abdulla, F., & Kuhls, D. A. (2025). Unifying and linking data sources in medical and public health research. *Journal of Medicine, Surgery, and Public Health*, 5, 100164. <https://doi.org/10.1016/j.glmedi.2024.100164>
- Benzeval, M., Bollinger, C. R., Burton, J., Couper, M. P., Crossley, T. F., & Jackle, A. (2020). Integrated Data: Research Potential and Data Quality(Understanding Society Working Paper Series 2020-02).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 Boreham, R., Boldysevaite, D., & Killpack, C. (2012). UKHLS: Wave 1 technical report.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 Boyd, A., Golding, J., Macleod, J., Lawlor, D. A., Fraser, A., Henderson, J., Molloy, L., Ness, A., Ring, S., & Davey Smith, G. (2013). Cohort

- Profile: the 'children of the 90s': The index offspring of the Avon Longitudinal Study of Parents and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42(1), 111-127. <https://doi.org/10.1093/ije/dys064>
- Bozick, R., Lytle, T., Siegel, P. H., Ingels, S. J., Rogers, J. E., Lauff, E., & Planty, M. (2006).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of 2002: First Follow-Up Transcript Component Data File Documentation (NCES 2006-338).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 (1989). Ecological system theory. In R. Vasta (Ed.), *Annals of child development* (Vol. 6, pp. 187-249).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Bradshaw, P., Tipping, S., Marryat, L., Corbett, J. (2005). *Growing Up in Scotland Sweep 1 - 2005*. Scottish Centre for Social Research.
- Bradshaw, P., & Keyes, A. (2023). *Growing Up in Scotland Sweep 11: 2021-23*. Scottish Centre for Social Research.
- Centre for Longitudinal Studies. (2020). *Millennium Cohort Study User Guide (Surveys 1-5) (9th ed.) UCL Institute of Education*. https://www.cls.ucl.ac.uk/wp-content/uploads/2020/09/MCS1-5_User_Guide_ed9_2020-08-07.pdf
- Cohen, E. D., Huo, H., Guyot, K., Gaffney, C., & American Institutes for Research. (2024). *High School Longitudinal Study of 2009 (HSL: 09): A first look at the 2021 Postsecondary Enrollment, Completion, and Financial Aid Outcomes of Fall 2009 Ninth-Graders*. US Department of Education, Washington, DC: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Connelly, R., & Platt, L. (2014). Cohort profile: UK Millennium Cohort Study (MCS). *Int J Epidemiol*, 43(6), 1719-1725.
- Department for Education, &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2020). *Understanding Society: Linked Education Datasets (National Pupil Database)*, England: User guide Version 1.0 November 2020.

University of Essex.

- Duprey, M. A., Pratt, D. J., Jewell, D. M., Cominole, M. B., Fritch, L. B., Ritchie, E. A., Rogers, J. E., Wescott, J. D., Wilson, D. H., & Christopher, E. M. (2018). High School Longitudinal Study of 2009 (HSLS:09) Base-Year to Second Follow-Up(NCES 2018-140).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 Duprey, M. A., Pratt, D. J., Wilson, D. H., Jewell, D. M., Brown, D. S., Caves, L. R., Kinney, S. K., Mattox, T. L., Ritchie, N. S., Rogers, J. E., Spagnardi, C. M., Wescott, J. D., & Christopher, E. M. (2020). High School Longitudinal Study of 2009 (HSLS:09) Postsecondary Education Transcript Study and Student Financial Aid Records Collection(NCES 2020-004).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 Elder, G. H., Jr. (1985). *Life Course Dynamics: Trajectories and transitions 1968-1980*. Cornell University Press.
- Elder, G. H., Jr. (1998). The life course and human development. In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5th ed., pp. 939-991). John Wiley & Sons, Inc.
- Fitzsimons, E., Haselden, L., Smith, K., Gilbert, E., Calderwood, L., AgaliotiSgompou, V., Veeravalli, S., Silverwood, R., Ploubidis, G. (2020). *Millennium Cohort Study Age 17 Sweep (MCS7): User Guide*. London: UCL Centre for Longitudinal Studies.
- Fraser, A., MacDonald-Wallis, C., Tilling, K., Boyd, A., Golding, J., Davey Smith, G., Henderson, J., Macleod, J., Molloy, L., Ness, A., Ring, S., Nelson, S. M., & Lawlor, D. A. (2013). Cohort profile: The avon longitudinal study of parents and children: ALSPAC mothers cohort. *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42, 97-110. <https://doi.org/10.1093/ije/dys066>
- Fumagalli, L., Knies, G., & Buck, N. (2017). *Understanding Society The 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 Harmonised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BHPS) User Guide*. University of Essex.
- Golding, Pembrey, Jones, & ALSPAC Study Team. (2001). ALSPAC - the

- avon longitudinal study of parents and children. I. Study methodology. *Paediatric and Perinatal Epidemiology*, 15(1), 74-87. <https://doi.org/10.1046/j.1365-3016.2001.00325.x>
- Hansen, K. (2014). *Millennium Cohort Study: A Guide to the Datasets* (8th ed.). Centre for Longitudinal Studies.
- Harron, K., Doidge, J. C., & Goldstein, H. (2020). Assessing data linkage quality in cohort studies. *Ann Hum Biol*, 47(2), 218-226. <https://doi.org/10.1080/03014460.2020.1742379>
- Ingels, S. J., Pratt, D. J., Alexander, C. P., Jewell, D. M., Lauff, E., Mattox, T. L., & Wilson, D. (2014).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of 2002 (ELS:2002) Third Follow-Up Data File Documentation (NCES 2014-364)*.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Ingels, S. J., Pratt, D. J., Herget, D. R., Burns, L. J., Dever, J. A., Ottem, R., Rogers, J. E., Jin, Y., & Leinwand, S. (2011). *High School Longitudinal Study of 2009 (HSL:09): Base-Year Data File Documentation (NCES 2011-328)*.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Ingels, S. J., Pratt, D. J., Herget, D. R., Dever, J. A., Fritch, L. B., Ottem, R., Rogers, J. E., Kitmitto, S., Leinwand, S., & Christopher, E. (2013). *High School Longitudinal Study of 2009 (HSL:09) First Follow-Up Data File Documentation (NCES 2014-358)*.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Ingels, S. J., Pratt, D. J., Rogers, J., Siegel, P. H., Stutts, E., & Research Triangle Institute. (2004). *ELS: 2002 Base Year Data File User's Manual (NCES 2004-405)*.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Ingels, S. J., Pratt, D. J., Wilson, D., Burns, L. J., Rogers, J. E., Currivan, D., & Hubbard-Bednasz, S. (2007).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of 2002 (ELS: 2002) Base-Year to Second Follow-up Data File Documentation (NCES 2008-347)*.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Joshi, H., & Fitzsimons, E. (2016). *The UK Millennium Cohort Study:*

- the making of a multi-purpose resource for social science and policy in the UK. *Longitudinal and Life Course Studies*, 7(4), 409-430. <http://doi.org/10.14301/llcs.v7i4.410>
- Kroenke K, Spitzer RL, & Williams J. B. (2001). The PHQ-9: validity of a brief depression severity measure.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16(9), 606-613. <https://doi.org/10.1046/j.1525-1497.2001.016009606.x>
- Nandi, A., Nascimento, T., & Platt, L. (2025). *Understanding Society: 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 User Guide to Ethnicity and Immigration Research. 13th Edition*. Colchester: University of Essex.
- Northstone, K., Lewcock, M., Groom, A., Boyd, A., Macleod, J., Timps on, N., & Wells, N. (2019). The Avon Longitudinal Study of Parents and Children (ALSPAC): an update on the enrolled sample of index children in 2019. *Wellcome open research*, 4, 51.
- Peters, A., Rihal, S., Sanchez-Galvez, A., Fitzsimons, E., Gomes, D. (2024). *Millennium Cohort Study: Linked Education Administrative Datasets User Guide(3rd ed.)*. Centre for Longitudinal Studies.
- Plewis, I., Calderwood, L., Hawkes, D., Hughes, G., & Joshi, H. (2007). *The millennium cohort study: Technical report on sampling (4th ed.)*. Centre for Longitudinal Studies.
- Shepherd, P. (2013). *Consent to linkage to child health data in the Millennium Cohort Study*. Centre for Longitudinal Studies.
- Scottish Centre for Social Research. (n.d.). *Growing Up in Scotland: Early learning and childcare administrative data - User guide (UK Data Service Generic Number 33456)*. UK Data Service. https://doc.ukdataservice.ac.uk/doc/8543/mrdoc/pdf/gus_pre-school_data_user_guide_v1_0.pdf
- Tingay, K. S., Bandyopadhyay, A., Griffiths, L., Akbari, A., Brophy, S., Bedford, H., Cortina-Borja, M., Setakis, E., Walton, S., Fitzsimons, E., Dezateux, C., & Lyons, R. A. (2019). Record linkage to enhance consented cohort and routinely collected health data from a UK birth cohort. *International Journal of Population Data Science*,

4(1), 579. <https://doi.org/10.23889/ijpds.v4i1.579>

University of Bristol. (2025). Guide to using ALSPAC data linked to UK health, education and other third-party data (Version 5.0). ALSPAC.

University of Essex, 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2018). *Understanding Society: The UK Household Longitudinal Study Waves 1-8 user guide*.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Gundi-Knies/publication/337831264_Understanding_Society_The_UK_Household_Longitudinal_Study_Waves_1-8_User_Guide/links/5dedff8592851c83646e1752/Understanding-Society-The-UK-Household-Longitudinal-Study-Waves-1-8-User-Guide.pdf

Zubrick, S. (2015). The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Review and Revision of the Key Research Questions.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인터넷 출처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2). Growing Up in Australia: The Longitudinal Study of Australian Children. <https://www.dss.gov.au/long-term-research/growing-australia-longitudinal-study-australian-children> (인출일: 2025. 10. 10.)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2025a). Integrated Rationale Report. <https://aifs.gov.au/growing-australia/data-use-documentation/rationale-report> (인출일: 2025. 10. 10.)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2025b). Data linkages. <https://aifs.gov.au/growing-australia/data-users/data-linkages> (인출일: 2025. 10. 10.)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2025c). Research sample and methodology. <https://aifs.gov.au/growing-australia/study/sample> (인출일: 2025. 10. 10.)

Growing Up in Scotland. (n.d. -a). Study design and timeline. <https://growingupinscotland.org.uk/study-design-and-timeline> (인출일: 2025. 10. 10.)

- Growing Up in Scotland. (n.d. -b). Accessing GUS data. <https://growingupinscotland.org.uk/accessing-gus-data> (인출일: 2026. 1. 27.)
- University of Bristol. (n.d.). Our data collection timelines. <https://www.bristol.ac.uk/alspac/researchers/our-data/timeline/> (인출일: 2025. 10. 10.)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n.d.). [신경]청소년의 수면. https://www.pediatrics.or.kr/bbs/index.html?code=disease_info&category=E&gubun=&page=1&number=8879&mode=view&keyfield=&key=, (인출일: 2025. 6. 10.)
-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n.d.-a). 표본설계. https://panel.kicce.re.kr/pskc/html.do?menu_idx=26 (인출일: 2025. 9. 4.)
- 한국아동패널 홈페이지(n.d.-b). 표본유지율. https://panel.kicce.re.kr/pskc/html.do?menu_idx=30 (인출일: 2025. 9. 4.)
-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n.d.). <https://www.nypi.re.kr/archive/board?menuId=MENU00220> (인출일: 2025. 10. 15.)
- 한국교육고용패널(n.d.) <https://www.krivet.re.kr/kor/sub.do?menuSn=17> (인출일: 2025. 10. 15.)
- 청년패널조사(n.d.) <https://survey.keis.or.kr/yp/yp01/yp0101.jsp> (인출일: 2025. 10. 15.)
- 미국 HSL:09 홈페이지(n.d.): <https://nces.ed.gov/surveys/hsls09/> (인출일: 2025. 8. 1.)
- 미국 ELS:02 홈페이지(n.d.): <https://nces.gov/surveys/els2002> (인출일: 2025. 8. 1.)
- 영국 MCS 홈페이지(n.d.): <https://cls.ucl.ac.uk/cls-studies/millennium-cohort-study/> (인출일: 2025. 8. 1.)
- 영국 ALSPAC 홈페이지(n.d.): <https://bristol.ac.uk/alspac/> (인출일: 2025. 8. 1.)
- 영국 UKHLS 홈페이지(n.d.): <https://www.understandingsociety.ac.uk> (인출일: 2025. 8. 1.)

영국 GUS 홈페이지(n.d.): <https://www.understandingsociety.ac.uk> (인출일: 2025. 8. 1.).

호주 LSAC 홈페이지(n.d.): <https://aifs.gov.au/growing-up-in-australia> (인출일: 2025. 8. 1.).



2025 Longitudinal Study of Growth and Development of Korean Children :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Mira Cho · Hyo Mi Choi · Jiyoung Lee · Hyejin Kim · Min-gwon Kang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PSKC) is the first long-term birth cohort study in Korea initiated from the neonatal period. It follows a cohort of children born in 2008, with the first survey conducted in 2008 and successive waves planned through 2027, when the cohort enters adulthood. In 2025, the 18th wave of data collection was implemented.

The study investigates characteristics of parents, families,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and school and private education that influence children's growth and development. Multiple informants are surveyed, including the child, the main caregiver, each parent, teachers i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institutions, and teachers in school, thereby building a rich, multilevel data set that captures children and the systems surrounding them.

In 2025,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five parts.

First, the 18th wave survey was conducted with panel households whose children were entering the second year of high school in 2025, including surveys of the child, the main caregiver, each parent, and the child's school teacher.

Second, cross-sectional analyses were carried out using the 17th main survey and the fifth in-depth survey conducted in 2024, focusing on key variables in the domains of children, parents, families, schools, communities, and policy, and incorporating the family and multicultural

attitudes module from the in-depth survey.

Third, using the accumulated longitudinal data, analyses of attrition patterns and long-term trends in major variables were conducted from the first through the seventeenth waves (2008–2024), examining patterns and correlates of participation and dropout, as well as trajectories of children’s daily life, learning, socio-emotional development, relationships with parents, and physical development.

Fourth, the 16th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Academic Conference were held. In particular, the 2025 conference and data briefing were jointly held with the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Panel Study of th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CCE).

Fifth, waves 1–16 were systematically managed and user-support tasks were undertaken, including updating and quality-checking the datasets, questionnaires, instrument profiles, variable maps, and user guides.

As of 2024, a total of 1,605 scholarly outputs have utilized the panel data from Waves 1 to 14, including 1,149 journal articles, 288 conference presentations, and 144 academic theses. In 2024 alone, 131 journal articles, 29 theses, and 27 conference presentations were produced using the data. In particular, the number of theses in 2024 represents the highest annual utilization since the data were first released in 2010.

Keyword: panel study, longitudinal data, Korean Children, child development

부 록

- 01 18차년도(2025년 조사) IRB 승인통지서
- 02 17차년도(2024년 조사) 아동 질문지
- 03 17차년도(2024년 조사) 아동 질문지_심층조사
- 04 17차년도(2024년 조사) 보호자용 설문지
- 05 17차년도(2024년 조사) 어머니 질문지
- 06 17차년도(2024년 조사) 아버지 질문지
- 07 17차년도(2024년 조사) 학교(담임교사) 질문지
- 08 17차년도(2024년 조사) 유예 및 회고조사 질문지

부록 1. 18차년도(2025년 조사) IRB 승인통지서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nstitutional Review Board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9층(04535) Tel. 02-398-7783 Email. kicceirb@kicce.re.kr
심 의 일 자	2025. 06. 16.
과 제 번 호	220996-250616-HR-002
연구 제 목	한국 아동 성장 발달 중단 연구 2025 (한국아동패널II)
연구 책임자	조 미 라
연구 승인일	2025. 07. 10.
연구 승인기간	2025. 07. 10. ~ 2025. 12. 31.
연구 승인번호	KICCEIRB-2025-제03호

육아정책연구소 기관생명윤리위원회장



부록 2. 17차년도(2024년 조사) 아동 질문지



0316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T 02-3702-2100
www.gallup.co.kr F 02-3702-2121

GALLUP
INTERNATIO
NAL

한국아동패널 2024 (아동용)

Gallup
2023-211-019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면접원 ○○○입니다.

저희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매년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4년 7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 오창엽
담당연구원 김중서
전화 02-3702-2612



01 다음은 평소의 생활과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J01-1) 최근 1주일 동안 아래의 음식 또는 식품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문항내용	최근 1주일 동안 먹지 않음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매일 1번	매일 2번	매일 3번 이상
1) 육류, 생선, 달걀, 콩, 두부 등으로 된 음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채소(생채소, 니물류 등) *단, 김치류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항내용	최근 1주일 동안 먹지 않음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매일 1번	매일 2번	매일 3번 이상
3) 과일(과일주스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튀김이나 기름에 볶는 요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지방이 많은 육류 및 생선류(삼겹살, 갈비, 장어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아이스크림이나 케이크, 과자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라면, 피자, 치킨, 편의점 음식 등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 푸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J01-2) 최근 1주일 동안 아래의 음료를 얼마나 자주 마셨습니까?

문항내용	최근 1주일 동안 먹지 않음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매일 1번	매일 2번	매일 3번 이상
1) 콜라, 사이다 등을 포함한 탄산음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커피와 차 등 카페인 함유 음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과일주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우유나 유제품(요거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물(탄산수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J01-3)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아닌 편이다
1) 식사할 때 음식에 소금이나 간장을 더 넣는다	①	②	③
2) 식사는 매일 세끼를 규칙적으로 한다	①	②	③
3) 모든 식품을 골고루 섭취한다 (편식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J01-4)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1잔 이상의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제사, 차례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합니다.

① 술을 마셔본 적 없다 → J01-5)로

② 있다 → J01-4-1)로

- a. J01-4=②일 경우, 이전에 J01-4-1 응답값이 있다면 J01-4-2로 이동
b. J01-4=②일 경우, 이전에 J01-4-1 응답값이 없다면 J01-4-1로 이동

J01-4-1) 처음으로 술 1잔을 모두 마셔본 적은 언제입니까? *제사, 차례 때 몇 모금 마셔본 것은 제외합니다.

학교급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초등학교						
중학교	⑦ 1학년	⑧ 2학년	⑨ 3학년			
고등학교	⑩ 1학년					

J01-4-2)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 ① 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 J01-5)로
- ② 한 달에 1번 미만 → J01-4-3)으로
- ③ 한 달에 1번 정도 → J01-4-3)으로
- ④ 한 달에 2-4번 → J01-4-3)으로
- ⑤ 일주일에 2-3번 정도 → J01-4-3)으로
- ⑥ 일주일에 4번 이상 → J01-4-3)으로

a. J01-4-1=⑩일 경우, '①최근 1년간 전혀 마시지 않았다' 선택 불가

J01-4-3) 최근 한 달 동안, 술을 마신 장소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집, 친구 집
- ② 학교, 기숙사
- ③ 놀이터, 공터, 야산, 공원, 길거리
- ④ PC방, 비디오방, 노래방
- ⑤ 식당
- ⑥ 술집, 나이트, 포장마차

J01-4-4) 최근 한 달 동안,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술을 사려고 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 ① 최근 한 달 동안 술을 사려고 한 적이 없다
- ② 술을 사는 것이 불가능했다
- ③ 많이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 ④ 조금만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 ⑤ 노력 없이도 쉽게 살 수 있었다

J01-5) 지금까지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 본 적 있습니까?

- ① 담배를 피워본 적 없다 → J02-6)으로
- ② 있다 → J02-5-1)로

a. J01-5=②일 경우, 이전에 J01-5-1 응답값이 있다면 J01-5-2로 이동
 b. J01-5=②일 경우, 이전에 J01-5-1 응답값이 없다면 J01-5-1로 이동

J01-5-1) 처음으로 담배를 한 두 모금이라도 피워 본 때는 언제입니까?

학교급	학년					
초등학교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중학교	⑦ 1학년	⑧ 2학년	⑨ 3학년			
고등학교	⑩ 1학년					

J01-5-2) 최근 한 달 동안 담배를 한 대라도 피운 날은 며칠입니까?

*최근 한 달 동안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면 '0'을, 매일 담배를 피웠다면 '30'을 입력해 주세요.
 _____ 일

a. 범위 0~30
 b. J01-5-2=0이면 J01-6으로, J01-5-2>0이면 J01-5-3으로

J01-5-3) 최근 한 달 동안, 본인이 피운 담배는 주로 어떻게 구했습니까?

- ① 집, 친구 집에서 있는 담배를 피웠다
- ② 편의점, 가게 등에서 직접 사서 피웠다
- ③ 친구, 선후배에게 얻어서 피웠다
- ④ 성인으로부터 얻어서 피웠다
- ⑤ 주변(길거리 등)에서 주워서 피웠다

J01-5-4) 최근 한 달 동안,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담배를 사려고 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 ① 최근 한 달 동안 담배를 사려고 한 적이 없다
- ② 담배를 사는 것이 불가능했다
- ③ 많이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 ④ 조금만 노력하면 살 수 있었다
- ⑤ 노력 없이도 쉽게 살 수 있었다

J01-6)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스마트폰
- ② 2G폰, 피쳐폰
- ③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
- ④ 없음

J01-7) 스마트폰, PC(인터넷) 등을 다음의 항목에 지난 일주일간 1일 평균 몇 시간 몇 분 사용합니까? (3시간일 경우 3시간 00분으로 기입, (분)은 10분 단위로 입력해주세요.)

구 분	전혀 안함	시간
1) 학습(인터넷 강의, 온라인 수업, 학교/학원 숙제 등)	①	()시간 ()분
2) 정보 검색(맛집, 쇼핑, 뉴스 검색 등)	①	()시간 ()분
3) 게임	①	()시간 ()분
4) 엔터테인먼트 (동영상 감상, 웹툰 감상 등) 단, 게임과 SNS 제외 주의	①	()시간 ()분
5) SNS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①	()시간 ()분
총계 1일 평균 ()시간 ()분 → 합계가 0이거나 8 이상일 경우 경고 팝업		

- a. 시간범위 0~12, 단 총계가 24를 넘을 수 없음
- b. 분은 10 단위로 입력(0~50)
- c. '전혀 안함' 선택 시 0시 0분 자동입력

J01-8)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미디어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미디어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3) 적절한 스마트미디어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미디어가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미디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7) 스마트미디어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미디어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9) 스마트미디어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스마트미디어 때문에 업무(학업 혹은 직업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a. J01-6=① or ③ 응답자만 진행

**다음부터는 학기 중의 해당요일에 대해서 답하는 문항입니다.
방학 중 응답하는 경우 종업식 전 주의 해당요일을 화상하며 응답해 주세요.**

J01-9) 평소 학기 중 밤에 몇 시에 잠들어 아침 몇 시에 일어나니까?

- ▣ 24시간 기준으로 입력해 주세요. (저녁9시 → 21시, 밤12시 → 0시)
- ▣ 30분 단위로 입력해 주세요. (00분, 30분만 입력 가능)

1) 주중 [자동구현] 요일	()시 ()분에 잠들어 ~ ()시 ()분에 일어남	▶ 주중, 1일 수면시간 () 시간
2) 주말 [자동구현] 요일	()시 ()분에 잠들어 ~ ()시 ()분에 일어남	▶ 주말, 1일 수면시간 () 시간

- a. 잠드는 시간 범위: 19~23, 0~4
- b. 깨는 시간 범위: 4~12
- c. 분은 0, 30만 입력 가능
- d. 산출된 1일 수면시간도 화면에 구현

J01-10)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 ① 예, 학교에 다니고 있음 *대안학교 포함
- ② 아니오,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음

▣ 주중 일과시간은 [자동구현]요일을 기준으로 회상하여 응답해주십시오.

J01-11) 학기 중 [자동구현]요일을 회상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다음의 활동을 보통 얼마동안 합니까?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0을 기입해 주세요.

- 방학 중에 조사할 경우, 종업식 이전 주의 배정된 요일을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함
- 시간 환산 예 : 30분(0.5시간) 단위로 응답 가능

시간	활동 안함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4시간 30분	5시간	5시간 30분
응답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시간	6시간	6시간 30분	7시간	7시간 30분	8시간	8시간 30분	9시간	9시간 30분	10시간	10시간 30분	11시간	11시간 30분
응답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11.0	11.5

구분	활동 내용	주중 하루
생활필수 행동	1) 수면시간(밤)	()시간
	2) 식사, 간식 먹기,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시간	()시간
학습	3)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시간
	4)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 받는 시간 (학원, 과외 등)	()시간
	5) 숙제 등 혼자 공부를 하는 시간(자습)	()시간
	6) 인터넷 강의 등 학교수업 외 비대면교육	()시간
	7) 방과후 친구들과 공부하는 시간(수행평가, 조별과제, 시험공부, 동아리 활동 등)	()시간
여가 및 교제	8) 책 읽는 시간	()시간
	9)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 시청	()시간
	10) 컴퓨터, 휴대전화, 가정용콘솔 등을 통한 게임	()시간
	11)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취미생활(악기연주, 그림, 동호회 등)	()시간
	12)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	()시간
	13-1) 친인척, 친구들과의 만남 등 사교활동	()시간
	13-2) SNS,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비대면 교제	()시간
	14) 애완동물(반려)동물 돌보기	()시간
15) 종교 활동	()시간	
가정관리	16)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등 가사일 돕기	()시간
기타	17) 이동 시간	()시간
	18) 기타 시간	()시간
	▶ 현재까지 시간의 합	() / 24시간

- a. 수면시간은 J01-9 주중 수면시간 산출값 자동입력
- b. 0 입력 불가 항목: 1), 2), 3), 17)
- c. J01-10=②일 경우, 3) 입력불가
- d. 합계 자동 구현, 합계가 24가 되어야 다음 문항 진행

▣ 주말 일과시간은 [자동구현]요일을 기준으로 회상하여 응답해주시시오.
 J01-12) 학기 중 [자동구현]요일을 회상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다음의 활동을 보통 얼마동안
 합니까?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0을 기입해 주세요.

- 방학 중에 조사할 경우, 종업식 이전 주의 배정된 요일을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함
- 시간 환산 예 : 30분(0.5시간) 단위로 응답 가능

시간	활동 안함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4시간 30분	5시간	5시간 30분
응답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시간	6시간	6시간 30분	7시간	7시간 30분	8시간	8시간 30분	9시간	9시간 30분	10시간	10시간 30분	11시간	11시간 30분
응답	6.0	6.5	7.0	7.5	8.0	8.5	9.0	9.5	10.0	10.5	11.0	11.5

구분	활동 내용	주말 하루
생활필수 행동	1) 수면시간(밤)	()시간
	2) 식사, 간식 먹기, 씻기, 옷 입기 등의 기본생활 시간	()시간
학습	3)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시간
	4)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교육 받는 시간 (학원, 과외 등)	()시간
	5) 숙제 등 혼자 공부를 하는 시간(자습)	()시간
	6) 인터넷 강의 등 학교수업 외 비대면교육	()시간
	7) 방과후 친구들과 공부하는 시간(수행평가, 조별과제, 시험공부, 동아리 활동 등)	()시간
여가 및 교제	8) 책 읽는 시간	()시간
	9) TV,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통한 영상 시청	()시간
	10) 컴퓨터, 휴대전화, 가정용콘솔 등을 통한 게임	()시간
	11)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취미생활(악기연주, 그림, 동호회 등)	()시간
	12) 스포츠 및 집 밖 레저 활동	()시간
	13-1) 친인척, 친구들과과의 만남 등 사교활동	()시간
	13-2) SNS,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 비대면 교제	()시간
	14) 애완동물(반려)동물 돌보기	()시간
15) 종교 활동	()시간	
가정관리	16) 음식준비, 의류관리, 청소 및 정리 등 가사일 돕기	()시간
기타	17) 이동 시간	()시간
	18) 기타 시간	()시간
	▶ 현재까지 시간의 합	() / 24시간

- a. 수면시간은 J01-9 주말 수면시간 산출값 자동입력
- b. 0 입력 불가 항목: 1), 2)
- c. J01-10=②일 경우, 3) 입력불가
- d. 합계 자동 구현, 합계가 24가 되어야 다음 문항 진행

J01-13) 지난 7일 동안 실내외에서 한번에 [보기]와 같은 신체활동(운동)을 3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보기] 신체활동	탁구, 수영, 배구, 배드민턴, 빠르게 걷기, 야구, 축구, 농구, 테니스, 골프, 체육시간에 실제 운동한 시간, 운동장·놀이터에서 놀기 등 격렬하거나 땀이 날 정도의 신체활동 (등하교시 걷는 것은 제외)
----------------------	--

- ① 없음 ② 1일
- ③ 2일 ④ 3일
- ⑤ 4일 ⑥ 5일 이상

J01-14) 현재 취미가 있습니까?

- 악기, 운동도 포함하지만, 전공/선수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취미가 아닙니다.
- 킬링타임용(미디어 이용 등) 행동이 아니라, 의미를 갖고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 ① 있다 → J01-14-1)로
- ② 없다 → J01-15)로

J01-14-1) 주로 하는 취미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2순위 필수 선택)

1순위 , 2순위

- ① 노래, 악기 연주
- ② 운동/스포츠, 댄스
- ③ 웹툰 포함한 그림그리기
- ④ 영상제작 (YouTube 영상 포함)
- ⑤ 독서 (e-book 포함)
- ⑥ 관람 및 감상 (음악, 연극, 영화, 스포츠 등)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J01-15) 다음은 가사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하지 않는다	기름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1) [의생활] 벗은 옷을 옷걸이에 걸기, 빨랫감 모으기, 세탁기 돌리기, 빨래 널거나 개기, 세탁소에 세탁물 맡기기 등	①	②	③	④
2) [식생활] 반찬이나 수저를 식탁에 놓기, 요리 돕기, 간식 만들어 먹거나 밥 챙겨 먹기, 과일 깎기, 식탁 정리, 설거지 등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전혀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항상 한다
3) [주생활] 내방 정리, 청소기 돌리기, 쓰레기 분리수거, 화분에 물주기, 현관의 신발 정리, 간단한 집안 수리(못질하기, 전구 갈기) 등	①	②	③	④
4) [돌봄] 부모님 심부름, 동생 돌보기, 가족이 아플 때 돕기, 우편물 챙기기, 집안행사(명절, 생일 등) 준비 등	①	②	③	④

02 다음은 학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J02-1)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은 반에서 어느 정도였습니까?

과목	매우 잘하는 수준	잘하는 수준	보통	못하는 수준	매우 못하는 수준
전과목 평균	①	②	③	④	⑤

a. J01-10=1(학교 다님) 응답자만 진행

J02-2)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그런적 없다	거의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J02-3)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려운 과목을 공부할 때는 시간과 노력을 좀 더 많이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싫어하는 과목이나 어려운 과목이라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면 열심히 해야지 다짐을 한다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3) 나는 지루하지 않게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한다 (예를 들면, 공부가 잘 되는 장소나 시간에 공부하거나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을 번갈아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과목별 특징에 맞는 방법을 찾아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5) 공부할 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중간 중간에 스스로 점검한다	①	②	③	④

J02-4) 현재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고 있습니까?

(EBS 교육방송, 방과후 학교, 또는 지역 아동센터,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예 → J02-5)로
- ② 아니오 → J02-9)로

J02-5) 몇 개의 학원/과외를 다니고 있습니까? 종합반의 경우, 과목 개수로 넣어주세요.
()개

a. 범위 1~30

J02-6)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과외의 개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적은 편
- ② 적당한 편
- ③ 많은 편

J02-7)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과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니까?

- ①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 J02-8)로
- ②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다 → J02-8)로
- ③ 보통이다 → J02-8)로
- ④ 부담스러운 편이다 → J02-7-1)로
- ⑤ 매우 부담스럽다 → J02-7-1)로

J03-3) 아래에 적혀있는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지난 1주 동안 느끼고 행동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② 가끔 있었다'는 1일 초과~2일 이하입니다.

문 항 내 용	극히 드물다 (일주일 동안 1일 이하)	가끔 있었다 (1~2일)	자주 있었다 (3~4일)	거의 대부분 (5~7일)
1) 기분이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2)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3) 슬픈 기분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4)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5) 즐겁게 지냈다	①	②	③	④
6) 입맛이 없어서 별로 먹고 싶은 기분이 안 들었다	①	②	③	④
7)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힘겹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8)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9) 하루하루 지내기가 힘들었다	①	②	③	④
10) 사람들이 나에게 잘 대해 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11)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J03-4) 서로 좋아하며 사귀는 이성 친구(나와 성별이 다른 친구)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J03-5)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나의 생각을 존중해준다	①	②	③	④
2)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3) 친구들에게 나의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①	②	③	④
4)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친구들에게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친구들을 믿는다	①	②	③	④
7) 지금의 친구들 대신 다른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	①	②	③	④
8)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고 혼자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9) 친구들은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른다	①	②	③	④

J03-6)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대부분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습내용을 잘 익힐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하던 공부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집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수업시간에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발표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노력만 하면 지금보다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학교공부는 내가 성숙된 인간으로 커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일생을 살아가는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수업시간에 공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학교에는 재미있는 친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교친구들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와 함께 놀아줄 학교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모둠활동을 할 때 협조를 잘 하려고 노력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우리 반 친구가 학습준비물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으면 함께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학교친구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히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반 친구가 이야기할 때 잘 귀담아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에게서 고민을 나눌 학교친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선생님들은 배울 점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0) 선생님들은 대체로 학생들에게 잘해주시려고 노력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이번 학년에 만난 선생님들은 대체로 마음에 든다	①	②	③	④	⑤
23)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대체로 가까이 대하기가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24) 우리 학교에는 친구처럼 재미있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고민이 있으면 상담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내 마음속의 비밀을 선생님에게 이야기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선생님들과 편하게 대화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8) 우리 학교에는 내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화장실이나 수도 등 학교시설을 아껴서 사용하려고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30) 학교규칙은 학생들이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잘 지켜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학교 안에서 휴지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32) 나는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학교물건을 내 물건처럼 조심스럽게 사용 한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학교의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 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주변활동을 열심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요즘 학교생활이 즐겁고 유쾌하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우리학교의 특별한 행사(소풍, 축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a. J01-10=1(학교 다님) 응답자만 진행

J03-7) 다음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노력가이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부지런하다	①	②	③	④	⑤

J03-8)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없다	1년에 1~2번	한 달에 1번	한 달에 2~3번	1주에 1~2번	일주일 여러번
1) 다른 학생(친구)에게 뺨, 얼굴, 머리 등을 주먹이나 발로 맞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다른 학생(친구)에게 왕따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다른 학생(친구)에게 험담, 심한(상스러운) 욕설 등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다른 학생(친구)이 나를 고의적으로 툭툭 치고, 심부름을 시키고, 숙제를 해 오라는 등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다른 학생(친구)에게 돈이나 물건(학용품, 가방, 시계 등)을 빼앗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다른 학생(친구)에게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이겠다” 등의 협박이나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다른 학생(친구)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는 말이나 행동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온라인 상에서 신체적인 위협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온라인 상에서 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려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서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학교 친구에게서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학교 밖의 사람에게서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카메라 및 핸드폰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위협받거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J03-9)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없다	1년에 1~2번	한 달에 1번	한 달에 2~3번	1주에 1~2번	일주일 여러번
1) 다른 친구를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거나 놀리거나 싫어하는 장난을 쳤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다른 친구를 의도적으로 혼자 남겨두거나 따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다른 친구를 때리거나, 차거나, 조르거나, 가두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항내용	없다	1년에 1~2번	한 달에 1번	한 달에 2~3번	1주에 1~2번	일주일에 여러번
4) 사람들이 싫어하게 만들 목적으로 다른 친구에 대한 나쁜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쪽지 같은 것을 돌렸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돈이나 다른 물건들을 빼앗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다른 친구에게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협박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온라인 상에서 신체적인 위협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온라인 상에서 그 친구에 대해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누군지 모르게 하여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학교 친구에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학교 밖의 사람에게 이메일, 문자, 메신저로 괴롭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카메라 및 핸드폰으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한 후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힌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원하지 않는 성적인 괴롭힘(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을 행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04 다음은 진로진학 및 가치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J04-1)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① 대학진학 → J04-1-1)로 ② 취업 → J04-1-3)으로
 ③ 기타 () ④ 아직 잘 모르겠음

J04-1-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더 많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 ②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서
 ③ 더 나은 직업을 갖기 위해 ④ 사회적으로 대접받기 위해
 ⑤ 부모님의 기대에 따르기 위해 ⑥ 남들이 다 가니깐
 ⑦ 대학을 가야지만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서
 ⑧ 기타 ()

J04-1-2)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은 전공계열은 무엇입니까?

- ① 인문계열
- ② 사회계열
- ③ 자연계열
- ④ 공학계열
- ⑤ 의약계열
- ⑥ 교육계열
- ⑦ 예체능계열
- ⑧ 경찰대학,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 ⑨ 기타 ()
- ⑩ 아직 모르겠음 → J04-2)로

-인문계열: 언어·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과학 -사회계열: 경영·경제, 법률, 사회, 복지, 정치외교, 행정 등 사회과학 -교육계열: 교육일반,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특수교육 -공학계열: 건축, 토목·도시, 교통·운송,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밀·에너지, 소재·재료, 컴퓨터·통신, 산업, 화공 등 -자연계열: 생물·화학·환경, 수의학, 수학·물리·천문·지리, 가정관리, 식품영양학, 의류학 등 생활과학 -의약계열: 의학, 치의학, 한의학 등 의료, 간호, 약학, 보건학, 재활학 등 치료·보건 -예체능계열: 공예, 사진·만화, 영상·예술 등 응용예술, 무용·체육, 미술·조형, 연극·영화, 음악

J04-1-3)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사회생활을 일찍 경험하고 싶어서
- ② 대학에 진학할 실력이 안돼서
- ③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 ④ 공부하기 싫어서
- ⑤ 돈을 벌고 싶어서
- ⑥ 대학을 나와도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 ⑦ 가업을 잇기 위해서
- ⑧ 원하는 직업을 일찍 시작하고 싶어서
- ⑨ 기타 () → J04-2)로

J04-2)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향후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향후 진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3) 향후 진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너무 많아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4) 내가 가보고 싶은 향후 진로가 자주 바뀐다	①	②	③	④
5) 향후 진로설정예 대해 나와 부모님의 의견차이가 너무 커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6) 미래란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향후 진로를 미리 설정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①	②	③	④
7) 나의 향후 진로설정예 있어서 나 자신의 의견보다는 부모님의 의견을 더 따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J04-3) 자신의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경험한 적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습니까?

	경험 여부		도움 정도				
	있다	없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학교 담임교사와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학교 진로담당교사와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사교육 종사자(학원강사, 과외교사 등)와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과 대화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타인(친인척, 이웃 등)으로부터 조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진로 관련 검사(적성, 흥미검사) 실시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상급학교 방문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상급학교 입시 설명회 참석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대중매체(TV, 신문 등)를 통한 정보 습득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0)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습득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1) 기타 ()	①	②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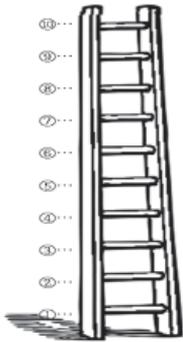
a. J04-3-1=1인 항목만 J04-3-2 진행

J04-4) 어떤 직업을 가장 원합니까? 가장 원하는 직업과 그 다음으로 원하는 직업을 적어주세요. (2순위 필수 입력)

원하는 직업 , 원하는 직업

- 구체적으로 응답해주세요
- 응답 예시 : 교사, 요리사, 성악가, 작곡가, 은행원, 생물학자, 경찰관, 운동선수, 연예인, 크리에이터 등

J04-5) 귀 가정의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사다리 중에서 어디쯤이라고 생각합니까?
(1 : 매우 못 산다, 10 : 매우 잘 산다)



J04-6) 용돈을 받으니까?

- ① 받지 않음 → J04-7)로
- ② 필요할 때마다 받음 → J04-6-1)로
- ③ 정기적으로 받음 → J04-6-1)로

J04-6-1) 일주일간 받는 용돈은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금액으로 입력해 주세요. 11,400원은 11,000원, 11,500원은 12,000원입니다.

일주일예 ()원

a. 범위 1,000~250,000

J04-6-2) 용돈을 주로 어디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 2개를 선택해 주세요. (2순위 필수 선택)

1순위 , 2순위

- ① 학습 자료(학용품, 준비물 등) ② 저축
- ③ 간식 및 군것질하기(식사포함) ④ 교통비
- ⑤ 음악, 게임, 팬덤활동 등 문화생활 ⑥ 의류 및 화장품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J04-7) 미래에 결혼할 생각입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J04-8) 자녀(아이)를 가질 생각입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음

J04-9)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급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사회는 시민들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나보다 타인을 먼저 배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나 장애인이 타면 자리를 양보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소외된 친구가 있으면 내가 먼저 따뜻하게 대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05 다음은 부모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본인의 생각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해 주세요.

J05-1)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은 내가 친구를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질까 봐 걱정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은 내가 학교 성적이 조금 떨어져도 꾸중을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은 나에게 남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은 나에게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은 나의 공부에 대하여 잔소리가 많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부모님은 내가 공부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아닌지 신경을 쓰신다	①	②	③	④	⑤
8) 부모님은 내 공부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9) 부모님은 “너는 꼭 성공해야 한다”는 말씀을 종종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0) 부모님은 내가 공부해야 할 시간에 잠을 자면 깨우신다	①	②	③	④	⑤
11) 부모님은 내가 컴퓨터(또는 핸드폰)에 빠져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2) 부모님은 내가 친구들과 노는 시간을 정해두고 더 이상 놀지 못하도록 하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부모님은 내가 공부하지 않고 친구들과 외출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4) 부모님은 시험 때가 되면 평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15) 부모님이 나에게 대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부분은 학교 성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J05-2) 먼저 아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아버지는 나의 감정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아버지께 나의 문제나 어려움을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버지는 나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 하도록 격려해주시다	①	②	③	④	⑤
4) 어떤 일을 의논할 때, 아버지는 나의 의견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어떤 것에 화를 낼 때 아버지는 이해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6) 아버지는 나의 어려움을 알면 그것에 대해 물어 보신다	①	②	③	④	⑤
7) 아버지는 내가 화가 난 것을 모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아버지는 자신의 문제가 있으므로 나는 나의 문제로 아버지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아버지는 요즘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아버지에게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야 할 때 아버지를 믿고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a. 중단값(중단6)이 5)사별, 6)이혼, 7)별거일 경우 “9. 해당없음” 보기 추가

J05-3) 이제는 어머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거의 아니다	때때로 그렇다	자주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어머니는 나의 감정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어머니께 나의 문제나 어려움을 이야기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머니는 나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 하도록 격려해주시다	①	②	③	④	⑤
4) 어떤 일을 의논할 때, 어머니는 나의 의견을 고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어떤 것에 화를 낼 때 어머니는 이해하신다	①	②	③	④	⑤
6) 어머니는 나의 어려움을 알면 그것에 대해 물어 보신다	①	②	③	④	⑤
7) 어머니는 내가 화가 난 것을 모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머니는 자신의 문제가 있으므로 나는 나의 문제로 어머니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9) 어머니는 요즘 나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어머니는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어머니에게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솔직히 이야기해야 할 때 어머니를 믿고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a. 중단값(중단7)이 5)사별, 6)이혼, 7)별거일 경우 “9. 해당없음” 보기 추가

J05-4)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아래의 각 문항에서 귀하의 가족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 주는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 '③ 잘 모르겠다'는 '보통'으로 이해하고 응답해 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서로 애정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가족은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문제가 있을 때 침착하게 함께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가족은 생각이나 신념을 서로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화가 났을 때,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게 감정표현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J05-5) 지난 1년간을 기준으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없음	지난 6개월간 한두번	한 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한두번	거의 매일
1) 내 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가 남을 정도로 부모님(보호자)께서 나를 심하게 대하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에게 심한 말이나 욕을 하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아동학대 관련 고민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혹은 앱을 통하여 연락바랍니다. 전화·문자 상담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스마트폰 앱: '아이지킴이콜 112'
 ·아동학대 전화·문자 상담: 182

J05-6) 귀 맥은 다문화가정입니까? 다문화가정이란 서로 다른 국적, 인종이나 문화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의미합니다.

- ① 예 ② 아니오

06 다음은 신체발달에 대한 질문입니다.

J06-1)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내 체중이 불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좋다	①	②	③	④
4) 할 수 있다면 나의 외모에 대해 바꾸고 싶은 부분이 많다	①	②	③	④
5) 나는 내 키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J06-2) 현재 본인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마른 편이다 ② 약간 마른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비만이다
 ⑤ 매우 비만이다

J06-3) 최근 1년 동안 본인의 의지로 몸무게를 조절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 ①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했다 → J06-3-1)로
 ② 몸무게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 J06-3-1)로
 ③ 몸무게를 늘리려고 노력했다 → J06-4)로
 ④ 몸무게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해본 적 없다 → J06-4)로

J06-3-1) 최근 1년 동안 몸무게를 줄이거나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무엇인지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 ① 운동
- ② 식사량을 줄이거나 또는 식단조절 (식사는 거르지 않고 섭취량을 줄임)
- ③ 결식 (식사를 거름)
- ④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 보조식품 등)
- ⑤ 원푸드 다이어트 (포도, 우유, 감자, 고구마 등 한 가지 음식만을 먹는 다이어트)
- ⑥ 병원 등에서 처방받은 약 복용 (한약 포함)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J06-4) 몽정(남아) 또는 초경(여아) 등 2차 성징이 나타났습니까?

- ① 예 → J06-4-1)로
- ② 아니오 → J06-5)로

a. 구현값 확인 후 skip(종단4)

J06-4-1) 처음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난 시기는 언제입니까?

- ① 시작 년도 ()년
- ② 작년 응답과 동일함

a. 구현값 확인 후 skip(종단5)
a. 범위 2015~2024

J06-5) 나의 현재 몸무게는 몇 kg 입니까?

2023년 측정 몸무게 : (_____kg)

- ① 몸무게 미계측
- ② 계측 몸무게(_____kg)

a. 종단값 제시(종단1)
b.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c. 범위: 50~150
d. 24년도 체중 < 23년도 체중 → J06-5-1)로

J06-5-1) 몸무게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병치레 ② 다이어트
 ③ 기타(적을 것 : _____) ④ 전년도 오류(전년도 몸무게 : _____ kg)
 ⑤ 전년도 오류. 몸무게 알 수 없음 ⑥ 올해 몸무게를 잘못 입력함 → J06-5)로

a. 재입력한 전년도 몸무게가 종단값보다 같거나 클 경우 경고창

J06-6) 현재 키는 몇 cm 입니까?

- 벽면에 아동의 발, 엉덩이, 머리를 밀착시키고, 허리를 편 상태에서 측정해 주세요.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측정 키: (cm)

- ① 키 미계측 ② 계측 키(_____ cm)

- a. 종단값 제시(종단2)
 b.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c. 범위: 150~200
 d. 24년도 신장 < 23년도 신장 → J06-6-1)로

J06-6-1) 키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병치레 ② 기타(적을 것 : _____)
 ③ 전년도 오류(전년도 키: ____ cm) ④ 전년도 오류. 키 알 수 없음
 ⑤ 올해 키를 잘못 입력함 → J06-6)으로

a. 재입력한 전년도 키가 종단값보다 같거나 클 경우 경고창

J06-7) 현재 허리둘레는 몇 cm 입니까?

줄자가 배꼽을 지나 수평으로 재주세요.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측정 허리둘레: (____ cm)

① 허리둘레 미계측 ② 계측 허리둘레(_____ cm)

a. 종단값 제시(종단3)
 b. 무응답, 모름 불가 문항
 c. 범위: 50~150
 d. 24년도 허리둘레 < 23년도 허리둘레 → J06-7-1)로

J06-7-1) 허리둘레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병치레 ② 다이어트
 ③ 키가 크면서 ④ 기타(적을 것 : _____)
 ⑤ 전년도 오류(전년도 허리둘레: ____ cm)
 ⑥ 전년도 오류. 허리둘레 알 수 없음
 ⑦ 올해 허리둘레를 잘못 입력함 → J06-7)로

a. 재입력한 전년도 허리둘레가 종단값보다 같거나 클 경우 경고창

J06-8) 신체계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선택해 주세요.

	조사원이 직접 계측	아동이 스스로 직접 계측 후 입력	아동이 과거에 계측한 수치 입력	미계측
체중	①	②	③	④
신장	①	②	③	④
허리둘레	①	②	③	④

J07-1) 2021~2023년에 한국아동패널은 퀴즈 제공,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정보 전달 등을 목적으로 보호자의 동의 하에 패널 아동의 핸드폰 번호를 수집한 적이 있습니다. 2024년에 본인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동의 여부를 응답해 주세요.

부록 3. 17차년도(2024년 조사) 아동 질문지_심층조사



0316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www.gallup.co.kr

T 02-3702-2100
F 02-3702-2121

GALLUP
INTERNATIONAL

한국아동패널 2024 (아동용-심층조사)

Gallup
2024-253-009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면접원 ○○○입니다.

저희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매년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의하여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4년 7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 오창엽

담당연구원 김중서

전화 02-3702-2612

01 다음은 가족에 대한 질문입니다.

G01) 평소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법적인 혼인, 혈연으로 연결되어야만 가족이라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결혼,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결혼, 혈연관계가 아니고, 반드시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지고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G02) 평소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2)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3)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4)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사는 것도 괜찮다	①	②	③	④
5) 부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면 참고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낫다	①	②	③	④

G03) 부모님이 언제까지 자녀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① 미성년 시기까지(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 ②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 ③ 취업할 때까지
- ④ 결혼할 때까지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G04) 만약 결혼을 한다면, 다음의 일은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문 항 내 용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1) 가족의 경제적 부양	①	②	③	④	⑤
2) 가족의 의사 결정	①	②	③	④	⑤
3) 집안일 등 가사	①	②	③	④	⑤
4) 육아	①	②	③	④	⑤
5) 자녀 교육	①	②	③	④	⑤
6) 가족 돌봄(자녀 제외)	①	②	③	④	⑤

02 다음은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G05) 평소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이 법적으로 한국인이 되더라도 한국사람과 똑같이 대하는 것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외국인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도 진정한 한국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한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았더라도 한국사람으로 보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우리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정(국제결혼가정)의 아이가 한국말을 잘 못한다면 나와 같은 한국사람이란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G06) 평소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 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이웃이나 동네에서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과 마주치면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 하기 싫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 이주민과 함께 수영장이나 공중목욕탕에 들어가야 한다면 망설여질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한국에 이민 온 외국 이주민들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사는 지역에 가야 한다면, 두려운 생각이 클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G07) 평소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한 나라의 국민만으로서 보다는 세계 속의 훌륭한 시민이 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나는 식량부족으로 굶주린 나라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기 위해 하루 한 끼를 굶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를 돕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G08) 평소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해 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그들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가져가는 것이 더 많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범죄율이 올라간다	①	②	③	④	⑤	⑥

빠진 문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록 4. 17차년도(2024년 조사) 보호자용 설문지



0316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T 02-3702-2100 GALLUP
www.gallup.co.kr F 02-3702-2121 INTERNATIONAL

한국아동패널 2024 (보호자용)

Gallup
2024-253-009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면접원 ○○○입니다.

저희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매년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4년 7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 오창엽

담당연구원 김종서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01 다음은 가구 및 가구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D01-1) 조사 날짜는?

()월 ()일

D01-2) 아동 이름이 맞습니까?

아동 이름 : _____

① 맞음 → D01-3-1)로

② 틀림 → (실제 이름 : _____) → 기입 후, D01-2-1)로

a. 구현값 제시(종단1)

D01-2-1) 아동 이름이 바뀐 이유는? → 응답 후, D01-3-1)로

- ① 개명
- ② 지난조사에서의 입력 오류
- ③ 부모의 결혼상태 변동
- ④ 기타(적을 것: _____)

D01-3-1) “아동” 성별이 _____ 가 맞습니까?

- ① 맞음
- ② 틀림

a. 구현값 제시(종단2)

D01-3-2) “아동” 출생월일이 _____ 월 _____ 일이 맞습니까?

- ① 맞음
- ② 틀림 → (실제 출생월일 : _____ 월 _____ 일) → 기입 후, → D01-4)으로

a. 구현값 제시(종단3)

D01-4) 귀하와 아동의 관계는?

- ① 어머니
- ② 아버지
- ③ 할머니
- ④ 할아버지
- ⑤ 기타 친인척 (직접 입력 : _____)

D01-5) 귀하의 성명과 연락처를 확인해 주세요.

- 1) 응답자 성명:(_____)
- ① 맞음 → 2)~4) 응답 후 → D01-6)으로
- ② 틀림 → (직접 입력 : _____) 하고, → 2)~4) 응답 후 → D01-5-5)로

2) 집 전화:(_____)

- ① 맞음
- ② 틀림 → (직접 입력 : _____)
- ③ 집 전화 없음

3) 어머니 휴대폰:(_____)

- ① 맞음
- ② 틀림 → (직접 입력 : _____)
- ③ 전화 없음

4) 아버지 휴대폰:(_____)

- ① 맞음
- ② 틀림 → (직접 입력 : _____)
- ③ 전화 없음

a. 구현값 제시(종단4~8)
b. D01-4=1이면 D01-5-1에 종단4(어머니 이름) 제시
D01-4=2면 D01-5-1에 종단5(아버지 이름) 제시
D01-4>2면 D01-5-1 응답자 이름 직접입력

D01-5-5) 귀하의 성명이 바뀐 이유는?

- ① 개명
- ② 지난조사에서의 입력 오류
- ③ 결혼상태 변동
- ④ 기타(적을 것 : _____)

a. D01-4=1, 2 AND D01-5-1=2일 경우만 진행
b. D01-4>2일 경우 D01-5-5 skip

D01-6) 귀택의 주소지를 확인해 주세요.

▶ 2024년 도로명 주소:

(_____) 시·도 (_____) 군·구
(_____)

① 맞음

② 틀림 → (직접 입력 : _____)

a. 구현값 제시(종단10)

D01-7) 귀택은 아래 주소지 거주 이후 몇 번이나 이사를 하셨습니까?

※ OO(이)가 태어난 이후가 아닌, 아래 지난 주소지 이후의 이사 횟수를 의미합니다.

▶ 2023년 도로명 주소:

(_____) 시·도 (_____) 군·구
(_____)

① 총 이사 횟수 (_____) 회 → D01-8)로

② 이사하지 않음 → D01-9)로

a. 구현값 제시(종단11)

b. 이사 횟수 범위 1~5

D01-8) 귀택이 이사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거환경(주택, 교통 등)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 ② 자녀교육 환경(학교, 학원 등)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 ③ 주변 환경(의료시설, 문화시설 등)이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 ④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어서
- ⑤ 집값 부담 때문에
- ⑥ 기타(적을 것 : _____)

D01-9) 귀댁의 가구 구성원 수 및 ○○(이)의 출생순위를 응답해 주세요.

- * 떨어져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가구 구성원으로 응답
(예: 주말 부부,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 등은 가구 구성원에 포함함. 단, 떨어져 산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해당 가족의 가계 지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는 가구 구성원에 포함하지 않음)
- * 떨어져 살면서 생계가 분리된 경우는 제외 (예: 매달 생활비를 보내더라도 따로 사는 조부모 등)
- * 함께 살고 있더라도 가족이 아닌 경우는 제외 (예: 입주 도우미 등)

구분	▶ 총 가구원수 (_____)명
1) 총 자녀수	(_____) 남 (_____) 녀 ⇒ 총 (_____) 명
2) ○○(이)의 출생순위	(_____)
3) ○○(이)의 부모	① 어머니 ② 아버지
4) ○○(이)의 할아버지, 할머니	① 친할아버지 ② 친할머니 ③ 외할아버지 ④ 외할머니
5) ○○(이)의 친인척 ○○(이)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조카, 증조부모 포함	(_____) 명
6) 기타(적을 것 : _____)	(_____) 명

- a. 구현값 제시 - 구현값 수정 불가
- b. 2) 출생순위 수정 시 → D01-9-1)로
- c. 3), 4)는 복수선택
- d. 부모 및 조부모의 선택한 개수를 숫자로 환산하여 총 가구원 수 구현(1)~6) 합산)

D01-9-1) ○○(이)의 출생순위가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자녀 수 및 출생순위 잘못 응답 → D01-9)로
- ② 순위형제 사망
- ③ 순위형제 입양
- ④ 재혼으로 인한 형제순위 변동
- ⑤ 기타(적을 것 : _____)

D01-10) ○○(이)의 형/오빠, 누나/언니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구분	1) 출생년도	2) 성별
첫 번째 형/오빠/누나/언니	(_____)년도	① 남 ② 여
두 번째 형/오빠/누나/언니	(_____)년도	① 남 ② 여
세 번째 형/오빠/누나/언니	(_____)년도	① 남 ② 여
네 번째 형/오빠/누나/언니	(_____)년도	① 남 ② 여

- a. 구현값 확인 후 skip(종단13) - 구현값 수정 가능
 b. 출생년도 범위 1990~2008
 c. 출생년도 동일자가 있을 경우 경고 팝업: “출생년도가 동일한 자녀가 있습니다. 응답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D01-11) ○○(이)의 동생에 대해 응답해 주세요.

구분	1) 출생년도	2) 성별
동생 1	(_____)년도	① 남 ② 여
동생 2	(_____)년도	① 남 ② 여
동생 3	(_____)년도	① 남 ② 여
동생 4	(_____)년도	① 남 ② 여

- a. 구현값 확인 후 skip(종단14) - 구현값 수정 가능
 b. 출생년도 범위 2008~2024
 c. 출생년도 동일자가 있을 경우 경고 팝업: “출생년도가 동일한 자녀가 있습니다. 응답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D01-12) ○○(이)는 다둥이입니까?

- ① 예 → D01-12-1)로 ② 아니오 → D01-13)으로

D01-12-1) ○○(이)의 다둥이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쌍둥이 ② 세쌍둥이 ④ 네쌍둥이 이상

D01-13) 부모님과 ○○(이)는 주 4일 이상 함께 살고 있습니까?

1) 어머니	① ○○(이)와 함께 살고 있음 ② ○○(이)와 떨어져 살고 있음
2) 아버지	① ○○(이)와 함께 살고 있음 ② ○○(이)와 떨어져 살고 있음

a. D01-4=1, 2일 경우만 진행
b. [D01-13]에 ①로 응답 시 → D01-14)로
c. ②선택 시, 해당 분류만 → D01-13-1)로

D01-13-1)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이)가 떨어져 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어머니	① 어머니가 타지역(또는 해외)에 근무 중(학업 포함) ③ 어머니가 장기 입원, 요양 중 ④ ○○(이)가 국내·외 유학중 ⑤ 기타
2) 아버지	① 아버지가 타지역(또는 해외)에 근무 중(학업 포함) ② 군 (의무) 복무 중 ③ 아버지가 장기 입원, 요양 중 ④ ○○(이)가 국내·외 유학중 ⑤ 기타

D01-14) 귀 댁에서는 애완동물(반려동물)을 키웁니까? 해당하는 보기에 모두 응답해 주세요.

- ① 키우지 않음
- ② 개
- ③ 고양이
- ④ 기타(적을 것 : _____)

a. ① 응답 시 타 보기 선택 불가

D01-15) ○○(이)는 개인 방이 있습니까?

개인 방: 혼자만 사용하는 공부방, 침실 등으로 형제자매와 함께 쓰는 방은 해당하지 않음

- ① 예, 개인 방이 있음
- ② 아니오, 개인 방이 없음

a. 구현값 확인 후 skip(종단15)

※ 다음은 ○○(이) 부모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a. D01-4)2일 경우, D01-16 ~ D01-20 skip

D01-16) ○○(이) 부모님의 현재 결혼상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1) 어머니	① 결혼한 적 없음 ② 유배우-초혼 ③ 유배우-재혼 ④ 동거(사실혼 포함) ⑤ 사별 ⑥ 이혼 ⑦ 별거
2) 아버지	① 결혼한 적 없음 ② 유배우-초혼 ③ 유배우-재혼 ④ 동거(사실혼 포함) ⑤ 사별 ⑥ 이혼 ⑦ 별거

a. D01-9-3에서 선택한 사람만 제시(어머니만 선택했을 경우 어머니만 제시)
 b. D01-9-3에서 1개만 선택했을 경우, ①결혼한 적 없음, ⑤사별, ⑥이혼, ⑦별거만 제시
 c. D01-9-3에서 2개 선택했을 경우, ②유배우-초혼, ③유배우-재혼, ④동거(사실혼 포함)만 제시
 d. ①결혼한 적 없음, ④동거, ⑤사별, ⑥이혼, ⑦별거로 응답한 경우 D01-18로 이동

D01-17) ○○(이) 어머니, 아버지의 현재 결혼기념일은 언제 입니까?
 (_____) 년 (_____) 월

D01-18) ○○(이)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은?

1) 어머니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① 맞음 ② 틀림 -> 수정
2) 아버지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① 맞음 ② 틀림 -> 수정

a. 구현값 확인 후 skip(종단20)
 b. D01-9-3에서 ①만 선택했을 경우 어머니만, ②만 선택했을 경우 아버지만 진행

D01-19) ○○(이)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1) 어머니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 졸업	④ 고등학교 졸업
2) 아버지	⑤ 2~3년제 대학 졸업	⑥ 4년제 대학교 졸업
	⑦ 대학원 졸업	

a. 기존 구현값 확인 후 skip(종단21)
 b. D01-9-3에서 ①만 선택했을 경우 어머니만, ②만 선택했을 경우 아버지만 진행
 c. 최종학력이 낮아졌을 경우, → 팝업 “지난 조사보다 학력이 낮아졌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D01-20) ○○(이) 부모님은 장애가 있습니까?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등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등급)

1) 어머니	① 아니요(장애 없음)
	② 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예,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아버지	① 아니요(장애 없음)
	② 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③ 예,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a. D01-9-3에서 ①만 선택했을 경우 어머니만, ②만 선택했을 경우 아버지만 진행

02 다음은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D02-1) 귀댁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실수령액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가구소득: 근로, 사업, 금융, 임대, 이전,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여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것을 지칭함.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이자소득세 등을 비롯하여 국민연금, 의료 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월 평균 실수령 가구소득 (_____) 만원

- a. 한글 금액 구현
- b. 범위: 0~9,000
- c. 가구소득 = 0, → 팝업 “귀 닥은 지난 1년 동안 가구소득이 없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 d. 24년 실수령 가구소득 > (23년 실수령 가구소득*3) or 24년 실수령 가구소득 < (23년 실수령 가구소득*1/3), → 팝업 “귀 닥은 지난 1년 동안 월 평균 가구 소득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증가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취소]를 누르고 응답하신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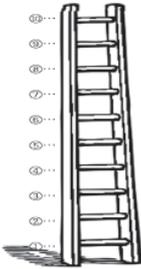
D02-2) 귀 닥의 지난 1년 동안의 월 평균 가구지출은 얼마입니까? 아래의 항목에 따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1) 가구 전체의 비소비성 지출 <small>*비소비성 지출: 세금(원천징수되는 4대보험+소득세+사학/공무원/군인 연금 등은 제외됨), 과태료, 연금, 적금, 보험료, 대출이자, 다른 가구(부모, 친척 등)에 지출하는 금액, 종교단체 기부금, 단체회비 등</small>	월 평균 가구 총 비소비성 지출 (____) 만원
2) 가구 전체의 소비성 지출 <small>*소비성 지출: 식료품·음료,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 가정용품·가사 서비스, 보건(의료), 교통, 통신, 교육, 오락·문화, 외식·숙박, 이미용 비용 등</small>	월 평균 가구 총 소비성 지출 (____) 만원
▶ 가구 총 지출 비용	(____) 만원 (자동 계산)

- a. 24년 비소비성 지출 > (23년 비소비성 지출*3) or 24년 비소비성 지출 < (23년 비소비성 지출*1/3), → 팝업 “귀하의 비소비성 지출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증가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 b. 24년 소비성 지출 > (23년 소비성 지출*3) or 24년 소비성 지출 < (23년 소비성 지출*1/3), → 팝업 “귀하의 소비성 지출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증가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 c. 실수령 가구 소득(D02-1) < 가구 총 지출 비용, → 팝업 “귀 닥의 총 지출 비용이 실수령 가구 소득보다 많다고 응답하셨습니다.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 다음은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한 문항입니다.

다음의 사다리가 우리사회의 구조를 나타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사다리의 꼭대기에는 최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재산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았으며, 사회에서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사다리의 맨 밑에는 최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재산이 거의 없고, 교육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했으며, 누구도 원치 않거나, 아무도 존경하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D03-3-1) 이 사다리가 대한민국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면, 귀하는 이 사다리의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다리 중 나의 위치 ()

D03-3-2) 이 사다리가 귀하가 속해 있는 의미 있는 지역사회나 공동체(직장, 교회, 친인척 일가, 친구, 동호회 등)를 나타내고 있다면, 귀하는 이 사다리의 어디쯤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다리 중 나의 위치 ()

03 다음은 ○○(이)에 관한 질문입니다.

D03-1) ○○(이)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건강하지 않음
- ② 건강하지 않은 편임
- ③ 보통임
- ④ 건강한 편임
- ⑤ 매우 건강함

D03-2) ○○(이)는 지난 1년 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치료 경험 있음(이유: _____)
- ② 치료 경험 없음

D03-3) ○○(이)는 지난 1년 간 입원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입원한 적 있음(이유: _____)
- ② 입원한 적 없음

D03-4) ○○(이)는 현재 아래의 장애유형 중에 판정받은 장애가 있습니까? 판정 받은 모든 장애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장애 유형	장애 판정 여부 및 정도			장애 유형	장애 판정 여부 및 정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없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없음
1) 지체장애	①	②	③	9) 간장애	①	②	③
2) 뇌병변장애	①	②	③	10) 호흡기장애	①	②	③
3) 시각장애	①	②	③	11) 장루, 요루장애	①	②	③
4) 청각장애	①	②	③	12) 간질장애	①	②	③
5) 언어장애	①	②	③	13) 지적장애	①	②	③
6) 안면장애	①	②	③	14) 정신장애	①	②	③
7) 신장장애	①	②	③	15) 자폐성장애	①	②	③
8) 심장장애	①	②	③	16) 기타 (적을 것: _____)	①	②	③

- ☑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등급)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등급)

a. 구현값 확인 후 skip(종단24)

D03-5) 다음 중 ○○(이)가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이 있습니까? 있는 경우 해당 질환의 최초 진단일과 지난 1년간의 병원치료 여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질환 유형	1) 현재 질환 여부	2) 최초 진단일	3) 병원치료 여부
1) 선천성 심장질환	① 현재 앓고 있음 ② 현재 앓고 있지 않음	()년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간헐적으로 받음 ③받지 않음
2) 간질	① 현재 앓고 있음 ② 현재 앓고 있지 않음	()년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간헐적으로 받음 ③받지 않음
3) 당뇨병	① 현재 앓고 있음 ② 현재 앓고 있지 않음	()년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간헐적으로 받음 ③받지 않음
4) 만성 부비동염 (축농증)	① 현재 앓고 있음 ② 현재 앓고 있지 않음	()년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간헐적으로 받음 ③받지 않음
5) 만성 중이염	① 현재 앓고 있음 ② 현재 앓고 있지 않음	()년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간헐적으로 받음 ③받지 않음
6) 만성 요로감염	① 현재 앓고 있음 ② 현재 앓고 있지 않음	()년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간헐적으로 받음 ③받지 않음
7) 천식	① 현재 앓고 있음 ② 현재 앓고 있지 않음	()년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간헐적으로 받음 ③받지 않음
8) 만성 비염 (알레르기성 포함)	① 현재 앓고 있음 ② 현재 앓고 있지 않음	()년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간헐적으로 받음 ③받지 않음
9) 아토피 피부염	① 현재 앓고 있음 ② 현재 앓고 있지 않음	()년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간헐적으로 받음 ③받지 않음
10) 식품알레르기	① 현재 앓고 있음 ② 현재 앓고 있지 않음	()년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간헐적으로 받음 ③받지 않음

질환 유형	1) 현재 질환 여부	2) 최초 진단일	3) 병원치료 여부
11) 알레르기 결막염	① 현재 앓고 있음 ② 현재 앓고 있지 않음	()년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12) 기타 질환 (적을 것:)	① 현재 앓고 있음 ② 현재 앓고 있지 않음	()년 ()월	① 지속적으로 받음 ②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a. 진단일 입력범위

- 년: 2008~2024

- 월: 1~12

D03-6) 다음 중 ○○(이)에게 현재 있는 장애가 있습니까?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의 최초 진단일과 지난 1년간의 병원치료 또는 상담 여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장애 유형	1) 현재 장애 여부	2) 최초 진단일	3) 병원치료(또는 상담) 여부
1) 의사소통 장애 (언어장애, 발화음장애, 말더듬기,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① 현재 장애 있음 ② 현재 장애 없음	()년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2) 자폐 스펙트럼 장애	① 현재 장애 있음 ② 현재 장애 없음	()년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3)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① 현재 장애 있음 ② 현재 장애 없음	()년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4) 특정 학습장애	① 현재 장애 있음 ② 현재 장애 없음	()년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5) 운동장애(틱장애, 정형적 동작 장애, 발달성 운동조정장애)	① 현재 장애 있음 ② 현재 장애 없음	()년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6) 파괴적, 충동통제 및品行장애 (적대적 반항장애, 간헐적 폭발성 장애,品行장애, 방화증, 도벽증)	① 현재 장애 있음 ② 현재 장애 없음	()년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7) 배설장애	① 현재 장애 있음 ② 현재 장애 없음	()년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8) 급식 및 섭식장애	① 현재 장애 있음 ② 현재 장애 없음	()년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장애 유형	1) 현재 장애 여부	2) 최초 진단일	3) 병원치료(또는 상담) 여부
9) 불안 장애(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① 현재 장애 있음 ② 현재 장애 없음	()년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10) 기타 장애 (적을 것:)	① 현재 장애 있음 ② 현재 장애 없음	()년 ()월	① 정기적으로 받음 ② 간헐적으로 받음 ③ 받지 않음

a. 진단일 입력범위
 - 년: 2008~2024
 - 월: 1~12

D03-7) ○○(이)는 안경 또는 시력교정도구를 사용합니까? 모두 응답해 주세요.

- ① 예, 안경 착용함(사용 시작 시기: 만 _____ 세)
- ② 예, 시력교정도구(일반 렌즈, 드림 렌즈 등) 사용함(사용 시작 시기: 만 _____세)
- ③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음

a. 선택 범위 적용: 0~16
 b. 구현값 확인 후 skip(종단27)
 - 구현값 수정 가능
 c. ①, ②항목은 중복응답 가능

D03-8) ○○(이)는 일주일에 평균 몇 번 가족과 함께 식사합니까?(외식 포함)

- ① 거의 안함
- ② 주 1~2회
- ③ 주 3~5회
- ④ 주 6~7회
- ⑤ 주 8회 이상

D03-9) ○○(이)가 지난 1년간 다음 활동에 얼마나 참여했는지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한 달은 4주 기준임
- 문화체험활동: 과학관, 천체관, 역사관, 체험관 등
- 예술감상활동: 미술관, 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 뮤지컬 관람 등

구분	① 참여 안함	② 1년에	③ 한 달에	④ 일주일 에
1) 장보기 및 쇼핑		__회	__회	__회
2) 친인척 방문		__회	__회	__회
3) 당일 여행 및 나들이		__회	__회	__회
4) 1박이상의 국내 여행(가족 또는 단체)		__회	__회	__회
5) 해외 여행 및 연수		__회	__회	__회
6) 문화체험 및 예술감상활동, 견학		__회	__회	__회
7) 종교활동(예배·예불·미사 참석, 캠프 등)		__회	__회	__회
8) 봉사활동		__회	__회	__회
9) 동아리활동(합창단, 스카우트 등)		__회	__회	__회
10) 친구와의 사교활동(친구집 방문, 놀기 등)		__회	__회	__회

a. 입력 가능 범위
 ②1년에 : 1~365 ③한달에 : 1~30 ④일주일에 : 1~7
 b. 각 행의 ②~④ 항목간에는 중복 불가

D03-10) 다음의 문장을 읽고 ○○(이)의 모습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귀하께서 각 문항에 해당하는 ○○(이)의 모습과 행동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 PC·스마트폰, 태블릿PC 등으로 게임하기, SNS 보내기, 동영상 보기, 인터넷 하기 등 미디어 기기를 이용한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PC·스마트폰 사용 문제로 가족들과 자주 싸운다	①	②	③	④
2) 평소와는 달리, PC·스마트폰을 할 때만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	①	②	③	④
3) PC·스마트폰에 빠진 이후로, 폭력(언어적, 신체적)적으로 변했다	①	②	③	④
4) 하루에 4시간 이상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서 PC·스마트폰을 한다	①	②	③	④
5) 식사나 휴식 없이 화장실도 가지 않고 PC·스마트폰을 한다	①	②	③	④
6) PC·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에 무관심하다	①	②	③	④
7) PC·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건드리면 화내거나 짜증을 낸다	①	②	③	④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하루 이상을 밤을 새우면서 PC·스마트폰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9) PC·스마트폰 사용으로 학교 성적이 떨어졌다	①	②	③	④
10) PC·스마트폰을 할 때 건드려도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밤새워서 PC·스마트폰을 하지는 않는다	①	②	③	④
12) PC·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피곤해서 수업시간에 잔다고 한다	①	②	③	④
13) PC·스마트폰을 안 할 때,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 보인다	①	②	③	④
14) 점점 더 많은 시간동안 PC·스마트폰을 사용한다	①	②	③	④
15) PC·스마트폰 사용하느라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a. 동일 번호만 선택했을 경우 경고 팝업

D03-11) 다음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아니다	다소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가 방과후에 어디에 가는지 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이)가 밤에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지 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안다	①	②	③	④

D03-12) 다음은 ○○(이)에 대한 귀하의 학업적/교육적 지원과 관련한 문항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활동을 수행하는 빈도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집안의 공부 분위기를 조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의 학교 공부와 숙제를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에게 공부방법에 대해 조언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자녀의 성적관리에 신경쓴다	①	②	③	④	⑤
5) 자녀의 진로진학을 위한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의 평소 생활을 확인하고 일정을 관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학부모들 모임에 나가거나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a. 동일 번호만 선택했을 경우 경고 팝업

D04-5) ○○(이)는 고등학교 진학 이후, 전학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전학한 적 없음 ② 전학한 적 있음

D04-6) ○○(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남녀공학_합반 ② 남녀공학_분반 ③ 남학교 혹은 여학교

D04-7) ○○(이)의 학교생활을 알기 위해 담임선생님께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아 이들의 건강한 발달과 합리적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위하여, ○○(이)의 담임선생님께 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담임선생님께서 동의하실 경우에만 조사가 진행되며, 인터넷을 통해 선생님께서 편안한 시간에 약 10분 정도의 조사가 진행됩니다.

- ① 네, 동의함
 ② 아니오, 동의하지 않음 → D04-10)으로

D04-8) ○○(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이름과 학급을 응답해 주세요.

(_____) 고등학교 (_____) 학년 (_____)반

D04-9) ○○(이) 담임 선생님 성함은 무엇입니까?

(※ 조사 후 면접원이 전해드릴 교사용 안내문 내의 정보를 이용해 담임선생님께서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실 경우 이용되지 않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교사설문 참여독려 용도로만 쓰일 예정입니다.)

담임 선생님 성함(_____)

D04-10) 다음의 ○○(이)의 학교 행사에 귀하는 올해 상반기 중 얼마나 참여하셨습니다까?

구 분	전혀 없음	1-2회	3-4회	5회 이상
1) 자녀관련 상담(학업, 생활, 진로 등)	①	②	③	④
2) 학교에서 자원봉사 활동	①	②	③	④
3) 학교 내 학부모 단체 가입 및 활동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총)회 등)	①	②	③	④
4) 부모교육프로그램(강연회, 워크숍 등)	①	②	③	④

구 분	전혀 없음	1-2회	3-4회	5회 이상
5) 다른 부모들과의 정보교류를 위한 모임/활동	①	②	③	④
6) 진학설명회	①	②	③	④
7) 기타 학교방문	①	②	③	④

D04-11) ○○(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한 만족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종류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기초능력 향상	①	②	③	④	⑤
2) 자녀수준에 맞는 교육	①	②	③	④	⑤
3) 교사들의 공정한 학생평가	①	②	③	④	⑤
4) 학교급식	①	②	③	④	⑤
5) 안전관리 교육	①	②	③	④	⑤
6)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	①	②	③	④	⑤
7) 인성지도	①	②	③	④	⑤
8) 학습에 불편함이 없는 학교시설환경	①	②	③	④	⑤
9)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	①	②	③	④	⑤

a. 동일 번호만 선택했을 경우 경고 팝업

D04-12) ○○(이)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은 어떠합니까? 성적표에 기재된 결과를 입력해 주십시오.

과목	1등급 (4% 이하)	2등급 (4% 초과~ 11% 이하)	3등급 (11% 초과~23 % 이하)	4등급 (23% 초과~ 40% 이하)	5등급 (40% 초과~ 60% 이하)	6등급 (60% 초과~ 77% 이하)	7등급 (77% 초과~ 89% 이하)	8등급 (89% 초과~ 96% 이하)	9등급 (96% 초과 ~100 %)	해당 없음
국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input type="checkbox"/>
영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input type="checkbox"/>
수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input type="checkbox"/>
한국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통합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통합과학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input type="checkbox"/>

과목	A	B	C	해당 없음
음악	①	②	③	④
미술	①	②	③	④
체육	①	②	③	④

D04-13) ○○(이)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성적은 반에서 어느 정도였습니까?

구분	매우 잘하는 수준	잘하는 수준	보통	못하는 수준	매우 못하는 수준
전과목 평균	①	②	③	④	⑤

05 다음은 ○○(이)가 이용하는 사교육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 고등학교 정규수업 이외에 추가로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 외 교육관련 서비스 이용에 대해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05-1) ○○(이)가 현재 학교 수업 이외의 교육을 받는 기관 및 매체를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방학 중에 조사하는 경우, 학기 중 한 달간을 기준으로 함.

〈학원〉

- 학원(단과반, 종합반)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과외의 참여 여부/시간/비용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종합반(연합반)의 경우, 시간과 비용은 전체 비용이 아닌 과목별로 나눈 것을 적어주십시오.
- 동일 과목에 대해 학원을 두 곳 이상 다니는 경우 합산하여 적어주십시오.
- 사교육 비용: 교재비 등을 제외하고 교육비 목적으로만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과외〉

- 과외(개인/그룹 과외)의 모든 교과외의 참여 여부/시간/비용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동일 과목에 대해 두 가지 이상 과외(개인/그룹 과외)를 하는 경우 합산하여 적어주십시오.
- 사교육 비용: 교재비 등을 제외하고 교육비 목적으로만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학습지〉, 〈인터넷/화상강의〉

- EBS 교육방송 강의 관련한 내용은 제외해 주십시오.
- 학습지 과외의 모든 교과외의 참여 여부/시간/비용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사교육 비용: 교재비 등을 제외하고 교육비 목적으로만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구 분	이용 안함	학원	가정내 개인/그룹 지도 (과외)	학습지 (방문 교사)	인터넷 /화상 강의	교내 방과후 학교	청소년 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 기관
1) 국어	①	②	③	④	⑤	⑥	⑧
2) 논술	①	②	③	④	⑤	⑥	⑧
3) 영어	①	②	③	④	⑤	⑥	⑧
4) 수학	①	②	③	④	⑤	⑥	⑧
5)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⑧
6) 과학	①	②	③	④	⑤	⑥	⑧
7) 음악	①	②	③	④	⑤	⑥	⑧
8) 미술	①	②	③	④	⑤	⑥	⑧
9) 체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⑧
10) 컴퓨터, 코딩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⑧
11) 기타1 ()	①	②	③	④	⑤	⑥	⑧
12) 기타2 ()	①	②	③	④	⑤	⑥	⑧
13) 기타3 ()	①	②	③	④	⑤	⑥	⑧

a. 같은 행에서 ①은 다른 응답과 중복 불가
 b. ②~⑧에 한가지라도 선택된 항목만, D05-2~D05-6 구현
 c. 1)~13)에 모두 ①로 응답된 경우, Go D06-1

* 다음은 ○○(이)가 현재 이용하는 사교육 기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내용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05-2) 학원

D05-3) 가정내 개인/그룹지도(과외)

D05-4) 학습지(방문교사)

D05-5) 인터넷/화상강의

D05-6) 기타(교내 방과후학교, 청소년수련관, 도서관 등 공공기관)

구분	이용시간 (1주일 기준)	사교육비용 (1개월 기준)
1) 국어	일주일 총()시간	월평균 총()만원
2) 논술	일주일 총()시간	월평균 총()만원
3) 영어	일주일 총()시간	월평균 총()만원
4) 수학	일주일 총()시간	월평균 총()만원
5) 사회	일주일 총()시간	월평균 총()만원
6) 과학	일주일 총()시간	월평균 총()만원

구분	이용시간 (1주일 기준)	사교육비용 (1개월 기준)
7) 음악	일주일 총()시간	월평균 총()만원
8) 미술	일주일 총()시간	월평균 총()만원
9) 체육	일주일 총()시간	월평균 총()만원
10) 컴퓨터, 코딩 등	일주일 총()시간	월평균 총()만원
11) 기타1	일주일 총()시간	월평균 총()만원
12) 기타2	일주일 총()시간	월평균 총()만원
13) 기타3	일주일 총()시간	월평균 총()만원

a. 입력범위
 - 시간: 0.5~30
 - 비용: 0~500
 b. D05-1 응답값에 따라 해당하는 과목/서비스 반복

D05-7) ○(이)가 현재 이용하는 사교육서비스에 지출되는 총 비용에 대해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십니까?

- ① 전혀 부담되지 않음
- ② 부담되지 않는 편임
- ③ 적당함
- ④ 부담되는 편임
- ⑤ 매우 부담됨

D05-8) ○○(이)가 현재 이용하는 사교육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 ③ 보통임
- ④ 대체로 만족함
- ⑤ 매우 만족함

D05-9) ○○(이)가 사교육을 받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순위 필수 선택)

1순위 2순위

- ① 진학준비(대입 등 준비)
- ② 불안심리(남들이 다 하는데 안하면 성적이 떨어질까봐, 대부분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므로 등)

- ③ 선행학습(학교수업을 받는데 유리해서 등)
- ④ 학교수업 보충(학교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혼자서 공부하기 힘들어서 등)
- ⑤ 자녀 감독 (혼자 있거나, 집에 있는 경우 무엇을 하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 ⑥ 취미·교양·재능개발
- ⑦ 기타(적을 것 : _____)

D05-10) OO(이)가 구매하는 교재비는 월평균 얼마입니까? (사교육 및 개인학습을 위한 문제집 포함)

월 평균 교재비()만원

a. 입력범위 0~200

06 다음은 지역사회 및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D06-1) 귀하가 살고 계시는 동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동을 양육하는데 있어 다음의 각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해당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

'귀하가 살고 계시는 동네'는 '걸어갈 수 있는 범위 내'를 의미함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임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잘 모름
1) 술 취한 사람이나 싸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아동성폭행, 강도, 절도 등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유해시설(유흥가, 유흥가 등)로부터 떨어져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경찰이나 방범대원들이 정기적으로 순찰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분위기가	①	②	③	④	⑤	⑥
6)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동네 사람들은 바로 잡아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각종 시설물 설치나 재해 방지 시설이 잘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각종 사고(교통사고, 화재, 추락 등)에 대비한 안전 설비가 잘 구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a. 동일 번호만 선택했을 경우 경고 팝업

D06-2) 다음은 귀하가 현재 살고 계시는 곳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의 각 시설에 관해 응답해 주십시오.

종류	거리상 접근 편리성					이용 만족도				
	① 매우 불편함	② 불편한 편임	③ 보통임	④ 편리한 편임	⑤ 매우 편리함	① 이용 안함	② 전혀 만족하지 않음	③ 거의 만족하지 않음	④ 보통임	⑤ 대체로 만족함
1) 공간시설 (놀이터, 공원, 산책로, 놀이공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체육시설 (체육관, 수영장, 농구장, 축구장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문화시설 (영화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천체관, 수족관, 동식물원, 공연시설, 도서관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의료시설 (보건소, 병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교육시설 (학교, 학원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사회 복지 시설 (가족센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관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 동일 번호만 선택했을 경우 경고 팝업

D06-3) 현재 귀 닻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며, 부양받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를 의미함.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만 받아도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 해당됨.

-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해당없음
- ④ 잘 모름
- ⑤ 무응답

D06-4) OO(이)이는 지난 1년간 아래 제도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교육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중위소득 50%이하 초중고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로 지급)를 지급.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생의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지급
- 교육비 지원 사업
시도교육청의 재량사업으로 시도별 상이하나, 통상 중위소득 50~80%이하 초중고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인터넷 등을 지원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중1~고3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 학생 중 우수학생 등에게 월25~45만원의 장학금(학교급, 유형별 차등) 지급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아동에게 아동이 계좌에 일정금액 적립시 국가가 이에 매칭하여 적립금을 제공하는 사업. 기 가입자 중 탈시설, 탈수급한 일반가구의 아동에게도 계속 지원함

종류	지원경험 있음	지원경험 없음	잘 모름	무응답
1) 교육급여	①	②	③	④
2) 교육비 지원사업	①	②	③	④
2)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①	②	③	④
3)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	①	②	③	④

D06-5) 2023년 6월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교육을 황폐화 시키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2023년 6월 발표)이 사교육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효과가 없다	별로 효과가 없다	보통	약간 효과가 있다	매우 효과가 있다.
1) 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 평가	①	②	③	④	⑤
2) 사교육 담합(카르텔)·부조리 근절	①	②	③	④	⑤
3) 대입수시 공정성 및 공교육 입시컨설팅 강화	①	②	③	④	⑤
4) 중·고등학교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①	②	③	④	⑤
5) 초등단계 국가 책임 교육·돌봄 강화(늘봄학교, 방과후과정 확대 등)	①	②	③	④	⑤
6) 유아 공교육 강화(이음학기 운영, 유보통합 등)	①	②	③	④	⑤

〈사교육 경감대책〉(2023년 6월 발표) 주요내용)		
구분	주요 과제	달라지는 모습
[1] 수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배제 · (중기) 학교교육 본질에 부합하는 수능 출제로 개선 	→ 공정한 수능 평가
[2] 사교육 카르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신고) 신고센터 설치 및 집중신고기간 · (법정부 대응)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안 엄정 대응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근절
[3] 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수시 공정성) 대학별고사·내신 교육과정 내 평가 · (공교육 입시컨설팅) 공공컨설팅·대입정보 제공 강화 	→ 공정한 입시체제 구축
[4] 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주도학습) EBS 단추* 개선·수준별 강좌 확대 * 단추(단계적 추천 시스템): 국어·영어·수학 등 과목별·학교급별로 적정 EBS 강좌 추천 · (교과보충) 공교육 내 교과 보충지도 · (지자체·민간 연계) 학습지원 서비스 활성화 	→ 모두가 누리는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5] 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늘봄학교 확대·자격 및 재정지원 확대 · (체육·예술) 방과후과정 확대·시설 확충·대학 및 민간 참여 활성화 · (교과 사교육) 디지털 새싹캠프·신규 사교육 점검 · (제도 개선) 방과후 지원대상 확대·업체위탁 점검 	→ 다양한 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국가책임 교육·돌봄
[6] 유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이음학기 운영·방과후 과정 및 돌봄 확대 · (중장기) 유보통합 연계·3~5세 교육과정 개정 · (제도 개선) 유아 사교육비 조사 신설 	→ 학부모 수요를 만족시키는 유아 공교육

D06-6) 귀하는 고교학점제의 정책방향에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고교학점제 :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2022년 특성화고 도입 및 전체 일반계고에 대한 제도 부분도입을 거쳐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 본격 시행될 예정임.

-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여 수업을 듣고,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을 이수하는 제도임
- 기존에는 학생이 성취한 등급에 상관없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이 목표한 성취 수준에 충분히 도달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과목 이수를 인정함.
- 고교학점제는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졸업하는 제도로, 기존 고등학교에서는 출석 일수로 졸업 여부를 결정하였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누적된 과목 이수 학점이 졸업 기준에 이르렀을 때 졸업이 가능함.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잘 모르겠음
①	②	③	④	⑤	⑥

◎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5. 17차년도(2024년 조사) 어머니 질문지



0316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www.gallup.co.kr

T 02-3702-2100
F 02-3702-2121

GALLUP
INTERNATIONAL

한국아동패널 2024 (어머니용)

--	--	--	--	--	--

본 질문지는 2008년 4~7월 사이에 출생하여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이와 가족에 관한 것으로, 아이의 어머니께서 응답하시는 질문지입니다.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식구 중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경우,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본 질문지의 응답은 배우자와 서로 상의·공유하지 마시고,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지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15분가량 소요됩니다.

2024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4년 7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 오창엽
담당연구원 김중서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아동 이름	_____
질문지 작성일	월 일
질문지 작성자	① 어머니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조사종료
조사 방법 (조사원 기입 사항)	① 미참여 ① 유치조사(조사원 수거) ② 우편 조사

01 다음은 귀하의 평소의 느낌이나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요.

문 항 내 용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 보통이다 →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1) 전반적으로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매우 행복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행복하다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3)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매우 그렇다	← 보통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4)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하다.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보인다.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 귀하는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함
- ②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 ③ 보통임
- ④ 만족하는 편임
- ⑤ 매우 만족함

문3) 귀하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 ① 전혀 받지 않음
- ② 별로 받지 않음
- ③ 약간 받음
- ④ 많이 받음

문4)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5)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 부부에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남편(배우자)은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남편(배우자)은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남편(배우자)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5)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남편(배우자)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떨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6) 아래의 각 문항에서 귀하의 가족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 '③ 잘 모르겠다'는 '보통'으로 이해하고 응답해 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서로 애정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가족은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문제가 있을 때 침착하게 함께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가족은 생각이나 신념을 서로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화가 났을 때,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게 감정표현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7) 다음의 각 문장을 읽고, 귀하의 생각이나 느낌, 행동에 가장 가까운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아이가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2) 선생님이 아이를 차별대우할까봐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교에서 좋지 않은 친구를 사귀지 않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서 나쁜 행동이나 욕을 배울까 우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충분한 애정을 갖고 있는지 염려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아이를 소신껏 교육시키면서도,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비교될 때는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8) 아이의 적성을 잘 찾아줄 수 있을지 걱정된다	①	②	③	④	⑤
9) 학부모 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 심리가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0) 학교 선생님과 나의 교육관이 달라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사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답답하다	①	②	③	④	⑤
12) 소신 있는 교육관을 갖는다지만 흔들릴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내가 부모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학교 행사에 학부모가 동원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6) 아이의 학업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아이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02 다음은 귀하의 일상생활과 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8)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건강하지 않음
- ② 건강하지 않은 편임
- ③ 보통임
- ④ 건강한 편임
- ⑤ 매우 건강함

문12) 다음은 귀하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하에게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미디어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미디어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3) 적절한 스마트미디어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미디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미디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7) 스마트미디어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미디어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스마트미디어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스마트미디어 때문에 업무(학업 혹은 직업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03 다음은 귀하의 취업 및 직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3) 현재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도 취업 중에 해당함.
-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또는 가족/친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일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 중에 해당함.
-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의 경우 시간제약은 없으나 취업 중에 해당함.

- ① 취업 중(휴직 중 포함) → 문14)로 갈 것
- ② 학업 중(휴학 중 포함) → 조사종료
- ③ 취업/학업 병행 중 → 문14)로 갈 것
- ④ 미취업/미학업 → 조사종료

문14) 현재 귀하는 휴직 중이십니까?

- ① 아니오
② 예(휴직 중)

다음은 귀하의 현재 주된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5) 귀하의 현재 주된 일자리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아래의 분류에서 골라주십시오.

직업명	직업예시
① 관리자	업무의 80%이상을 기획, 관리 분야에 투입하는 일 -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단체 또는 기업의 경영자, 고위임원, 관리자, 공동주택 관리자 등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교수, 교사, IT 및 각종 기술 전문가, 학원강사, 예술인, 모델, 작가, 연예인, 매니저, 운동선수, 종교인, 해외영업원, 기술영업원, 부동산중개사, 프로그래머, 레크레이션 강사,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놀이 및 행동치료사, 요리 연구가 등
③ 사무 종사자	- (중하위직)공무원, 문서/통계/영업지원/전산/회계/홍보 등의 사무원 및 사무보조원, 비서, 접수/발권/전화교환 등 안내직,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속기사, 대학 행정 조교, 증권 사무원, 의료 서비스 상담 종사원 등
④ 서비스 종사자	- 여행(승무원, 여행안내원)/음식·조리(주방장, 조리사)/미용(코디네이터, 분장사) /기타(웨딩플래너 등) 등 각종 대인서비스 - 경찰관 및 수사관, 소방관, 교도관, 청원경찰, 경호원 등 보안관련 서비스 - 요양 보호사,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보육 관련 시설 서비스 종사원, 반려동물 훈련사, 문화 관광 및 숲·자연환경 해설사 등
⑤ 판매 종사자	- 대금수납/매표/요금정산원, 보험설계사, 제품/광고 영업원, 매장판매직,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등 - 소규모 상점 경영자, 소규모 상점 일선 관리 종사원 등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농업 숙련 종사자, 임업 숙련 종사자, 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건설·금속·기계·세공·음식료·선박·자동차 등 각종 기능종사자 또는 물품 제조원 등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장치·기계조작·조립원/각종 차량 운전원(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등
⑨ 단순노무종사자	- 간이음식점 조리사, 건설단순노무, 건물관리/경비, 건물청소, 배달, 주유원, 단순 조립원, 포장원, 제품운반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등 단순노무
⑩ 군인	- 직업군인(장기 부사관 및 준위 등)

문16) 귀하의 현재 주된 일자리 기준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 ① 상용직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② 임시직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
- ③ 일용직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인 경우)
- ④ 종업원을 둔 고용주
-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⑥ 무급 가족 종사자 (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정규적인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 근무자)

문17) 귀하의 현재 주된 일자리 기준, 최근 일주일의 주당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 점심시간, 휴게시간 등을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ex)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 휴가 등 특수상황이 발생하셨을 경우, 그 전 일주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일주일 ()시간

문18) 귀하는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 ③ 보통임
- ④ 대체로 만족함
- ⑤ 매우 만족함

다음은 최근 3개월 간 귀하의 전반적인 근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9) 최근 3개월 기준, 귀하의 평균 근무 일수, 근무 시간, 왕복 출퇴근 시간을 응답해 주십시오.

- 업무성 회식 및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ex)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일 평균 '9시간' 근무입니다.
- 직장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총 합산 시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주중(월~금)	주말(토, 일)
1) 근무 일수	()일 근무 * 0~5일 중에서 기재해 주세요. * 4.5일 등 0.5일 단위로도 응답 가능합니다.	① 주말 근무 안함 ② 주말 격주 근무 ③ 매 주말 1일 근무 ④ 매 주말 2일 근무
2) 근무 시간	1일 평균 ()시간 근무	1일 평균 ()시간 근무 * 주말 근무자만 기재해 주세요.
3) 왕복 출퇴근 시간	1일 평균 왕복 ()시간 ()분 소요	1일 평균 왕복 ()시간 ()분 소요 * 주말 근무자만 기재해 주세요.

문20) 최근 3개월 기준, 귀하의 월 평균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은 얼마입니까? 실수령액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일을 통해 발생한 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모두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월 평균 어머니의 실수령 근로소득 ()만원

빠진 문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록 6. 17차년도(2024년 조사) 아버지 질문지



0316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www.gallup.co.kr

T 02-3702-2100
F 02-3702-2121

GALLUP
INTERNATIONAL

한국아동패널 2024 (어머니용)

--	--	--	--	--	--	--	--

본 질문지는 2008년 4~7월 사이에 출생하여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한 아이와 가족에 관한 것으로, 아이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질문지입니다. 사별, 이혼 등의 이유로 식구 중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경우,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본 질문지의 응답은 배우자와 서로 상의·공유하지 마시고,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응답하는 데에는 약 15분가량 소요됩니다.

2024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4년 7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 오창엽
담당연구원 김종서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아동 이름	
질문지 작성일	월 일
질문지 작성자	① 아버지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조사종료
조사 방법 (조사원 기입 사항)	① 미참여 ① 유치조사(조사원 수거) ② 우편 조사

01 다음은 귀하의 평소의 느낌이나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 보통이다 →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1) 전반적으로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매우 행복하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행복하다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3)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 항 내 용	매우 그렇다	← 보통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4) 어떤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하다.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게 보인다. 나는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문2) 귀하는 현재의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못함
- ② 만족하지 못하는 편임
- ③ 보통임
- ④ 만족하는 편임
- ⑤ 매우 만족함

문3) 귀하는 평소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습니까?

- ① 전혀 받지 않음
- ② 별로 받지 않음
- ③ 약간 받음
- ④ 많이 받음

문4)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동의하시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대체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대체로 나 자신에게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9) 가끔씩 내가 쓸모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0) 때때로 내가 무익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5) 다음은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 부부에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시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들추면서 싸운다	①	②	③	④	⑤	⑨
2) 아내(배우자)는 내 생각이나 기분,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난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⑨
3) 아내(배우자)는 내 생각과 말을 내가 의도한 것보다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⑨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4) 아내(배우자)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내 진짜 생각과 느낌 혹은 우리 관계에 대한 요구를 아내(배우자)에게 말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다른 사람과 사귀거나 결혼하면 어떻게 하고 심각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는 지금 결혼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6) 아래의 각 문항에서 귀하의 가족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 ‘③ 잘 모르겠다’는 ‘보통’으로 이해하고 응답해 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가족은 서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가족은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가족은 서로 애정을 표현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 가족은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우리 가족은 문제가 있을 때 침착하게 함께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우리 가족은 생각이나 신념을 서로 의논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솔직한 대답을 들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우리 가족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화가 났을 때, 우리 가족은 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우리 가족은 서로 솔직하게 감정표현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12) 다음은 귀하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하에게 해당되는 보기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미디어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미디어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3) 적절한 스마트미디어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미디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미디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미디어를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7) 스마트미디어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미디어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스마트미디어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스마트미디어 때문에 업무(학업 혹은 직업 등)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03 다음은 귀하의 취업 및 직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3) 현재 귀하의 취업/학업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타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로 잠시 휴직 중인 경우도 취업 중에 해당함.
-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또는 가족/친지가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일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 중에 해당함.
-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의 경우 시간제약은 없으나 취업 중에 해당함.

- ① 취업 중(휴직 중 포함) → 문14)로 갈 것
- ② 학업 중(휴학 중 포함) → 조사종료
- ③ 취업/학업 병행 중 → 문14)로 갈 것
- ④ 미취업/미학업 → 조사종료

문14) 현재 귀하는 휴직 중이십니까?

- ① 아니오
② 예(휴직 중)

다음은 귀하의 현재 주된 일자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5) 귀하의 현재 주된 일자리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아래의 분류에서 골라주십시오.

직업명	직업예시
① 관리자	업무의 80%이상을 기획, 관리 분야에 투입하는 일 -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단체 또는 기업의 경영자, 고위임원, 관리자, 공동주택 관리자 등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교수, 교사, IT 및 각종 기술 전문가, 학원강사, 예술인, 모델, 작가, 연예인, 매니저, 운동선수, 종교인, 해외영업원, 기술영업원, 부동산중개사, 프로그래머, 레크레이션 강사, 산업 특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놀이 및 행동치료사, 요리 연구가 등
③ 사무 종사자	- (중하위직)공무원, 문서/통계/영업지원/전산/회계/홍보 등의 사무원 및 사무보조원, 비서, 접수/발권/전화교환 등 안내직, 고객상담 및 모니터요원, 속기사, 대학 행정 조교, 증권 사무원, 의료 서비스 상담 종사원 등
④ 서비스 종사자	- 여행(승무원, 여행안내원)/음식·조리(주방장, 조리사)/미용(코디네이터, 분장사) /기타(웨딩플래너 등) 등 각종 대인서비스 - 경찰관 및 수사관, 소방관, 교도관, 청원경찰, 경호원 등 보안관련 서비스 - 요양 보호사,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보육 관련 시설 서비스 종사원, 반려동물 훈련사, 문화 관광 및 숲·자연환경 해설사 등
⑤ 판매 종사자	- 대금수납/매포/요금정산원, 보험설계사, 제품/광고 영업원, 매장판매직,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홍보도우미 및 판촉원 등 - 소규모 상점 경영자, 소규모 상점 일선 관리 종사원 등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농업 숙련 종사자, 임업 숙련 종사자, 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건설·금속·기계·세공·음식료·선박·자동차 등 각종 기능종사자 또는 물품제조원 등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장치·기계조작·조립원/각종 차량 운전원(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등
⑨ 단순노무종사자	- 간이음식점 조리사, 건설단순노무, 건물관리/경비, 건물청소, 배달, 주유원, 단순 조립원, 포장원, 제품운반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등 단순노무
⑩ 군인	- 직업군인(장기 부사관 및 준위 등)

문16) 귀하의 현재 주된 일자리 기준 종사상 지위는 어떻습니까?

- ① 상용직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이나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경우)
- ② 임시직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한 경우)
- ③ 일용직 (1개월 미만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일당제 급여인 경우)
- ④ 종업원을 둔 고용주
- ⑤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
- ⑥ 무급 가족 종사자 (혈연관계인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정규적인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 근무자)

문17) 귀하의 현재 주된 일자리 기준, 최근 일주일의 주당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 점심시간, 휴게시간 등을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ex)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 주당 근로시간 40시간
- 휴가 등 특수상황이 발생하셨을 경우, 그 전 일주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일주일 ()시간

문18) 귀하는 자신의 주된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음
- ② 대체로 만족하지 않음
- ③ 보통임
- ④ 대체로 만족함
- ⑤ 매우 만족함

다음은 최근 3개월 간 귀하의 전반적인 근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19) 최근 3개월 기준, 귀하의 평균 근무 일수, 근무 시간, 왕복 출퇴근 시간을 응답해 주십시오.

- 업무성 회식 및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ex)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일 평균 '9시간' 근무입니다.
- 직장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총 합산 시간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주중(월~금)	주말(토, 일)
1) 근무 일수	()일 근무 * 0~5일 중에서 기재해 주세요. * 4.5일 등 0.5일 단위로도 응답 가능합니다.	① 주말 근무 포함 ② 주말 격주 근무 ③ 매 주말 1일 근무 ④ 매 주말 2일 근무
2) 근무 시간	1일 평균 ()시간 근무	1일 평균 ()시간 근무 * 주말 근무자만 기재해 주세요.
3) 왕복 출퇴근 시간	1일 평균 왕복 ()시간 ()분 소요	1일 평균 왕복 ()시간 ()분 소요 * 주말 근무자만 기재해 주세요.

문20) 최근 3개월 기준, 귀하의 월 평균 근로소득(사업소득 포함)은 얼마입니까? 실수령액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일을 통해 발생한 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모두 합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월 평균 아버지의 실수령 근로소득 ()만원

빠진 문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록 7. 17차년도(2024년 조사) 학교(담임교사) 질문지



0316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T 02-3702-2100 GALLUP
www.gallup.co.kr F 02-3702-2121 INTERNATIONAL

한국아동패널 2024 (담임교사용) Gallup
2023-211-019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면접원 ○○○입니다.

저희는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매년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의하여 철저히 보호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7월

육아정책연구소/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4년 7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장 오창엽
담당연구원 김중서
전화 02-3702-2612

다음은 패널아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SQ1. 학생 이름을 적어주십시오.
()

SQ2. 학생의 학년/반
()학년 ()반

SQ3. 학생 생년월일
2008년 ()월 ()일

다음은 선생님께서 근무중이신 학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L01-1) 현재 근무하고 계신 학교의 규모는 어떠합니까?

- ① 학급 수: ()학년 총 ()학급 *패널아동이 소속된 학년의 총 학급 수
 ② 담임 학급 학생 수: 남학생 ()명, 여학생 ()명 총 ()명

L01-2) 다음 항목에 대하여 귀교 교사의 전반적인 특성은 어떠합니까?

문항내용	매우 낮다	낮다	높다	매우 높다
1) 열심히 가르치려는 의지	①	②	③	④
2) 교사들 간의 신뢰와 협력	①	②	③	④
3) 학교 제반 문제에 대한 자유로운 건의	①	②	③	④
4) 학생의 생활지도를 위한 노력	①	②	③	④

L01-3) 다음 항목에 대하여 귀교 학생의 전반적인 특성은 어떠합니까?

문항내용	매우 낮다	낮다	높다	매우 높다
1) 학교에 대한 자부심	①	②	③	④
2) 선생님에 대한 예의 바른 태도	①	②	③	④
3) 학교생활을 잘 하려는 의지	①	②	③	④
4) 학업성취를 높이고자 하는 의지	①	②	③	④
5) 학교 시설을 아끼려는 마음	①	②	③	④

L01-4) 다음 항목에 대하여 귀교 학부모의 전반적인 특성은 어떠합니까?

문항내용	매우 낮다	낮다	높다	매우 높다
1) 자녀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학부모의 요구	①	②	③	④
2) 자녀의 학업성취에 대한 학부모의 지원	①	②	③	④
3) 학교 교육 활동 및 행사에 대한 참여 및 지원	①	②	③	④

L01-5) 다음 각 질문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해 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문제(일탈)행동이 자주 발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문제(일탈)행동을 지도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L01-6)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의 환경에 대해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매우 나쁘다	나쁜 편이다	보통이다	좋은 편이다	매우 좋다
1) (학교) 전반적인 건물상태	①	②	③	④	⑤
2) 기자재 및 시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주변환경	①	②	③	④	⑤
4) 학생들의 통학 조건(교통 편의성)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L02-1) 선생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 ② 남

L02-2) 선생님은 올해 육아휴직, 군경력을 제외한 교사경력 몇년 차이십니까?

총 ()년차 / 육아휴직, 군경력 제외, 교육경력만

L02-3)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교과(군)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국어 ② 영어 ③ 수학
 ④ 사회 ⑤ 과학 ⑥ 한국사
 ⑦ 기술/가정 ⑧ 체육 ⑨ 예술
 ⑩ 한문 ⑪ 제2외국어 ⑫ 교양
 ⑬ 기타 ()

L02-4) 선생님께서는 아래의 각 영역(업무)에 대하여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십니까?

문항내용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보통이다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1) 학부모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2) 생활지도	①	②	③	④	⑤
3) 수업지도	①	②	③	④	⑤
4) 행정업무	①	②	③	④	⑤

L02-5) 다음은 교사로서의 특성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 선생님께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을 때 왜 그렇지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들의 학업 능력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교과내용에 따라 수업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유를 분석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생활지도를 할 때 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을 보면 내가 지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들에게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인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L03-1) 다음 질문에 대해 선생님께서 동의하는 정도에 체크해 주세요.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이)와 학업성취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이)가 학업에 대한 열의가 높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 나는 ○○(이)가 교우관계가 원만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이)가 학교의 질서·규칙을 잘 준수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이)가 인성이 바르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이)의 체력평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L04-1) 지금부터 나이스(NEIS)의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에 입력된 ○○(이)의 건강체력평가 결과를 응답받고자합니다. 현재 나이스(NEIS)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의 유형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이)의 PAPS 기록 없음 → 조사종료
- ② ○○(이)의 PAPS 점수 및 등급을 모두 볼 수 있음 → L04-2-1)로 이동
- ③ ○○(이)의 PAPS 점수만 볼 수 있음 → L04-2-1)로 이동
- ④ ○○(이)의 PAPS 등급만 볼 수 있음 → L04-2-2)로 이동

L04-2-1)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에 입력된 ○○(이)의 건강체력평가 결과를 입력해 주십시오. [해당 문항은 나이스(NEIS) 기록 확인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력평가	
전체점수	()점

L04-2-2)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PAPS)에 입력된 ○○(이)의 건강체력평가 결과를 입력해 주십시오. [해당 문항은 나이스(NEIS) 기록 확인후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력평가	
전체등급	① 1등급 ② 2등급 ③ 3등급 ④ 4등급 ⑤ 5등급

빠진 문항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응답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소중한 자료로 사용하겠습니다.

부록 8. 17차년도(2024년 조사) 유예 및 회고조사 질문지

가. 유예조사

1) 귀 가구의 총 가구원 수와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 떨어져 살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는 가구 구성원으로 응답 (예: 주말 부부,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 등은 가구 구성원에 포함함. 단, 떨어져 산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해당 가족의 가계 지출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는 가구구성원에 포함하지 않음)
- * 떨어져 살면서 생계가 분리된 경우는 제외 (예: 매달 생활비를 보내더라도 따로 사는 조부모 등)
- * 함께 살고 있더라도 가족이 아닌 경우는 제외 (예: 입주 도우미 등)

	▶ 총 가구원 수 (_____)명
1-1) 총 자녀수	남 (____) 명, 여 (____) 명 / 총 (____)
1-2) ○○(이)의 출생순위	(_____)
1-3) ○○(이)의 부모	① 어머니 ② 아버지
1-4) ○○(이)의 할아버지, 할머니	① 친할아버지 ② 친할머니 ③ 외할아버지 ④ 외할머니
1-5) ○○(이)의 친인척, ○○(이)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조카, 증조부모 포함	(_____) 명
1-6) 기타 (적을 것 : _____)	(_____) 명

2) 앞으로 1년간 이사계획이 있으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3) 올해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보호자, 부모가) 너무 바빠 시간이 안 나서
 ② 조사내용, 소요시간, 조사기간 등으로 조사가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③ ○○(이)가 학업으로 바빠서
 ④ ○○(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⑤ ○○(이)가 원하지 않아서
 ⑥ (○○(이)가 아닌) 다른 가구원이 아파서
 ⑦ 가정 경제의 어려움으로 조사참여가 꺼려져서
 ⑧ 가정불화 등으로 조사참여가 어려워서
 ⑨ 외국 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어서
 ⑩ 기타 (입력 : _____)

4) ○○(이)는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까?

*대안학교 포함

① 예 --> 4-1)로 이동

② 아니오 --> 조사 종료

4-1) ○○(이)의 소속 학교와 학년은 어떠합니까?

() 학교 () 학년

나. 회고조사

1) 귀하가 마지막으로 조사에 참여한 연도는 0000년입니다.

2) 한국아동패널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보호자, 부모가) 너무 바빠 시간이 안 나서
- ② 조사내용, 소요시간, 조사기간 등으로 조사가 부담스럽게 느껴져서
- ③ ○○(이)가 학업으로 바빠서
- ④ ○○(이)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 ⑤ ○○(이)가 원하지 않아서
- ⑥ (○○(이)가 아닌) 다른 가구원이 아파서
- ⑦ 가정 경제의 어려움으로 조사참여가 꺼려져서
- ⑧ 가정불화 등으로 조사참여가 어려워서
- ⑨ 외국 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게 되어서
- ⑩ 이사, 연락처 변경 등으로 연락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 ⑪ 기타(적을 것 : _____)

3) 2015년 초등입학 시기 이후 ○○(이)가 학교에 다니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 ① 계속 학교에 다녔다(대안학교 포함) --> 조사 종료
- ② 학교에 다니지 않은 적이 있었다 --> 4)로 이동

4) ○○(이)가 학교에 다니지 않은 때는 언제입니까? 학교에 다니지 않은 시기별로 그 이유 및 학교 대신 이용한 기관을 응답해주시시오.

문항	4-1) 학교에 다니지 않은 시기	4-2) 학교에 다니지 않은 이유	4-3) 학교 대신 이용한 기관
1	()년 ()월 ~ ()년 ()월	① 학교부적응(학업 부진, 대인관계, 교칙 압박 등) 때문에 ② 학교폭력(폭력, 금품갈취 등) 때문에 ③ 해외 출국(유학, 연수, 이민, 파견 동행 등) 때문에 ④ 부모의 교육철학(학원, 홈스쿨링 등) 때문에 ⑤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⑥ 질병 때문에 ⑦ 기타(적을 것 : _____)	① 이용한 기관 없음 ② 학원 ③ 홈스쿨링 ④ 기타 기관 (적을 것 : _____)
2	()년 ()월 ~ ()년 ()월	① 학교부적응(학업 부진, 대인관계, 교칙 압박 등) 때문에 ② 학교폭력(폭력, 금품갈취 등) 때문에 ③ 해외 출국(유학, 연수, 이민, 파견 동행 등) 때문에 ④ 부모의 교육철학(학원, 홈스쿨링 등) 때문에 ⑤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⑥ 질병 때문에 ⑦ 기타(적을 것 : _____)	① 이용한 기관 없음 ② 학원 ③ 홈스쿨링 ④ 기타 기관 (적을 것 : _____)
3	()년 ()월 ~ ()년 ()월	① 학교부적응(학업 부진, 대인관계, 교칙 압박 등) 때문에 ② 학교폭력(폭력, 금품갈취 등) 때문에 ③ 해외 출국(유학, 연수, 이민, 파견 동행 등) 때문에 ④ 부모의 교육철학(학원, 홈스쿨링 등) 때문에 ⑤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⑥ 질병 때문에 ⑦ 기타(적을 것 : _____)	① 이용한 기관 없음 ② 학원 ③ 홈스쿨링 ④ 기타 기관 (적을 것 : _____)

한국아동 성장발달 종단연구 2025
(한국아동패널 II)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ISBN 979-11-6865-137-1